용인시사총서 11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2002

용 인 시 · 용 인 문 화 원
용 인 시 사 편 찬 위 원 회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백

여

용인시사총서 11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차용걸, 엄익성, 백종오, 양정석

2002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백 연

차 례

사진차례
도면차례

1. 조사의 개요 13
(1) 처인성 주변 지표조사의 필요성 13
(2) 조사단의 구성 13

2. 처인성 주변지역의 역사적 배경 15

3. 처인성 주변지역의 지표조사 연혁 19

4. 조사내용 25

5. 맺음말 155

도 면
사 진

도면차례

[도면 1]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 · ②) ····· 27
[도면 2]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⑧) ····· 29
[도면 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④) ····· 31
[도면 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⑤) ····· 32
[도면 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3 (①~④) ····· 35
[도면 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토기류 (①~⑨) ····· 37
[도면 7]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전돌 (① · ②) ····· 38
[도면 8]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41
[도면 9]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 43
[도면 10]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⑤) ····· 44
[도면 11]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1 (①~⑳) ····· 47
[도면 12]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2 (①~⑥) ····· 50
[도면 13]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3 (①~⑨) ····· 52
[도면 14]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4 (①~⑬) ····· 55
[도면 15]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 57
[도면 16]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 58
[도면 17]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⑨) ····· 60
[도면 18]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 64
[도면 19]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⑦) ····· 65
[도면 20] 창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 68
[도면 21] 창2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⑩:토기류, ⑪:자기류) ····· 71
[도면 22] 창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 73
[도면 23]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⑬) ····· 77
[도면 24]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⑫:토기류, ⑬⑭:자기류) ··· 79
[도면 25]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⑮:토기류, ⑯:자기류) ····· 83
[도면 26] 봉명리 유적 채집 숫돌 · 무문토기류 (①:숫돌, ②~⑦:무문토기류) ····· 86

[도면 27] 봉무리 남산봉 유적 채집 토기류 (①~③) ····· 88
[도면 28]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90
[도면 29]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자기류 (①~⑦) ····· 92
[도면 30]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 · ②) ····· 93
[도면 31]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④) ····· 95
[도면 32]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⑧) ····· 97
[도면 33]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③) ····· 99
[도면 34]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자기류 1 (①~⑥) ····· 101
[도면 35]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2 (①~⑧) ····· 102
[도면 36]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⑥) ····· 104
[도면 37]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⑤) ····· 106
[도면 38]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④) ····· 107
[도면 39]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⑥) ····· 110
[도면 40] 완장리 매룡동 도기요지 채집도자류 (①~⑥) ····· 112
[도면 41]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자기류 1 (①~⑧) ····· 116
[도면 42]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토기류 (①~④) ····· 117
[도면 43]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자기류 (①~⑥) ····· 120
[도면 44]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⑦) ····· 123
[도면 45]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기와 · 토기류 (①~④) ····· 130
[도면 46]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⑧) ····· 132
[도면 47]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⑦) ····· 133
[도면 48] 서리 상반 하계골 요지 채집 유물 (①~⑦) ····· 135
[도면 49]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유물 (①~⑥) ····· 138
[도면 50]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유물 (①~⑥) ····· 142
[도면 51]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 · 기와류 (①~⑥) ····· 145
[도면 52]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⑦) ····· 146
[도면 53]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 149
[도면 54]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 150
[도면 55]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 · 기와 (① · ②) ····· 151

사진차례

[사진 1] 동도사 경내 전경 (북에서) 161
[사진 2] 어비리 3층석탑 전경 (남에서) 161
[사진 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전경 (봉무리 유물산포지에서) 162
[사진 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 · ② : 등면) 162
[사진 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 · ② : 내면) 163
[사진 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토기류 (①~⑤) 163
[사진 7]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자기류 (①~③) 164
[사진 8]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전경(동에서) 164
[사진 9]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전경 (북서에서) 165
[사진 10]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유물 채집 상태 165
[사진 11]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⑨ : 등면) 166
[사진 12]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⑨ : 내면) 166
[사진 1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④ : 등면) 167
[사진 1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④ : 내면) 167
[사진 1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토기류 (①~⑨) 168
[사진 1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전돌 (① · ②) 168
[사진 17] 봉무리 도장골 선사유물산포지 전경 (북동에서) 169
[사진 18]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전경 (북서에서) 169
[사진 19]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유물 채집 상태 170
[사진 20]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등면) 170
[사진 21]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내면) 171
[사진 22]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 토제품(⑥ · ⑦) 171
[사진 23]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⑤) 172
[사진 24] 전궁리 토기요지 전경 172
[사진 25] 전궁리 토기요지 근경 173
[사진 26] 전궁리 토기요지 유물 출토 상태 ① 173

[사진 27] 전궁리 토기요지 유물 출토 상태 ② 174
[사진 28]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1 (①~⑨ : 구연부) 174
[사진 29]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2 (①~⑧ : 구연부) 175
[사진 30]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3 (①~⑤ : 경부) 175
[사진 31]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4 (①~⑬ : 동체부) 176
[사진 32]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5 (①~⑧ : 저부) 176
[사진 33]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6 (①~⑤ : 파수편) 177
[사진 34]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7 (① · ②) 177
[사진 35] 전궁리 유물산포지 전경 178
[사진 36]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 등면) 178
[사진 37]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 내면) 179
[사진 38]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 등면) 179
[사진 39]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 내면) 180
[사진 40]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⑨) 180
[사진 41] 창리 선돌 전경 (정면) 181
[사진 42] 창리 선돌 전경 (측면) 181
[사진 43] 창리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182
[사진 44] 창리 유물산포지 유물 수습 모습 182
[사진 45]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 등면) 183
[사진 46]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 내면) 183
[사진 47]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184
[사진 48]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 · ②) 184
[사진 49] 창 2리 유물산포지 전경 (동에서) 185
[사진 50] 창 2리 유물산포지 근경 (남에서) 185
[사진 51]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 등면) 186
[사진 52]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 내면) 186
[사진 53]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⑩ : 토기류, ⑪ : 자기류) 187
[사진 54] 창 3리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187
[사진 55] 창 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 등면) 188
[사진 56] 창 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 내면) 188

[사진 57]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전경 (동에서) 189
[사진 58]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⑳) 189
[사진 59]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190
(①~⑤ : 토기류, ⑥ : 와제품, ⑦ · ⑧ : 자기류)
[사진 60]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전경 (서에서) 190
[사진 61]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근경 (남에서) 191
[사진 62]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⑭) 191
[사진 63]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192
[사진 64] 봉명리 유적 전경 (동에서) 192
[사진 65] 봉명리 유적 근경 (서에서) 193
[사진 66] 봉명리 유적 숫돌 채집 상태 193
[사진 67] 봉명리 유적 내부 추정 토루 모습 194
[사진 68] 봉명리 유적 채집 무문토기류 (①~⑥) 194
[사진 69] 봉명리 유적 채집 숫돌 195
[사진 70] 봉무리 남산봉 유적 전경 (서에서) 195
[사진 71] 봉무리 남산봉 유적에서 진위천을 바라본 모습 196
(완장천이 진위천에 합류되는 지점)
[사진 72] 봉무리 남산봉 유적 북벽 전경 196
[사진 73] 봉무리 남산봉 유적 남동회절부 모습 (정상부에서) 197
[사진 74] 봉무리 남산봉 유적 추정 문지 모습 (남에서) 197
[사진 75] 봉무리 남산봉 유적 정상부 상태 (진입로에서) 198
[사진 76] 봉무리 남산봉 유적 타날문토기편 수습지역 (정상부에서) 198
[사진 77] 봉무리 남산봉 유적 타날문토기편 채집 상태 199
[사진 78] 봉무리 남산봉 유적 채집 토기류 (①~③) 199
[사진 79] 봉무리 유물산포지 전경 (서에서) 200
[사진 80] 봉무리 유물산포지 근경 (동에서) 200
[사진 81] 봉무리 유물산포지 주변 석재 모습 201
[사진 82] 봉무리 유물산포지 유물 채집 상태 201
[사진 83]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등면) 202
[사진 84]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내면) 202

[사진 85]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전경 203
[사진 86]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⑦, 내면) 203
[사진 87]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⑦, 외면) 204
[사진 88]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등면) 204
[사진 89]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내면) 205
[사진 90]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205
[사진 91]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전경 (북에서) 206
[사진 92]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근경 (논 옆 도랑 절개지) 206
[사진 93]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절개면 기와 노출상태 207
[사진 94]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내면) 207
[사진 95]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외면) 208
[사진 96]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⑧, 등면) 208
[사진 97]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⑧, 내면) 209
[사진 98] 아곡리 전경 209
[사진 99] 아곡리 전 처인현지 (초기 남사면 주재소지) 210
[사진 100] 아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이창섭씨 댁 뒷담 주변) 210
[사진 101] 아곡리 유물산포지 근경 (소토 발견지) 211
[사진 102]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소토류 211
[사진 103]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③, 내면) 212
[사진 104]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③, 외면) 212
[사진 105]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원경 213
[사진 106]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전경 213
[사진 107]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1 (①~⑥, 내면) 214
[사진 108]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1 (①~⑥, 외면) 214
[사진 109]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내면) 215
[사진 110]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외면) 215
[사진 111]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③, 내면) 216
[사진 112]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③, 외면) 216
[사진 113]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전경 217
[사진 114]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유물 산포상태 217

[사진 115]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⑥, 내면) 218
[사진 116]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⑥, 외면) 218
[사진 117]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등면) 219
[사진 118]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내면) 219
[사진 119]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전경 220
[사진 120]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내면) 220
[사진 121]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외면) 221
[사진 122]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전경 (기와산포지) 221
[사진 123] 완장리 D 유물산포지 근경 222
[사진 124]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등면) 222
[사진 125]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내면) 223
[사진 126]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와제품 및 소석 (① · ②) 223
[사진 127]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전경 224
[사진 128]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도자류 (①~⑥, 내면) 224
[사진 129]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도자류 (①~⑥, 외면) 225
[사진 130]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요벽류 225
[사진 131]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전경 (옹기요지 포함) 226
[사진 132]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유물 채집 상태 226
[사진 133]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③, 내면) 227
[사진 134]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③, 외면) 227
[사진 135]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내면) 228
[사진 136]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외면) 228
[사진 137]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요벽 및 요 도구 229
[사진 138]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내면) 229
[사진 139]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외면) 230
[사진 140]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요벽류 230
[사진 141]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전경 231
[사진 142]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유물 채집상태 231
[사진 143]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⑤, 내면) 232
[사진 144]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⑤, 외면) 232

[사진 145]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철화백자 (내면) 233
[사진 146]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철화백자 (외면) 233
[사진 147]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요벽 및 요 도구 234
[사진 148] 서리 상덕저수지 요지 전경 (동에서) 235
[사진 149] 서리 상덕저수지 요지 자기편 노출 상태 235
[사진 150] 서리 상덕부락 요지 전경 (서에서) 236
[사진 151] 서리 상덕부락 요지 자기편 노출 상태 236
[사진 152]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④) 237
[사진 153]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237
[사진 154]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③) 238
[사진 155]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238
[사진 156]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전경 (서에서) 239
[사진 157]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폐기물 무더기 근경 239
[사진 158]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갑발 · 개떡 (①~⑤) 240
[사진 159]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가마벽 (①~③) 240
[사진 160]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기와류 (①~③) 241
[사진 161]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④) 241
[사진 162]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④) 241
[사진 163]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242
[사진 164]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3 (①~⑦) 242
[사진 165]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전경 (남에서) 243
[사진 166]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근경 (동남에서) 243
[사진 167]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유물 노출 상태 244
[사진 168]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244
[사진 169]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④) 245
[사진 170]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245
[사진 171]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기와 245
[사진 172]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전경(북에서) 246
[사진 173]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유물 노출 상태 246
[사진 174]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⑤) 247

[사진 175]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③) ····· 247
[사진 176]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 247
[사진 177]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근경 (남동에서) ····· 248
[사진 178]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유물 노출 상태 ····· 248
[사진 179]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 249
[사진 180]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⑤) ····· 249
[사진 181]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⑤) ····· 250
[사진 182]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전경 (남동에서) ····· 250
[사진 183]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근경 (남동에서) ····· 251
[사진 184]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유물 노출 상태 ····· 251
[사진 185]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②) ····· 252
[사진 186]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 252
[사진 187]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⑦) ····· 253
[사진 188]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갑발류 (①~③) ····· 253
[사진 189]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기와 ····· 253
[사진 190]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전경 (서남에서) ····· 254
[사진 191]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근경 (남에서) ····· 254
[사진 192]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유물 노출상태 ····· 255
[사진 193]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 255
[사진 194]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⑤) ····· 256
[사진 195]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갑발 · 기와 (①~④) ····· 256
[사진 196]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전경 (동남에서) ····· 257
[사진 197]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근경 (동에서) ····· 257
[사진 198]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소토 노출 상태 ····· 258
[사진 199]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채집 가마벽 ····· 258
[사진 200]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④) ····· 259

1. 조사의 개요

(1) 처인성 주변 지표조사의 필요성

1997년부터 용인시사편찬위원회는 용인시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각 분야별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하나로 처인성을 비롯한 용인시 소재 중요 성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용인의 옛 성터』를 발간한 바 있다. 나아가 각 성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선 처인성에 대한 시굴조사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의 조사가 미미하였던 옛 처인부곡과 처인현의 관할 구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조사는 단순히 처인성 만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인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처인성이 만들어지게 하였던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옛 처인현의 존재 양상을 구명하고, 처인성과 그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적과 문화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존 · 관리를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향후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보존에도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번 지표조사가 계획되었다.

(2) 조사단의 구성

금번의 지표조사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 사 단 장 : 양기석(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장, 한국고대사)
지 도 위 원 : 장경호(전 경기도박물관장, 현 기전매장문화재원장)
책임조사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회 3분과 전문위원)
조 사 원 : 엄익성(명지대학교박물관 학예과장)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원)
양정석(용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조교, 한국미술사)

강민식(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고대사)

조순흠(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고고학)

조사보조원 : 김주미(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고고학)

한선경(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고고학)

김윤정(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미술사)

보 조 원 : 조록주(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

김현경(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

이 조사는 현지 조사를 용인시에 대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하되, 집중적인 조사를 풀이 무성한 계절을 피하여 주로 낙엽이 진 겨울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사의 개요와 성과는 차용걸이 작성하고, 유적 및 유물의 설명은 엄익성, 백종오, 양정석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도면, 사진, 지도는 엄익성, 백종오, 양정석이, 도면과 사진 등의 컴퓨터 처리는 주로 조순흠이 수고하였다.

2. 처인성 주변지역의 역사적 배경

처인성(處仁城)이 위치한 지역(현재의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과 그 주변 일대는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이르러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이 합쳐 용인현(龍仁縣)으로 된 지역에 속해 있다. 용인이란 이름은 용구현의 첫 글자와 처인현의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만든 이름인 것이다.

용인현의 치소는 합병 이후 옛 용구현 지역(지금의 용인시 구성읍)에 두었으므로 조선시대의 역대 지리지에는 항상 용인현의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현내면(縣內面)을 중심한 주변 지역이 옛 처인현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합쳐지기 이전의 처인성과 그 주변지역은 조선 태조 6년(1397)에 현으로 승격되어 현령을 두기 이전에는 처인부곡(處仁部曲)으로 존재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처인부곡이 현으로 승격되어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현령(縣令)이 국가에서 파견되었던 기간은 17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부곡으로서의 처인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통해 볼 때 수주(水州 : 수원) 소속으로 고려 현종(顯宗) 9년(1018, 戊午)이전에 이미 칭호가 처인으로 불려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고려시대의 처인부곡이 조선시대 초기에 승격되어 처인현이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이루다가 1413년 이후에는 용인현 소속의 면리로 개편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혁을 갖는 옛 처인현, 즉 처인부곡의 범위는 대체로 오늘날의 용인시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의 지역이다.

부곡(部曲)은 이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지리지 서문에서 신라(新羅)가 통합한 지역을 9주로 편성하고, 9주에 소속된 군현(郡縣)의 숫자가 무려 450이나 된다고 한 다음의 세주(細注)를 통하여 "방언(方言)으로 이르는 바 향(鄕)이나 부곡(部曲) 등의 잡소(雜所)는 다시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다" 「方言所謂鄕部曲等雜所 不復具錄」고 하였음을 보아, 고대(古代)로부터 존재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인부곡(處仁部曲)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그 연원이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거나, 통일기를 지나 통일신라가 행정구역을 재편할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경우에는 경기도 여주(驪州)의 고적(古跡)에서 등신장(登神莊)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등신장이 천녕(川寧)의 동쪽 20리에 있다고 하고, "今按"이라 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다.

(A) 新羅 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 未堪爲縣者 或置鄕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B)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絲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之別 而各供其物

(C) 又有稱處者

(D) 又有稱莊者 分隸于各宮殿 寺院 及內莊宅 以收其稅

(E) 右諸所 皆有土姓吏民焉 金富軾撰三國史地理志不復具錄 而鄭麟趾撰高麗史亦因之

(F) 今旣著姓氏 則其姓氏所本之地 不可不載 故據周官六翼而質之 當今有所可攷者 在十之一二 竝附入于逐邑古蹟之下云

향(鄕)과 부곡(部曲)은 A에 의하여 신라가 주군(州郡) 등의 행정구역을 설치한 때에 현(縣)을 만들기에는 전정(田丁)과 호구(戶口)가 모자란 곳을 설정한 용어인 것이다. 그리고 소(所)와 장(莊), 처(處) 등의 특수한 구역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이들은 위의 지적에서 그 발생의 시기와 기능 등을 달리 파악하고 있다. 즉 향(鄕)과 부곡(部曲)은 고려 이전으로 취급하고, 소와 장은 고려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능에서도 소(所)는 각기 생산된 물건을 (국가나 지방 고을에) 바치고, 장(莊)은 소속된 내장댁(內莊宅)에 세(稅)를 바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토성(土姓)과 이민(吏民)이 있다는 점은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이 府牧郡縣에 소속되어 있음에서 이들의 범위나 집단의 규모가 고을 규모보다는 대체로 작았다는 점은 있으나, 마을(村)단위, 혹은 면(面)이나 사(社)의 단위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위상이 일단 土姓과 吏民이 있다는 것에서는 고을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토성으로서 이 책(『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는 당시에도 저명한 경우만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전체의 10~20%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토성이 조선시대까지 저명하게 남은 경우에 해당되며, 처인부곡(處仁部曲)의 경우도 크게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처인의 저명한 토성(土姓 : 토착 성씨)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地理志)에서 용구현의 성씨는 5개 진(秦)·이(李)·송(宋)·용(龍)·엄(嚴)씨라 하고, 처인현의 성씨는 6개로 이(李)·서(徐)·지(池)·섭(葉)·김(金)·강(康)으로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다.

처인성(處仁城)이 위치한 지역은 옛 처인부곡(處仁部曲)이나 처인현(處仁縣)의 시기에 부곡이나 현에 소속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정과 문화·경제의 중심이었다고 여겨진다. 옛 처인 지역의 문화상은 문헌기록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리학이나 고고학과 민속학 등의 힘에 의하여 복

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는 거의 없으나 조선시대에 용인현(龍仁縣)에 관한 지리지의 기록 가운데 처인성과 그 주변에 대한 기록들을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에서 처인과 관련된 기록은 호구나 군정에 물론 포함되고 있겠으나, 토성 이외에는

○ 磁器所 : 在古處仁 窯山洞里 下品

○ 陶器所 : 在古處仁 甘岩里 下品

이 나타나 있다. 자기소가 있는 요산동리는 현재의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요산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밖에 조선 전기까지 파악된 것은 원(院)으로 홍화원(弘化院)이 용인현의 남쪽으로 이십리에 있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옛 처인 지역이 도자기의 집중적인 생산지로서 파악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처인부곡과 처인현의 옛 관할 구역은 대체로 조선시대 후기의 면리제(面里制)에서의 이름으로는 현내면(縣內面)을 중심으로 4~5개의 면(面)을 관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조선 후기 용인현의 중심에서 현내면을 비롯한 지역의 거리와 호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현내면(縣內面) - 남쪽 40~50리	389戶 男 368口 女 480口
도촌면(道村面) - 서남쪽 40~45리	181戶 男 282口 女 350口
서촌면(西村面) - 서남쪽 40~45리	136戶 男 206口 女 202口
남촌면(南村面) - 남쪽 40~50리	242戶 男 442口 女 980口
상동촌면(上東村面) - 동남 30~40리	283戶 男 533口 女 845口
하동촌면(下東村面) - 동남 40~50리	306戶 男 586口 女 820口

이러한 범위의 당시(英祖 35년 1759년) 전체 호수는 1,537호이고, 남자 인구가 2,417口, 여자 3,677口로서 전체 인구는 6,094명으로, 호당 평균 인구수는 약 4명이 된다. 특히 남자 인구에 비하여 여자 인구가 현저히 많은 東村과 南村 지역의 인구 구성은 특이하다.

18세기 중엽에 새로이 나타난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산천(山川)의 굴암산(窟巖山)과

어비천(魚肥川)이 있고, 성씨에서는 처인에서 지(池)씨가 빠지고 있다. 제언(堤堰)에서는 아동제언(衙洞堤堰)과 언(堰 : 아동에 2개의 제언이 있었던 것)이 있다.

窟巖山 : 在縣東南間五十里 竹山府九峯山來脈

魚肥川 : 在縣南五十里 源出窟巖山 南流入於振威前川

衙洞堤堰 : 在縣內面 距官門五十里 周圍七百二十尺 長一百七十尺 廣一百八十尺 深五尺二寸

堰 : 在縣內面 距官門五十里 周圍五百五十尺 長二百七十八尺 廣一百九十六尺 深三尺九寸

이 밖에 기록은 없으나, 지도(地圖)에는 처인창(處仁倉)과 수어둔창(守禦屯倉)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로부터 30년 후인 1789년의 호구 수는 이것과 대비된다. 『용인군지』의 부록을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다.

현내면 - 完章洞 花洞 中洞 倉洞	285戶	1,290口	男 646 女 644
도촌면 - 上洞 下洞	190戶	781口	男 370 女 411
서촌면 - 一里	122戶	435口	男 238 女 197
남촌면 - 直木洞 放木洞 宮洞 元岩洞	252戶	930口	男 453 女 477
상동촌면 - 德義洞 墨洞 泉洞	299戶	1,188口	男 534 女 654
하동촌면 - 松田洞 魚肥洞 卯峯洞 牟山洞 時美洞	375戶	1,829口	男 879 女 950

이에 의하면 1,513호에 6,453명의 인구로 이전의 여지도서에서의 기록에 비하여 호수보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의 구성비의 현격함이 이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 처인 지역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경기지』(京畿誌 : 1843)가 있다. 이 자료는 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기록의 증가는 외창(外倉), 묘동제언(廟洞堤堰)이 『여지도서』의 기록을 보완하여 주고 있으며, 굴암산의 기우제단(祈雨祭壇)과 점막(店幕)으로서 천곡점(泉谷店)·빈양점(邠陽店)·장서리점(長西里店)·삼거리점(三巨里店)이 나타나고, 명현(名賢)들의 무덤으로 남은(南誾)·안홍국(安弘國)·이재(李縡) 등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있다.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장시(場市)로서의 정기시장에 대신한 점막(店幕)의 발생은 획기적인 일로서, 여지도서에는 18세기에는 수진면 지역에 험천점(險川店)의 하

나가 지도에 보여 발생기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아마도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로서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군데군데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막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객이 항시 끊이지 않고 오갔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1871년의 『경기읍지(京畿邑誌)』 제 5책의 용인현 읍지는 외창(外倉)에는 좌기청(座起廳) 3간에 앞퇴마루가 있는 건물임과, 남고(南庫) 8간 규모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처인 지역에 있었던 창고의 규모를 전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지도서』의 제언(堤堰)에 관한 기록을 바로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다. 즉, 묘동제언(廟洞堤堰)의 둘레를 920척으로 하여 제방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제방의 존재에 대하여 의아하였던 점을 풀어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 이들은 모두 오래된 제언이라서 퇴폐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전의 기록에 더하여 유명인의 무덤에 대하여도 공서린(孔瑞麟)과 임정(林整) 등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지리지 들은 초기에서 말기까지 처인성 주변 지역의 변화상을 짐작하게 하는 변화되는 내용들이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는 셈이라 여겨진다.

3. 처인성 주변지역의 지표조사 연혁

문헌에 의하여 처인 지역의 역사를 복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기록 자체가 조선시기에 치우쳐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지표상의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매장되어 있을 문화유적에 대한 성격의 개략적 파악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적이 널려 있다고 보고 시작하여야 한지만,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행하여진 조사의 개략을 살펴 이를 확인하고 다음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기에 일인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특히 옛 왕도(王都)와 그 주변에 대한 조사가 위주가 되었다. 전국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1917년경에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림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고적대장(古蹟臺帳)』이라 하여 비밀스런 참고자료가 되었다가, 1941년 후에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로 간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당시 용인군 관내에서 30건의 내용이 올라있고, 처인 지역의 경우에는 남사면 아곡리의 처인성터와 방아리의 절터에 4층 석탑이 있는 밭, 이동면 송전리의 4층 석탑과 석불들이 있음이 알려졌을 뿐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각 시군 단위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문화유적 전반에 걸

친 조사가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향토인사를 중심으로 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용인군의 『향토문화의 전통』(1982), 용인문화원의 『내고장 용인』(1984), 『내고장의 얼』- 유물 · 유적편 - (1986) 등이 간행이 이어졌다. 이후 삼성미술문화재단 · 호암미술관의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1987)가 나옴으로서 용인지역 문화유적조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작업은 1990년에 간행된 『용인군지』에 일단 정리되었다.

『용인군지』에는 처인 지역의 경기도 기념물로서 제3호 심대장군묘(남사면 완장리 산3)와 제 44호 처인성지(남사면 아곡리 산 43)가 있고, 문화재자료 제 43호인 어비리 3층석탑(이동면 어비리 산 31), 제 61호인 창리 선돌(남사면 창리 487)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유적 · 유물로서 알려진 것은

- ㅇ 이동면 덕성리 뒷산에서 1965년 7월 소진하 씨가 발견한 마제석검.
- ㅇ 남사면 창리에서 1969년 9월 출토된 마제석검.

등이 있다.

옛 절터나 유형문화재로서는 이동면 묵리의 성륜산 용덕사의 철인상과 석조여래입상 · 이동면 천리 노루실의 한천서원지 · 남사면 완장리 361번지의 심대 사당 · 이동면 묘봉리의 안홍국 정려각 · 이동면 송전리 어현의 어씨 효자 정려 · 남사면 완장리의 의성 김씨 효열 정문 · 이동면 묘봉리 중리 마을의 정응규 효자 정문 · 남사면 아곡리 남산동의 안씨 효열 정문 · 이동면 어비리 산 31번지 동도사 경내의 3층석탑(문화재자료 43호) · 이동면 서리의 요지군 · 이동면 서리의 불당골 이귀령 묘소 · 남사면 창리 화곡의 남은 묘소 · 남사면 봉명리의 이성동 묘소 · 남사면 완장리 저수지 윗쪽의 공서린 묘소 · 이동면 천리의 이씨 묘역 · 이동면 시미리의 이한응 묘소 등과 보호수로서 도나무 3건, 군나무 3건, 면나무 18건, 마을나무 3건 등이 남사면과 이동면 관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의 고려나 조선시대의 역사를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록과 유적과는 별도로 고대와 선사시기에 대한 조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용인시의 문화유적』- 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1997)이 그러한 효시에 해당되며, 용인시는 1997년에 『용인시문화재총람』을 내 놓았던 것이다. 이후의 정리는 최근에 이르러 경기도박물관에 의하여 『경기문화유적 지도』가 간행되어 현재까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에 의한 유적 유물이 망라되었다. 경기문화유적지도에 의하면 남사면과 이동면의 전지역에 걸쳐 시기별, 성격별로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구석기 시기 - 3곳, 청동기시기 - 2곳, 삼국시기 - 1곳, 통일신라시기 - 2곳, 고려시기 - 13개소 이상이며 대부분은 다음의 조선시기에 해당한다.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처인성 주변의 알려진 유적 상황

번호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비고
1	鳳舞里 遺蹟	남사면 봉무리(도장골)	구석기	석영제의 몸돌 · 찍개 수습	
2	鳳舞里 석기출토지	남사면 봉무리(도장골)	청동기	1점의 마제석부 수습	
3	鳳舞里도장골 사지	남사면 봉무리(도장골)	조 선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주변에 다량의기와 · 자기편 산포	
4	鳳舞里 자기산포지 1	남사면 봉무리(도장골)	조 선	흑유자기편 · 대접편 · 종지편들 수습	
5	鳳舞里 자기산포지 2	남사면 봉무리(도장골)	조 선	분청사기편 · 백자편 다량 산포	
6	李成童墓 · 神道碑	남사면 봉명리(미등골)	조 선		
7	陳華 墓	남사면 원암리산38 (원암골)	고 려 (13세기)	공주목사	
8	陳孝一 惠民不忘碑	남사면 원암리		남사면장 역임	
9	元巖里 窯址	남사면 원암리(사기막골)	조 선	대접 · 접시류의 백자편 및 도지미 수습	
10	全宮里 窯址	남사면 전궁리		다량의 토기편 · 기와편 · 소토 산포, 요지로 추정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음	
11	신세계 한국상업사박물관	남사면 창리			
12	倉里 선돌	남사면 창리 487-1 (감바위골)	청동기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함께 거석문화의 한 형태. 토속신앙의 대상물	
13	南間 墓	남사면 창리 화곡마을 (위꽃들)	조 선 (1398)	조선개국공신. 방원의 난 때 처형됨	
14	安氏孝烈婦 旌閭閣	남사면 아곡리 남산동	조 선(1872)	순흥 안씨의 효열 정려각	
15	處仁城	남사면 아곡리 산43	고 려(1231)	몽고 2차 침입시 승장 김윤후의 전승지 둘레 400m의 토축산성	
16	衙谷里자기산포지	남사면 아곡리	조 선	대접 · 제기 · 종지류의 자기편 및 토기편 수습. 산포지 중심에는 말무덤이라 불리는 분구가 있음.	
17	完庄里자기산포지	남사면 완장리	조 선	주로 백자편 수습, 분청사기 · 토기편 수습	
18	金致福 孝子旌閭閣	남사면 완장리 645	조 선(1831 · 1860 · 1852)	효자 김치복, 김유성의 처 효부 안동 권씨, 김달명의 처 효부 양주 조씨의 정려문	
19	沈垈 祠堂(旌閭閣)	남사면 완장리 361	조 선 (1779)	정종 3년에 충신으로 정려, 용인의 완장동에 정려. 1975년 복원	

번호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비고
20	沈堡將軍 墓 · 神道碑	남사면 완장리 산119-1	조 선(1592)	임진왜란 때 호성공신으로 책록	
21	孔瑞麟 墓 · 神道碑	남사면 완장리 (구성면 상하리)	조 선 (1541)		
22	魚氏 三代孝子旌閭	이동면 송전리 54 (안어고개)	조 선 (1684)	어진현 · 어사량 · 어운해의 정려문. 1986년 복원	
23	沈決 墓表	이동면 어비리	조 선		
24	金丹寺址	이동면 어비리(막골)		임진왜란 때 소실. 1963년 저수지 공사로 매몰됨.	
25	魚肥里 寺址	이동면 어비리	고 려	송전리 사지로 알려져 있음. 금단사 폐사 이후 금단사지 석탑을 옮겨놓았다가 현재 위치로 옮김. 1963년 저수지 공사로 매몰	
26	魚肥里三層石塔	이동면 어비리 산99-2	고 려	1963년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게 되어 동도사로 이전 복원	
27	魚肥里유물토지	이동면 어비리 652-2	고 려	청석제 향로 등 수습	
28	安弘國 墓 · 神道碑	이동면 어비리 산26	조 선 (1642)	병마절제사, 임진왜란 때 가덕도 해전에서 전사	
29	安弘國 旌閭閣	이동면 어비리 (점촌)	조선 (18세기)	임진왜란 때의 충성을 기림	
30	任珽 神道碑	이동면 묘봉리 (상리)	조 선		
31	鄭應奎孝子旌門	이동면 화산리 183-4 (요산동)	조 선	팔각형의 정각 지붕	
32	華山里옹기요지	이동면 시미리 20-1 (금현)	일제강점기 (1940년대)		
33	李漢應 墓	이동면 덕성리	일제강점기 (1905)	우국열사. 주 영국 서리공사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영국에서 자결	
34	德成里 유적	이동면 덕성리	구석기	석영제 및 규암제 석핵석기 수습	
35	李壽民 墓碣	이동면 묵리	조 선		
36	龍德寺(굴암절)	이동면 묵리 산58	통일신라 (9세기)	염거화상이 창건. 암굴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龍이 감금되어 있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음	
37	龍德寺 석탑제	이동면 묵리 산58	고 려	도선국사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전함	
38	泉里 石造如來立像	이동면 묵리 산58	고 려	1985년 천리 75번지에서 이전됨	
39	墨里 적동토기산포지	이동면 묵리 (적동)	통일신라	적동마을 뒷편 골짜기. 통일신라시대 파상문토기 · 병 수습	
40	墨里 적동백자요지	이동면 묵리(적동)	조 선	현재 밭으로 이용. 백자편 · 도지미 · 요벽편 수습	

번호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비고
41	墨里흑자기요지	이동면 묵리608(한덕)	고려~조선		
42	李貴齡 墓 · 墓碣	이동면 천리(불당골)	조선(1439 · 조선후기)	조선 태조때 원종공신. 이병대 지음, 이의국 서	
43	李貴山 墓碣	이동면 천리 (불당골)	조 선(1831)	이의덕 찬, 이병욕 서.	
44	李元發 神道碑	이동면 천리 (불당골)	조 선(1878)	이병관 찬, 이만녕 서, 윤용구 전	
45	泉里九水洞 遺蹟	이동면 천리 구수동 (때골들)	구석기	찍개 · 긁개 수습	
46	泉里 九水洞 자기산포지	이동면 천리 구수동 (때골들)	조 선	백자저부 · 토기류 수습	
47	泉里 白磁窯址1	이동면 천리 (노루실)	조선(16세기)	요지 2기	
48	泉里 白磁窯址2	이동면 천리	조 선		
49	禁養界 表石	이동면 천리 (불당골 입구)	조 선	태종 때 공신 이귀령의 賜牌地 표식	
50	牛峰 李氏 墓域	이동면 천리 산 58	조 선	이재 · 이구(묘갈),이만상(신도비, 1782, 신임사화 때 유배), 이숙 · 이익(묘갈, 1690), 이지렴(묘갈), 이유겸(묘갈, 1805, 이재 記, 이채 書, 신도비, 1669, 송시열 撰, 송준길 書, 민유중 篆)	
51	李緯 墓 · 墓碣 · 神道碑	이동면 천리산58 (고생골)	조선(1663 · 1746 · 1669)	大司憲, 신도비는 송시열 撰, 송준길 書	
52	泉里 토기산포지	이동면 천리원천마을 (고생골)	삼 국		
53	西三里 자기산포지	이동면 서3리(상덕골)	고 려	상덕골 남서쪽 산과 밭 일대에 형성	
54	西里 분청묘지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선(15 ~16세기)	인화문 · 귀얄분청 2기	
55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1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56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2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57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3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58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4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59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5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60	西里 사기막골 백자요지 6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조 선		

번호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비고
61	西里 中德 고려백자 요지	이동면 서리 23-1 (사기막골)	고려(9세기중 ~12세기)	아래층부터 고식청자-고식백자- 해무리굽-조질 순	
62	沈師正 墓	이동면 서리 (상덕)	조 선 (1769)	畵家	
63	西里 上盤 백자요지	이동면 서리산163(상반)	고려(11~ 12세기)		
64	西里 上盤 도요지 1	이동면 서리 (상반)			
65	西里 上盤 도요지 2	이동면 서리 (상반)			
66	西里 세장터골 요지	이동면 서리 (상반)	고려(11~ 12세기)		
67	朴煥 墓	이동면 서리(중반)	조 선 (1671)	인조 때 충신	
68	西里 下盤 石室墳	이동면 서리(하반)		횡구식 석실분 2기, 경작으로 파괴	
69	西里 下盤 자기산포지	이동면 서리 (하반)	고려~조선	고려 및 조선의 토기, 자기 등 발견	
70	西里 下盤 자기산포지	이동면 서리 (하반)	고려~조선	조선시대의 토기편 및 고려시대의 자기편 등 산재	
71	西里 上德 陶窯址	이동면 서리 (상덕저수지 산사면 일대)	조 선	다량의 백자편, 저부편 수습	

4. 조사내용

(1) 어비리 3층석탑 (경기도 문화재자료 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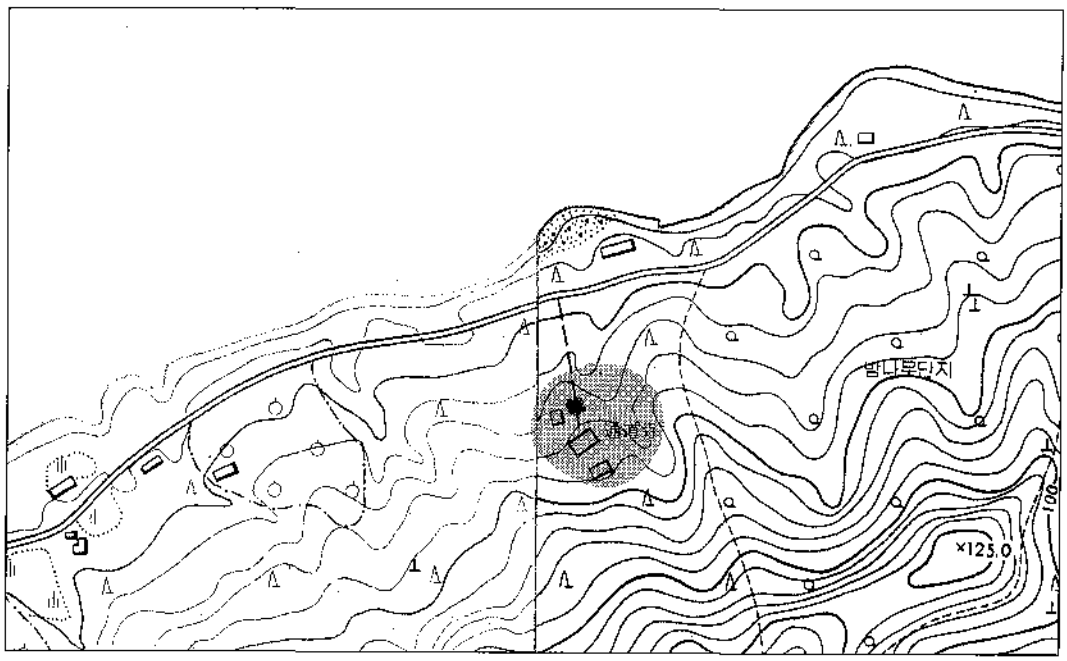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 · 2, 지도 1)

· 위치 : 南四面 魚肥里 山 99-2 (東度寺 境內)

· 지정 년월일 및 고시 년월일 : 83. 9. 19 / 85. 9. 19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봉무교를 건너 동진 하여 후천교를 지나 우회전하면 방아리의 농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마을을 지나게 되면 동쪽으로 이동저수지의 제방이 보인다. 이곳에서 제방을 따라 남진한 후 이동저수지의 남안을 따라가면 수상스키장을 지나 오른편으로 어비리 3층석탑이 위치한 동도사에 이른다. 석탑주위의 한 편에는 석등부재로 보이는 석조품을 모아놓았다.

어비리 3층석탑은 저수지 공사로 수몰된 절터에 있던 것을 1963년에 동도사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 높은 지대석 위에 단층기단이 놓여 있으며 면석은 서로 엇물리면서 각 면 1매씩 세워 놓았다. 1층 탑신은 높은 편이고 2단의 탑신 괴임까지 표현되어 날씬한 인상을 준다. 여기에 큼직한 4단의 옥개석 받침이 사다리꼴로 계단 지어졌으며 옥개의 전각곡선이 크게 휘어져 있다. 단층기단 탑신의 2



[지도 1] 통도사(어비리 3층 석탑)

단괴임과 옥개석의 4단 받침으로 이루어져 날씬하면서도 다소 둔중한 곡선 처리 등은 전형적인 고려초기 석탑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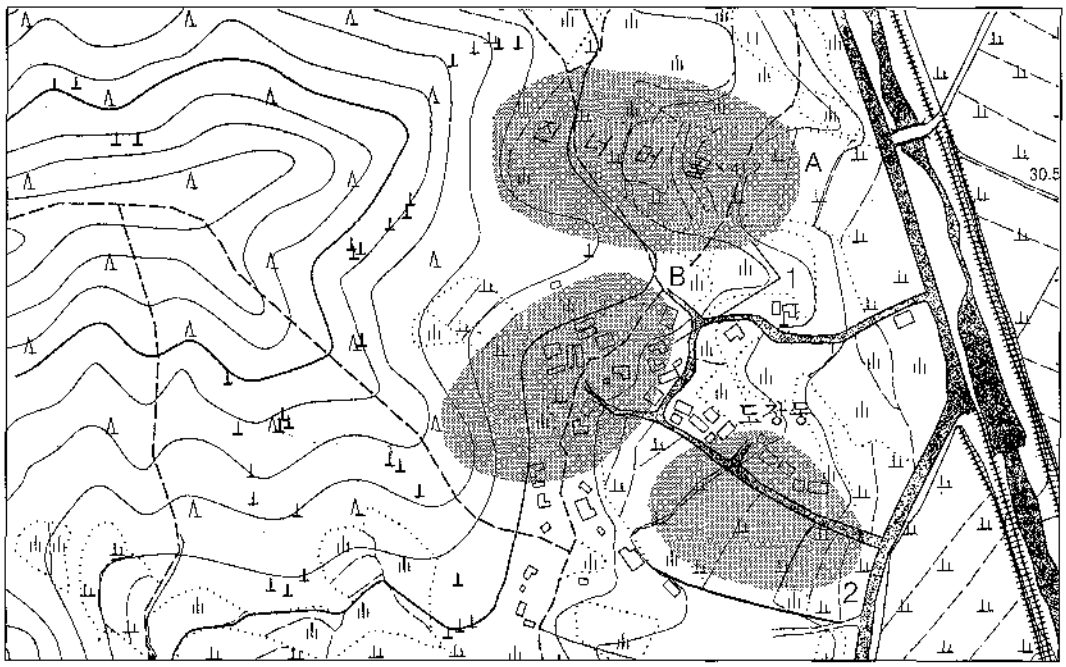
(2) 봉무리 도장골 유물 산포지 A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3~7, 도면 1-2, 지도 2)

· 위치 : 南四面 鳳舞 3里 도장동 마을뒷산 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아곡리 방향의 도로를 따라 1km정도 북진하면 왼쪽으로 도장동 마을표지판이 나타난다. 유적은 표지판을 따라 진입하면 마을의 뒷산 동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유적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동쪽은 진위천의 지류인 봉무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위로 남산봉의 능선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채집유물은 마을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마을 위 쪽 축사부근의 밭 일대(50여평)와 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의 소로주위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기와류와 자기류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토기류는 이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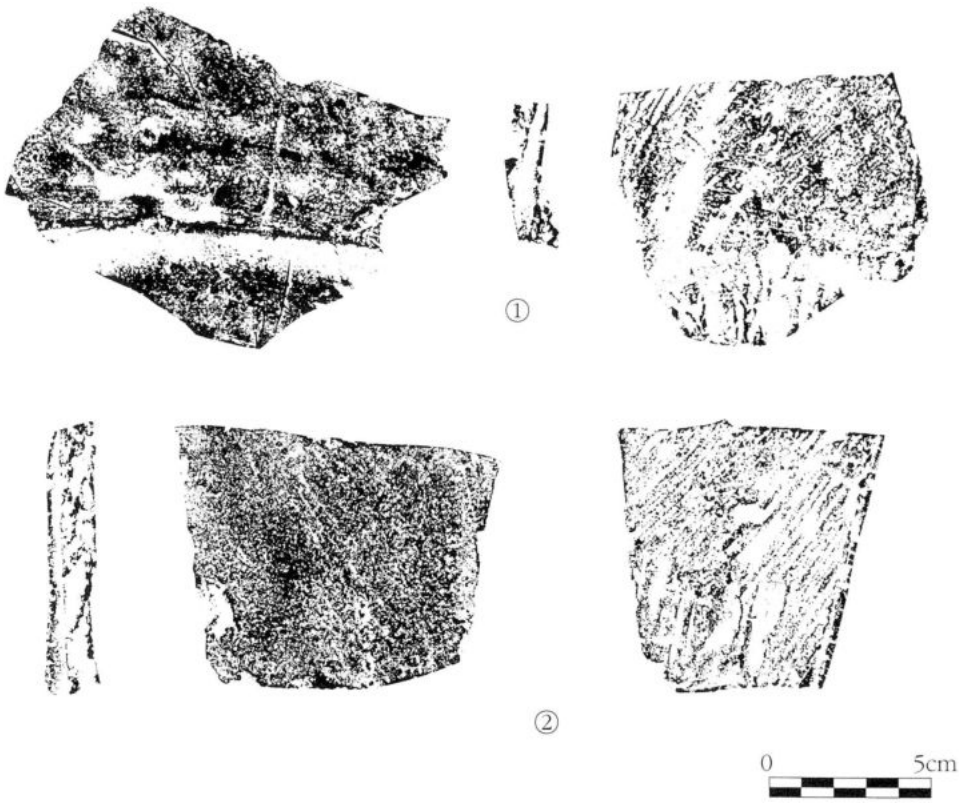


[지도 2] 1. 봉우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B 2. 선사유물 산포지

2) 유물

(도면 1-①, 사진 4-① · 5-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 문양은 없으며 손 누름 자국이 관찰된다. 언강은 0.8cm정도로 낮고, 미구의 길이는 3.0cm가량이며 주위에 빗질정면을 하였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가 접힌 흔적이 있으며, 그 위로 사선방향의 빗질을 하였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6cm, 너비 11.6cm, 두께 1.4~1.8cm

(도면 1-②, 사진 4-② · 5-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무문양이며 빗질흔이 약간 보인다. 내면은 사선방향의 굵은 빗질을 하였다. 측면에는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6cm, 너비 9.3cm, 두께 1.6~1.8cm



[도면 1]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②)

(도면 2-①, 사진 6-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약간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0.3cm 두께의 횡선을 3cm간격으로 그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파상문이 시문 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6cm

(도면 2-②, 사진 6-②)은 회백색을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운모가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이 부분적으로 타날 되어있으며 내면은 정면의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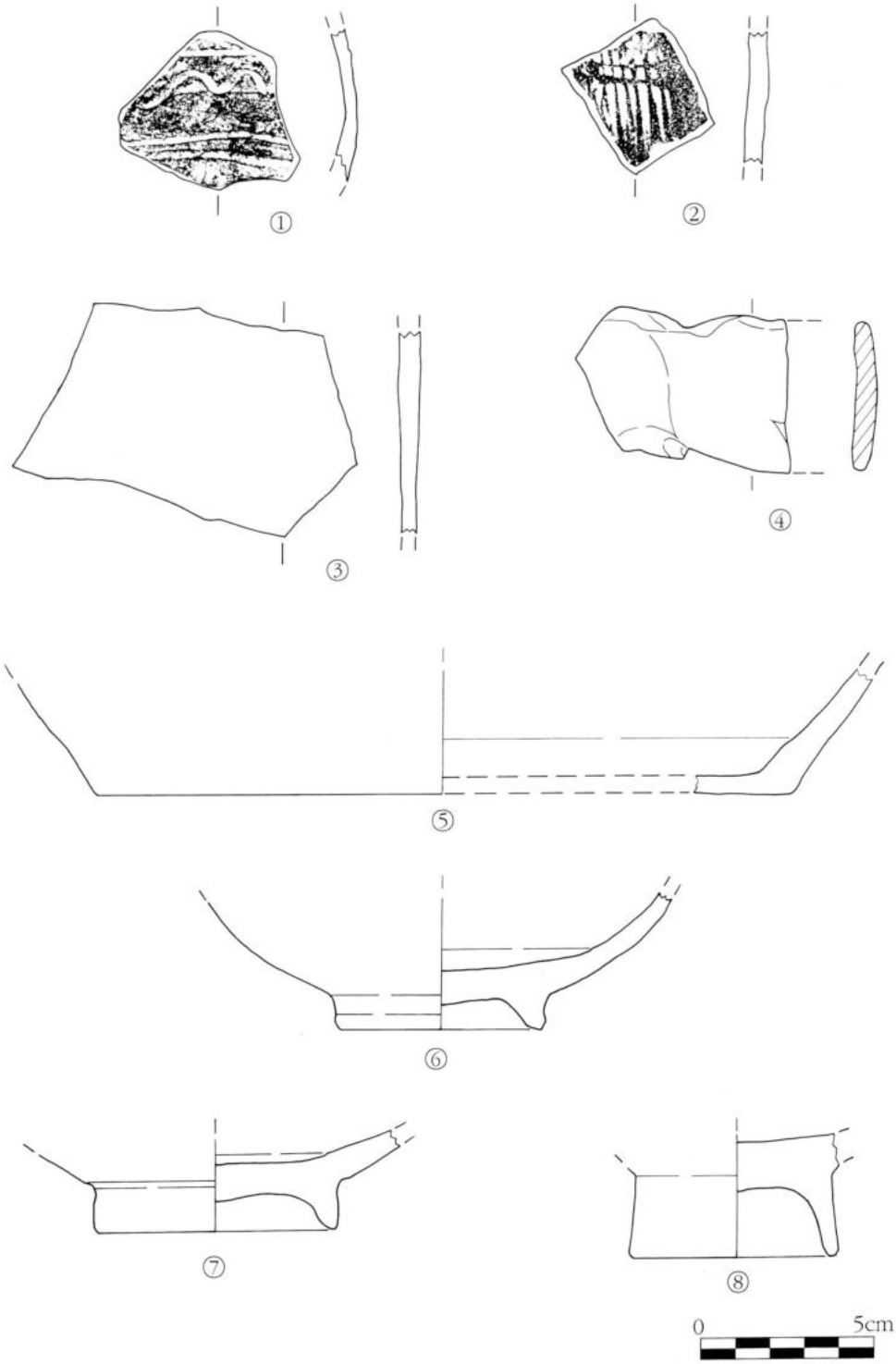
(도면 2-③, 사진 6-③)은 흑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과 내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줄 깎아낸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6cm

(도면 2-⑤, 사진 6-④)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 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은 동체와 저부의 연결부분을 회전정면 한 흔적이 보이며 내면은 물레질자국을 문질러 지운 것이 관찰된다. 동체두께0.4 cm, 바닥두께0.5 cm

(도면 2-④, 사진 6-⑤)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정선된 편은 아니다. 동체와 연결부는 내 · 외면에 여러 번에 걸쳐 누르며 정면 한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⑥, 사진 7-①)은 옅은 회록색으로 시유된 백자편이다. 내 · 외면은 유리질로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굽의 안쪽은 시유되지 않았으며 균열이 보인다. 굽의 형태는 대마디굽이다. 저부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으며 태토비짐눈 2개가 관찰된다. 잔존높이 3.7cm, 동체부두께 0.6cm, 추정굽지름 6.4cm, 굽높이 1.0cm, 굽폭 0.6cm

(도면 2-⑦, 사진 7-②)은 옅은 담록색으로 시유된 백자편이다. 굽은 절두 도립 오목굽이며 내 · 외면에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굽과 동체의 연결부는 한번에 단이 지며 올라가고 있다. 저부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으며 바닥에는 굵은 모래가 남아있다. 잔존높이 2.1cm, 동체부두께 0.7cm, 추정굽지름 6.8cm, 굽높이1.1cm, 굽폭 0.4cm



[도면 2]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⑧)

(도면 2-⑧, 사진 7-③)은 옅은 청록색으로 시유된 백자편이다. 잔존상태는 굽만 남아있다. 굽은 직립 굽으로 약간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며 바닥에는 모래받침이 보인다. 내면에는 모래가 뿌려져 있다. 잔존높이 3.6cm, 굽지름 6.0cm, 굽높이 2.5cm, 굽폭 0.4cm

(3) 봉무리 도장골 유물 산포지 B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8~16, 도면 3~7, 지도 2)

· 위치 : 南四面 鳳舞 3里 도장동(도장골) 마을 북쪽 논 · 밭일대

· 유적현상 : 유물 산포지 B는 유물 산포지 A에서 북쪽의 소로를 따라 야트막한 구릉너머 능선의 하단부 논 · 밭 일대에 넓게 펼쳐있다. 유적의 동쪽은 도로 옆으로 봉무천이 흐르며 그 너머 능선에는 남산봉 유물 산포지가 정면으로 바라보인다. 한편 이곳이 寺址였다고 하나[1] 관련 유구는 남아있지 않다.

유물은 주로 구릉말단의 기와류와 토기편, 자기편, 전 등 많은 종류가 채집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경작되어 거의 파손된 상태이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계단식의 논 · 밭 일대에 1,000평 이내에서 보여지고 있다. 시기는 전체적인 유물상으로 볼 때 고려시대로 보이며 일부는 이보다 시기가 이른 것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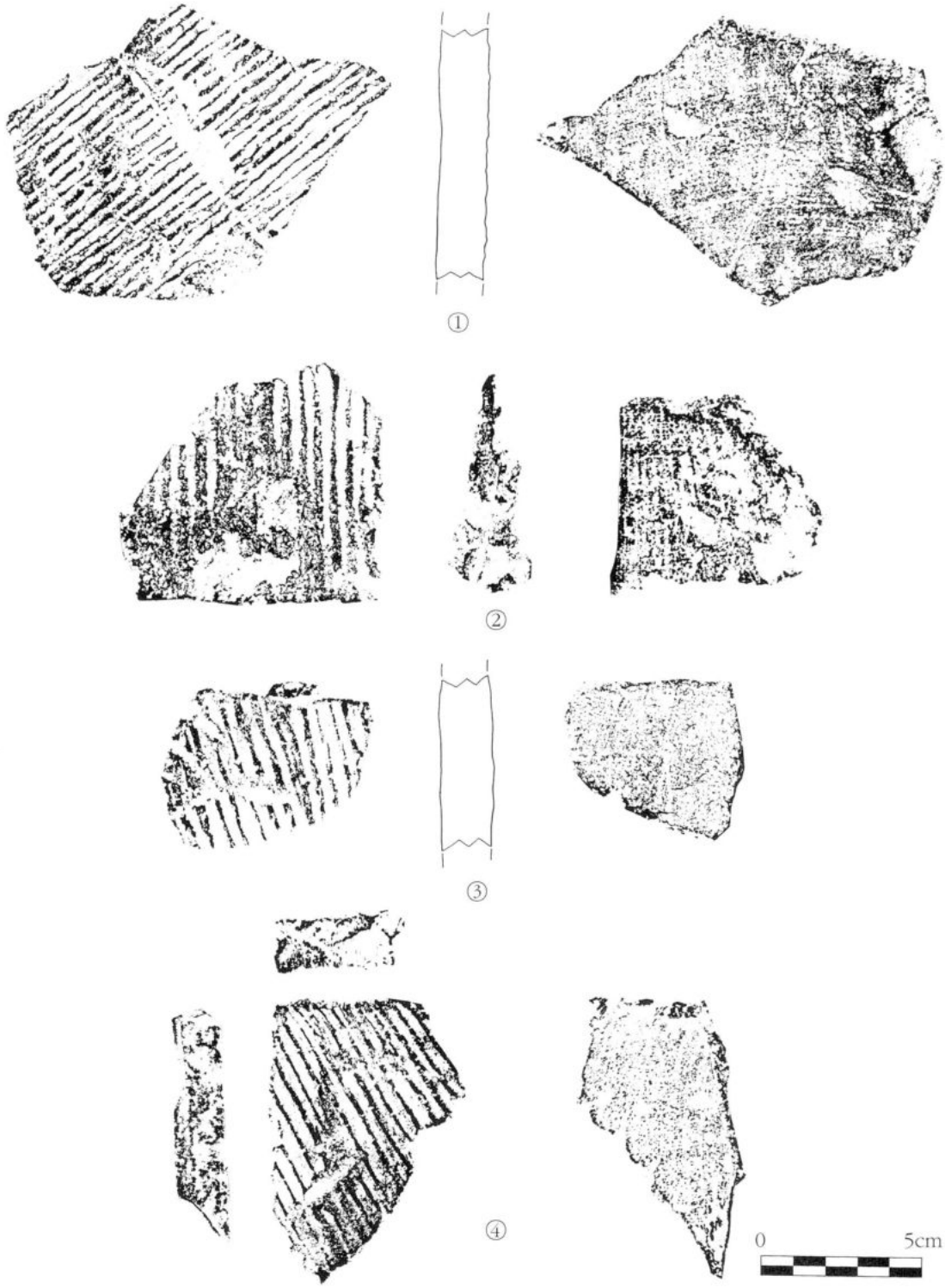
2) 유물

(도면 4-③, 사진 11-⑦ · 12-⑦)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었다. 등면은 마모가 심하나 격자문이 시문 된 것으로 보이며, 내면은 0.1cm간격의 조밀한 포목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측면은 등면에서 내면방향으로 4/5정도 그어 깨끗하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4cm, 너비 6.7cm, 두께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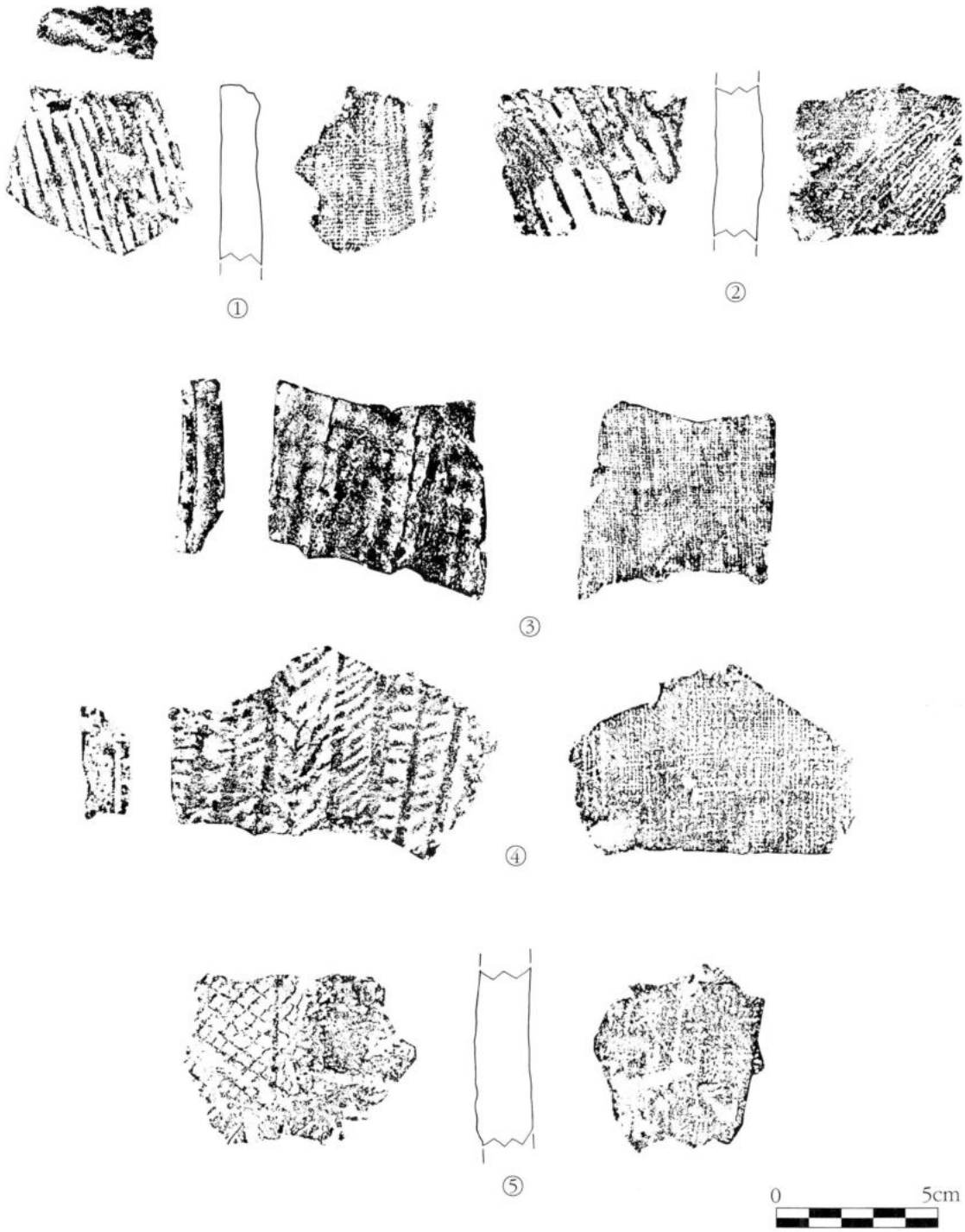
(도면 3-③, 사진 11-③ · 12-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크고 작은 사립이 다량으로 혼입되었다. 등면은 0.2cm두께의 직선문이 0.5cm간격으로 시문 되었다. 내면은 마모가 심하나 부분적으로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다.

잔존길이 5.4cm, 너비 6.9cm, 두께 1.8cm

1) 서울대학교박물관 · 용인시, 앞의책, 1996, 69~70쪽.



[도면 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④)



[도면 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⑤)

(도면 3-①, 사진 11-① · 12-①)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과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두께의 직선문이 0.4cm간격으로 정연하게 시문 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을 문질러 정면 하였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으나 두께는 일정하다. 잔존길이 15cm, 너비 10.1cm, 두께 1.8cm

(도면 3-②, 사진 11-② · 12-②)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수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지 못하다. 등면은 0.2cm두께의 직선문이 0.5cm간격으로 타날한 후 문질러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을 빗질정면 하였다. 측면은 등면에서 내면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3cm, 너비 7.8cm, 두께 2.2cm

(도면 4-②, 사진 11-⑥ · 12-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두께의 사선문을 0.8~1.0cm간격으로 시문 하였다. 내면은 0.1cm간격의 조밀한 포목흔을 사선방향으로 빗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4.7cm, 너비 6.3cm, 두께 1.5cm

(도면 4-①, 사진 11-⑤ · 12-⑤)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기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두께의 사선문이 0.4cm간격으로 시문 되었다. 내림면은 위쪽과 아래쪽에서 한 번씩 엇갈리게 잘라 떼어냈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있으며 포가 접힌 부분도 관찰된다. 잔존길이 5.7cm, 너비 5.6cm, 두께 0.9cm

(도면 3-④, 사진11-④ · 12-④)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두께의 사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윗쪽은 간격이 좁으나 아래로 내려올수록 간격이 커진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5cm, 너비 5.8cm, 두께 1.6cm

(도면 4-④, 사진 11-⑧ · 12-⑧)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조금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변형된 어골문이 중복되어 타날되었으며 일부는 문질러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을 세로방향으로 정면 하여 지웠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2cm, 너비 9.8cm, 두께 1.4cm

(도면 4-⑤, 사진 11-⑨ · 12-⑨)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등면은 0.3cm간격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중앙에 0.2cm두께의 세로줄이 시문되었다. 내면은 포를 꿰맨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다. 잔존길이 5.7cm, 너비 7.2cm, 두께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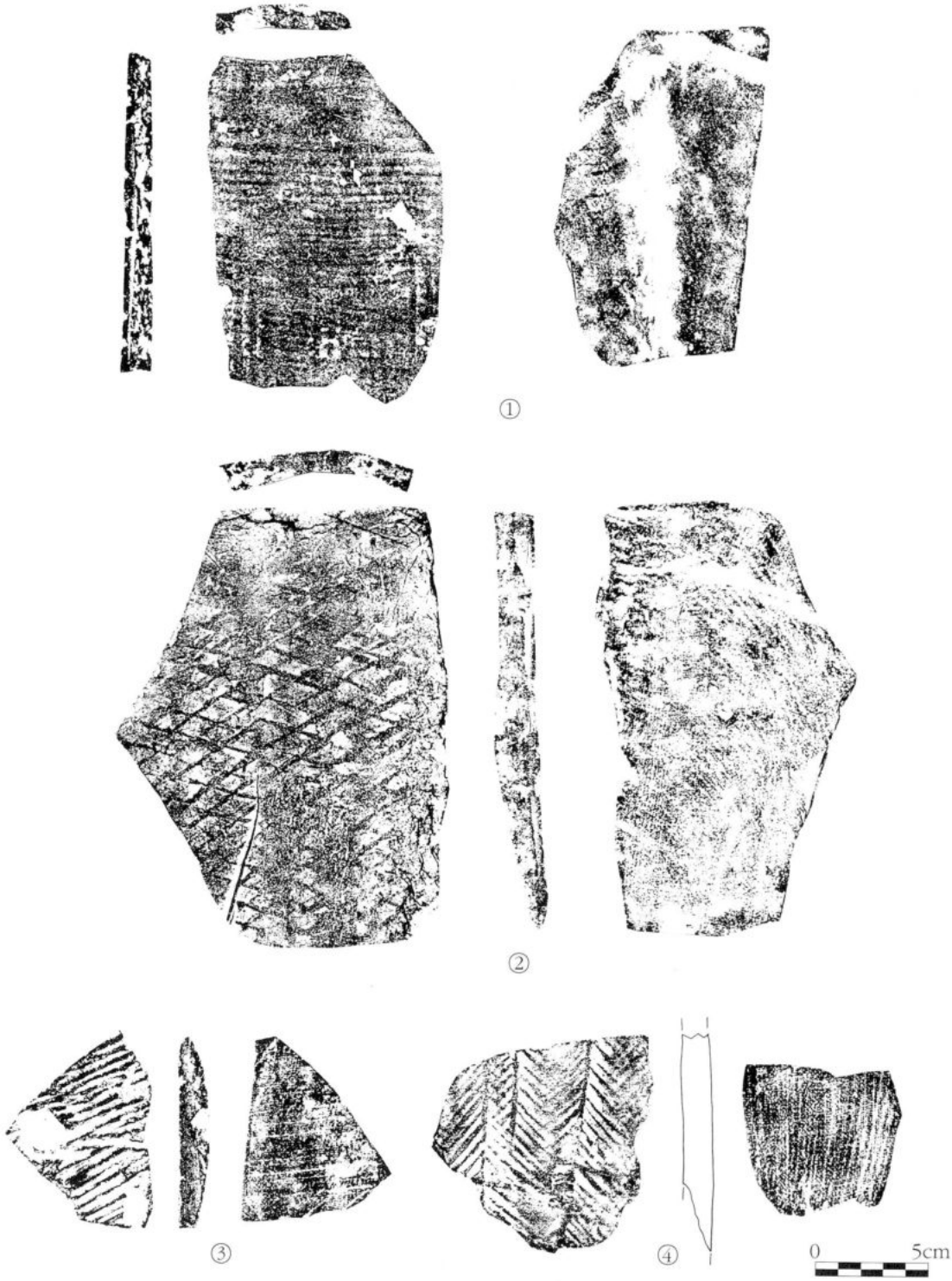
(도면 5-①, 사진13-① · 14-①)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크고작은 석립이 혼입 되었다. 등면은 0.3cm간격의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소성 시 갈라진 곳도 보인다. 내면은 0.1cm간격의 조밀한 포목흔과 포가 접힌 흔적이 남아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3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5.4cm, 너비 8.9cm, 두께 1.9cm

(도면 5-②, 사진 13-② · 14-②)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 되었고 비교적 정선되었다. 등면은 0.9cm간격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0.15cm간격의 포목흔과 횡으로 포가 접힌 흔적이 보이며 일부는 빗질정면 하였다. 측면은 등면에서 내면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6cm, 너비 12.7cm, 두께 2.2cm

(도면 5-③, 사진 13-③ · 14-③)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과 석립이 혼입 되었다. 등면은 0.2cm두께의 사선이 0.3cm간격으로 시문되었다. 내면은 포흔을 일부 문질러 지웠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3cm, 너비 6.8cm, 두께 1.7cm

(도면 5-④, 사진 13-④ · 14-④)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등면은 3.0cm정도의 시문구로 어골문을 타날 하였으며 곳곳에 중복타날 되었다. 내면은 0.1cm간격의 포목흔이 있다. 측면분할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도구로 살짝 그은 후 떼어냈다. 잔존길이 15.4cm, 너비 8.9cm, 두께 1.9cm

(도면 6-①, 사진 15-①)은 외면과 내면이 옅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옅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동체에서 내만하여 올라오다 90도 정도로 외반하여 구연부를 이루며, 끝 부분은 다시 한번 밑으로 꺾어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4cm



[도면 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3 (①~④)

(도면 6-②, 사진 15-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은 0.4cm두께의 突線이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내박자가 타날되었으며 위쪽으로 꺾어진 부분은 문질러 지운 것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1.3cm

(도면 6-③, 사진 15-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 되었다. 외면은 3조의 突線이 0.6cm간격으로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내박자가 타날 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 6-④, 사진 15-④)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으나 속 심에 기포로 인해 벌어진 상태이다. 외면은 조밀한 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으며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문질러 지운 것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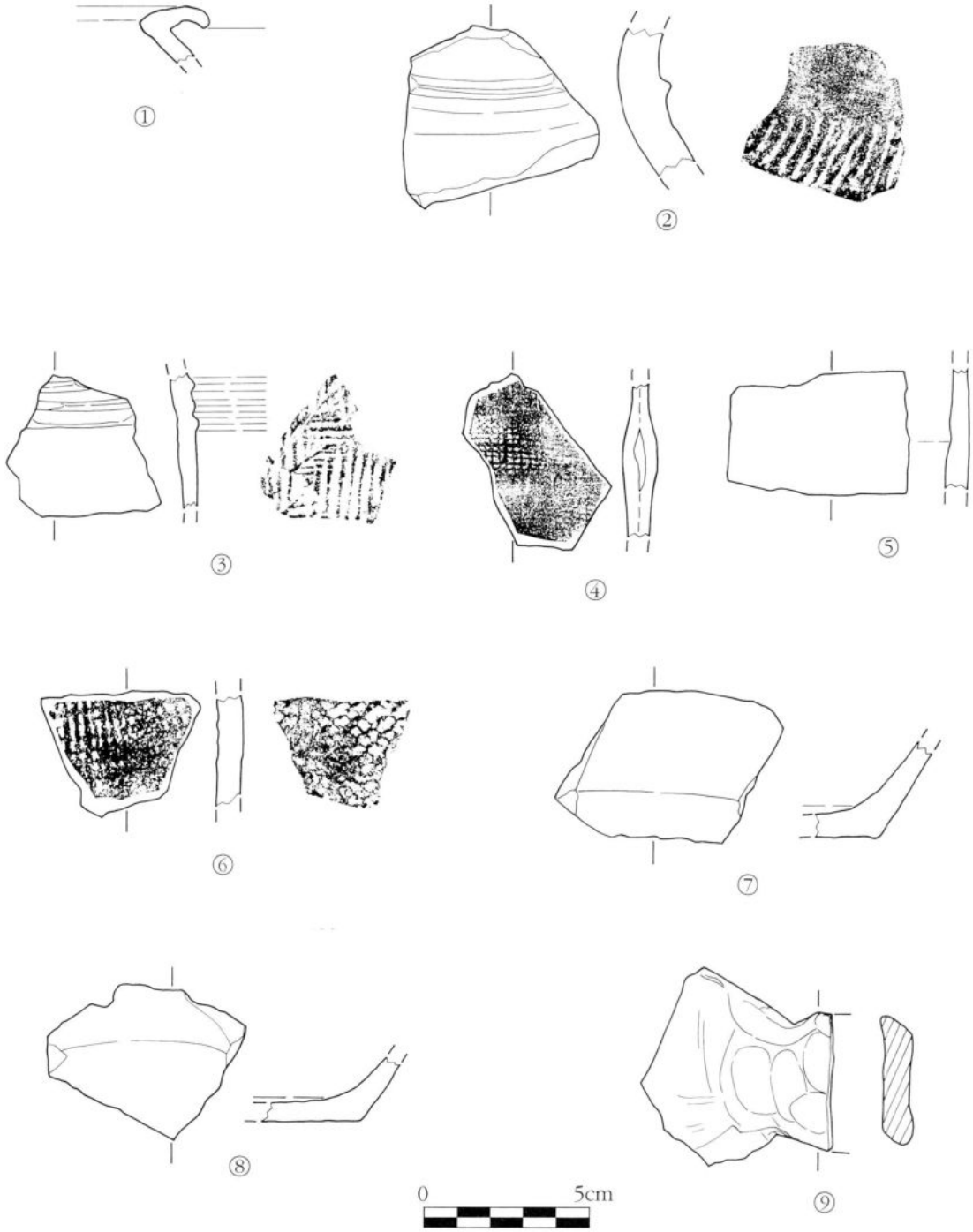
(도면 6-⑤, 사진 15-⑤)은 외면이 옅은 회갈색이며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석립이 조금 혼입 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을 얕게 타날 하였으며 일부는 문질러 정면 하였다. 내면은 내박자를 타날 하였다. 최대두께 0.7cm

(도면 6-⑥, 사진 15-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내면은 물레질로 인한 굴곡이 약간 남아있다. 최대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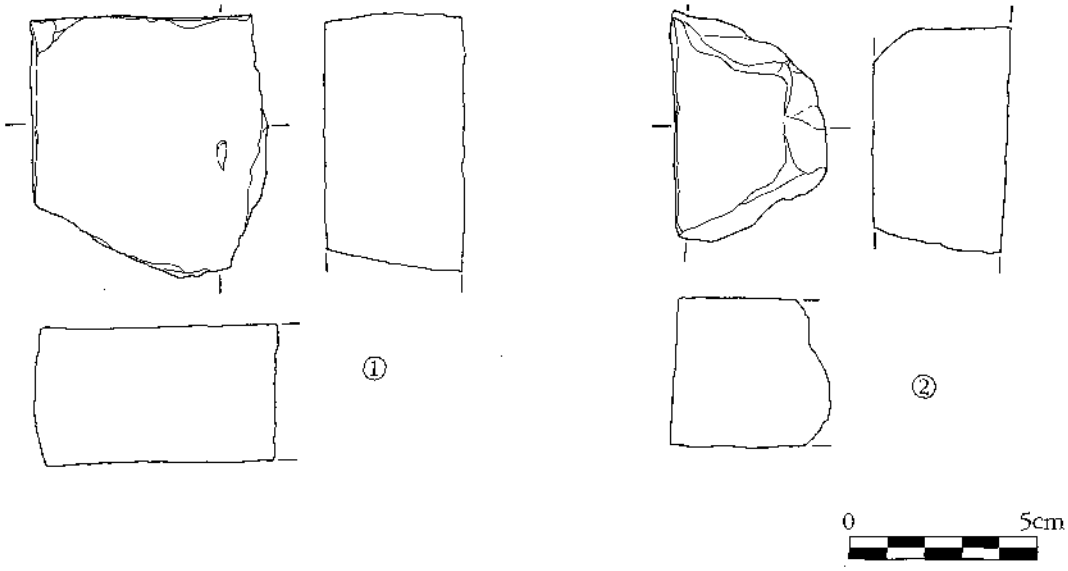
(도면 6-⑦, 사진 15-⑦)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 되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베어 나온 곳이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긁은 흔적도 보인다. 내면은 물레질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9cm

(도면 6-⑧, 사진 15-⑧)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 되었다. 외면은 동체와 저부의 연결부에 정면의 흔적이 보이며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두께 0.8cm, 저부두께 0.6cm

(도면 6-⑨, 사진 15-⑨)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 되었다. 파수는 동체에 이어 붙인 모습이며 접합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정면한 흔적이



[도면 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토기류 (①~⑨)



[도면 7]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전돌 (①②)

관찰된다. 파수두께 0.9cm, 동체두께 0.7cm

(도면 7-①, 사진 16-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塼片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약간 혼입되어 있으며 정선된 편이다. 윗면에는 물손질을 하였으며 관찰가능 면은 4면이다. 남아있는 모서리는 모두 직각을 이루고 있다. 현존크기 7.6×8.3×4.8cm

(도면 7-②, 사진 16-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塼片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되었다. 전체적으로 지표에서 많이 구른 모습이다. 관찰이 가능한 면은 3면이며, 각 면은 1~2회에 걸쳐 깨끗하게 그어 분할하였다. 현존크기 4.9×7.3×4.8cm

(4) 봉무리 도장골 선사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7, 지도 2)

· 위치 : 南四面 鳳舞 3里 도장동(도장골) 마을 북쪽 구릉상

· 유적현상 :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던 곳은 도장동 유물 산포지 A지점과 B지점을 구분하며 뻗어 내리는 구릉 상에 위치한다. 이 능선은 하천을 향해 뻗어 내리다가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서

끊어져 단애면을 형성하고 있다. 도로 개설 시 끊어진 것으로 보이는 구릉의 단면은 표토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편마암의 암반이다. 하지만 유물제작에 사용된 석재는 석영제 강자갈 돌로 완장천에서 채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 또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半磨製 石斧가 도장골 마을 내에서 채집되어 보고된 적이 있다. 석부의 날에는 사용 흔이 남아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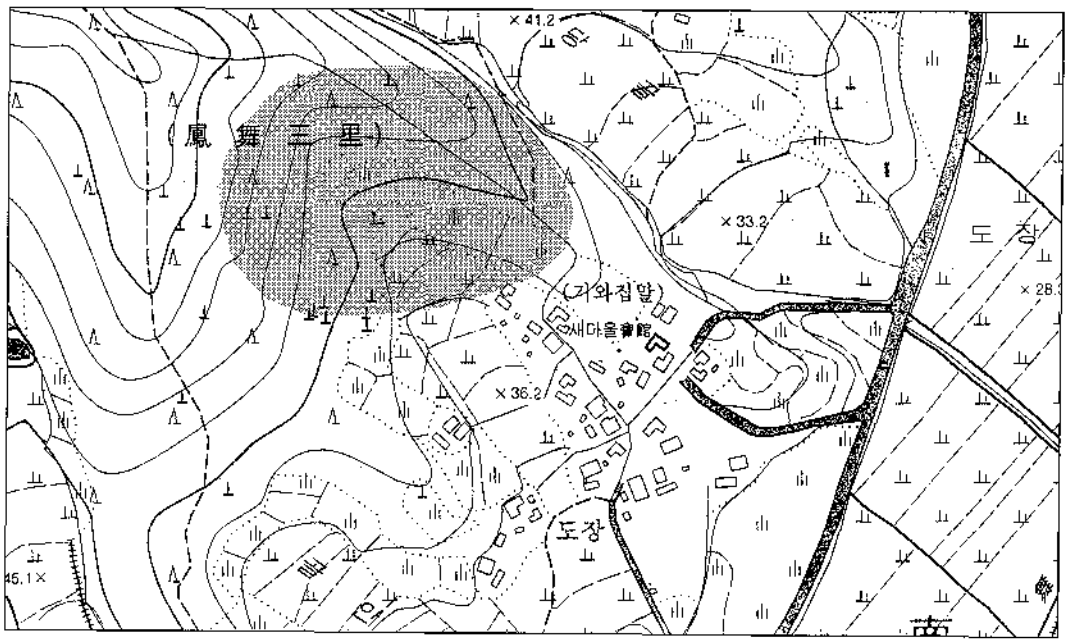
뗀석기 4점(몸돌 2점, 찍개-몸돌 1점, 찍개 1점), 압인형 마제석부 1점이 조사시 보고되었다.

(5)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8~23, 도면 8~10, 지도 3)

· 위치 : 南四面 鳳舞 3里 행목동(기와집말) 뒷산 북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아곡리 방향의 도로를 이용해 300m정도 북진하면 오른편으로 버스정류장이 보이며, 그 맞은편에 행목동(기와집말)입구가 있다. 유물 산포지는 마을로 진입하여



[지도 3] 봉우리 기와 집말 유물 산포지

2) 서울대학교박물관 · 용인시, 앞의 책, 1996, 68쪽.

북서쪽방향에 자리한 마을 뒷산의 북동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마을 지명에서 보이듯 유물이 폭넓게 산포되어 있다.

채집유물 중 복합문이 주를 이루는 기와 편과 土品의 백자류가 특징적이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약 200평의 밭 일대에 펼쳐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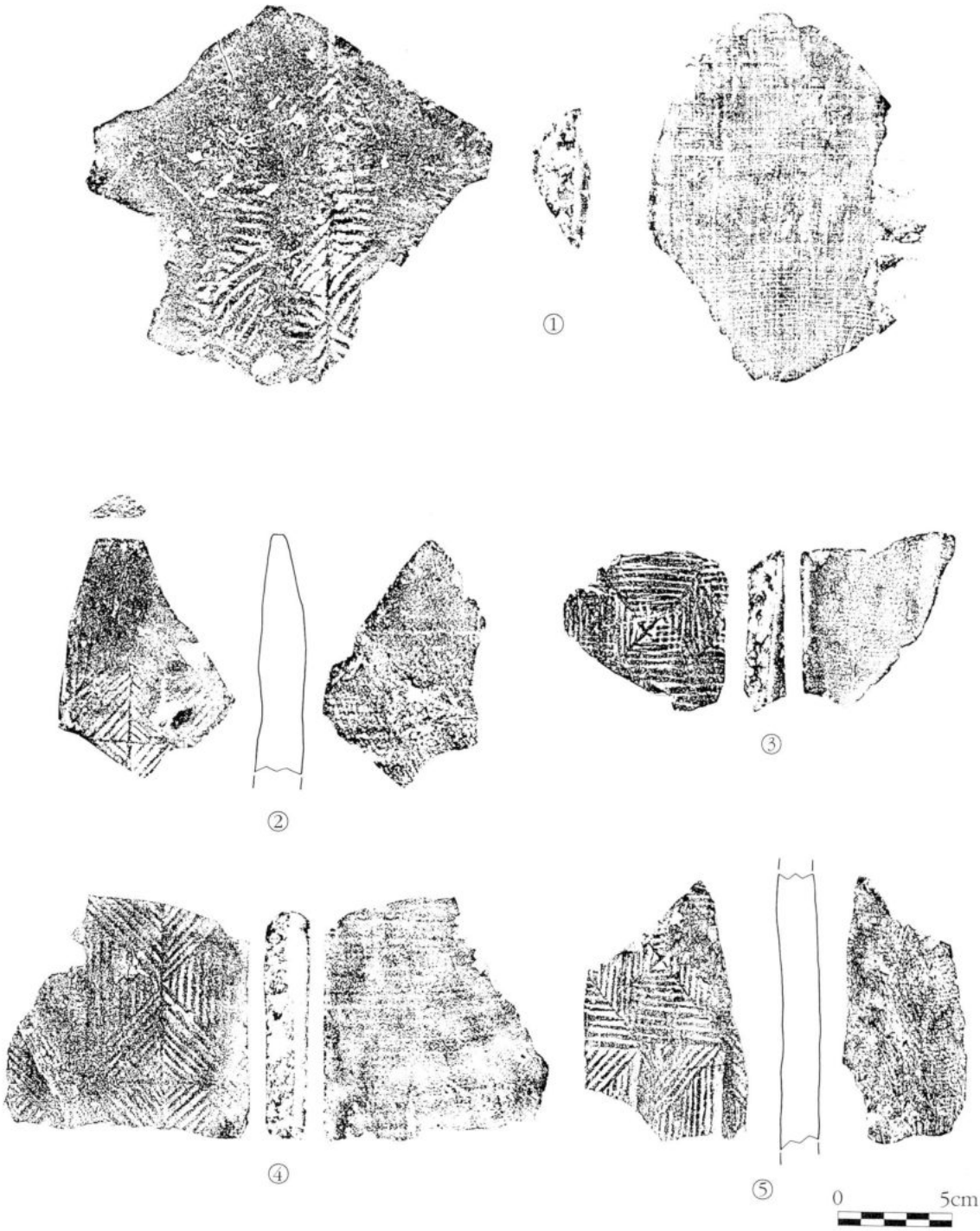
(도면 8-①, 사진 20-① · 21-①)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거의 마모되었으나 집선문이 시문 된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선명하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2cm, 너비 14.5cm, 두께 2.8cm

(도면 8-②, 사진 20-② · 21-②)은 연한 회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십자의 중심선 밖으로 여러 겹의 방곽이 둘러싸고 있는 변형어골문이 시문 되었다. 내림면 주변은 매끄럽게 정면 하였다. 내면은 내림면 위로 굵은 포흔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그을림 자국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0.9cm, 너비 8.2cm, 두께 1.1~2.1cm

(도면 8-③, 사진 20-③ · 21-③)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변형어골문이 시문 되어 있으며 타날 후 문양을 지운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은 포흔을 도구로 문질러 지웠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7cm, 너비 8.1cm, 두께 2.0cm

(도면 8-④, 사진 20-④ · 21-④)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십자의 중심선 밖으로 8겹의 방곽이 둘러싸고 있으며, 방곽들 사이로 0.3cm간격의 직선문이 시문 되었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선명하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0.8cm, 너비 10.4cm, 두께 1.9cm

(도면 8-⑤, 사진 20-⑤ · 21-⑤)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었다. 등면은 중심선 밖으로 방곽이 둘러싸고 있는 변형어골문이 중복 타날 되어 있으며 일부는 빗질을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을 문질러 정면 하였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다. 잔존길이



[도면 8]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12.4cm, 너비 6.8cm, 두께 1.8cm

(도면 9-①, 사진 22-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동체에서 내만하여 오르다가 90도로 평평하게 외반 하여 한번의 홈을 이룬 후 선단부에 이른다. 외면은 회전정면 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선명하다. 추정입지름 14cm, 최대두께 0.6cm

(도면 9-②, 사진 22-②)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잔존상태는 바닥일부이며 바닥과 동체의 연결부를 따라 동그랗게 떨어져 나갔다. 바닥은 안쪽으로 약간 들려있다.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잔존높이 1.3cm, 밑지름 10.2cm, 바닥두께 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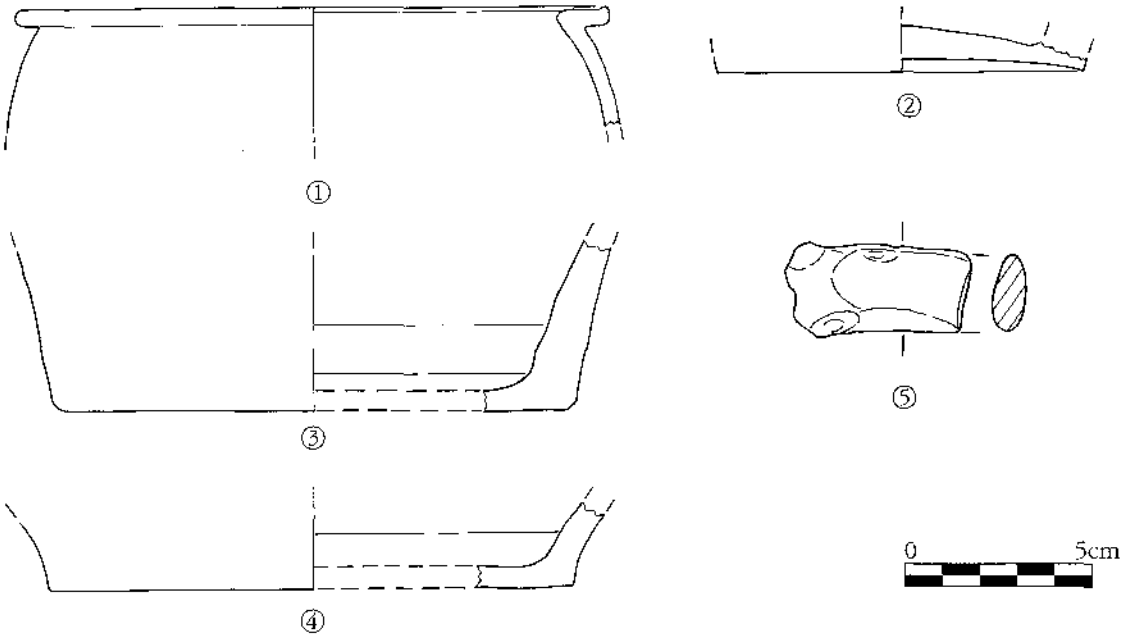
(도면 9-③, 사진 22-③)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와 저부의 연결부는 내 · 외면에 문질러 정면하였으나 깨끗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내면은 회전흔이 선명하다. 잔존높이 4.6cm, 추정지름 12cm, 동체두께 1.2cm, 바닥두께 0.9cm

(도면 9-④, 사진 22-④)은 외면이 회청색이며 내면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동체와 저부의 연결부에 손으로 눌러 이어 붙인 흔적이 보인다. 잔존높이 2.9cm, 추정밑지름 16cm, 동체두께 0.8cm, 바닥두께 0.8cm

(도면 9-⑤, 사진 22-⑤)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끝 부분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체에 연결하였다. 외면은 내면보다 여러 번 정면 하여 비교적 매끄럽게 마무리하였다. 잔존길이 4.9cm, 최대두께 1.1cm

(사진 22-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원판형 와제품이다. 바탕 흙은 크고 작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외면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내면은 0.1cm간격의 조밀한 포흔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5.9cm, 최대두께 2.1cm, 무게 80g.

(사진 22-⑦)은 원판형 토제품으로 황갈색으로 시유된 초벌 분청사기의 저부로 제작되었다. 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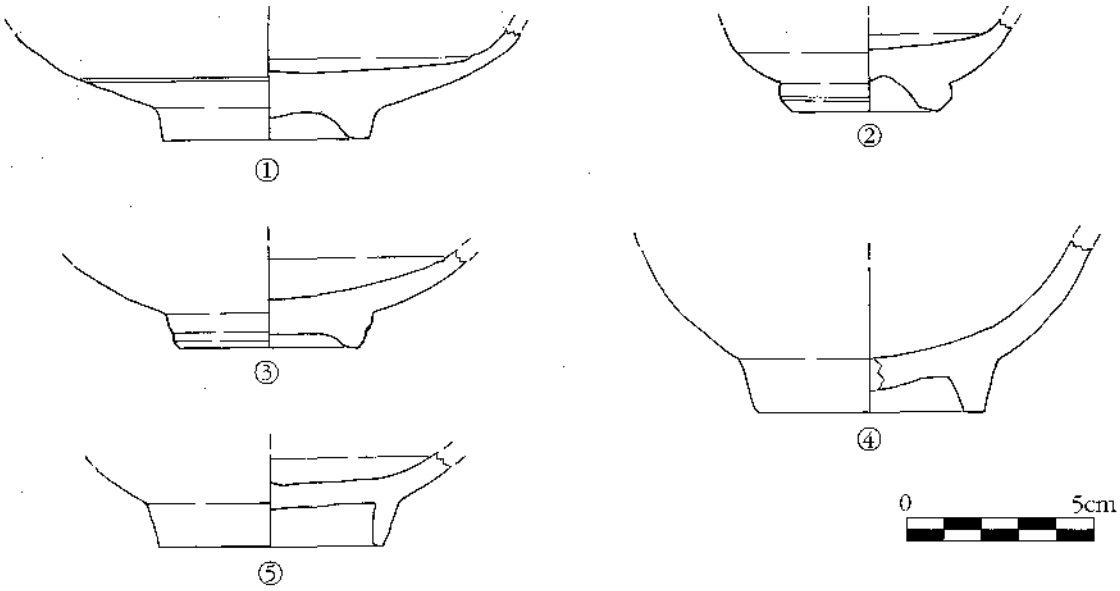
[도면 9]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삼각형굽이며 굽 안쪽을 도구로 깎은 흔적이 보인다. 저부를 중심으로 기벽을 동그랗게 떼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9cm, 최대지름 5.5cm, 굽지름 3.8cm, 굽높이 0.7cm, 무게 44g.

(도면 10-①, 사진 23-①)은 회백색으로 시유된 백자의 저부편이다. 굽은 'ㄷ' 자형 굽으로, 굽너비가 넓은 편이다. 외면은 흐른 유약을 닦아낸 흔적과 2조의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태토비짐눈이 방형으로 4개가 있으며 내저원각이 보인다. 잔존높이 2.7cm, 굽지름 5.6cm, 굽높이 0.7cm, 굽폭 0.9cm

(도면 10-②, 사진 23-②)은 녹색 빛이 도는 연한 회청색으로 시유된 백자의 저부편이다. 굽은 대마디굽이며, 굽 너비는 일정하지 않다. 시유 상태는 고르지 않다. 내면은 내저원각이 있다. 잔존높이 2.7cm, 굽지름 4.6cm, 굽높이 0.8cm, 굽폭 1.0cm

(도면 10-③, 사진 23-③)은 담록색으로 시유된 백자의 저부편이다. 굽은 여러 번 깎은 대마디굽이며, 굽의 안쪽은 낮은 편이다. 시유 상태는 비교적 고르지만 굽 주위는 거의 시유 되지 않았다. 전체



[도면 10]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⑤)

적으로 조밀한 빙열이 관찰된다. 내면은 태토비점눈 4개가 보이며 내저원각이 있다. 잔존높이 2.5cm, 굽지름 5.0cm, 굽높이 0.8cm, 굽폭 0.5cm

(도면 10-④, 사진 23-④)은 푸른빛이 도는 회백색으로 시유 된 백자의 저부편이다. 굽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유 상태는 매우 고르다. 내면은 내저원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6cm, 추정굽지름 8.0cm, 굽높이 1.2cm, 굽폭 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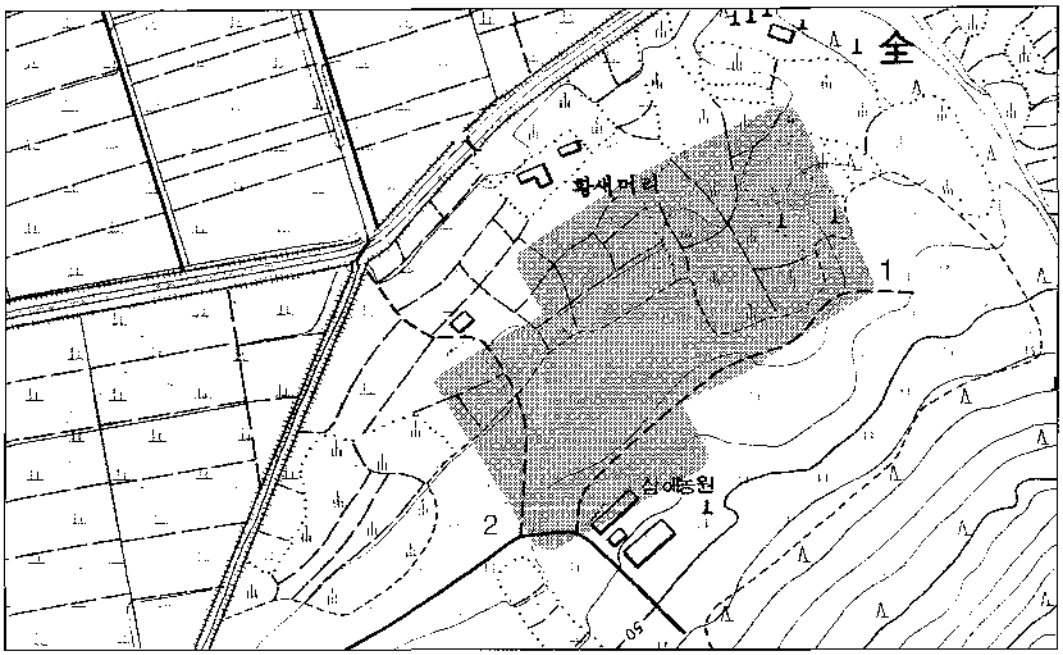
(도면 10-⑤, 사진 23-⑤)은 황갈색으로 시유 된 백자의 저부편이다. 시유 상태는 비교적 고른 편이다. 내면은 내저원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5cm, 추정굽지름 6.0cm, 굽높이 1.4cm, 굽폭 0.6cm

(6) 전궁리 토기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23~34, 도면 11~14, 지도 4)

· 위치 : 南四面 全宮里 소재 삼애목장 주변 구릉 남사면 일대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봉무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난 포장된 농로를 따라 1km



[지도 4] 1. 전궁리 토기요지, 2. 유물 산포지

정도 남진하면 막다른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 삼애목장 입구가 바라보인다. 유적은 산사면의 하단부에 위치한 목장 내 축사에서 북동쪽으로, 다시 발해 목장 입구에 위치한 전궁리 유물 산포지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밭 일대와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이 끝난 평탄지의 최근 조성된 민묘 주위에 요지와 관련된 유물이 산재되어 있다. 한편 유적에 인접한 남동쪽 구릉사면에는 크게 절개되어 단면이 노출된 지역이 있으나 유물은 없었다.

채집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연질토기편이 주를 이루며 경질토기도 함께 수습되었다. 특히 저부편은 굽이 낮고, 통 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유물

(도면 11-①, 사진 28-①)은 연한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정선된 상태이다. 경부에서 곧게 올라오다가 밖으로 45도 정도로 바라지고 있으며, 구연의 선단부에 이르기 전에는 한번의 단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면에는 물레질 자국이 보인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1-②, 사진 28-②)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

었다. 경부에서 완만하게 바라지다가 한 단이 지며 선단부에 이른다. 구순은 넓은 편이며 가운데 홈이 돌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레질 흔적이 선명하다. 최대두께 1.0cm

(도면 11-③, 사진 28-③)은 옅은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경부에서 곧게 오르다가 선단부의 1cm 앞에서 살짝 바라지고 있다. 외면은 자연유의 흔적이 보이나 거의 마멸된 상태이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1-④, 사진 28-④)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구연부는 외면에 점토를 덧대어 단면이 역삼각형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구순에는 홈이 돌아간다. 최대두께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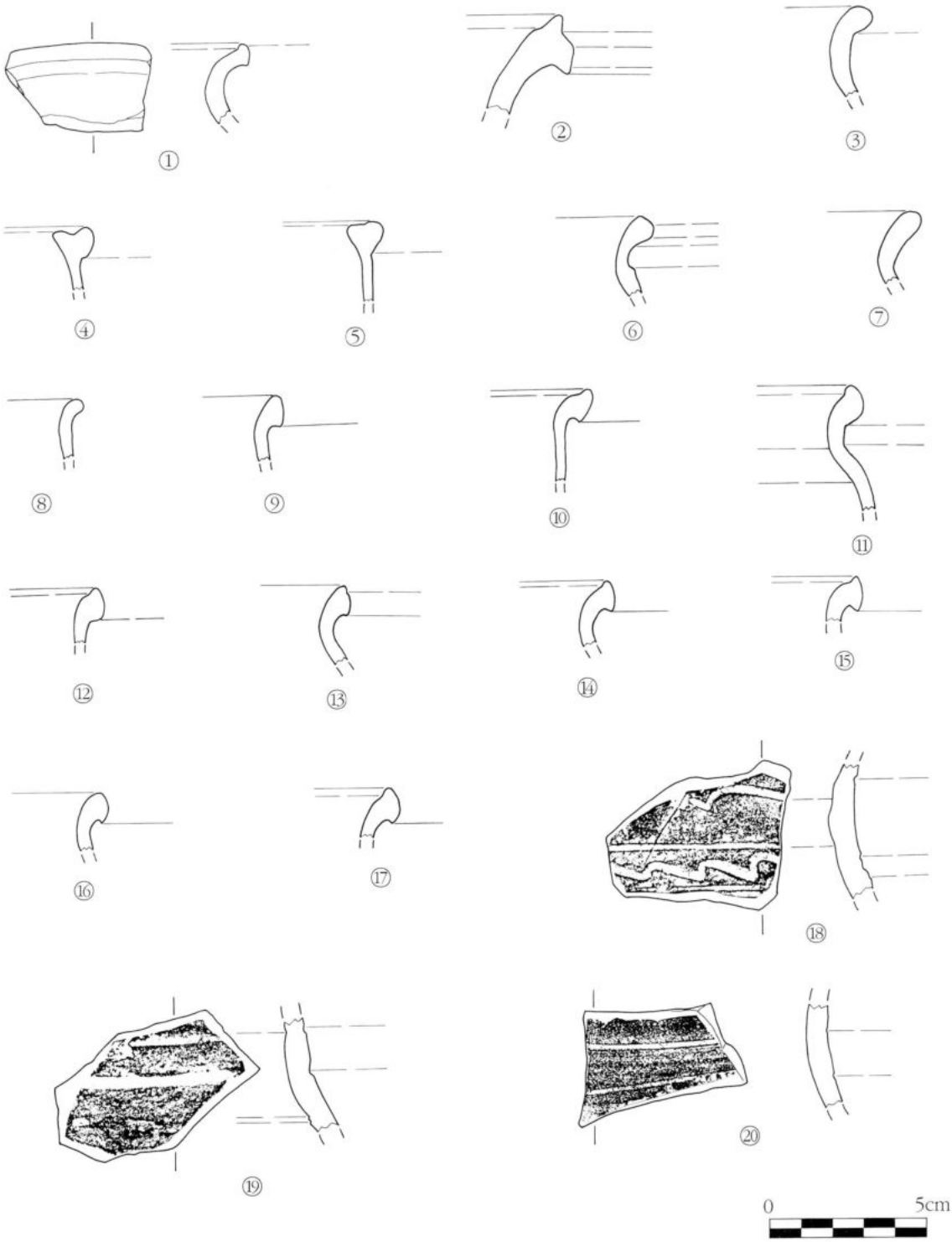
(도면 11-⑤, 사진 28-⑤)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되었다. 구연은 내만하여 올라온다. 입술은 중간에 얕게 홈이 돌아가지만 판판한 편이며, 단면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밖으로 말아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1.1cm

(도면 11-⑥, 사진 28-⑥)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구연은 약 45도 정도 바라졌으며 선단부는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⑦, 사진 28-⑦)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었다. 구연은 약 50도 정도로 외반 되었으며 선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1-⑧, 사진 28-⑧)은 밝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동체에서 곧게 오르다가 선단부에서 0.5cm 앞에서 밖으로 살짝 바라지며 끝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5cm

(도면 11-⑩, 사진 29-①)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동체에서 내만하다가 구연부에서 밖으로 80도 정도로 외반 되었으며 입술은 안쪽을 향하여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1 (①~⑳)

(도면 11-⑪, 사진 29-②)은 밝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동체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밖으로 약간 바라진다. 선단부 앞에서는 한번의 단을 이루며 외면으로 반 타원형을 이루며 말아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1-⑫, 사진 29-③)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선단부 앞에서 얕은 홈을 이루며 입술은 밖으로 판판하게 말아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⑬, 사진 29-④)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구연부는 밖으로 45도 정도 외반 하였으며 끝은 외면으로 말아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1-⑭, 사진 29-⑤)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80도 정도로 바라지며 선단부 앞에서 한번의 단을 이룬다. 입술을 거의 평평하며 외면으로 말아 처리하였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⑮, 사진 29-⑥)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선단부 앞에서는 얕은 홈이 돌아가고 있으며 외면으로 말아 접어 마무리하였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1-⑯, 사진 29-⑦)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구연은 선단부 앞에서 한번의 단을 이루며 입술은 바깥으로 말아 내렸다. 최대두께 1.0cm

(도면 11-⑰, 사진 29-⑧)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매우 정선되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바라졌으며 끝은 외면으로 말아 붙였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⑱, 사진 30-①)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외면은 횡선 사이로 0.3cm두께의 파도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1-⑲, 사진 30-②)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외면은 1.2cm 간격으로 0.2cm 두께의 횡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횡선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밖으로 꺾어지고 있다. 내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물레질한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1-⑳, 사진 30-③)은 외면과 내면이 진한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외면은 0.2cm 두께의 횡선 2줄이 돌아가며, 외면과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2-①, 사진 30-④)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물레질 자국이 선명하며 특히 세게 누른 곳에서 밖으로 바라지고 있다. 최대두께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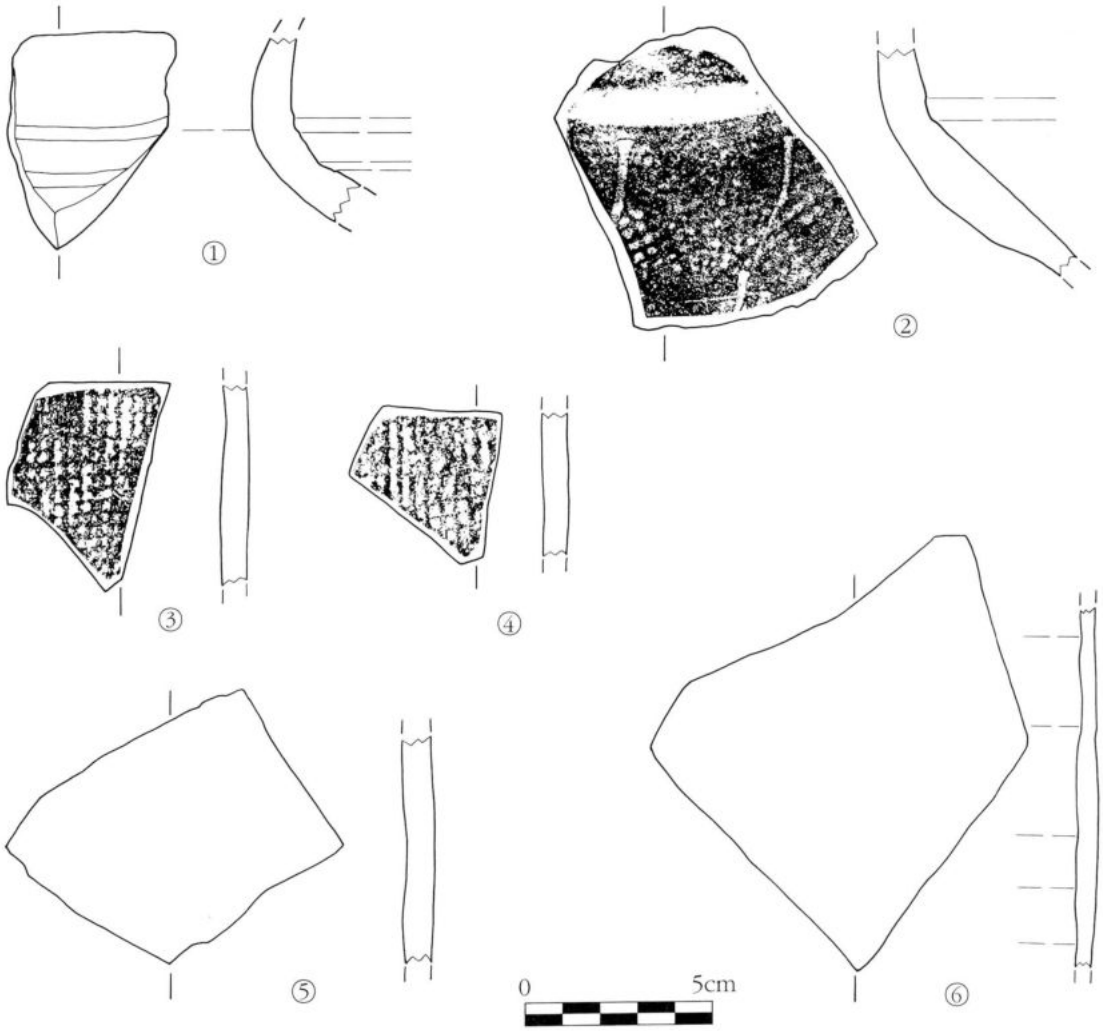
(도면 12-②, 사진 30-⑤)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어 정선되지 못한 편이다. 외면은 물레질 자국이 있으며 0.6cm두께로 세게 누른 곳에서 바라진다. 또한 동체부에는 격자문을 타날 한 후 문질러 정면 하였다. 내면에는 바탕 흙을 덧붙인 자국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1.4cm

(도면 12-③, 사진 31-①)은 외면이 회백색, 내면이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외면은 0.2cm 간격의 격자문을 타날 한 후 문질러 지운 흔적이 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2-④, 사진 31-②)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0.3cm 간격의 격자문이 타날 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2-⑤, 사진 31-③)은 외면과 내면이 회백색이며 속 심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가는 사립이 혼입된 고운 바탕 흙을 사용하였다. 내면에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9cm

(도면 12-⑥, 사진 31-④)은 외면과 내면이 밝은 황갈색이며 속 심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으며 손에 가루가 묻을 정도의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면에는 물레질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2]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2 (①~⑥)

(도면 13-①, 사진 31-⑤)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은 0.5cm 두께의 突帶가 동체에 부착되어 돌아가고 있다. 돌대의 위, 아래에는 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 13-②, 사진 31-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지 못하다. 외면은 단면 삼각형의 突帶가 부착되어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회전 흔이 선

명하게 남아있다. 최대두께 1.1cm

(도면 13-③, 사진 31-⑦)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이 적갈색인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지 못하다. 외면은 단면이 '凹' 자형인 두께 0.7cm의 突帶가 돌아가고 있으며, 위·아래에 사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3-④, 사진 31-⑧)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단면이 '凹' 자형인 두께 0.8cm의 돌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격자문이 타날 되었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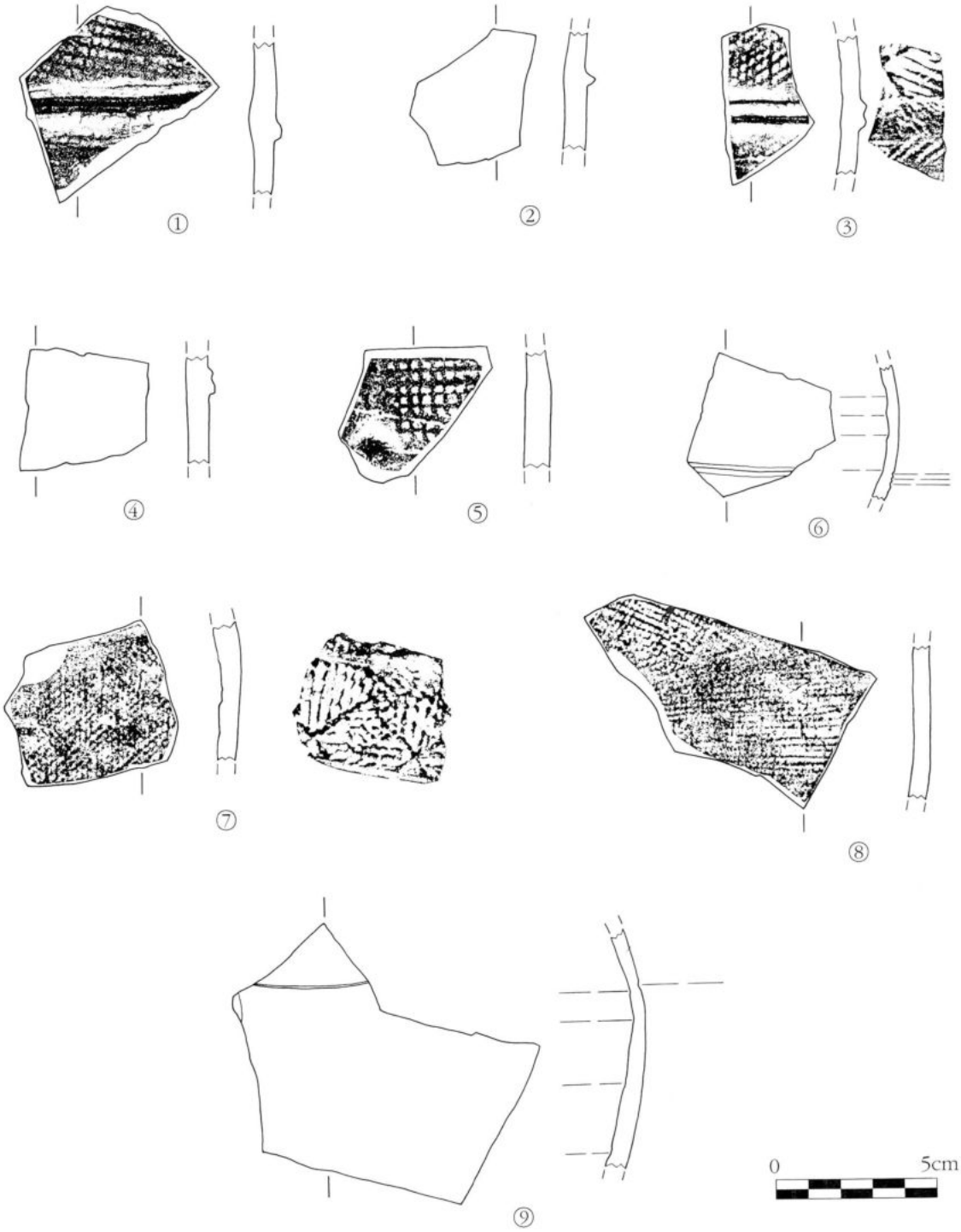
(도면 13-⑤, 사진 31-⑨)은 외면이 진한 회청색,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이 적갈색인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외면에 기포로 인해 부풀어 오른 곳이 있다. 또한 외면은 자연유가 보이며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3-⑥, 사진 31-⑩)은 외면이 진한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청색, 속 심이 적갈색인 경질의 동체편이다. 정선된 바탕 흙을 사용하였다. 외면은 0.1cm 두께의 횡침선 3줄이 돌아가고 있으며 자연유가 보인다.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최대두께 0.5cm

(도면 13-⑦, 사진 31-⑪)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조밀한 사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3-⑨, 사진 31-⑫)은 회흑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흙은 사립이 다량으로 혼입되어 정선되지 못하다. 외면은 자연유가 흐르며 0.1cm 두께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물레질 자국이 선명하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3-⑧, 사진 31-⑬)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0.1cm간격의 격자문이 여러 방향으로 얕게 타날 되었다. 내면은 내박자와 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3]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3 (①~⑨)

(도면 14-①, 사진 32-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다. 굽은 짧고 밖으로 바라져 있다. 외면은 굽의 위쪽에 0.6cm 두께로 돌아가며 깎아낸 흔적이 보인다. 내면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깎아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2.6cm, 동체두께 0.3cm, 추정굽지름 8cm, 굽높이 0.7cm

(도면 14-②, 사진 32-②)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으로 혼입되었으며 만지면 묻어날 정도로 곱다. 굽은 짧으며 'ㄷ' 자형으로 밖으로 약간 들린 상태이다. 내면은 물레질로 인한 굴곡이 남아있다. 잔존높이 1.8cm, 동체두께 0.5cm, 굽지름 7.2cm, 굽높이 0.7cm, 굽폭 0.7cm.

(도면 14-③, 사진 32-③)은 외면과 내면은 황갈색이며, 속 심은회흑색인 연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고운 것을 사용하였다. 굽의 형태는 'ㄷ' 자형으로 밖으로 약간 바라진 상태이다. 내면은 굴곡이 남아있다. 잔존높이 2.2cm, 동체두께 0.5cm, 추정굽지름 6cm, 굽높이 0.6cm, 굽폭 0.4cm.

(도면 14-④, 사진 32-④)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굽은 밖으로 약간 벌어져있으며 굽의 안쪽과 내면에는 굴곡이 보인다. 잔존높이 2.7cm, 동체두께 0.4cm, 추정굽지름 8cm, 굽높이 0.8cm, 굽폭 0.4cm.

(도면 14-⑤, 사진 32-⑤)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가는 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고운 바탕 흙이다. 굽은 짧고 밖으로 약간 바라져있다. 굽의 안쪽은 굴곡이 있다. 잔존높이 1.4cm, 추정굽지름 7cm, 굽높이 0.8cm.

(도면 14-⑥, 사진 32-⑥)은 외면과 내면이 황갈색을 띠며 속 심은 회흑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굽은 평저의 통굽이며 두께는 0.4cm이다. 굽과 동체의 연결각도는 35도 정도이다. 잔존높이 2.5cm, 추정굽지름 6cm, 굽높이 0.4cm.

(도면 14-⑦, 사진 32-⑦)은 외면이 황갈색이며 내면과 속 심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바닥은 평저로 도구를 사용하여 판판하게 잘라낸 흔적

이 보인다. 내면에 성형 시 생긴 굴곡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2cm, 추정굽지름 8cm.

(도면 14-⑧, 사진 32-⑧)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었다. 바닥은 굽이 얕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거의 마모되어 평저로 보이며, 안쪽으로 약간 들려있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은 편이다. 내면에 굴곡이 보인다. 잔존높이 1.2cm, 추정굽지름 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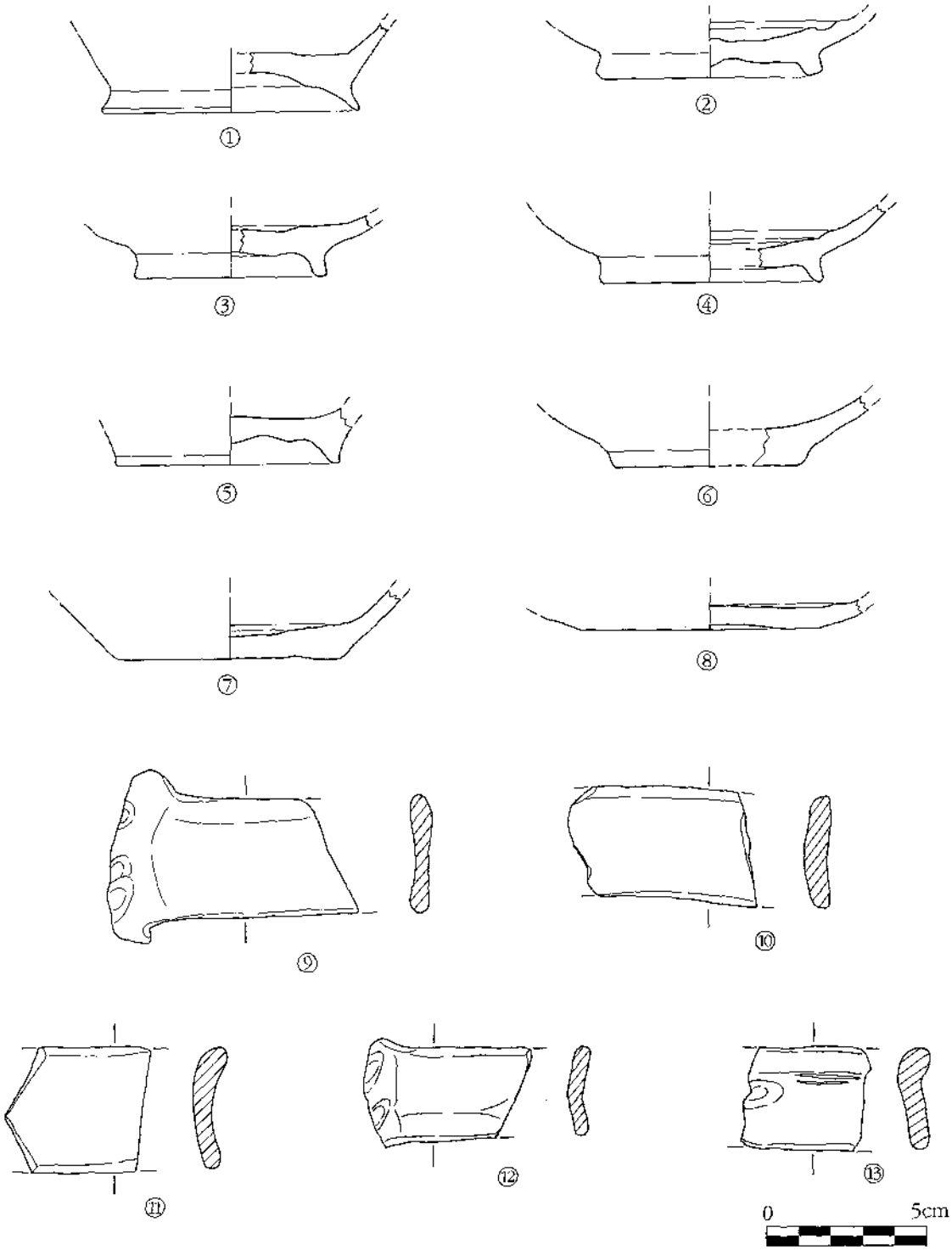
(도면 14-⑨, 사진 33-①)은 외면이 옅은 회청색이며 내면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동체와의 접합부분은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파수의 중앙부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고 있다. 내면은 거칠게 정면 하였다. 잔존길이 7.2cm, 너비 5.3cm.

(도면 14-⑩, 사진 33-②)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운모가 소량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좌우 끝 부분은 결실되었다. 상하로는 밖으로 약간 바라진 모습이며 도구로 깎아 정면 하였다. 잔존길이 5.7cm, 너비 3.5cm

(도면 14-⑪, 사진 33-③)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양쪽 끝 부분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밖으로 약간 벌어지게 한 후 끝은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4.2cm, 너비 3.9cm

(도면 14-⑫, 사진 33-④)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잔존부분은 한쪽방향이 결실되었으며 동체부와의 이음부는 약간만 손으로 눌러 붙였다. 전체적으로 밖으로 벌어졌으나 내면에 굴곡이 진 곳도 보인다. 잔존길이 5.1cm, 너비 3.3cm.

(도면 14-⑬, 사진 33-⑤)은 외면이 밝은 황갈색이며 내면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양쪽 부분은 결실되었으며, 상하 끝 부분의 벌어진 곳에 바탕 흙은 접은 후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3.7cm, 너비 3.1cm



[도면 14]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4 (①~⑬)

(7) 전궁리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35~40, 도면 15~17, 지도 4)

· 위치 : 南四面 全宮里 삼애목장 진입로 일대

· 유적현상 : 유물 산포지는 삼애목장 입구에서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접한 밭 주변과 삼애목장 아래로 이어지는 구릉사면의 말단 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30m×20m정도이다. 토기요지 유적과는 40여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유물 상으로 보아 유물 산포지가 약간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유물 중 기와류는 무문양이 많으며, 토기류는 대부분이 경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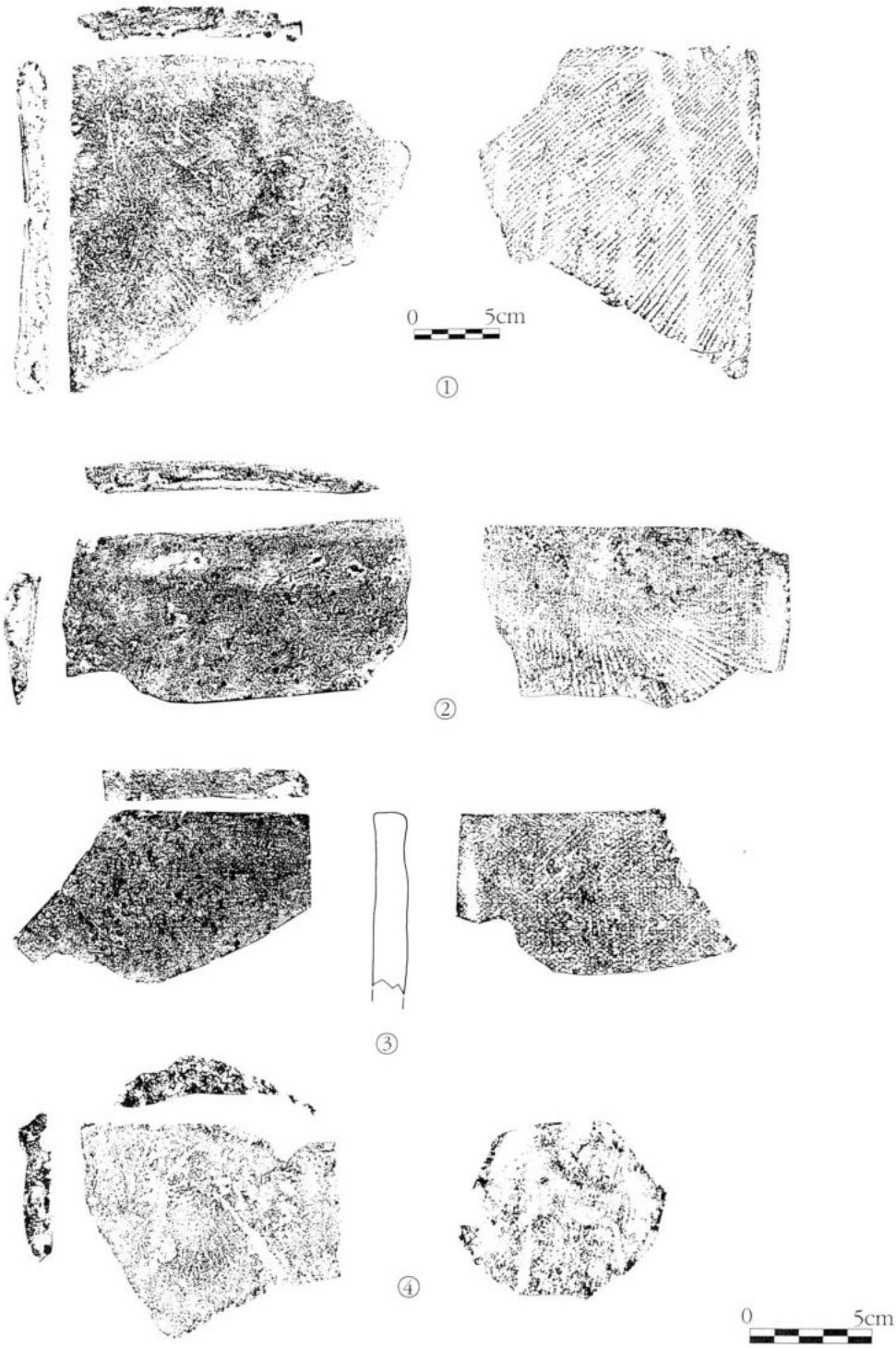
2) 유물

(도면 15-①, 사진 36-① · 37-①)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조금 혼입된 점토질이며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등 면은 무문양이며 내림 면 주위로 가는 빗질을 하였다. 내면은 일정한 간격의 굵은 빗질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6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9cm, 너비 18.4cm, 두께 1.7~2.2cm

(도면 15-②, 사진 36-② · 37-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조금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며 소성도는 매우 단단하다. 등 면은 내림 면 주변을 좌우방향으로 문질러 정면 하였다. 내면은 0.1cm간격의 포목흔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분할 선을 얕게 그어 떼어냈다. 잔존길이 7.7cm, 너비 13.9cm, 두께 1.0~1.8cm

(도면 15-③, 사진 36-③ · 37-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된 정선된 점토 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등 면은 문양이 없이 좌우방향으로 고운 빗질을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손가락으로 살짝 늘린 자국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7.5cm, 너비 10.6cm, 두께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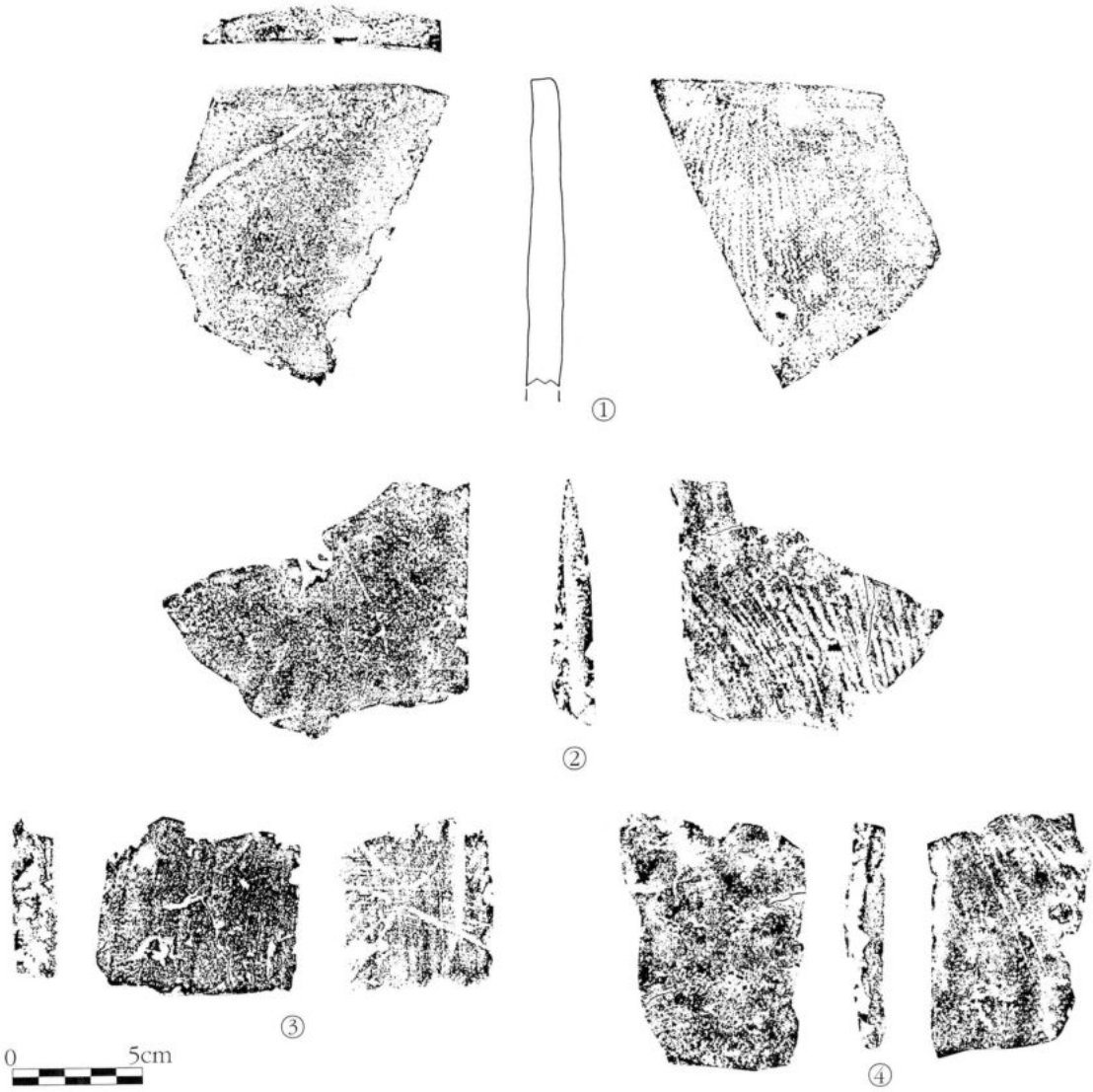
(도면 15-④, 사진 36-④ · 37-④)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 질이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내림 면은 매끄러우며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으로 한번에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4cm, 너비 9.0cm, 두께 1.8cm



[도면 15]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도면 16-①, 사진 38-① · 39-①)은 옅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매우 정선된 점토 질이다. 등 면은 무 문양이며 고운 빗질을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굵은 빗질 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2cm, 너비 9cm, 두께 1.4cm

(도면 16-②, 사진38-② · 39-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수 혼입되었다. 등 면은 문양이 없으며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나와있다. 내면은 포 흔과 굵은 빗질



[도면 16]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흔이 보이며 내림 면의 길이는 4.4cm정도이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2/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7cm, 너비 11.1cm, 두께 0.8~1.9cm

(도면 16-③, 사진 38-③ · 39-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 질이다. 등 면은 무 문양이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과 얇게 포가 접힌 자국이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6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1cm, 너비 7.3cm, 두께 1.7cm

(도면 16-④, 사진 38-④ · 39-④)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 면은 무 문양이며 빗질 정면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을 모두 문질러 지웠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8cm, 너비 1.2cm, 두께 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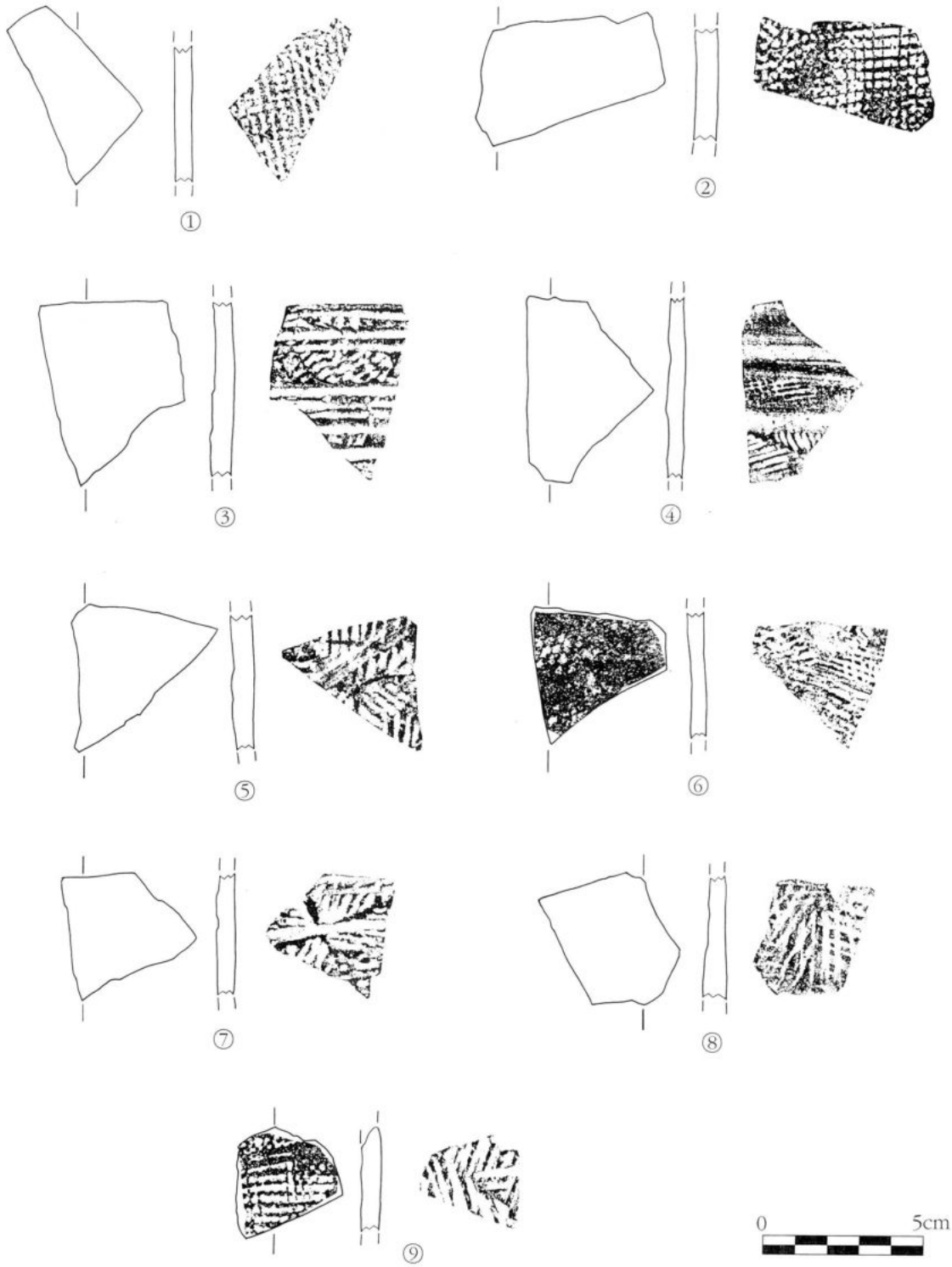
(도면 17-①, 사진 40-①)은 외면과 내면이 옅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물레질흔적이 남아있으며 내면은 격자문의 내박자가 타날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7-②, 사진 40-②)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운모가 조금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었다. 외면은 정면의 흔적이 보이며 내면에는 정격자문의 내박자가 타날되었으나 문질러 지운 곳도 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7-③, 사진 40-③)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문양을 타날한 후 문질러 지웠다. 내면에도 내박자를 친 후 회전 흔으로 인한 굴곡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7-④, 사진 40-④)은 외면은 회갈색이며, 내면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정선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문질러 지웠다. 내면에도 내박자를 친 후 회전 흔적으로 인한 굴곡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5cm

(도면 17-⑤, 사진 40-⑤)은 외면과 내면은 옅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연한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도면 17]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⑨)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은 타날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회전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 17-⑥, 사진 40-⑥)은 외면이 회흑색이며 내면과 속 심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문양을 타날한 후 문질러 지웠으며 자연유가 베어 나왔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0.5cm

(도면 17-⑦, 사진 40-⑦)은 외면이 흑갈색이며 내면과 속 심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조금 베어 나왔다. 내면에도 내박자를 친 후 회전 흔으로 인해 굴곡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7-⑧, 사진 40-⑧)은 외면과 내면이 옅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어있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문질러 지운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7-⑨, 사진 40-⑨)은 외면이 회갈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운모가 조금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은 내박자가 남아있다. 최대두께 0.6cm

(8) 창리 선돌 (경기도 문화재자료 61호)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41-42, 지도 5)

· 위치 : 南四面 倉里 487-1 창말 마을 감바위골

· 지정 년월일 및 고시 년월일 : 85. 6. 28 / 85. 9. 16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봉무교를 건너 방아리 · 창리 방향의 도로로 방아천을 왼쪽에 두고 1.5km 정도 동진 하면 창리교에 이른다. 유적은 창리교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비포장도로를 따라 100m정도 북동진 하면 경작지 한편에 위치한 선돌을 만나게 된다. 창말 마을의 계곡입구 논 옆에 위치한다. 현존크기는 높이 200cm, 폭 80cm, 두께 35cm이다. 선돌의 아랫부분에는 치석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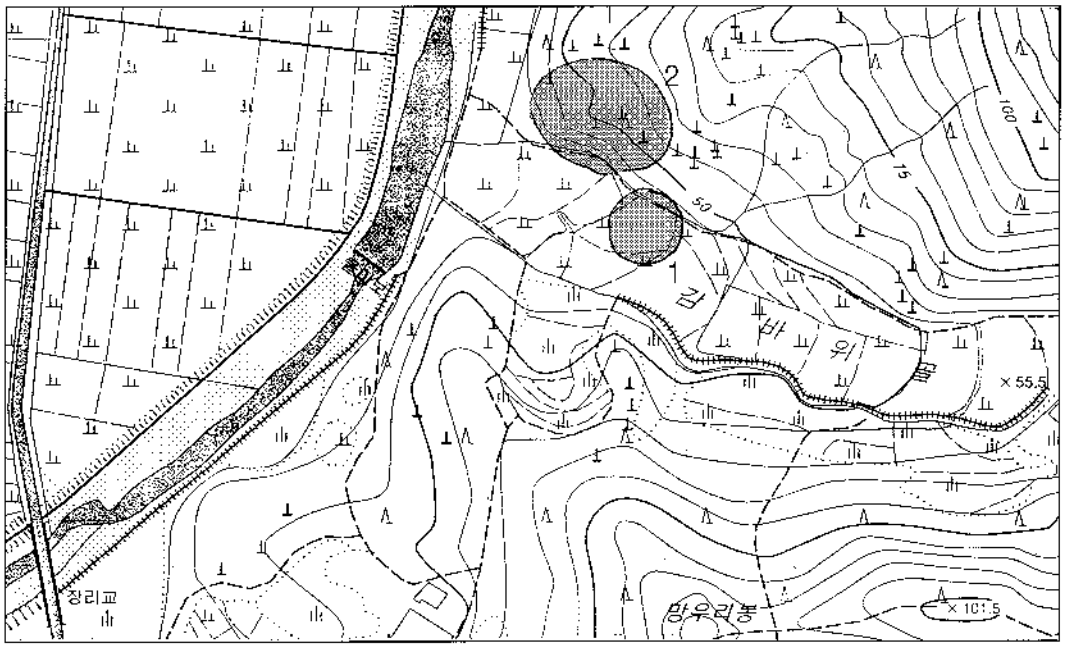
(9) 창리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43, 도면 18-19, 지도 5)

· 위치 : 南四面 倉里 창말 마을 감바위골 선돌 북쪽 구릉 민묘 일대

· 유적현상 : 창리 유물산포지는 선돌에서 10~20m 떨어진, 북쪽 구릉사면 말단부의 晉州蘇氏墓 주위에 해당한다. 근래에 분묘 조성 시 포크레인에 의해 주변의 형질이 변하면서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서편은 처인성의 동쪽을 지나 내려온 완장천이 있다. 유적의 범위는 20m×20m정도이나 아래쪽으로 골짜기로 진입하는 비포장 도로와 농경지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채집유물은 격자문, 초화문, 사선문 등이 시문된 기와류로 보아 사용시기는 고려시대로 생각된다.



[지도 5] 1. 창리 선돌, 2. 창리 유물 산포지

2) 유물

(도면 18-①, 사진 45-① · 46-①)은 연한 회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 면은 많이 마모되었지만 장방형의 격자문으로 보인다. 내면은 0.1cm 간격의 포목흔이 보이며 측면은 와도로 한번에 깨끗하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5.9cm, 너비 4.8cm, 두께 1.9cm

(도면 18-③, 사진 45-② · 46-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로 군데군데 석립이 박혀있다. 등 면은 0.8cm간격의 사격자문이 시문 되어 있으며 일부는 빗질한 곳도 보인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과 굵은 빗질을 한 것이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8cm, 너비 14.3cm, 두께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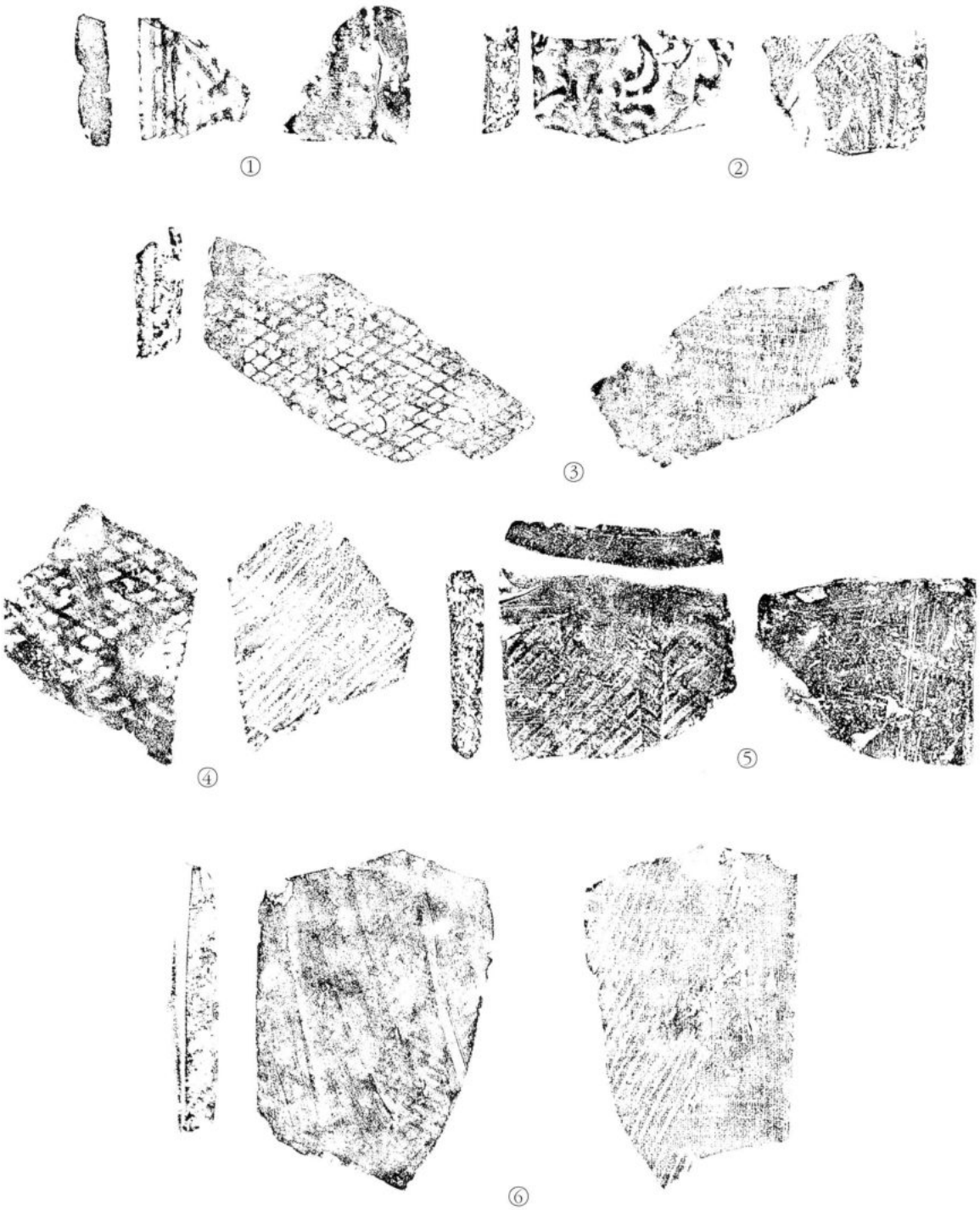
(도면 18-④, 사진 45-③ · 46-③)은 외면이 연한 황갈색이며 내면은 밝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사격자문을 시문 한 후 여러 번 정면 하여 지웠으며 여러 군데 누른 자국이 보인다. 내면은 굵은 빗질로 포목흔을 지웠다. 측면은 남아있지 않다. 1.7cm

(도면 18-⑤, 사진 45-④ · 46-④)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등 면은 무 문양이나 상하로 고운 빗질을 하였다. 내면은 0.1cm간격의 포목흔 위로 굵은 빗질을 하였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5.7cm, 너비 10.6cm, 두께 1.9cm

(도면 18-⑥, 사진 45-⑤ · 46-⑤)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등 면은 0.6cm간격의 사선문이 시문 되었으며 일부는 중복 타날되어 어골문으로 보인다. 내림 면과 맞닿는 모서리부분은 둥글게 깎아내었다. 내면은 거의 마모되었으며 측면은 내면에서 와도로 분할선 만 그은 후 깨끗하게 떼어냈다. 잔존길이 8.4cm, 너비 10.4cm, 두께 10.7cm

(도면 18-②, 사진 45-⑥ · 46-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속 심으로 기공이 약간 보인다. 등 면은 초화문이 양각으로 시문 되어 있다. 내면은 포가 겹친 흔적이 있으며 고운 비질로 포목흔을 모두 지웠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 면 방향으로 1/10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5.2cm, 너비 8.1cm, 두께 2.5cm

(도면 19-①, 사진 47-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외면은 0.2cm간격의 격자문이 타날 되었으며 내면에는 내박자를 친 후 물손질 한 흔적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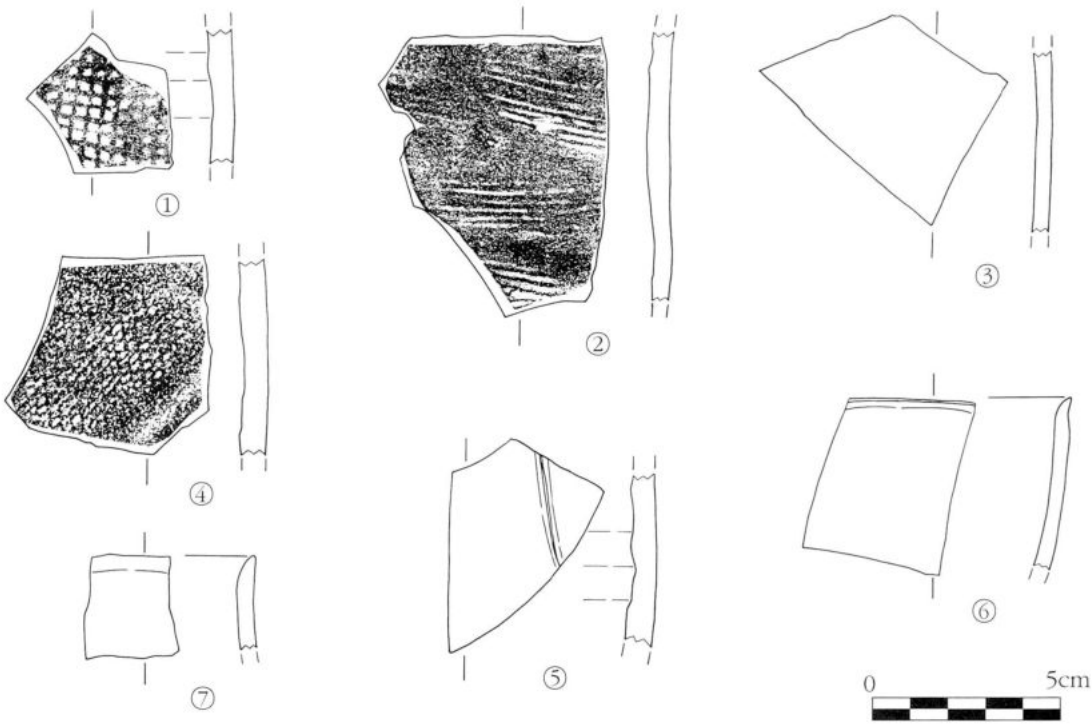
[도면 18]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도면 19-②, 사진 47-②)은 짙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은 군데군데 5~6줄의 횡선문을 얕게 타날 한 후 정면 하였으며 내면에는 내박자를 친 후 도구를 사용하여 그은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8cm

(도면 19-③, 사진 47-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 한 후 거의 다 지웠으며 내면은 회전 흔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5cm

(도면 19-④, 사진 47-④)은 외면이 황갈색, 내면은 회청색,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외면은 타날의 흔적은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횡선을 돌렸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9-⑤, 사진 47-⑤)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외면은 주위를 눌러 돌출 시킨, 단면 삼각형의 突線이 있다. 내면은 물레질의 흔적인 굴곡이 뚜렷이



[도면 19]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⑦)

남아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 19-⑥, 사진 48-①)은 황갈색으로 시유 된 분청사기의 구연부 편이다. 표면의 유약은 거의 부식되어 떨어져나갔다. 기벽은 일정하게 올라가다 선단부에 이르러 얇아지며 약간 뾰족하게 밖으로 살짝 바라진다. 외면은 회전 흔이 있으며 내면은 유약이 조금 뭉친 곳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4cm

(도면 19-⑦, 사진 48-②)은 담록색으로 시유된 인화분청의 구연부 편이다. 기벽은 비교적 두께가 일정하나 선단부 1cm앞에서 밖으로 살짝 외반되며 완만하게 얇아져 끝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최대두께 0.5cm

(10) 창 2리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49~53, 도면 20-21, 지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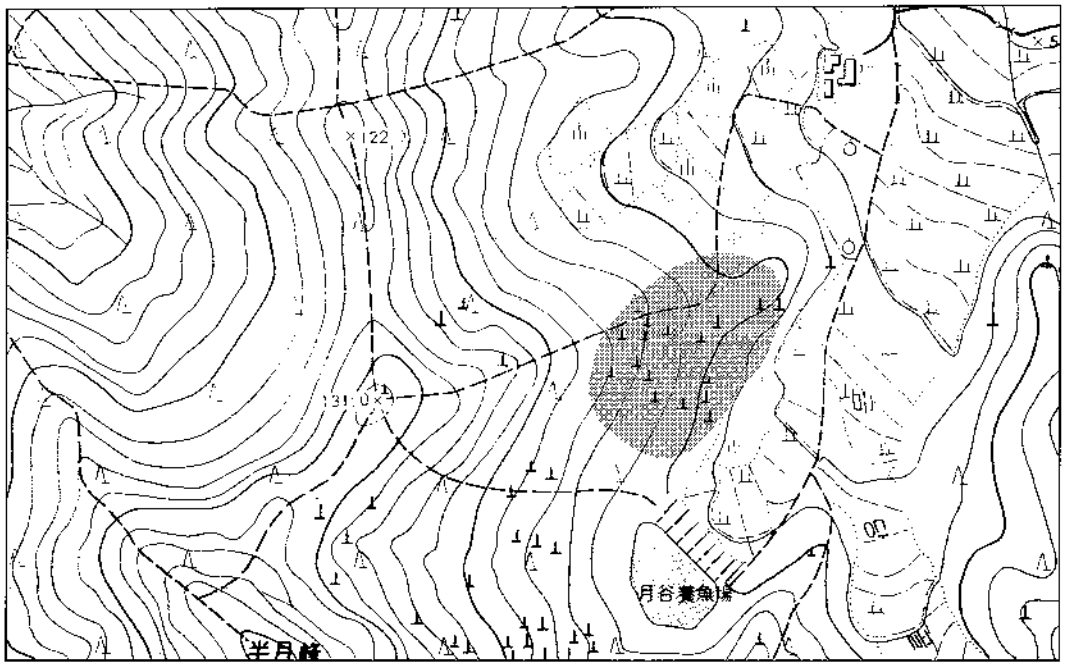
· 위치 : 남사면 창 2리 안다리골

· 유적현상 : 처인성에서 도로를 따라 1km정도 남진하다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송전방향으로 좌회전하여 400m가량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창2리 입구에 주유소가 있다. 유물산포지는 주유소 옆으로 난 마을입구로 들어가 마을을 통과하여 골짜기 방향으로 약 500m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에 자리한 南陽洪氏 묘역주변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구에는 제사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산줄기에서 내려온 구릉 말단의 북 사면에 유물이 산재하고 있다. 유물산포지의 앞쪽은 논과 묘지, 레이크힐스 골프장 등이 보이며 골프장 못 미쳐 골짜기의 상단에는 농업용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작은 저수지가 있다. 이 저수지는 남양 홍씨 묘역의 오른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 흘러 마을 입구에서 다시 창리 저수지의 물과 합쳐져 완장천으로 흘러든다. 유적의 범위는 30m×20m정도로 하루종일 볕이 드는 양지바른 지역이다.

유물은 기와류와 토 · 자기류가 고루 채집되었으며 주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도면 20-①, 사진 51-① · 52-①)은 등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로 소성상태는 좋지 않다. 등면은 부분적으로 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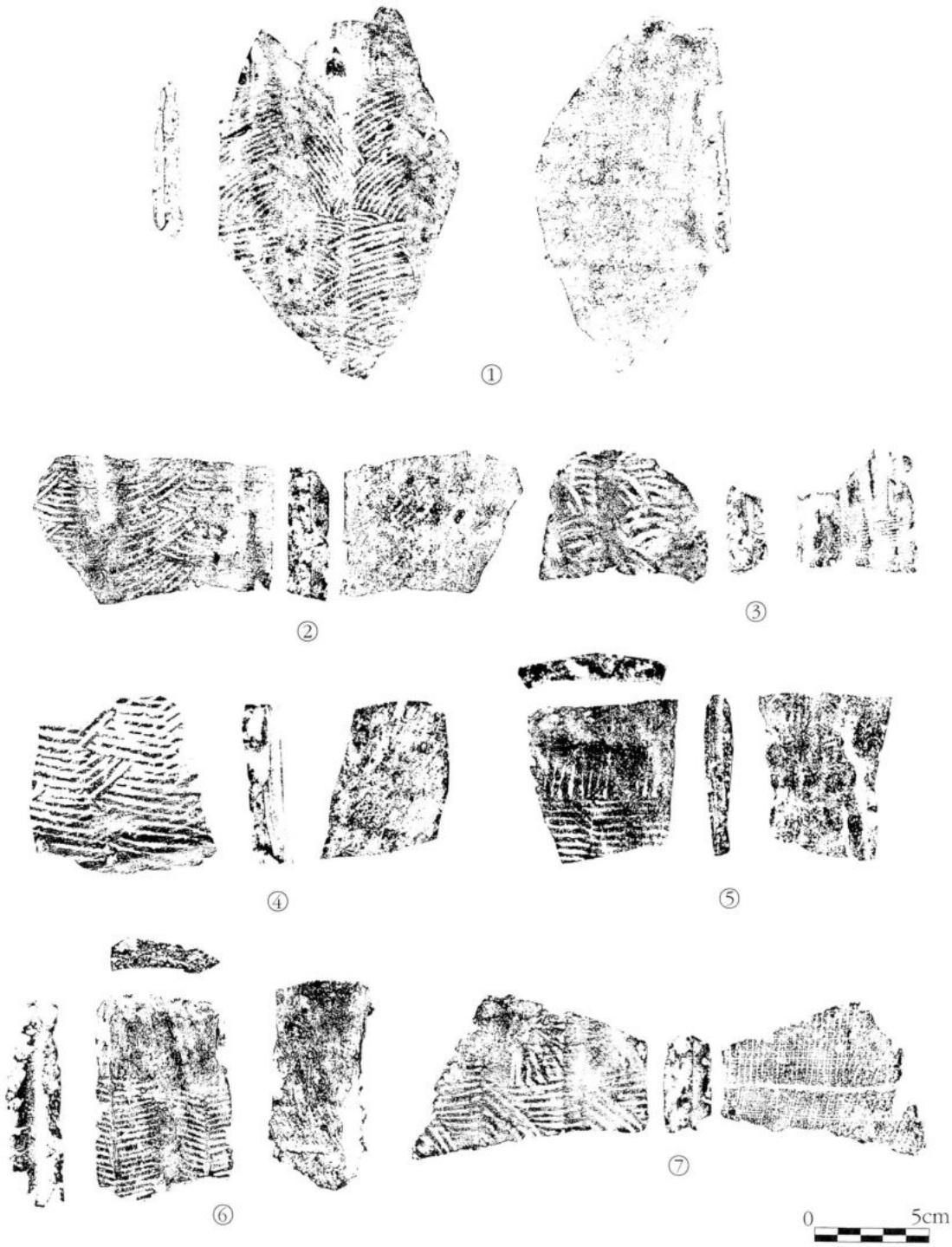


[지도 6] 창2리 유물 산포지

문을 시문 하여 시문구로 때린 곳은 각이 져있다. 내면은 포목흔을 문질러 지운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얇게 하여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거칠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6.8cm, 너비 9.2cm, 두께 1.2~2.1cm

(도면 20-②, 사진 51-② · 52-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작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파도문이 얕게 타날 되어 있으며 빗질 정면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을 빗질정면 하였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2cm, 너비 9.5cm, 두께 2.2cm

(도면 20-③, 사진 51-③ · 52-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며 소성상태는 좋지 않다. 등면은 파도문을 시문 한 후 문질러 지웠다. 내면은 0.1cm간격의 포목흔이 일부 남아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거칠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5.8cm, 너비 7.1cm, 두께 1.7~2.4cm



[도면 20] 창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도면 20-④, 사진 51-④ · 52-④)은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중심 뼈 없이 0.3cm두께의 가지선으로 만 타날 된 변형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은 빗질정면 하였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2cm, 너비 7.4cm, 두께 2.2cm

(도면 20-⑤, 사진 51-⑤ · 52-⑤)은 짙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크고 작은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이며 표면에 자연유가 베어 나왔다. 등면은 문양을 문질러 정면 하였으나 어골문의 가지선으로 시문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포가 접혔던 흔적이 있으며 내림 면 방향은 매끄럽게 정면 하였다. 내림 면의 길이는 3.2cm정도이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3cm, 너비 6.2cm, 두께 1.8cm

(도면 20-⑥, 사진 51-⑥ · 52-⑥)은 표면이 짙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작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가지선의 간격이 조밀한 어골문을 2.5cm두께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1.2cm간격으로 타날 하였다. 등면의 내림면 주위로는 빗질정면을 하였으며 내면은 매끄럽게 문질러 다듬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거칠게 떼어냈다. 잔존길이 9.2cm, 너비 5.8cm, 두께 1.1~2.2cm

(도면 20-⑦, 사진 51-⑦ · 52-⑦)은 등면이 황갈색이며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약간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파도문과 초화문이 시문 되었다. 내면은 0.1cm간격의 포목흔과 0.2cm두께의 윤철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2cm, 너비 10.4cm, 두께 2.3cm

(도면 21-①, 사진 53-①)은 옅은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에 고은 소성 시 갈라진 틈이 보인다. 동체에서 내만하여 올라오다가 구연에 이르러 밖으로 둥그렇게 곡선을 이루며 외반시켜 마무리하였다.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5cm

(도면 21-②, 사진 53-②)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은 밖으로 90도 각도로 외반되었으며 구연의 가운데 부분에 도구로 눌러 생긴

홈이 돌아가고 있다. 외면과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자국이 선명하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1-③, 사진 53-③)은 외면과 내면은 흑갈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고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동체에서 곧게 올라오다 안으로 내만하며 구연부에 이르러 밖으로 90도로 바라진다. 구연부에는 도구로 눌러 생긴 홈이 돌아가고 있으며 외면은 구연부 아래에 0.3cm 두께의 돌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내면에는 소성 시 부착물이 남아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베어 있다. 최대두께 1.2cm

(도면 21-④, 사진 53-④)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외면은 박리 되어 문양이 보이지 않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자국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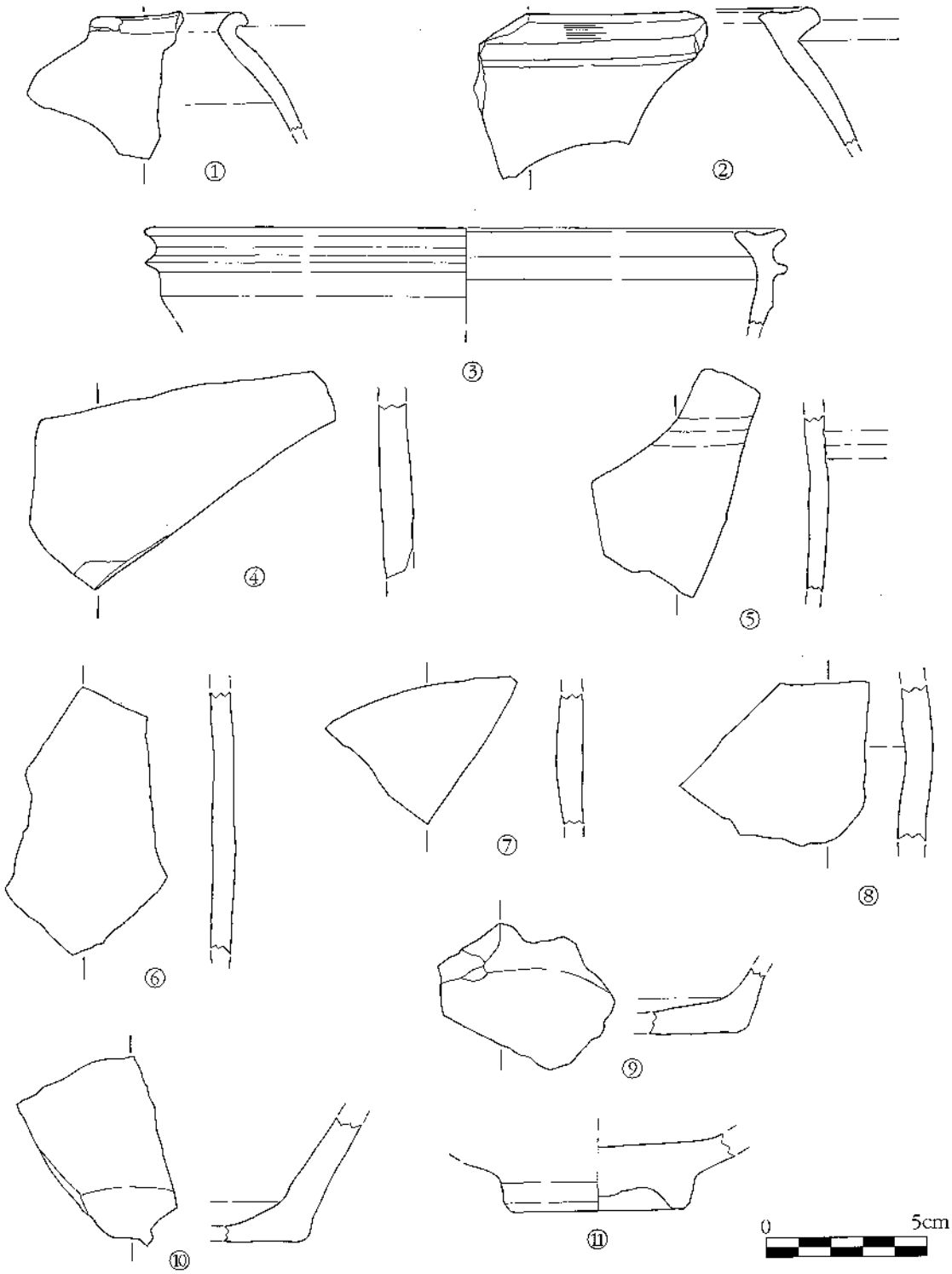
(도면 21-⑤, 사진 53-⑤)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섞여 있다. 외면은 정면 흔이 보이며,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문질러 지운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1-⑥, 사진 53-⑥)은 외면과 내면은 진한 흑갈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외면은 두께는 일정치 않으나 누르며 그은 3줄의 홈이 돌아간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선명하다. 최대두께 0.6cm

(도면 21-⑦, 사진 53-⑦)은 외면이 짙은 회청색이며, 내면과 속 심은 옅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군데군데 석립이 관찰되나 비교적 정선되었다.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보인다. 최대두께 0.9cm

(도면 21-⑧, 사진 53-⑧)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정선되지 못하였다. 외면은 고온소성으로 갈라진 곳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과 눌림 자국으로 약간 휘어진 상태이다. 최대두께 1.0cm

(도면 21-⑨, 사진 53-⑨)은 외면과 내면은 옅은 황갈색이며 속 심은 짙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저



[도면 21] 창2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⑩:토기류, ⑪:자기류)

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어 있으며 비교적 정선된 상태이다. 바닥 면은 약간 굴곡이 있으며 동체부와의 연결각도는 70도 정도이다. 최대두께 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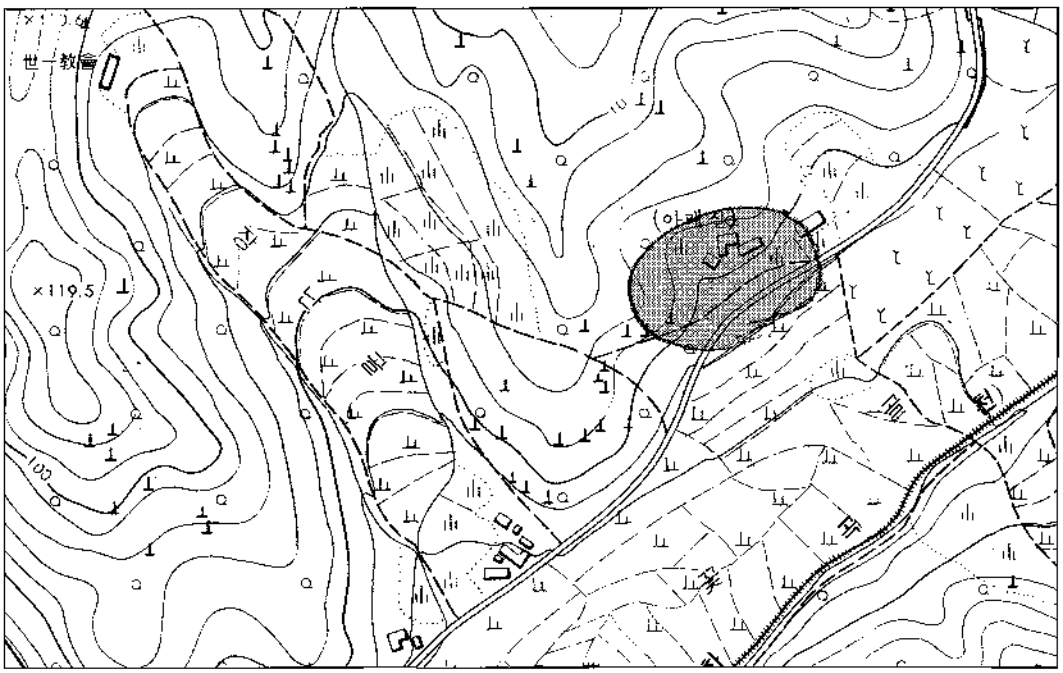
(도면 21-⑩, 사진 53-⑩)은 외면과 내면은 짙은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저부 위에 동체부를 연결한 흔적이 보이며 연결부의 외면은 덧붙인 후 정면 하여 깎아내었다. 내면에는 물레질 흔적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1.2cm

(도면 21-⑪, 사진 53-⑪)은 밝은 담록색으로 시유 된 백자의 저부 편이다. 굽의 형태는 대마디굽이다. 시유 상태는 고르지 못하다. 내면은 태토비짐눈 4개가 방형을 이루며 남아있다. 잔존높이 2.2cm, 굽지름 5.4cm, 굽높이 0.9cm, 굽폭 0.7cm

(11) 창 3리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54~56, 도면 22, 지도 7)

· 위치 : 南四面 倉 3里 화곡 마을 노인정 앞 논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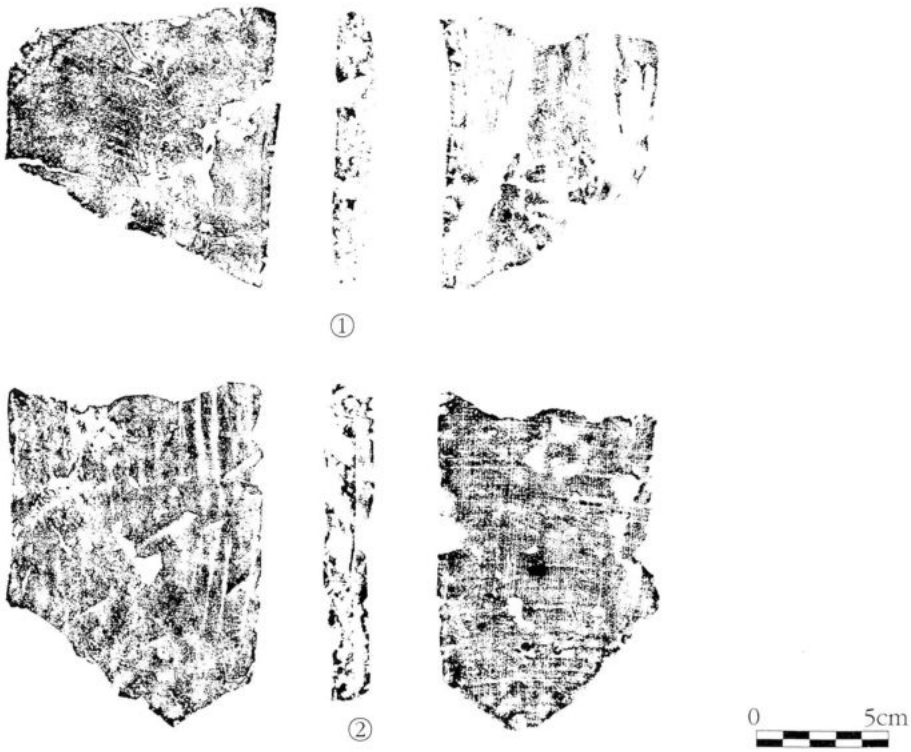
[지도 7] 창3리 유물 산포지

· 유적현상 : 처인성에서 남쪽으로 1km정도 진행하여 만나는 사거리에서 302번 국도를 따라 좌회전하여 송전리 방향으로 1.5km가면 월곡교가 나온다. 여기서 신세계 한국상업사박물관 방향으로 꺾어져 300~400m 북진하다 갈림길에서 우회전하면 창 3리 화곡 마을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다시 500여m 들어가면 왼쪽으로 화곡 노인정이 나오며 유물산포지는 노인정 앞의 논 일대에 위치한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20m×15m이다.

유물은 무문의 기와류가 소량 채집되었다. 이곳에서 백자편이 발견된 예가 있다.[3)]

2) 유물

(도면 22-①, 사진 55-① · 56-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며 등면은 심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다. 문양은 시문 되었으나 모두 문질러 지웠다. 내면에는 조밀한 포목흔과 포가 접힌 자국이 선명하다. 또한 0.6cm두께의 합철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도면 22] 창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②)

3) 서울대학교박물관 · 용인시, 앞의책, 1996, 72쪽.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0.6cm, 너비 9.2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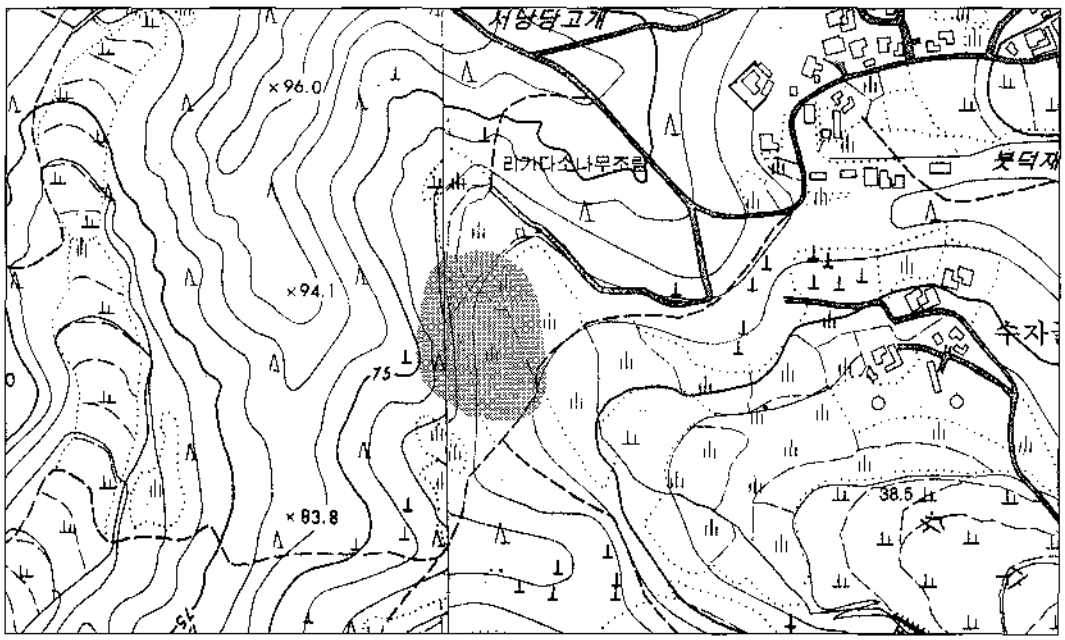
(도면 22-②, 사진 55-② · 56-②)은 외면이 회갈색이며 내면은 황갈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굵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 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시문 된 문양을 지웠으며 일부에 포목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과 바탕 흙을 이어 붙인 자국이 있다. 군데군데 기공이 있으며 그 사이로 석립이 보이고 있다. 잔존길이 12.4cm, 너비 9.5cm, 두께 2.0cm

(12)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57~59, 도면 23-24, 지도 8)

· 위치 : 南凶面 通三里 통골 마을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387번 지방 도를 따라 약 2km정도 진행하면 용인문구물류센터가 자리한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오산방향으로 서진 하다가 유평교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통삼천을 따라 북진하면, 왼쪽으로 유평동을 지나 통골 마을 입구에 이르게 된다. 유물산포지는 마을로 들어가 마을 끝의 남서쪽 구릉너머의 산사면, 즉 경기소방학교 뒷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아래의 골짜기 끝 부분 밭 일대에 넓게 자리한다. 유적의 오른쪽 구릉에는 넓게 잔디를 심



[지도 8]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 산포지

어 놓아 찾기에 용이하다.

조선시대의 토기류가 주로 채집되었으며 일부는 이보다 이른 것도 관찰되어 유적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20m×40m정도 크기의 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 유물

(도면 23-①, 사진 58-①)은 연한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동체부에서 내만하다가 약간의 경부를 이룬 후 급격히 외반하며 한번의 홈을 두고 선단부와 만난다. 구연의 선단은 판판하며 위쪽으로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잔존길이 2.4cm 최대두께 0.8cm

(도면 23-②, 사진 58-②)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구연부는 밖으로 급격하게 바라지며 선단부 앞에서 한번의 홈을 이룬다. 선단부는 판판하나 끝 부분을 도구로 얇게 깎아 모서리를 죽였다. 잔존길이 2cm 최대두께 0.6cm

(도면 23-④, 사진 58-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동체에서 완만하게 내만하여 올라오다가 성형 시 외면을 눌러 경부를 이루고 구연은 밖으로 바라지며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 추정입지름 14cm, 동체두께 0.7cm

(도면 23-③, 사진 58-④)은 외면이 황갈색이며 내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아 외면에 밀착시켰으며 이음부분은 도구로 약간 깎아낸 것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2.9cm 최대두께 0.9cm

(도면 23-⑤, 사진 58-⑤)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정선된 편이다. 경부이하는 결실되어 형태를 알 수 없으며, 경부에서 곧게 오르다가 급격하게 외반하여 한번의 홈을 이룬 후 선단부에 이른다. 구순은 판판하며 끝은 약간 둥그스름하게 처리하였다. 잔존길이 2.4cm 최대두께 0.9cm

(도면 23-⑥, 사진 58-⑥)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동체에서 내만하여 오르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둥그렇게 외반되었다. 내면은 물레질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2cm 최대두께 0.5cm

(도면 23-⑦, 사진 58-⑦)은 밝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반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체는 구연의 중간부에서 연결되고 있으나 거의 결실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잔존길이 1.5cm 최대두께 0.8cm

(도면 23-⑧, 사진 58-⑧)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에서 내만하여 올라오다가 구연부는 반타원형을 이루며 바라지고 있다. 잔존길이 2.5cm 최대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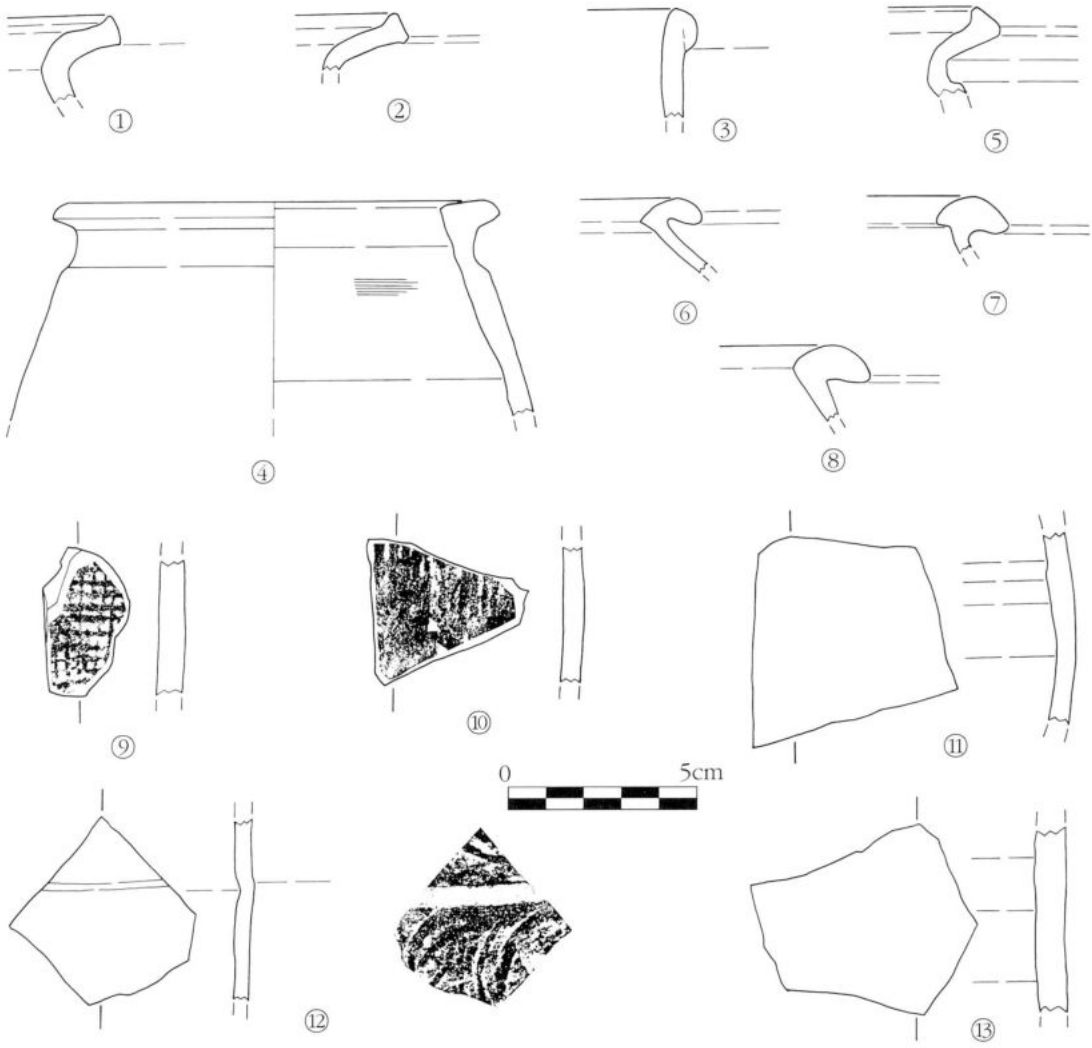
(도면 23-⑨, 사진 58-⑨)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외면은 0.2cm간격의 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다.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3.5cm 최대두께 0.7cm

(도면 23-⑩, 사진 58-⑩)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약간 베어 있으며 격자문을 얕게 타날 한 후 문질러 지웠다. 잔존길이 3.5cm최대두께 0.6cm

(도면 23-⑪, 사진 58-⑪)은 외면은 황갈색이며 내면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흐르며 박리 된 곳이 많다. 내면은 물레질로 인한 굴곡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5.1cm 최대두께 0.7cm

(도면 23-⑫, 사진 58-⑫)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군데군데 박혀있다. 외면은 내면에서 횡으로 눌러 그어 약간 돌출된 상태이다. 내면은 내박자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4.8cm 최대두께 0.4cm

(도면 23-⑬, 사진 58-⑬)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도면 23]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⑬)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다.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회전물손질을 하였다. 잔존길이 4.8cm 최대두께 0.8cm

(도면 24-①, 사진 58-⑭)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내면은 물레질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5cm

(도면 24-②, 사진 58-⑮)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운모가 약간 혼입

되었다. 외면은 갈라진 틈으로 작은 석영알갱이가 보인다. 최대두께 0.9cm

(도면 24-③, 사진 58-⑯)은 외면이 암갈색이며 속 심은 적갈색,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약간 베어 나와 매끄러우며 내면은 내박자가 타날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 24-④, 사진 58-⑰)은 외면이 회청색이며 내면과 속 심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지 못하였다. 외면은 성형 시 점토알갱이가 부착되었으며 내면은 내박자가 타날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 24-⑤, 사진 58-⑱)은 짙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베어있다. 내면은 내박자를 타날하였다. 최대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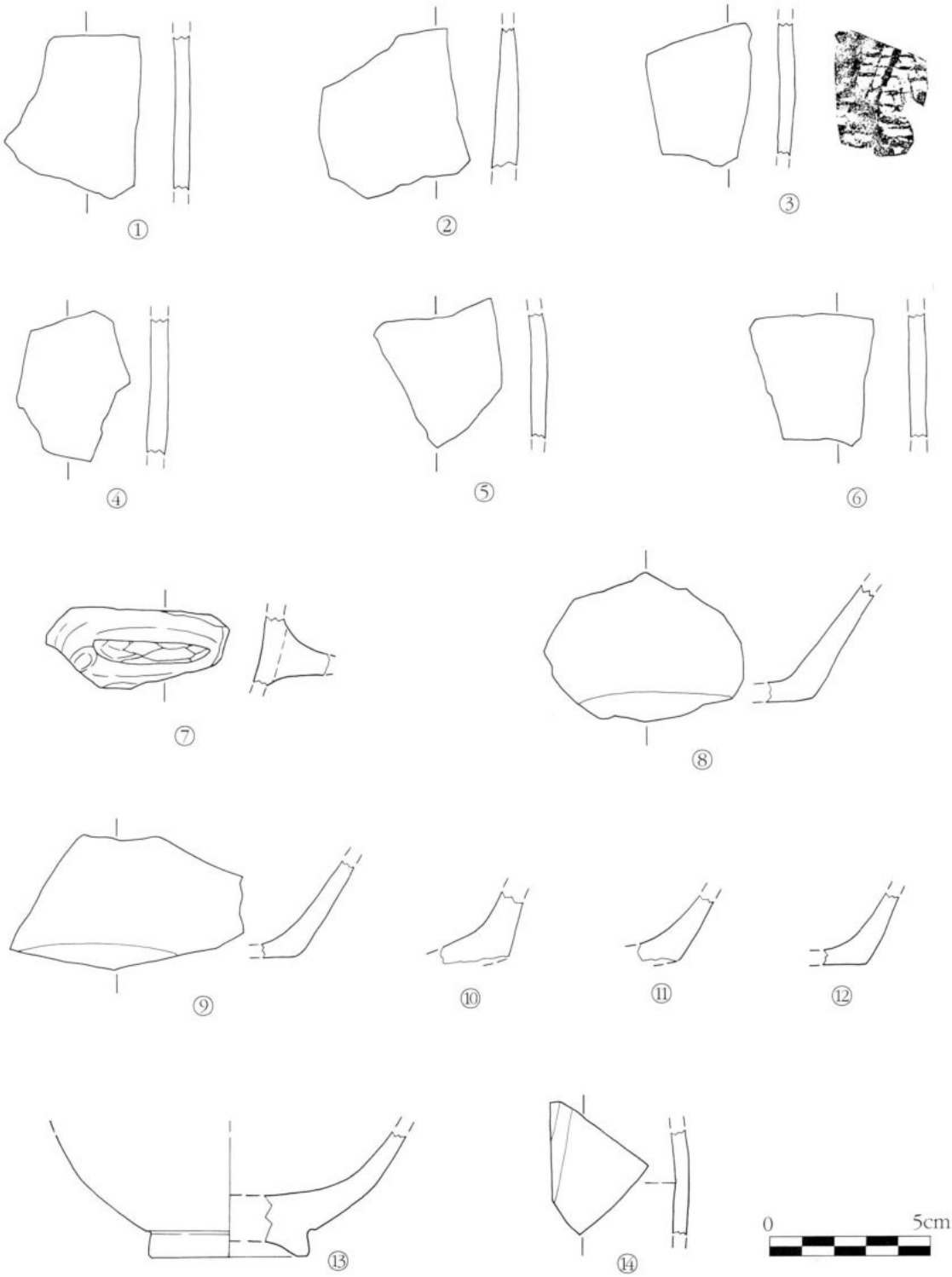
(도면 24-⑥, 사진 58-⑲)은 짙은 적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갈라진 곳도 있다. 외면은 자연유가 베어있으며 내면은 내박자를 타날하였다. 최대두께 0.4cm

(도면 24-⑦, 사진 59-①)은 동체부가 밝은 회색이며, 바닥은 밝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내면은 물레질흔적이 남아있다. 동체와 바닥의 연결각도는 60도 정도이다. 동체두께 1.1cm, 바닥두께 0.7cm

(도면 24-⑧, 사진 59-②)은 연한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었다. 외면은 동체와 바닥의 연결부에 손으로 정면 한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두께 0.7cm, 바닥두께 0.5cm

(도면 24-⑨, 사진 59-③)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다. 바닥은 아래 면이 결실되었다. 외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깎아낸 흔적이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동체두께 0.9cm

(도면 24-⑩, 사진 59-④)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약간



[도면 24]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⑫:토기류, ⑬⑭:자기류)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바닥은 아래 면이 결실되었으며 내면은 회전 흔이 남아있다. 동체두께 0.8cm

(도면 24-⑪, 사진 59-⑤)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동체와 바닥의 연결부에 도구를 사용하여 깎아낸 흔적이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동체두께 0.7cm, 바닥두께 0.6cm

(도면 24-⑫, 사진 58-⑳)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파수편이다. 손잡이는 동체에 붙인 형태이며 연결부와 동체의 내면은 점토를 덧대어 연결하였다. 손잡이의 끝 부분은 결실되었다. 동체두께 0.5cm, 파수두께 0.9cm

(사진 59-⑥)은 회청색 경질의 기와를 이용하여 제작한 와제품이다. 장방형이며 짧은 면에 원추형의 구멍을 뚫었고 일부는 결실된 형태이나 쓰임새는 알 수 없다. 길이 3.4cm, 두께 2.2cm, 무게 30g,

(도면 24-⑬, 사진 59-⑦)은 흑갈색으로 시유 된 자기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외면은 빙열이 관찰된다. 내면은 성형 시 생긴 굴곡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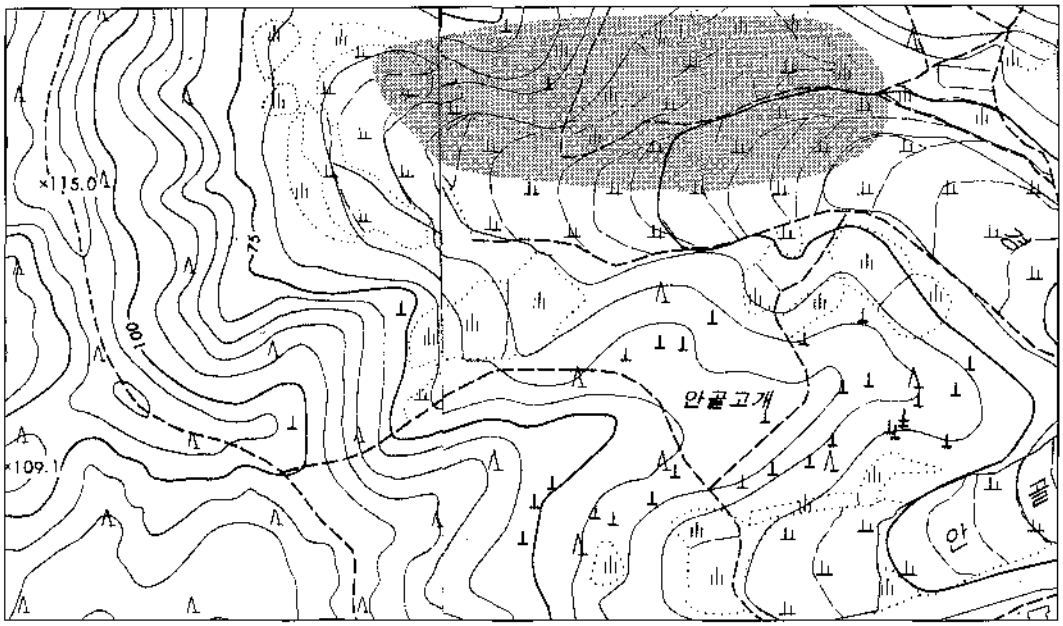
(도면 24-⑭, 사진 59-⑧)은 회록색으로 시유 된 백자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으며 표면에 유리질이 두터운 상태이다. 굽은 오목굽이며 바닥전체에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빙열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포개 굽기의 흔적인 굵은 모래가 보인다. 잔존높이 3.6cm, 추정굽지름 6cm, 굽높이 1.0cm, 굽폭 0.3cm

(13)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60~63, 도면 25, 지도 9)

· 위치 : 南四面 通三里 원포마을

· 유적현상 : 통삼리 통골 마을 입구에서 도로를 따라 500m정도 북진하면 왼쪽에 원포 마을 입구가 나온다. 유적은 마을 안으로 맨 위쪽 집까지 진입하여 다시 왼쪽의 작은 산길을 따라 50m정도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민묘를 지나 동서방향으로 펼쳐진 골짜기의 논 주위에 위치한다. 유적[4]은 3개



[지도 9] 통상리 원포마을 유물 산포지

지점으로 골짜기 상단 논의 오른쪽 우물지 주변과 마을로 연결되는 길옆의 무덤가 밭 일대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구릉사면을 따라 경작되고 있는 밭 주변 등에서 유물이 채집되었다.

유물은 다양한 종류의 토기류가 발견되었으며, 연질의 토기편도 소량 채집되었다.

2) 유물

(도면 25-①, 사진 62-①)은 밝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동체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약간의 경부를 이룬 후 한번의 단을 두고 외반하여 선단부에 이른다. 끝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회전 흔이 보이며, 내면에 굴곡이 남아있다. 잔존길이:3.5cm 최대두께 0.5cm

(도면 25-②, 사진 62-②)은 짙은 황갈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으며 정선된 편이다.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구연부 앞에서 곧게 오르며, 선단부는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부의 외면은 결실되었다. 잔존길이 4.7cm 최대두께 0.7cm

4) 이곳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경기도 종축장 건립 예정부지 지표조사시에 주변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곳임을 밝혀둔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종축장 건립공사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9)

(도면 25-③, 사진 62-③)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었다. 잔존형태가 작아 원형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내면에 정면의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2.3cm 최대두께 0.7cm

(도면 25-④, 사진 62-④)은 외면이 짙은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 한 후 정면 하여 지웠으며 내면에는 물레질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3.9cm 최대두께 0.6cm

(도면 25-⑤, 사진 62-⑤)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외면과 내면 모두 마모되어 작업 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잔존길이3cm 최대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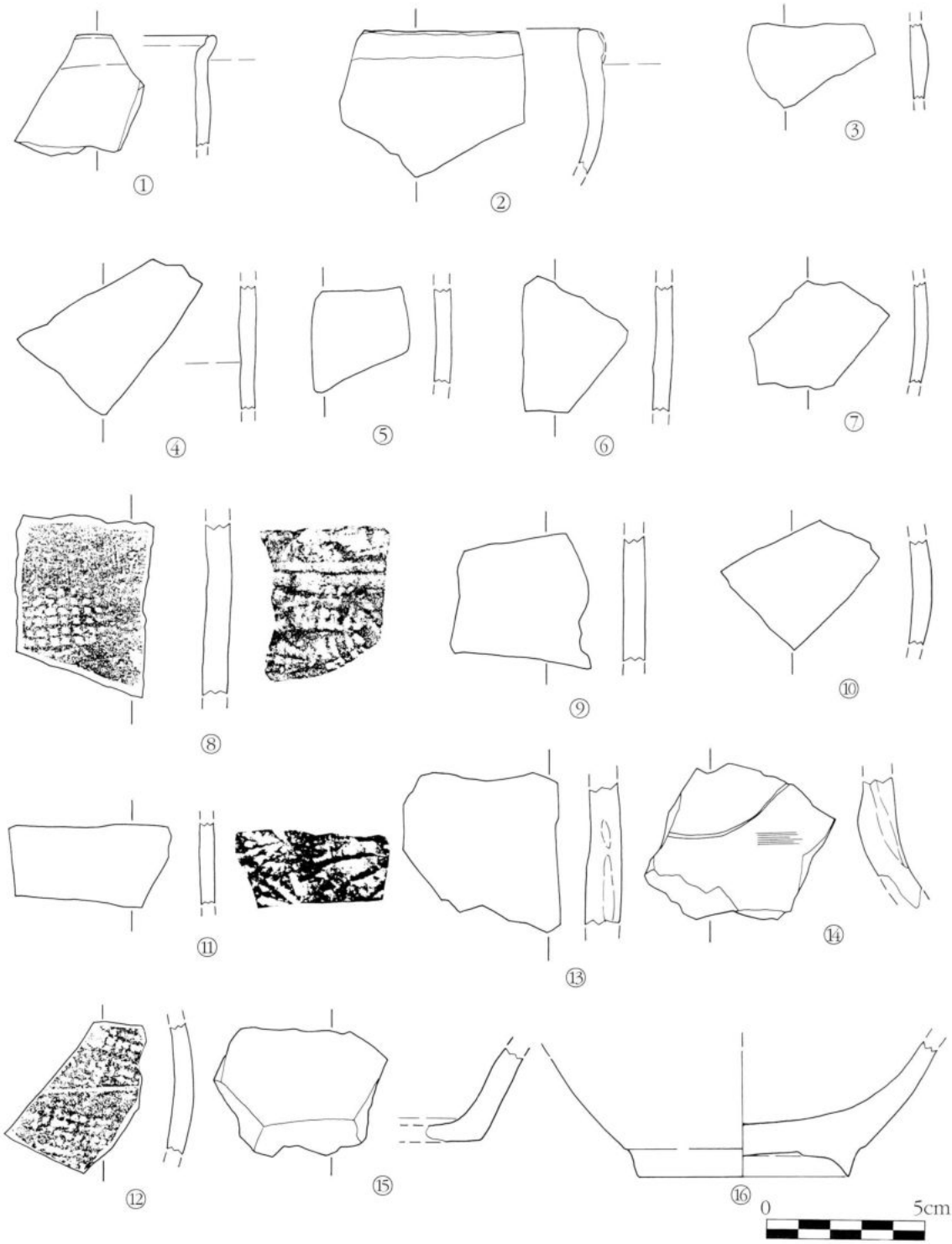
(도면 25-⑥, 사진 62-⑥)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소성 시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보인다. 잔존길이 4cm 최대두께 0.6cm

(도면 25-⑦, 사진 62-⑦)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된 편이며 군데군데 가는 사립이 보인다.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의 두께가 매우 얇은 편이다. 잔존길이 3.2cm 최대두께 0.4cm

(도면 25-⑧, 사진 62-⑧)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문이 얕게 타날 되었으며 내면은 내박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잔존길이 5.4cm 최대두께 0.9cm

(도면 25-⑨, 사진 62-⑨)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내면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3.9cm 최대두께 0.8cm

(도면 25-⑩, 사진 62-⑩)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잔존길이 3.3cm 최대두께 0.7cm



[도면 25]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⑮:토기류, ⑯:자기류)

(도면 25-⑪, 사진 62-⑪)은 진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외면은 자연유가 약간 베어 있으며, 내면은 내박자가 관찰된다. 잔존길이 2.5cm 최대두께 0.6cm

(도면 25-⑫, 사진 62-⑫)은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갈라진 틈으로 석립이 나온 곳도 있다. 외면은 격자문을 얕게 타날 하였으며 중앙에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내박자를 친 후 문지른 흔적이 보인다. 잔존길이 4.1cm 최대두께 0.7cm

(도면 25-⑬, 사진 62-⑬)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 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속으로 기포가 많이 생겨 있는 모습이다. 외면은 거칠게 처리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4.5cm 최대두께 1.3cm

(도면 25-⑭, 사진 62-⑭)은 외면이 짙은 회갈색이며 내면이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약간 혼입 되었으며 내부에 기포가 생겨 있는 상태이다. 외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침선을 그었으며 자연유가 약간 베어 나와 있다. 내면은 반쯤 박리된 상태이며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4cm 최대두께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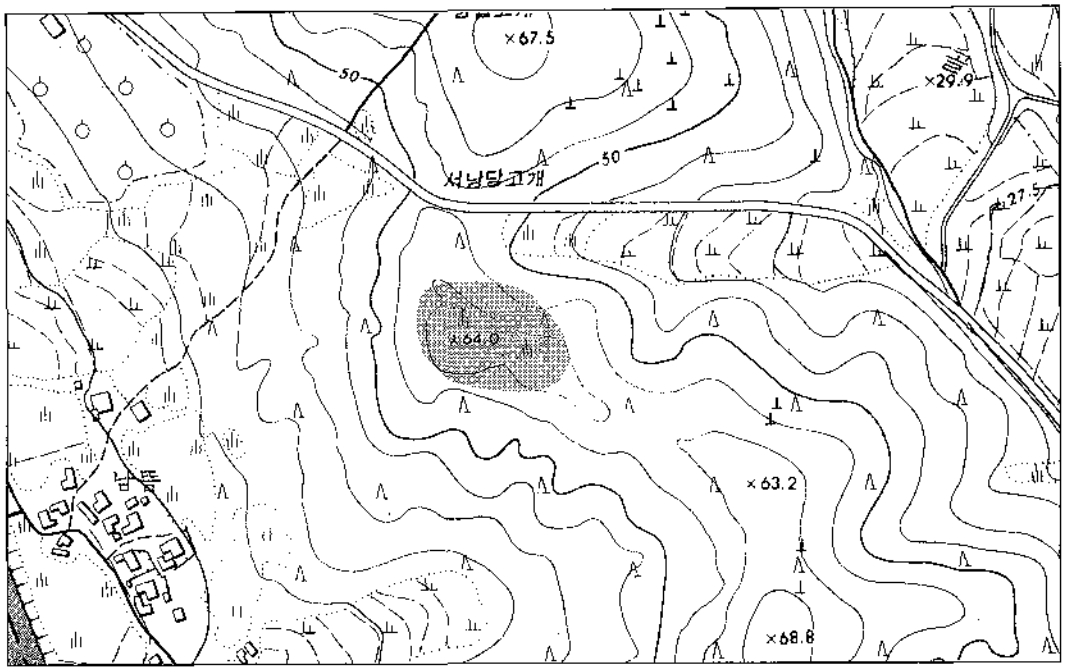
(도면 25-⑮, 사진 63-①)은 밝은 회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 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많이 섞여있다. 바닥과 동체부의 연결각도는 약 65도이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잔존높이 3cm 최대두께 0.9cm

(도면 25-⑯, 사진 63-②)은 밝은 백록색으로 시유 된 백자의 저부 편이다. 굽은 오목굽이다. 굽내부에 모래받침이 두껍게 남아있으며, 안쪽에 홈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높이 4.8cm, 동체부두께 1.1cm, 추정굽지름 7cm, 굽높이 0.7cm

(14) 봉명리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64~69, 도면 26, 지도 10)

· 위치 : 南四面 鳳鳴里 남뜸 마을 뒷산



[지도 10] 봉명리 유적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387번 지방도를 따라 오산방향으로 서진하여 유평교를 건너 1km정도 진행하면 왼쪽으로 남뜸 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2개소가 있으며 유적은 기지국의 뒷산에 위치한다. 산의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토루로 보이는 단이 10여m정도 이어져 있으나 방어시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사진 67 참조) 포크레인이 지나간 동산로에 부분적으로 단면이 노출된 곳이 있으나 특별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다. 산의 서쪽은 경부고속도로와 연해 있으며, 능선은 절개되어 편마암의 암반이 노출된 단애면이 형성되어 있다. 산의 북쪽능선 아래는 서낭당고개를 지나는 387번 지방도와 인접해 있다. 이동통신기지국의 뒤편에 위치한 서쪽 정상부 평탄지의 밭에서 소량의 무문토기 편과 숫돌이 채집되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20m×50m이며, 오랜 기간 밭으로 경작되어 유물의 크기가 3cm미만으로 작고 그나마 소량이 채집되었다. 하지만 유물이 넓게 산포된 것으로 보아 하부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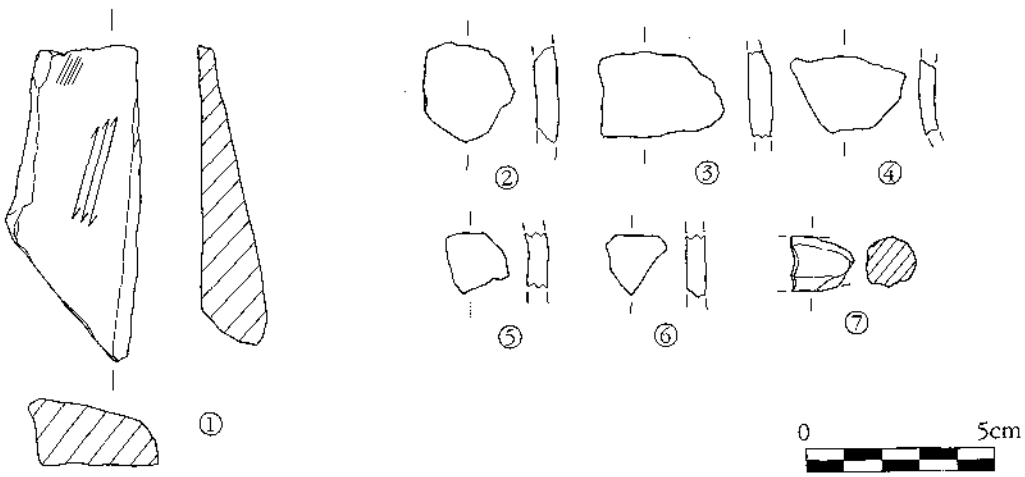
2) 유물

이곳에서는 몇 점의 무문토기 편과 숫돌 1점이 채집되었다. 이 중 무문토기편의 속성적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봉명동 유적 무문토기 속성표

도면번호	사진번호	색조	경도	태토	구분	최대두께	특 징
26-②	68-①	옅은 황갈색	연질	정선된점토질	동체편	0.5cm	
26-③	68-②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질	동체편	0.6cm	표면박리
26-④	68-③	흑갈색	연질	사질성점토질	동체편	0.6cm	
26-⑤	68-④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질	동체편	0.6cm	부분적으로 흑갈색
26-⑥	68-⑤	옅은 흑갈색	연질	사질성점토질	동체편	0.7cm	
26-⑦	68-⑥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질	구연부	1.4cm	외면일부에 그을음자국

(도면 26-①, 사진 69)은 황갈색을 띠는 숫돌편이다. 암질은 사암계통이다. 원래모습에서 왼쪽과 밑 부분은 약간 결실되었다. 위아래방향으로 사용 흔이 보이며 오랜 기간 사용하여 한쪽이 얇아진 모습이다. 현존크기 3.7×8.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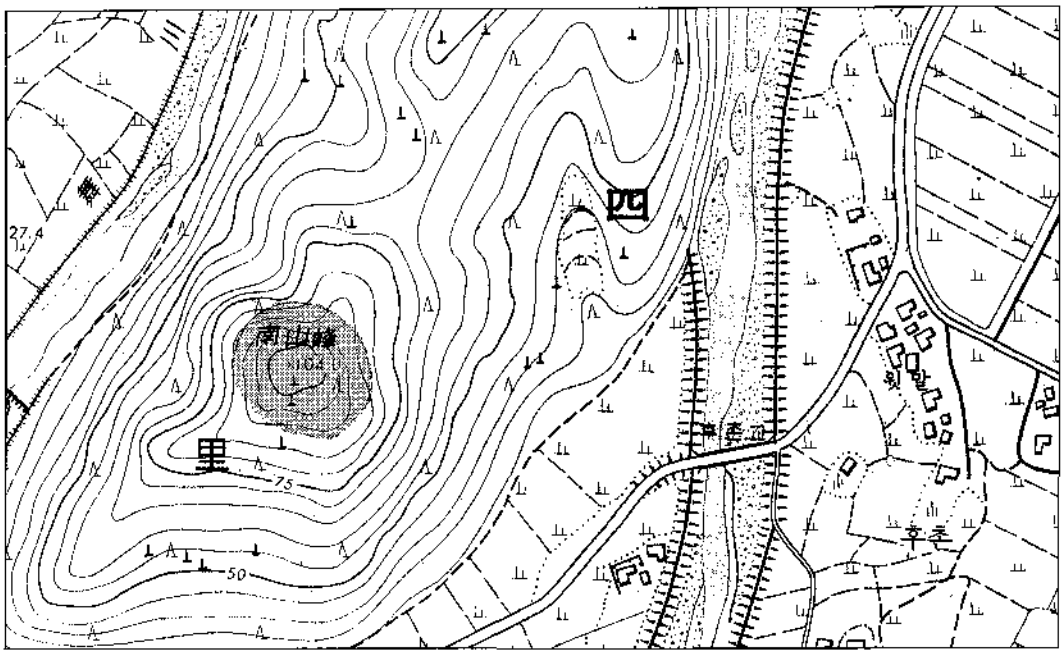
[도면 26] 봉명리 유적 채집 숫돌 · 무문토기류 (①:숫돌, ②~⑦:무문토기류)

(15) 봉무리 남산봉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70~78, 도면 27, 지도 11)

· 위치 : 南四面 鳳舞里 오목재 남산봉

· 유적현상 : 남사면 소재지에서 북동쪽방향의 시야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야산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적은 산줄기의 가장 남쪽 봉우리에 해당한다. 정상부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자리하며 산 아래로 남서쪽의 완장천과 봉무천이 합류하는 모습이 한눈에 조망되고 있어(사진 71)



[지도 11] 봉무리 당산봉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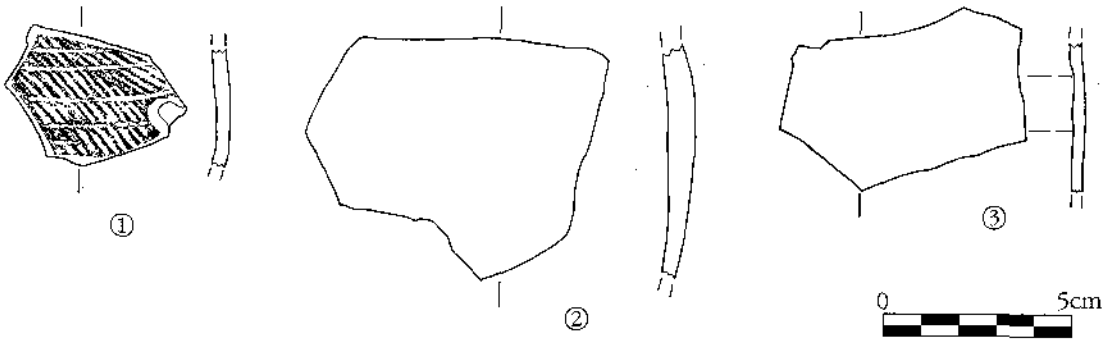
유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봉우리의 9부 능선에는 남쪽과 동쪽으로 단이 일부 형성되어 있고(사진 73) 약간 아래의 남동사면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추정 문지가 자리하고 있다.(사진 74) 또한 서쪽과 북쪽은 암반이 수직으로 노출되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사진 72) 보루의 형태로 생각되어 진다. 북쪽 능선은 산줄기가 길게 이어지며 등산로가 개설되었고, 이 길로 700m가량 북쪽으로 진행하면 봉무리 유물산포지에 이른다.

채집유물은 조사 지역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타날문토기편과 연질토기편이 채집되었다.

2) 유물

(도면 27-①, 사진 78-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매우 정선되었다. 외면은 승문 위로 횡선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최대두께 0.5cm

(도면 27-②, 사진 78-②)은 밝은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많이 되었다. 내면은 굴곡이 남아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7] 봉무리 남산봉 유적 채집 토기류 (①~③)

(도면 27-③, 사진 78-③)은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동체편이다. 바탕 흙은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갈라진 곳도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비교적 얇다. 내 · 외면 모두에서 회전 흔이 관찰되며, 특히 내면은 굴곡이 져 있다. 최대두께 0.3cm

(16) 봉무리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79~84, 도면 28, 지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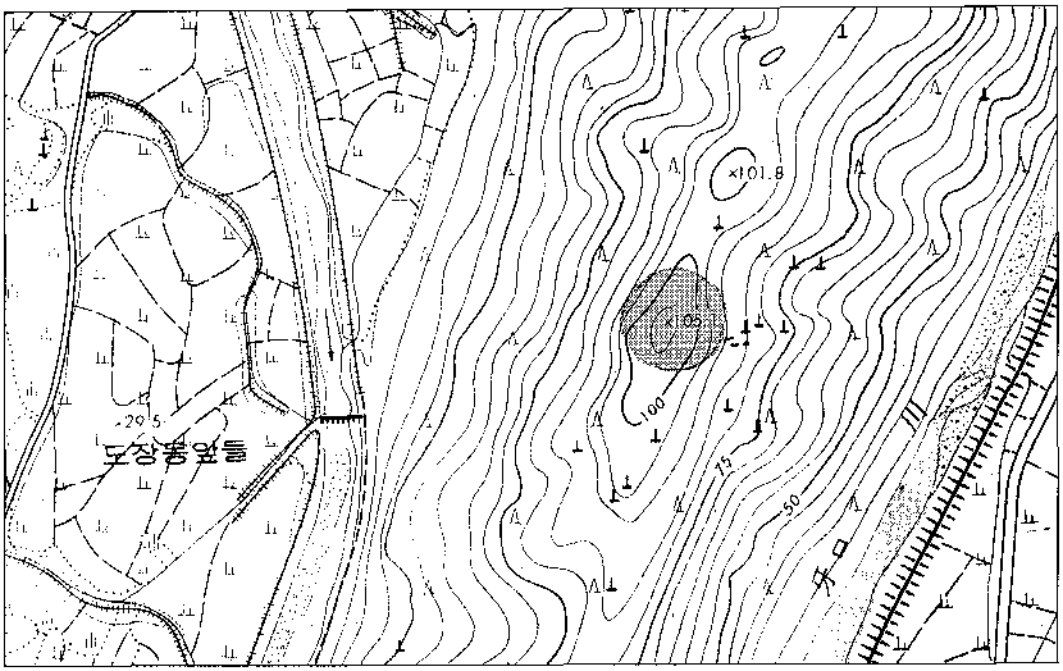
· 위치 : 南四面 鳳舞里 오목재 남산봉 북쪽 능선 말단 봉우리

· 유적현상 : 유적은 남산봉 유적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700m가량 진행한 지점에 위치한 마지막 봉우리이다. 이곳의 시야는 서쪽은 도장골 유물산포지와 한화리조트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며 북서쪽으로는 봉무천을 따라 개설된 도로와 그 양쪽으로 펼쳐진 농지를 한눈에 관망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봉우리 정상부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형태로 비교적 평탄하며, 내부에 지름 1m 정도의 구덩이를 잡석으로 둘러놓았고, 그 주위에 기와편이 널려있는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10m×20m정도이다.

유물은 주변의 유적에서 흔히 채집되는 격자문과 무문의 기와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유물

(도면 28-①, 사진 83-① · 84-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다수 혼입된 점토질이며 굵은 석립이 등면의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인다. 등면은 1.2cm간격의 사격자문이 타날 되었으나 타날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는 문질러 지웠다. 내면은 0.2cm간격의 굵은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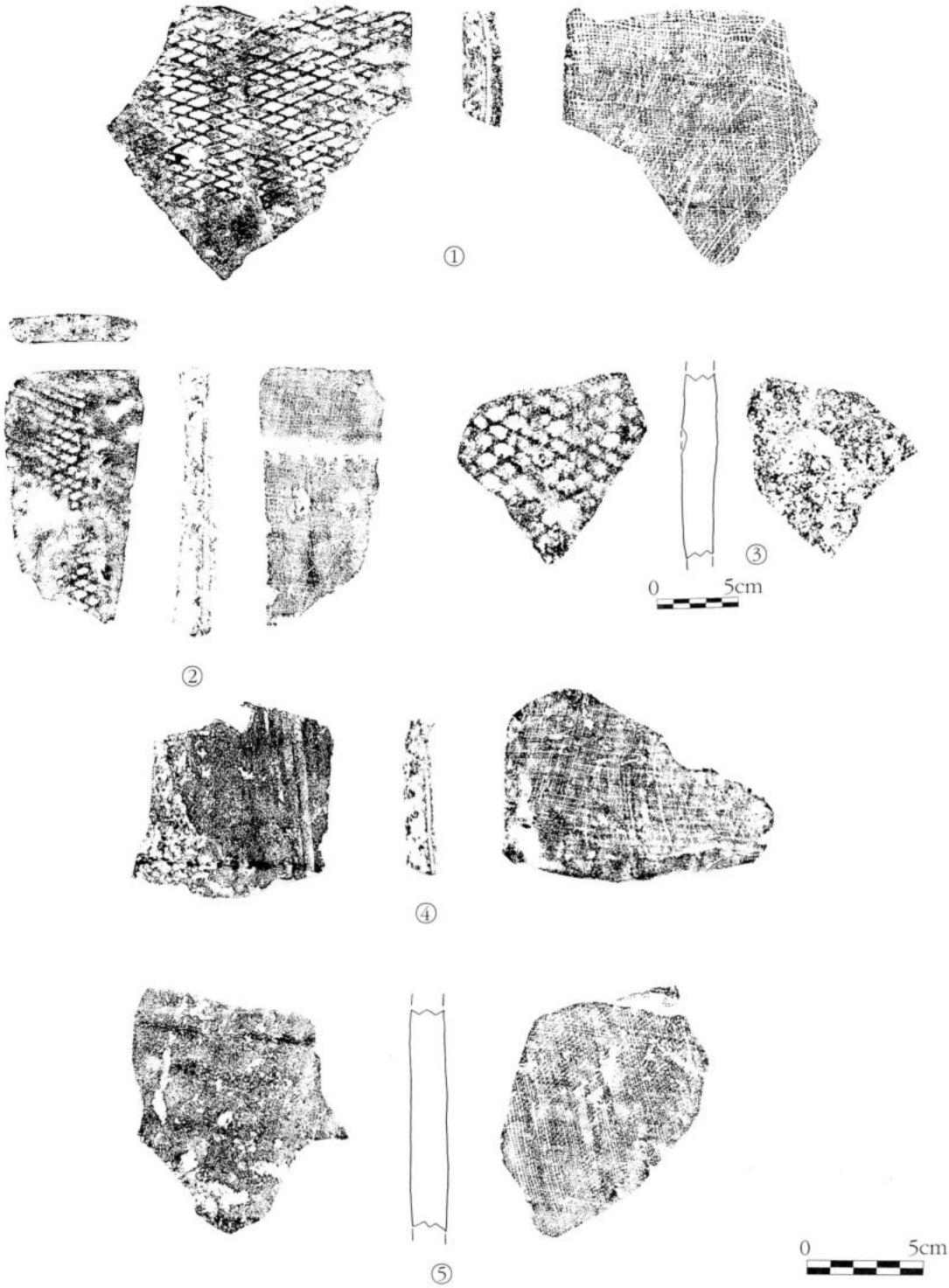
[지도 12] 봉무리 유물 산포지

목흔이 있으며 굵은 비로 한번 쓸어 내렸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5정도 그어 분할하였으나 정연하지는 못하다. 잔존길이 16.7cm, 너비 17.3cm, 두께 1.7~2.2cm

(도면 28-②, 사진 83-② · 84-②)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을 사용하였으며 내면에는 굵은 석립이 표면에 나와있다. 등면은 심하게 마모되었으나 희미하게 사격자문이 관찰된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과 윤철흔이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5정도 그은 후 거칠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6.1cm, 너비 8.4cm, 두께 1.7~2.1cm

(도면 28-③, 사진 83-③ · 84-③)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등면은 사격자문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길이 7.4cm, 너비 9.5cm, 두께 1.6cm

(도면 28-④, 사진 83-④ · 84-④)은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등면은 문양이 보이지 않으며 내면은 포흔을 문질러 지운 부분이 많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6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2.5cm, 너비 17.8cm, 두께 1.9cm



[도면 28]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도면 28-⑤, 사진 83-⑤ · 84-⑤)은 짙은 회갈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되었으며 비교적 정선되지 못하다. 등면은 무문양이며, 내면에는 0.2cm간격의 포목흔과 윤철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4.1cm, 너비 12.9cm, 두께 2.1cm

(17) 북리 당하동 유물산포지 A

1)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85~89, 도면 1-2, 지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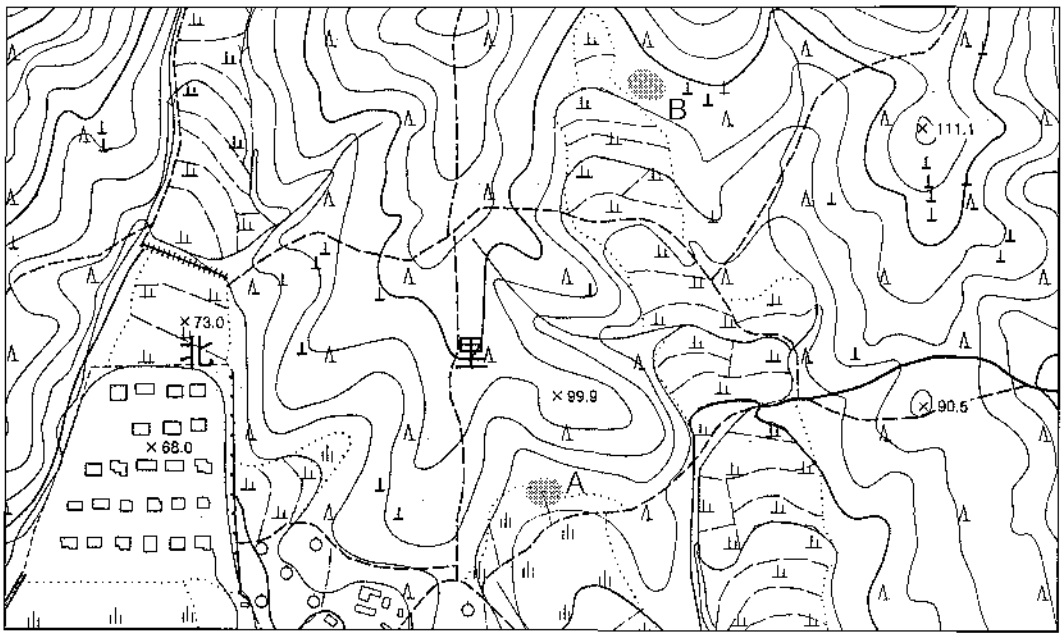
· 위치 : 남사면 북리 당하동 삼창말 서쪽 농로 일대

· 유적현상 : 아곡 4고리에서 82번 국도를 따라 북리 쪽으로 가다가 당하교에서 오른 쪽으로 골방향으로 200m 정도를 가면 오른쪽으로 민묘가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편을 비롯한 각종 유물이 산포 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여기에 기와집이 있었다고 한다.

채집유물은 비록 소량이기는 하나 주변 밭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자기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비해 기와류는 이보다 앞선 고려시기까지는 소급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유물

(도면 29-①, 사진 86-② · 87-②)는 1/2정도 남아 있는 저부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태



[지도 13] 북리 당하동 유적지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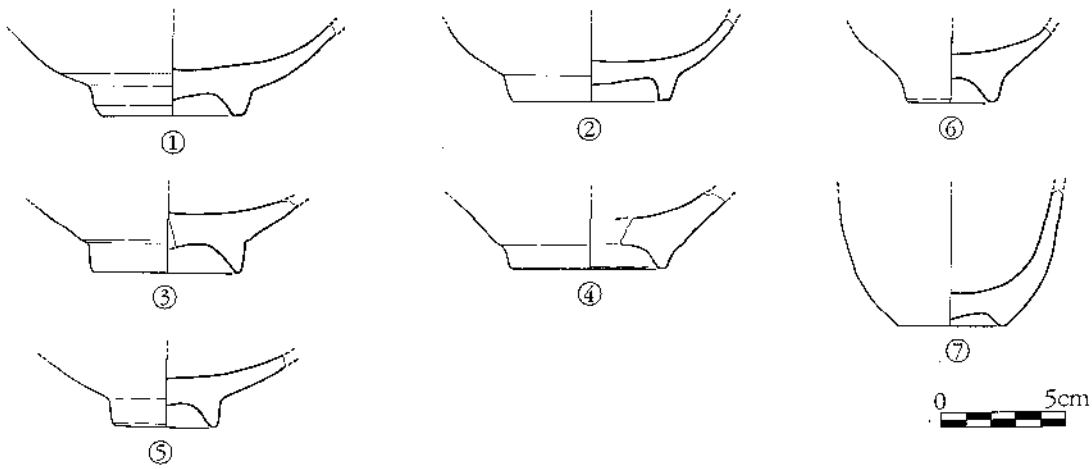
토는 적황색을 띠고 있다. 굽보다 넓고 편평한 내저면에 내저원각이 있으며 태토비짐 흔적이 2개 남아 있다. 표면에는 다량의 빙렬이 남아 있다. 굽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고 한번 단을 지며 내경하고 있다. 굽의 정면은 안쪽 바닥에 침선이 한 줄 돌아가고 중앙부가 약간 돌기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잔존높이 : 3.6cm, 저경 : 6cm, 두께 : 0.4~0.13cm

(도면 29-②, 사진 86-① · 87-①)은 백자 저부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태토는 백색으로 반투명한 담청백유가 시유되어 있으며 잡물이 나타나 있다. 굽은 내경하며 안쪽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모래받침 번조하였다. 잔존높이 : 3.2cm, 저경 : 6.6cm, 두께 : 0.35-0.9 cm

(도면 29-③, 사진 86—⑥ · 87-⑥)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편으로 구연은 알 수 없다. 표면의 유리질은 없으며 태토는 회색과 일부 적황색을 띤다.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으며 모래받침 포개구이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3cm, 추정저경 : 6cm

(도면 29-④, 사진 86-⑤ · 87-⑤)는 일부만 남아 있는 백자 저부편으로 굵은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내면 및 굽에 남아 있다. 굽 안에도 담청색의 유가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잔존높이 : 3.6cm, 추정저경 : 6.6cm

(도면 29-⑤, 사진 86—⑦ · 87-⑦)은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접시편으로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



[도면 29]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자기류 (1-7)

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직립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 안 바닥까지 유약이 시유되어 있고 표면에 다량의 빙열이 나타나 있다.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으며 굵은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3cm, 저경 : 4.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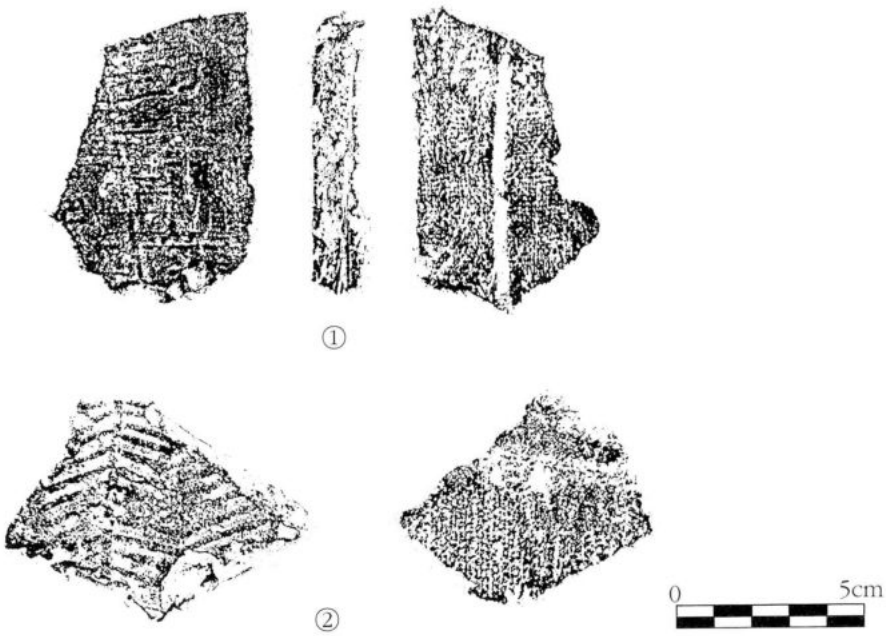
(도면 29-⑥, 사진 86-④ · 87-④)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은 알 수 없으며 표면에 다량의 빙열이 나타나 있다.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으며 굵은 모래받침 번조하였다.

잔존높이 : 3.1cm, 추정저경 : 3.8cm

(도면 29-⑦, 사진 86-③ · 87-③) 저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 잔편으로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동체는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간다. 표면에 다량의 빙열이 나타나있고 잡물이 나타나있다. 굽은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으며 굵은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5.5cm, 추정저경 : 4.4cm

(도면 30-①, 사진 89-①)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기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석립이 혼입 되었고 비교적 정선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빗질정면으로 인해 0.1-0.2cm의 직선문이 가로방향으로 시문



[도면 30]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 · ②)

된 것이 약하게 남아 있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가 접힌 흔적과 사선방향의 약한 빗질흔적이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 길이 9.0cm, 너비 6.8cm, 두께 1.3~1.7cm.

(도면 30-②, 사진 89-②)는 엷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굵은 석립이 혼입된 치밀하지 못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0.3cm두께의 가지 선이 0.4cm간격으로 시문 된 어골문이 있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가 접힌 흔적과 일부 정면 된 것이 확인되며, 군데군데 기포가 있다.

잔존 길이 7.5cm, 너비 9.9cm, 두께 2cm.

(18)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1)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90~97, 도면 31 · 32, 지도 13)

· 위치 : 남사면 북리 당하동 삼창말 북동쪽 논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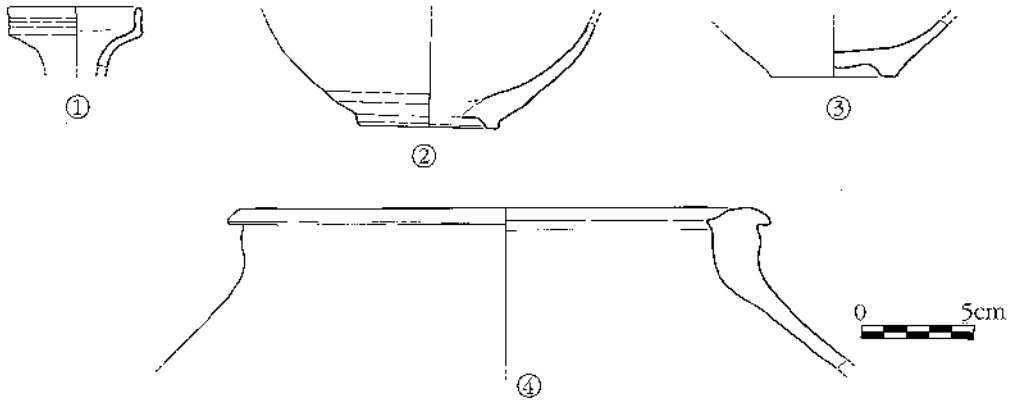
· 유적현상 : 아곡 4고리에서 82번 국도를 따라 북리 쪽으로 가다가 당하교에서 오른쪽으로 당하동 유물산포지에서 동막골 방향으로 300m정도를 더가면 산 계곡을 끼고 논이 나온다. 이 논을 북리 저수지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면, 논이 끝나는 부분에 산 사면이 절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량의 기와편이 노출되어 있다. 절개면 위쪽으로는 평탄면이 남아 있어 비록 초석을 비롯한 석재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이곳에 건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유물

(도면 31-①, 사진 94-① · 95-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광구병편이다. 구연은 직립으로 구연부의 아래쪽에 계단모양의 턱이 지며 목은 상대적으로 잘록하다. 태토는 회흑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은 시유되지 않았으며 경질이다. 구연 상부에 2줄의 돌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표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2.6cm, 추정구경 : 6.2cm, 두께 : 0.4cm

(도면 31-②, 사진 94-④ · 95-④)는 분청사기편으로 저부 일부가 남아있고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완만한 곡선으로 굽에 이어진다. 표면에 귀얄흔적이 일부 나타나 있고 내저면에 1개의 태토비짐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일부 적색을 띤다. 접지면은 비교적 단정하게 깎았다.

잔존높이 : 4.8cm, 추정저경 : 6.2cm, 두께 : 0.4-0.8cm



[도면 31]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④)

(도면 31-③, 사진 94-③ · 95-③)은 저부가 남아 있는 고려 청자편이다.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내저면에 5개의 내화토 흔적이 있다. 표면에 다량의 빙열이 나타나 있으며 태토에 모래알갱이가 다량 섞여 있다.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시유하였으나 시유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접지면의 폭이 넓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잔존높이 : 2.6cm, 저경 : 5.4cm, 두께 : 0.45-0.7cm

(도면 31-④, 사진 94-② · 95-②)는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태토는 회갈색으로 일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모래 알갱이가 섞여있다. 표면에 유약이 한번 시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경질이다.

잔존높이 : 7.2cm, 추정구경 : 23.4cm, 두께 : 0.5cm

(도면 32-①, 사진 96-④ · 97-④)는 등면이 연한 황갈색과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가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중심 뼈가 횡방향으로 시문된 얇은 가지선의 어골문이 있으며, 내림면 주위는 빗질로 정면 되어 문양이 제거되었다. 내면은 약간의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사선방향으로 굵은 빗질로 인해 약간의 포목 흔만 남아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8cm, 너비: 17cm, 두께 : 2.8~3.0cm

(도면 32-②, 사진 96-① · 97-①)은 등면이 진한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

편이다. 바탕 흙은 굵은 석립이 혼입되고 기포도 확인된다. 등면은 사격자문과 원형의 곽을 두른 초화문이 같이 새겨진 타날판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포가 접혔던 흔적이 있으며, 빗질정면으로 포목흔이 많이 사라졌다. 잔존길이 : 9.7cm, 너비 : 10.9cm, 두께 : 1.5cm.

(도면 32-③, 사진 96-③ · 97-③)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기하학문이 시문 되어 있으며, 내면은 제작 시 점토를 합친 흔적과 굵은 포목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 6.7cm, 너비 : 10.3cm, 두께 : 2.6cm.

(도면 32-④, 사진 96-⑤ · 97-⑤)는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어골문이 시문 되었으나, 물손질로 정면되어 거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내면은 촘촘한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굽는 과정에서 석립 등 이물질로 인해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2/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3.4cm, 너비 : 12.9cm, 두께 : 2.4~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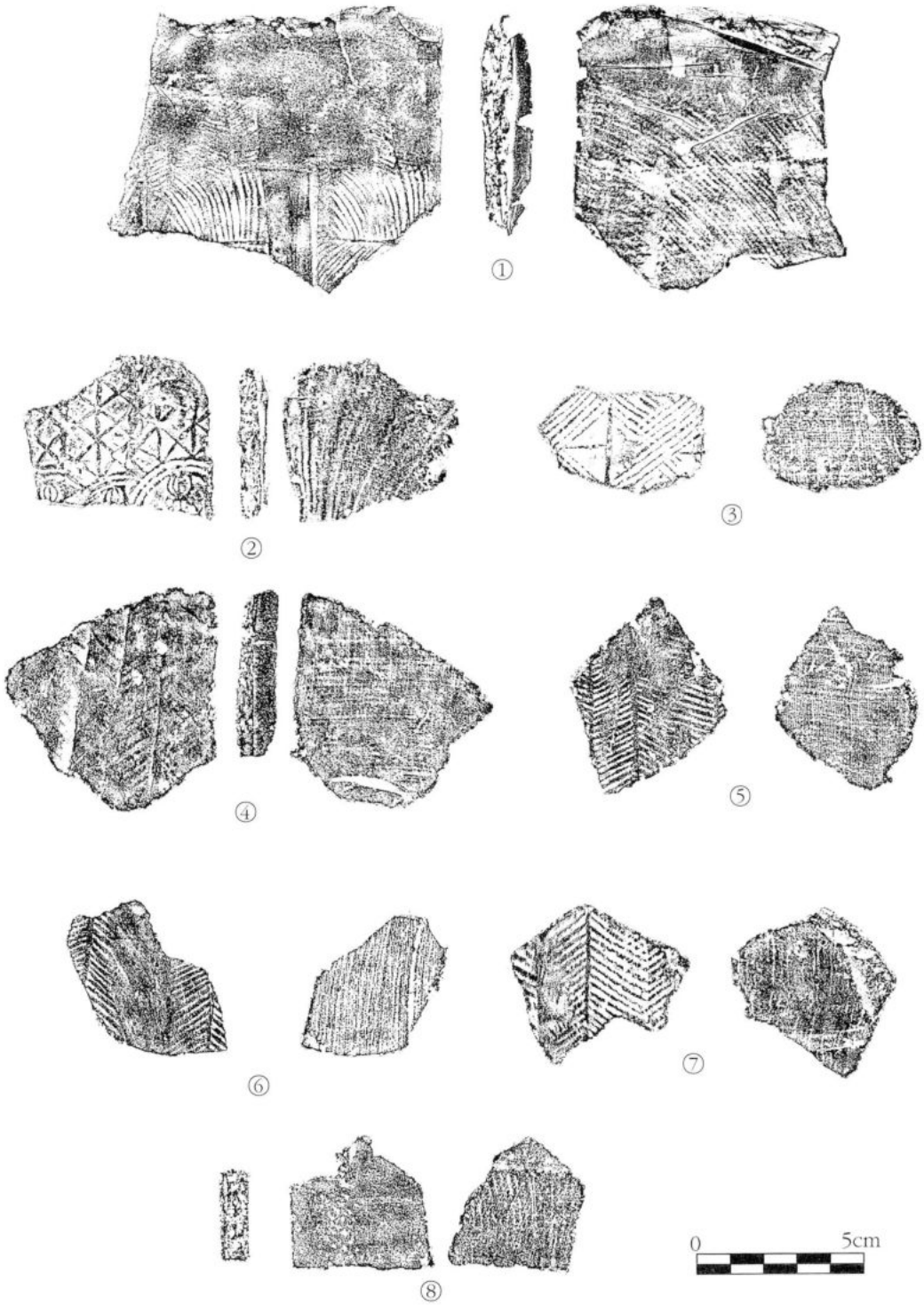
(도면 32-⑤, 사진 96-⑦ · 97-⑦)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의 가지선으로 구성된 어골문이 시문 되었으나, 물손질로 정면 되어 일부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조밀한 포목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 10.6cm, 너비 : 8.7cm, 두께 : 1.8cm.

(도면 32-⑥, 사진 96-⑧ · 97-⑧)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바탕 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3cm의 가지선으로 구성된 어골문이 시문되었는데, 빗질정면으로 문양이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세밀한 빗질로 정면 하여 포목흔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잔존길이 : 8.6cm, 너비 : 8.7cm, 두께 : 2.0cm.

(도면 32-⑦, 사진 96-⑥ · 97-⑥)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작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0.2cm의 가지선으로 구성된 어골문이 시문 되었으며, 정면과정에 생긴 손자국이 남아 있다. 내면은 정면 되어 포목흔이 남아 있지 않다.

잔존길이 : 8.7cm, 너비 : 10.4cm, 두께 : 2.3cm.



[도면 32]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⑧)

(도면 32-⑧, 사진 96-② · 97-②)는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굵은 사격자문이 시문 되어 있는데, 물손질로 인해 문양이 거의 사라졌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목흔이 있으며, 그 위로 사선방향의 빗질을 하였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8.3cm, 너비 : 8.5cm, 두께 : 1.8cm.

(19) 아곡리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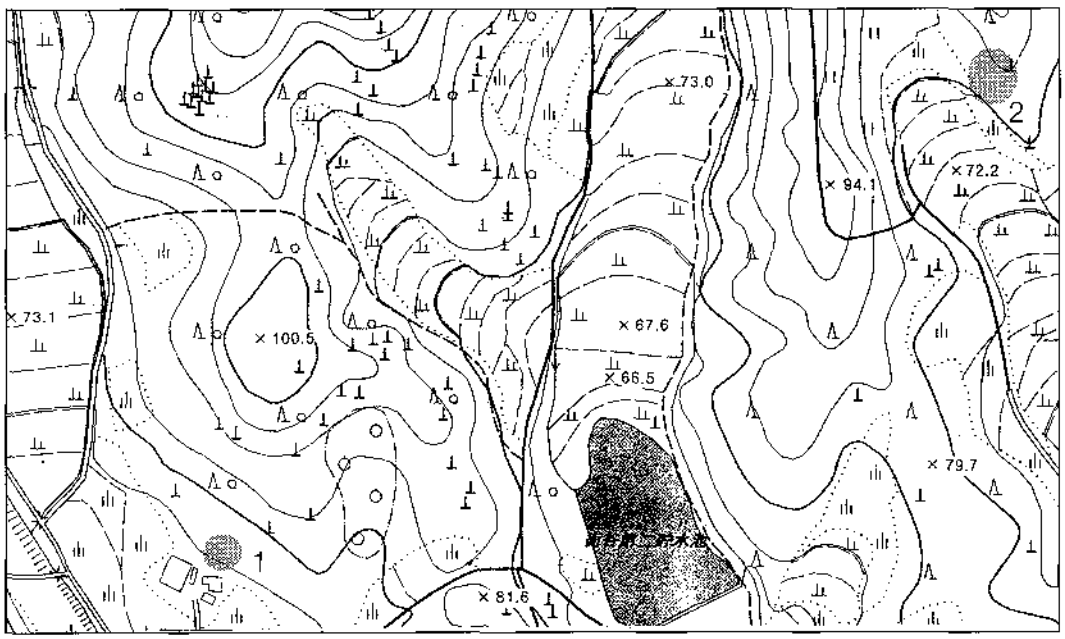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98~104, 도면 33, 지도 14)

· 위치 : 남사면 아곡 2리 이창섭 씨 댁 뒤 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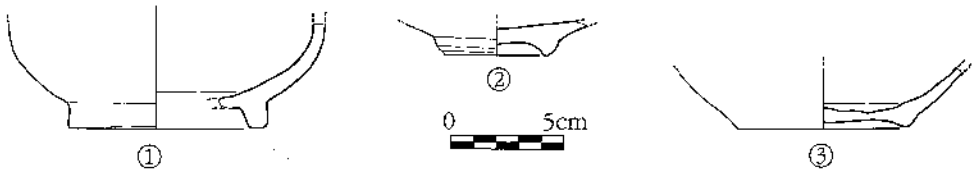
· 유적현상 : 처인성 뒤편 아곡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제일 끝에 위치한 이창섭씨 댁 뒷담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뒷담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0m 정도의 길이로 주변의 흙을 긁어 올렸는데, 그 안에 소토 및 내벽편이 섞여 나오고 있다. 다만 생산품과 관련된 유물을 채집되지 않아 유구의 성격은 불분명하다. 집 주위 밭고랑에서 약간의 백자편이 발견되었다.

2) 유물

(사진 102)는 가마의 벽편으로 생각되며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



[지도 14] 1. 아곡리 유물 산포지, 2. 완장리A 유물 산포지(도엽번호 NJ52-9-26-037)



[도면 33]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③)

록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도면 33-①, 사진 103-② · 104-②)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대접편이다. 내저면에 직경은 알 수 없으나 음각한 얇은 침선이 한 줄 돌아간다. 표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회백색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태토에 잡물이 섞여 있다.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 있으나 접지면에 깎음새가 단정하고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잔존높이 : 4.7cm, 저경 : 8cm, 두께 : 0.6cm

(도면 33-②, 사진 103-① · 104-①)은 저부 일부가 남아있고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는 백자편이다. 표면에 회백색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섞여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과 내저면에 모래받침 포개구이 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1.5cm, 저경 : 5cm, 두께 : 0.35-8cm

(도면 33-③, 사진 103-③ · 104-③)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도기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흑갈색으로 경질이다. 표면은 암흑색의 유가 흐르고 내면에는 유가 시유되지 않았으며 물손질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접지면 일부에 모래받침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2.6cm, 저경 : 7.4cm, 두께 : 0.3-6cm

(20) 완장리 A 유물산포지

1)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05~112, 도면 34 · 35, 지도 14)

· 위치 : 남사면 완장리 알미골 북쪽 논밭 일대

· 유적현상 : 아곡 제2저수지를 지나 아곡리와 완장리의 경계부분에서 60m정도를 더 가면 형진농원 쪽 남사면으로 완만하게 흐른 구릉지에 논을 끼고 위치한다. 이 곳 사람들은 이 야산 일대를 속칭 매랭이라고 부르는데, 완장천 건너편의 현 매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

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자기류와 도기류가 채집되었는데, 채집유물에서 살펴지는 중심시기는 조선 전기로 보인다.

2) 유물

(도면 34-①, 사진 107-① · 108-①)은 저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대접편이다. 구연은 알 수 없으며 완만한 곡선으로 굽에 이어진다. 내면에는 백토로 귀얄처리가 되어 있으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내저면에 4개의 비짐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이 낮고 접지면 폭이 비교적 일정하며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3.5cm, 저경 :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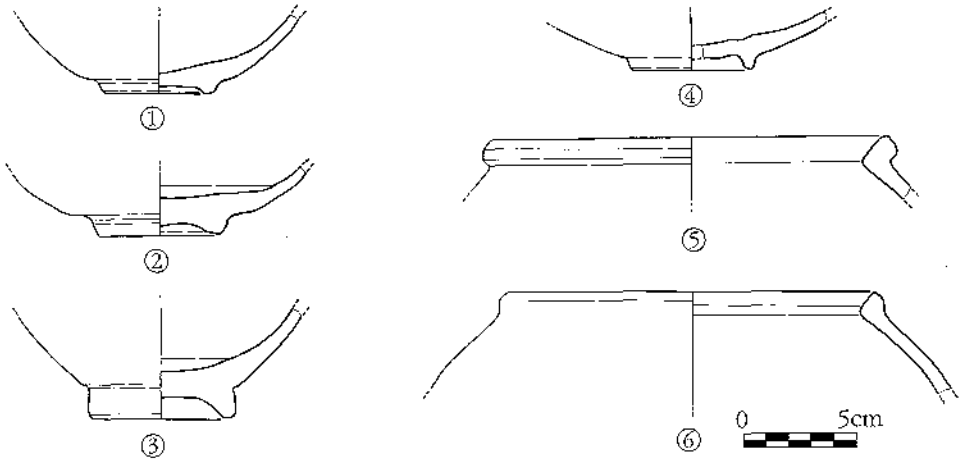
(도면 34-②, 사진 107-③ · 108-③)은 백자접시 저부편으로 구연은 알 수 없으며 태토는 치밀하며 회백색이다. 굽보다 넓고 편평한 내저면에 내저원각이 있으며 태토비짐 흔적이 4개 남아 있다. 표면에 회백색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잡물이 나타나 있다. 접시 모양이 소성이 약간 뒤틀린 것으로 보이며 굽은 한 번 다듬었고 내경하며 일부 유가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비짐 받침으로 번조하여 쌓았다. 잔존높이 : 3cm, 저경 : 5.4cm

(도면 34-③, 사진 107-② · 108-②)는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발편으로 태토는 회색으로 다량의 잡물이 섞였으며 내저면에 얇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표면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 있다. 접지면 폭이 비교적 일정하며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4.9cm, 추정구경 : 6.4cm

(도면 34-④, 사진 107-④ · 108-④)는 저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태토는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내저면에 1개의 비짐받침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이 낮고 접지면 폭이 비교적 일정하며 굽 높이보다 속 굽이 더 깊으며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2.5cm, 추정구경 : 5.4cm

(도면 34-⑤, 사진 07-⑥ · 108-⑥)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태토는 회색을 띠고 있다. 발색은 적황색을 띠며 표면에 다량의 기공이 나타나 있다. 잔존높이 : 2.8cm, 추정구경 : 17.4cm

(도면 34-⑥, 사진 107-⑤ · 108-⑤)는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있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회백색 유약을 시유한 후 철화기법으로 문양을 그렸다. 표면 군데군데 기공이



[도면 34]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자기류 1 (①~⑥)

있다. 잔존높이 : 4.5cm, 추정구경 : 16.2cm

(도면 35-①, 사진 109-⑤ · 110-⑤)는 저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와선문 접시편으로 내면 중앙에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 하였으며 굽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회록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표면에 빙열이 있으며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있다.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고 내저면에 태토비짐 받침 번조한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 2cm, 저경 : 4.2cm

(도면 35-②, 사진 109-① · 110-①)은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뚜렷하지는 않으나 매우 얇은 굽의 직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고 3개의 비짐받침 흔적이 있으며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은 아무런 장식은 없으며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좁고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접지면에 4개의 비짐 받침 한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 4.5cm, 저경 : 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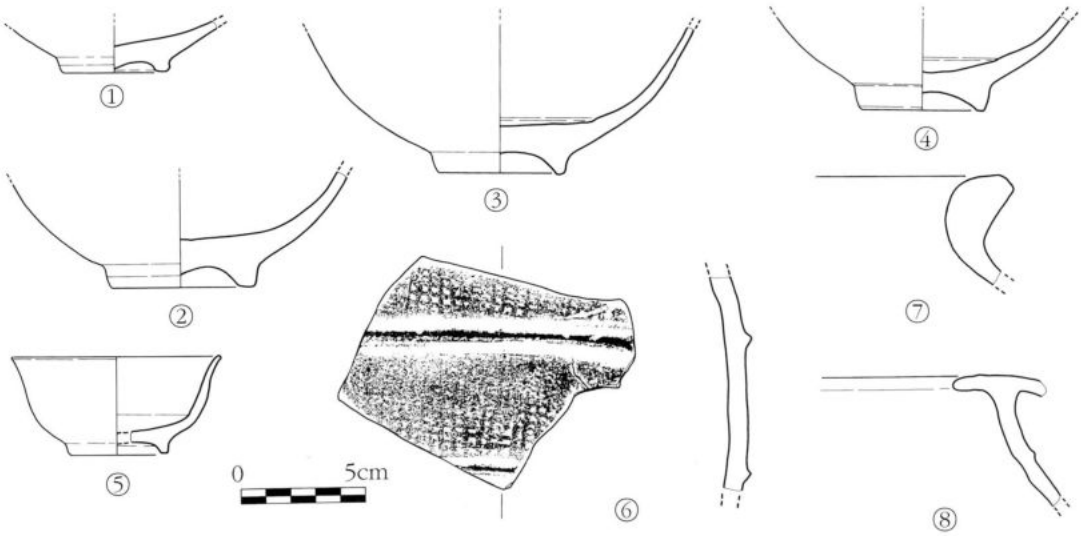
(도면 35-③, 사진 109-② · 110-②)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얇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기벽은 비교적 얇으며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 아무런 장

식은 없으며 외면과 내저면에 다량의 기공이 나타나 있고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회백색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좁고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5.75cm 저경 : 5.2cm

(도면 35-④, 사진 109-③ · 110-③)은 저부 일부가 남아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다. 내저 면에 굽의 직경보다 크고 얇은 내저원각이 있다. 표면에 회백색 유약이 시유 되어 있고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좁고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모래받침 포개구이를 하였다. 잔존높이 : 3.8cm, 저경 : 5 cm

(도면 35-⑤, 사진 109-④ · 110-④)는 2/3정도 결손된 백자 잔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약간 외반하고 있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으나 내저면에 원각이 뚜렷하다. 회백색 유약이 시유 되어 있으며 모래받침 번조를 하였다. 높이 : 3.9cm, 저경 : 4cm, 구경 : 8,4cm

(도면 35-⑥, 사진 111-② · 112-②)는 토기 체부편으로 태토는 회청색의 경질로 외면에 2개의 돌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타날문이 압인되어 있다. 내면에 파도문의 박자 흔이 얇게 남아 있다. 소량의 사립이 섞여 있다. 잔존길이 : 8.6cm



[도면 35]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2 (①~⑧)

(도면 35-⑦, 사진 111-① · 112-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태토는 황색과 회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 4.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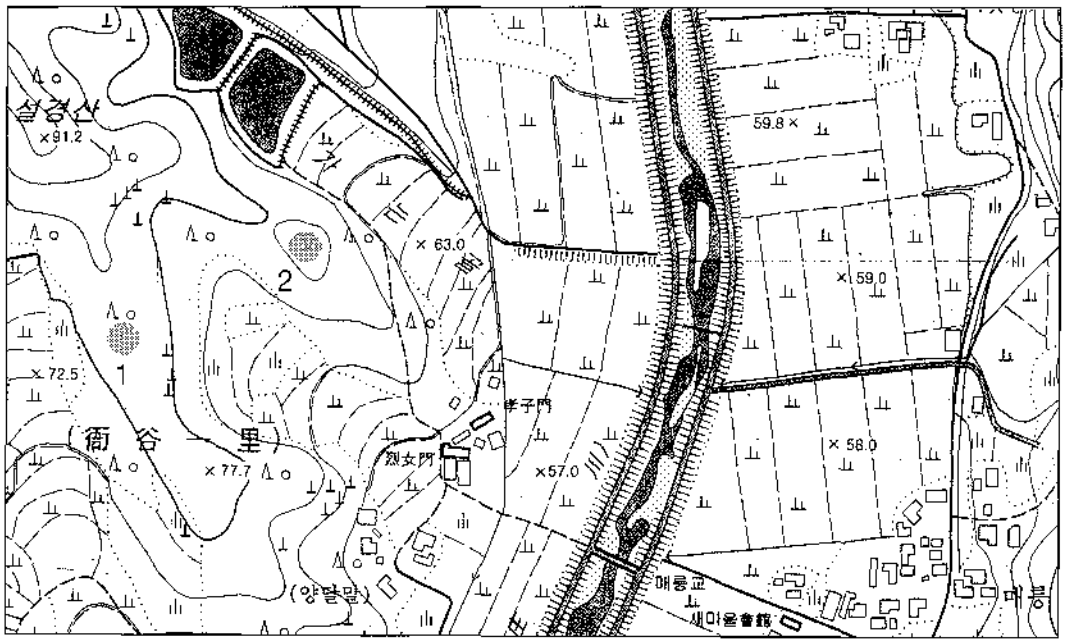
(도면 35-⑧, 사진 111-③ · 112-③)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부에 붙은 몸체에는 외면으로 돌대가 한 줄 돌아가고 있다. 잔존길이 : 5.3cm

(21) 완장리 B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13~118, 도면 36 · 37, 지도 15)

· 위치 : 남사면 완장 1리 뒷골

· 유적현상 : 남사면 완장 1리 양달말에서 등선을 타고 승지골 방향으로 200m 정도를 올라가면 2단으로 된 평면상이 나타난다. 상단의 평면은 약 30m×15m 정도의 장방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당재(堂齋)터로 알려져 왔다고 한다. 주변에서 시대가 앞서는 토기편도 찾아지나, 주로 기와편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일단은 조선시대의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도 15] 1. 완장리B 유물 산포지, 2. 완장리C 유물 산포지

2) 유물

(도면 36-①, 사진 115-① · 116-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는데 마모가 심해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운 연질이다. 잔존길이 : 20.6cm, 두께 : 0.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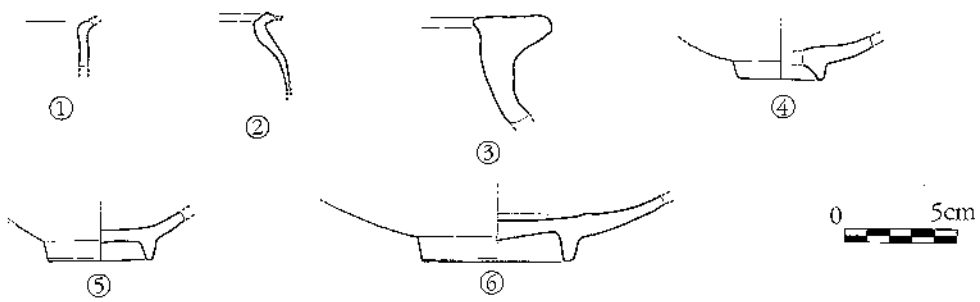
(도면 36-②, 사진 115-② · 116-②)는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마모가 심해 표면이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는 연질이다. 잔존길이 : 3.4cm, 두께 : 0.6~0.15cm

(도면 36-③, 사진 115-③ · 116-③)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일부 적황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경질이다. 잔존길이 : 4.6cm, 두께 : 1.8-0.85cm

(도면 36-④, 사진 115-⑤ · 116-⑤)는 저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내저면에 연판문을 백상감 하였으며 굽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유약을 시유하였다. 잔존높이 : 2cm, 저경 : 3.8cm, 두께 : 0.5cm

(도면 36-⑤, 사진 115-⑥ · 116-⑥)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내저면에 'ㅇ' 침선음각 되어 있다. 구연은 알 수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을 띤다.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고 굽은 약간 내경하며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2cm, 추정저경 : 3.2cm, 두께 : 0.4cm

(도면 36-⑥, 사진 115-④ · 116-④)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전접시 편으로 내저면에 'ㅏ' 의 침선



[도면 36]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⑥)

음각이 되어 있다.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태토는 백색을 띤다. 넓고 비교적 편평한 내저면에는 큰 내저원각이 있으며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고 굽은 약간 내경하며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3cm, 추정저경 : 5.7cm, 두께 : 0.9~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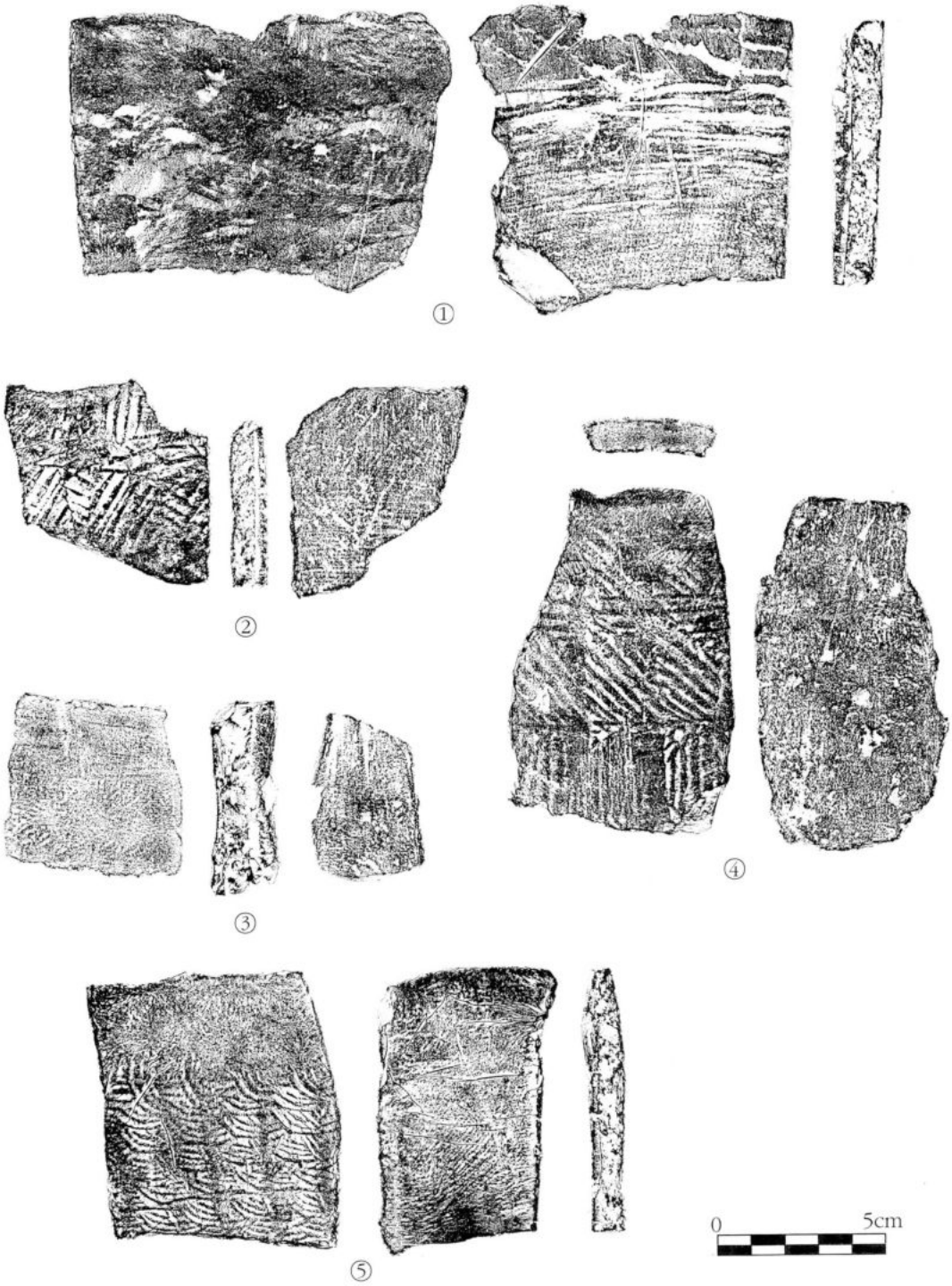
(도면 37-①, 사진 117-① · 118-①)는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문양은 없으며 빗질 정면한 흔적과 손누름자국이 보인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거친 빗질정면이 이루어졌다. 내림면 쪽으로 포가 접힌 흔적과 건조과정에서의 갈라짐이 보인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8.2cm, 너비 : 21.3cm, 두께 : 2.8~3.5cm.

(도면 37-②, 사진 117-④ · 118-④)는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 되어 기포가 많은 점토질이다. 등면은 어골계열의 복합문이 겹쳐서 시문 되어 집선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시문이후 빗질 정면 하여 문양이 많이 지워졌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 위에 사선방향으로 빗질 정면한 것이 보인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2.8cm, 너비 : 11.0cm, 두께 : 1.8~2.2cm.

(도면 37-③, 사진 117-⑤ · 118-⑤)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파도문을 횡방향으로 빗질정면하여 제거하였으며 점토를 합친 흔적이 수직으로 남아 있다. 언강은 1.3cm정도이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가 접힌 흔적이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3정도 그어 거칠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1.2cm, 너비: 10.1cm, 두께 : 2.8~3.6cm.

(도면 37-④, 사진 117-② · 118-②)는 옅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기포가 많은 점토질이다. 등면은 어골문 계열의 복합문이 겹쳐서 시문 되었으며, 그 위로 여러 번 빗질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점토를 합친 흔적이 사선으로 남아 있으며, 포목흔을 빗질정면으로 지웠다. 잔존길이 : 21.2cm, 너비: 13.1cm, 두께 : 2.7~3.2cm.

(도면 37-⑤, 사진 117-③ · 118-③)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은 파도문이 시문 되어 있으며, 내림면 주위는 매끄럽게 정면 하였다.



[도면 37]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과 점철흔이 남아 있으며, 그 위로 사선방향으로 빗질정면이 이루어졌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6.7cm, 너비 : 11.6cm, 두께 : 2.1cm.

(22) 완장리 C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19~121, 도면 38, 지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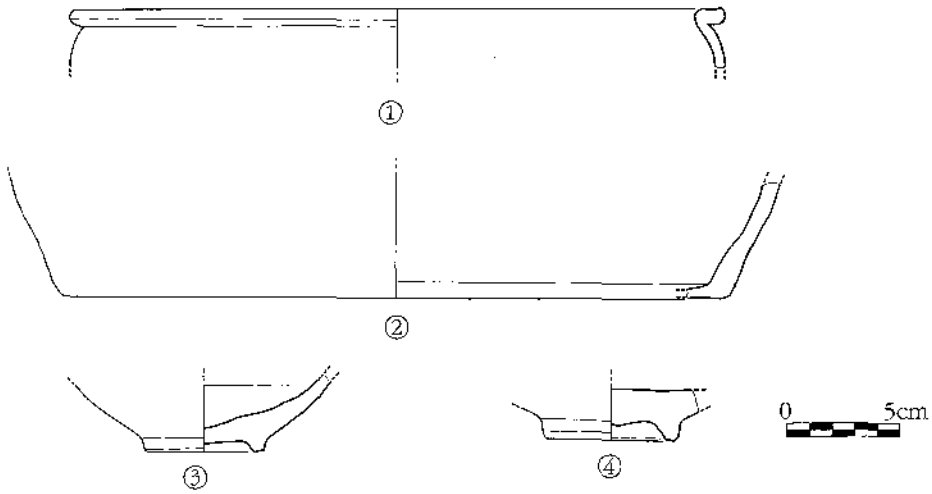
· 위치 : 김치복 신도비 뒤 구릉

· 유적현상 : 이 지역에서는 주로 조선전기의 자기편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후대에 새롭게 분묘군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유적이 파괴되면서 남은 유물로 여겨진다.

2) 유물

(도면 38-①, 사진 120-① · 121-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으로, 태토는 회색을 띠며 표면은 회청색의 경질이다. 내면에는 물레 흔적이 남아 있는데, 구연의 처리에서 위로 한번 더 꺾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잔존높이 : 2.6cm, 추정구경 : 29cm

(도면 38-②, 사진 120-② · 121-②)는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 저부편이다. 외면에 격자 무늬가 일부 시문 되어 있고 태토는 회청색으로 소량의 모래 알갱



[도면 38]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도자류 (①~④)

이가 섞였으며 경질이다. 내면에 물레를 따라 돌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잔존높이 : 6.3cm, 저경 : 30cm, 두께 :0.4~0.8cm

(도면 38-③, 사진 120-③ · 121-③)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대접 저부 편으로 태토는 회색으로 잡물이 섞였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고 황색의 유약이 비교적 얇게 시유되었으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내저면이 약간 오목하고 2개의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보다 큰 얇은 내저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굽의 높이가 낮고 굽 접지면을 깨끗이 다듬었으며 안쪽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3.4cm, 추정저경 :.5.2cm, 두께 :0.6~0.7cm

(도면 38-④, 사진 120-④ · 121-④)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 저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으로 투명한 유백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저면은 편평하고 2개의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접지면을 깨끗이 다듬었으며 비짐받침 한 것으로 보인다. 굽 안쪽은 비교적 편평하게 깎아내었고 중앙부가 약간 돌기되었다. 잔존높이 : 2.3cm 저경 : 6cm 두께 : 1.1~1.6cm

(23) 완장리 D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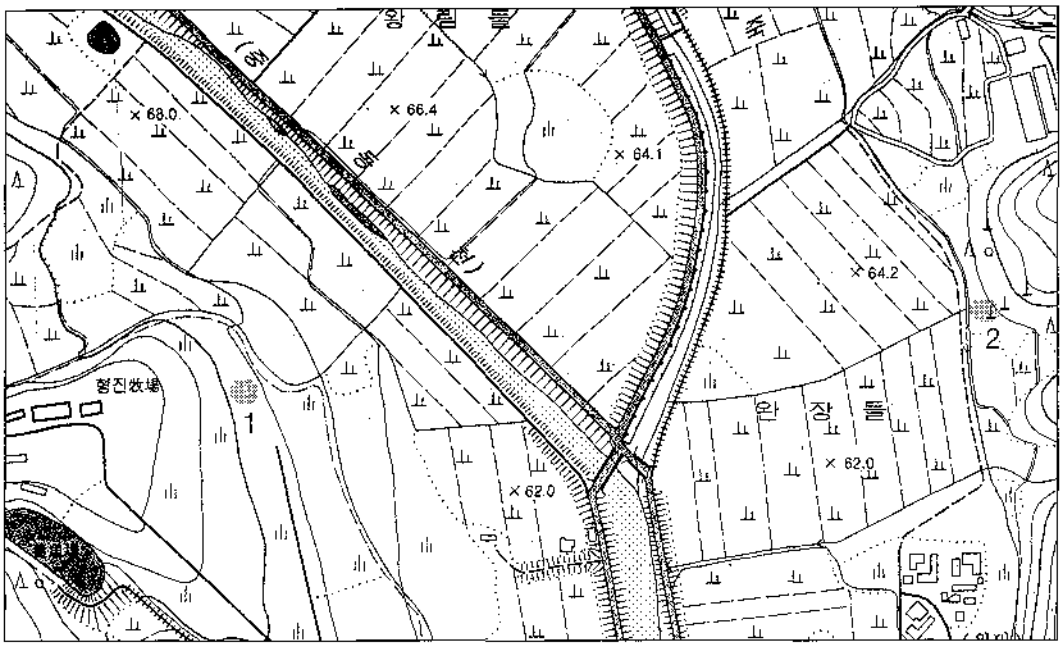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22~126, 도면 39, 지도 16)

· 위치 : 남사면 완장 1리 형진농원 오른쪽 논 일대

· 유적현상 : 중동천이 완장1천과 합쳐지는 곳에서 형진농원 쪽으로 200m 정도 올라가면 심영주씨의 논이 나온다. 주로 기와가 산포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 기와요지가 있었다고 한다. 기와 중에는 고려 초기로 볼 수 있는 명문기와도 있어, 기와요지인지 아니면 사지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논의 개간으로 인해 유적은 이미 그 형태를 잃었으며 많은 기와가 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단지 몇몇 기와편과 소토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유물

(도면 39-①, 사진 124-① · 125-①)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방형의 곽 안에 '慈勒之寺' 라는 문자가 있으며, 바로 초화문과 사격자문이 연결된 복합문이 연결되어 있다. 방형의 문자곽 위는 횡방향으로 빗질정면 되어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은 조밀한 간격의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도구로 살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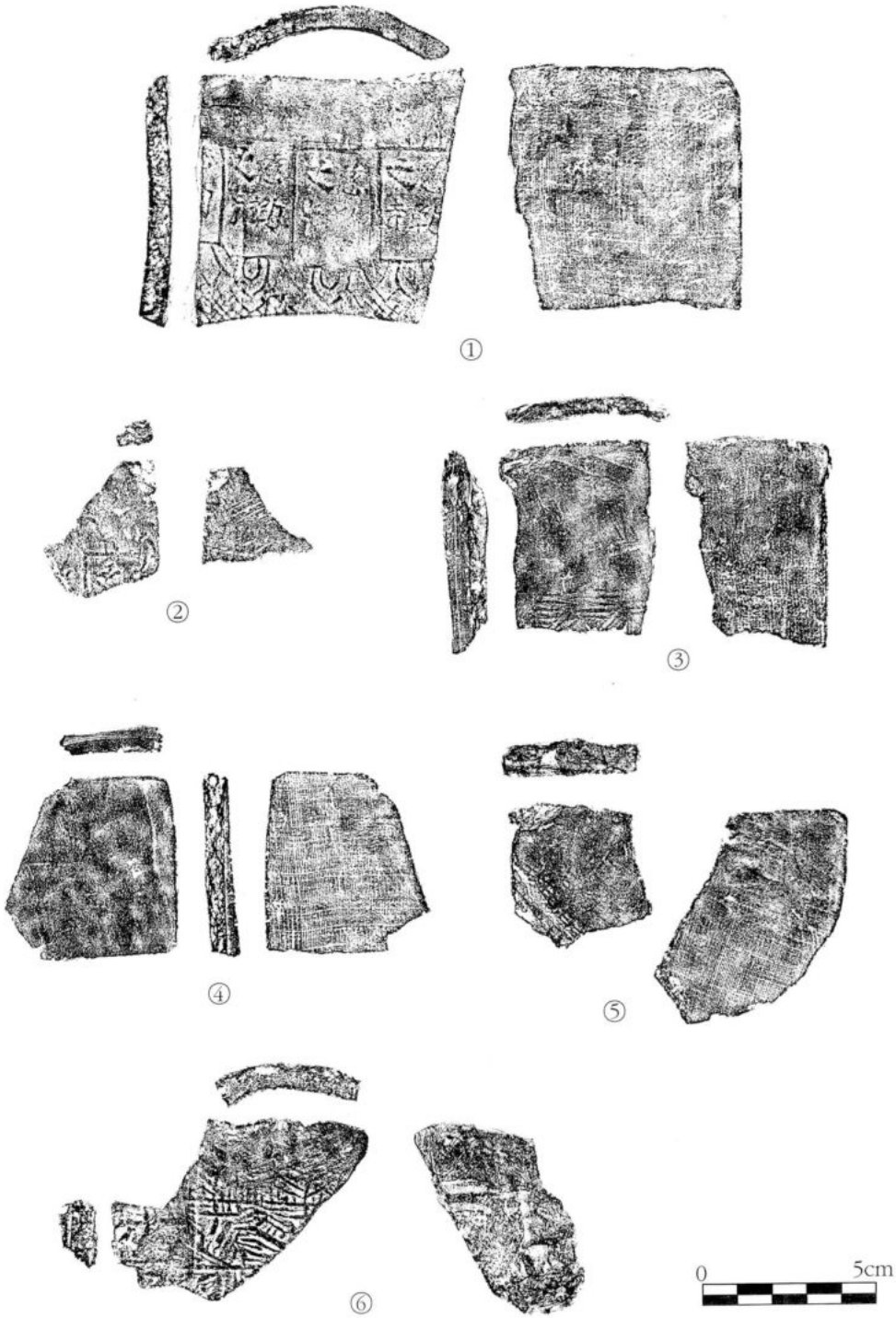
[지도 16] 1. 완장리 D 유물 산포지, 2. 매릉동 도기요지

그은 후 떼어냈다. 잔존길이 : 14.8cm, 너비 : 12.4cm, 두께 : 1.4cm.

(도면 39-②, 사진 124-② · 125-②)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방형곽 안에 '之' 라는 문자가 남아 있는데, 곽의 위치나 크기, '之' 의 형태 등이 '慈勒之寺' 銘 기와와 동일하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깊은 빗질자국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 7.5cm, 너비 : 6.5cm, 두께 : 1.4cm.

(도면 39-③, 사진 124-③ · 125-③)은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횡방향으로 선조문이 시문된 듯 보이나 빗질정면으로 대부분 문양이 지워져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면 역시 정면과정에서 포목흔이 부분적으로 제거되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2/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1.1cm, 너비 : 8.5cm, 두께 : 2.4cm.

(도면 39-④, 사진 124-④ · 125-④)는 연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 문양은 없으며, 점토를 합친 흔적이 등면과 내면에서 확인된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남아 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도면 39]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기와류 (①~⑥)

10.7cm, 너비 : 9.5cm, 두께 : 1.6cm.

(도면 39-⑤, 사진 124-⑥ · 125-⑥)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 되어 있으나 많이 지워졌으며, 빗질정면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일부 문질러 포목흔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 14.3cm, 너비 : 7.9cm, 두께 : 2.3cm.

(도면 39-⑥, 사진 124-⑤ · 125-⑤)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바탕 흙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잡선문이 시문 되어 있는데, 내림면 주위에는 사선방향으로 빗질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적이 있으며, 불에 검게 그을어있다. 측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1/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 10.3cm, 너비 : 10.1cm, 두께 : 3.0cm.

(사진 126)는 연한 회색을 띠는 경질의 와제품편과 소석이다. 와제품 편은 바탕 흙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질이다. 평면 부분에는 일부 빗질흔적이 확인되며, 불에 검게 그을어있다. 잔존길이 :14.8cm.

(24)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27~130, 도면 40, 지도 16)

· 위치 : 남사면 완장 3리 매릉동 조루봉 하단 분묘군 일대

· 유적현상 : 남사면 완장 3리 매릉동 윗말 마을에서 죽대골 방향으로 200m 정도 올라가면 조리봉 등선 아래에 최근 조성된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 분묘군과 완장들이 만나는 곳에 새로 만든 도랑을 중심으로 도기요지가 있는데, 분묘조성 및 도랑 준설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다. 유적현상은 도기편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으며 일부 자기편도 보이는데, 시기는 조선후기로 여겨진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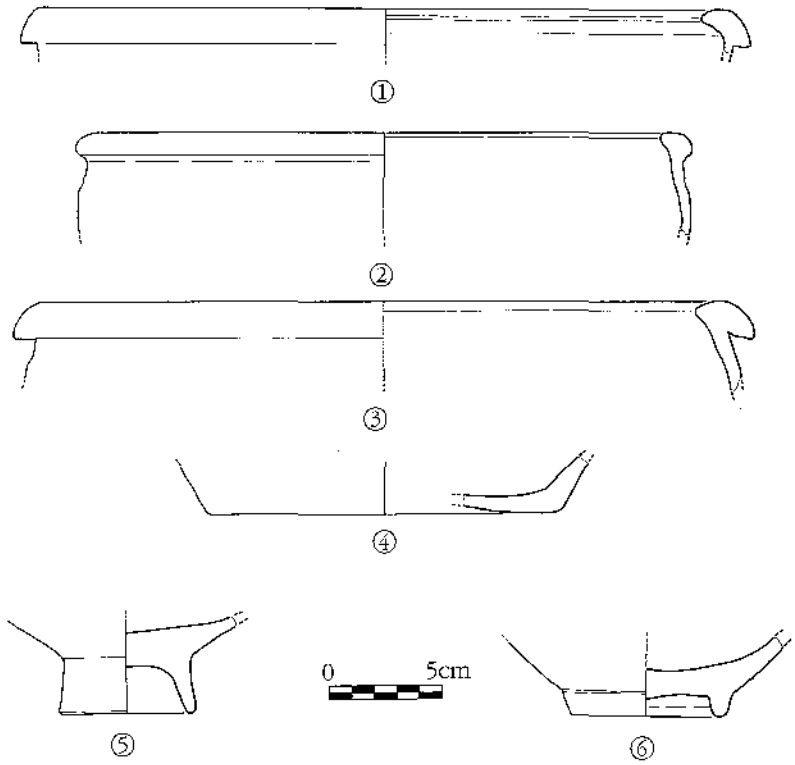
(도면 40-①, 사진 128-① · 129-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항아리 편으로 태토는 회색을 띠며 표면은 회청색 띤다. 몸통에서 구연부 쪽으로 내만하다 구연은 급격히 외반 하여 수직하다 둥글게 말아 처리하였다. 잔존높이 : 2cm, 추정구경 : 28cm, 두께 : 0.3cm

(도면 40-②, 사진 128-② · 129-②)는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항아리 편으로 태토는 고동색을 띠며 몸통에서 구연부 쪽으로 내만하다 구연은 급격히 외반되어 둥글게 말아 처리하였다. 표면에 물레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구연에서 동체부로 사선으로 내려가다 단이 한 번 져서 내려간다. 잔존높이 : 4.5cm, 추정구경 : 24.4cm, 두께 :0.4cm

(도면 40-③, 사진 128-③ · 129-③)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항아리편이다. 몸통에서 구연부 쪽으로 내만하다 구연은 외반시켜 둥글게 말아 처리하였다. 태토는 회색을 띠며 표면은 회청색의 경질이다. 내면에 물레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구연부가 마모가 많이 된 상태이다.

잔존높이 : 3.9cm, 추정구경 : 27.6cm, 두께 :0.5cm

(도면 40-④, 사진 128-④ · 129-④)는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토기편이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소량의 모래 알갱이가 섞였다. 내면



[도면 40]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도자류 (①~⑥)

에 물레를 따라 돌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두께가 매우 얇다. 굽은 평저이다.

잔존높이 : 2.4cm, 추정저경 : 15.6cm, 두께 :0.5cm

(도면 40-⑤, 사진 128-⑤ · 129-⑤)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 제기편으로 굽이 높다. 투명한 회백색 유가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소량 섞였다. 굽 안 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굵은 모래받침 포개 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4.2cm, 저경 : 6.1cm, 두께 : 0.5~0.16cm

(도면 40-⑥, 사진 128-⑥ · 129-⑥)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편이다. 투명한 회백색 유가 시유되었으며 굽 외면을 유약 시유 후 태토를 다시 바른 것을 보인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소량 섞였으며 내저면에 빙열이 있다.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며 굽 안쪽은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3.6cm, 추정저경 : 7cm, 두께 : 0.6~0.13cm

(사진 130)은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벽의 안쪽에서 외벽으로 갈수록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25)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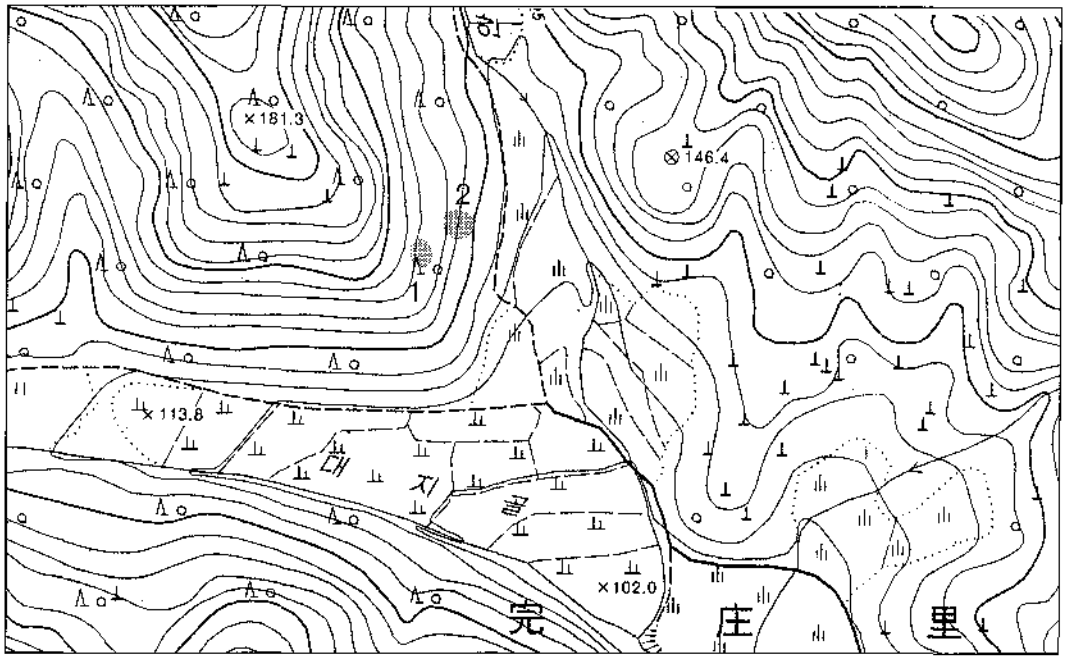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31~137, 도면 41, 지도 17)

· 위치 : 남사면 완장 제1저수지 위쪽 공씨 묘역

· 유적현상 : 남사면 완장 제1저수지 상류의 공씨 묘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묘군 조성과정에서 요지는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도자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다량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어 오랜 기간 사용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사면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분청사기 요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유물

(도면 41-①1, 사진 133-① · 134-①)은 1/2 정도가 결손된 분청사기 접시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다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내저면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굽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암록색의 유약을 시유 하였다. 표면에 빙열이 있으며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 있다. 접지면 세 곳에 태토 비짐을 받쳐 번조 하였으나 태토 비짐은 한 곳만 남아 있다. 높이 : 2.4cm, 추정구경 : 12.2cm, 저경 :



[지도 17] 1.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2. 옹기요지

4.2cm, 두께 : 0.3~0.9cm

(도면 41-②, 사진 133-③ · 134-③)은 구연 일부가 결손 된 분청사기 접시편이다. 구연은 외반하여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접시의 모양이 바르지 않으며 소성 시 약간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내저면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다. 굽 주위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회록색의 유약을 시유 하였고 외면에 물레자국이 나타나 있다. 표면에 빙열이 있고 내저면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으며 굽은 약간 내경한다. 높이 : 2.4cm, 추정저경 : 12.2cm, 저경 : 4cm, 두께 : 0.3~0.6cm

(도면 41-③, 사진 133-② · 134-②)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내면에 불규칙한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굽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회록색의 유약을 시 하였다. 표면에 빙열이 있으며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 있다.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고 태토비짐 받침 번조하였으며 두 곳의 태토비짐이 남아 있으나 세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높이 : 2.9cm, 추정저경 : 4.3cm, 두께 : 0.2~0.9cm

(도면 41-④, 사진 135-⑤ · 136-⑤)는 저부가 남아 있는 분청사기 접시편이다. 저부에서 몸체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직립하고 내저면은 편평하며 얇은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는 회색을 띠며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암록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으나 빙열이 있고 표면과 단부에 다량의 기공이 나타나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며 태토비짐 받침 번조 하였고 두 곳의 태토비짐 받침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2.1cm, 저경 : 4.4cm, 두께 : 0.2~0.8cm

(도면 41-⑤, 사진 135-① · 136-①)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회색으로 소량의 가는 모래가 섞였으며 단부에 다량의 기공이 나타나 있다. 내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 선을 그리고 그 위에 얇은 귀얄분장을 하고 회록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외면에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고 구연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저부로 내려간다.

잔존높이 : 4.3cm, 추정구경 : 16.6cm, 두께 : 0.4~0.6cm

(도면 41-⑥, 사진 135-② · 136-②)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분청인화문접시 편으로 태토는 회청색과 일부 적갈색을 띤다. 내저면에 국화문을 인화하였다.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고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았으며 굽 높이보다 속 굽이 더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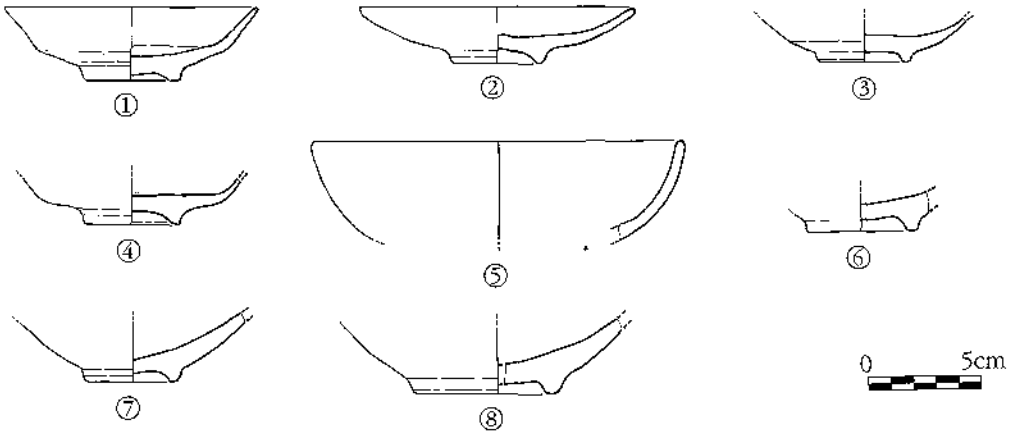
잔존높이 : 1.7cm, 추정저경 : 4.8cm, 두께 : 0.7~0.1cm

(도면 41-⑦, 사진 135-③ · 136-③)은 저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올라간다. 태토는 적갈색을 띠고 귀얄분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은 내경하고 굽 높이가 낮으며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았다. 잔존높이 : 3.1cm, 추정저경 : 16.6cm, 두께 : 0.5cm

(도면 41-⑧, 사진 135-④ · 136-④)는 저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올라간다. 태토는 적황색을 띠고 굽은 약간 내경한다. 굽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일정하며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았다.

잔존높이 : 3.3cm, 추정저경 : 5.6cm, 두께 : 0.5~0.9cm

(사진 137)은 몸체가 위아래로 긴 아령형의 도침을 비롯하여 윗면에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어진 개떡과 기마의 벽편 등이다.



[도면 41]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자기류 1 (①~⑧)

(26)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38~140, 도면 42, 지도 17)

· 위치 : 남사면 완장 제1저수지 위쪽 공씨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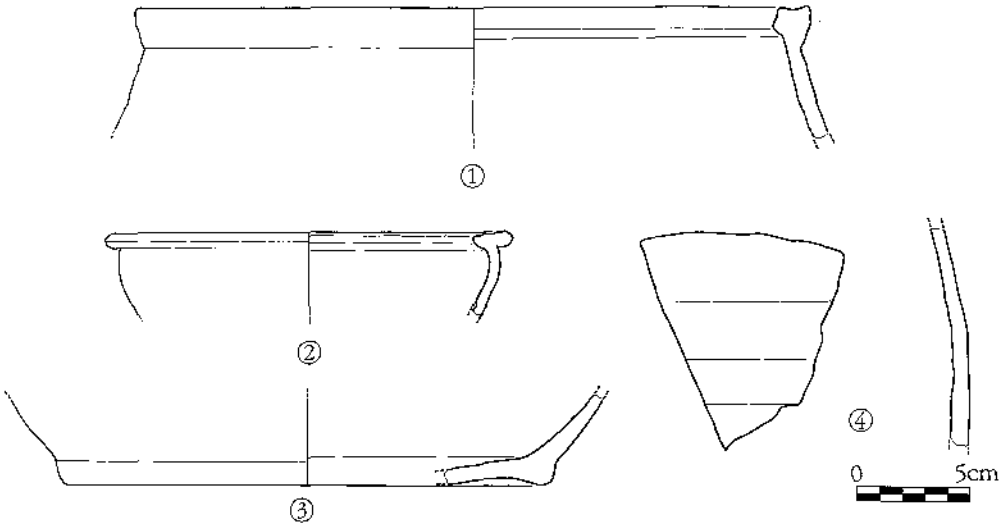
· 유적현상 : 완장 제1저수지 상류의 공씨 묘역 분청사기 요지에서 오른쪽으로 1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분청사기 요지와 마찬가지로 분묘조성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다만 옹기편과 소토 일부만을 통해 이곳이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2) 유물

(도면 42-①, 사진 138-① · 139-①)은 구연부의 일부가 남아 있는 옹기편이다. 구연부는 안으로 한 번 단을 지은 후 다시 밖으로 단을 지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붉은 색을 띠고 있다.

(도면 42-②, 사진 138-② · 139-②)는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옹기편이다. 몸통에서 구연부 쪽으로 내만하다 외면으로 90° 로 한번 말아서 둥글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표면에 아무런 장식은 없다. 잔존높이 : 3.7cm, 추정구경 : 18cm

(도면 42-③, 사진 138-③ · 139-③)은 바닥 부분만 남아있는 옹기편으로 태토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표면은 밤색에 가깝다.



[도면 42]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토기류 (①~④)

(도면 42-④, 사진 138-④ · 139-④)는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는 옹기편이다. 태토는 회갈색으로 외면에 세 곳의 음각의 선이 가로로 돌아가며 도식화된 문양이 시문 되어 있다. 내면에는 타날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4.2cm, 추정저경 : 26.2cm, 두께 : 0.4~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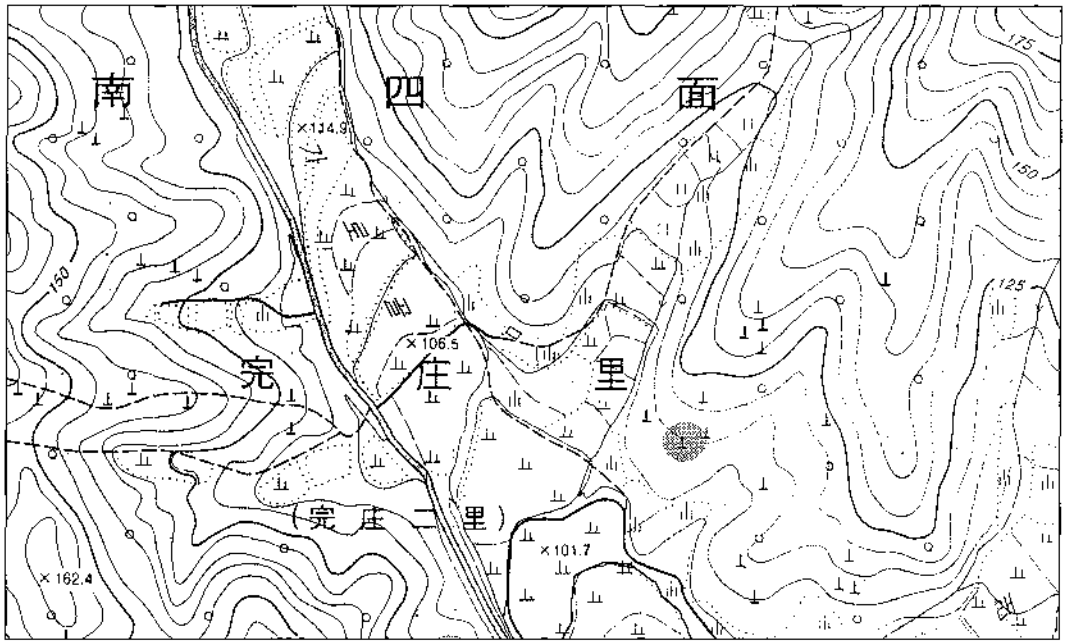
(사진 140)은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은 붉은 색을 띠며, 외면방향으로는 검은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27)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41~147, 도면 43, 지도 18)

· 위치 : 남사면 완장리 상동 경주 최씨 묘역 아래 논.밭 일대

· 유적현상 : 남사면 완장리와 이동면 서리 사이에 있는 사리재 고개에서 500m 정도 못 미친 곳에 새롭게 경주 최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상동 쪽으로 60m정도 내려오면 논 옆의 솔밭에 백자요지가 있다. 채집된 대부분의 유물은 모래밭침의 포개 구이로 만들어졌으며, 철화백자편도 일부 보인다.



[지도 18]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2)유물

(도면 43-①, 사진 143-① · 144-①)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편으로 태토는 황색으로 일부 회백색을 띠며 내면에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표면은 아무런 장식은 없으나 내면에 빙열이 있으며 외면에 다량의 기공이 있다. 굽은 내경하며 굽 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다.

잔존높이 : 3.8cm, 추정저경 : 9.8cm, 두께 : 0.8~1.1cm

(도면 43-②, 사진 143-③ · 144-③)은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고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은 아무런 장식은 없으나 빙열이 있으며 태토는 소량의 미세한 잡물이 섞여 있다. 굽은 직립에 가까우며 접지면의 폭은 좁고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굽 안 바닥까지 광택이 좋은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4cm, 저경 : 5.6cm, 두께 : 0.4~0.1cm

(도면 43-③, 사진 143-② · 144-②)는 저부가 남아 있는 종지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태토는 적황색을 띠며 굽 일부를 제외한 표면에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굽 높이가 낮으며 굽 안 바닥을 깎지 않았으며 접지면과 굽 안 바닥을 구분하지 않고 평평하게 하였다. 모래받침 번조하였다.

잔존높이 : 3.3cm, 저경 : 3.4cm, 두께 : 0.2~0.1cm

(도면 43-④, 사진 143-④ · 144-④)는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대접편으로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고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내경 하며 접지면의 폭은 비교적 일정하며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굽 안 바닥까지 광택이 적은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모래받침 포개구이 하였다.

잔존높이 : 4.7cm, 저경 : 4.8cm, 두께 : 0.3~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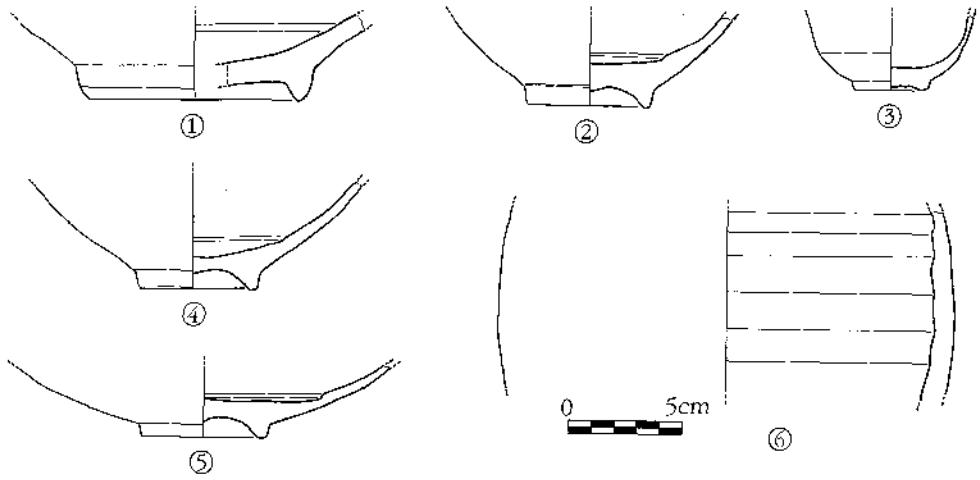
(도면 43-⑤, 사진 143-⑤ · 144-⑤)는 저부가 남아 있는 백자 접시편으로 구연은 외반 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넓고 편평한 내저면에는 크고 뚜렷한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는 소량의 미세한 잡물이 섞였으며 표면은 아무런 장식은 없으나 빙열이 있다. 굽은 약간 내경 하며 굽 안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 번조하였고 내저면에도 모래받침 포개구이 한 흔적이 있다. 표면에 광택이 좋은 투명한 회백색 유약이 시유 되었다.

잔존높이 : 3.2cm 저경 : 5.6cm 두께 : 0.2~0.1cm

(도면 43-⑥, 사진 145 · 146)은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체부 일부가 남아 있는 백자호 편이다. 태토는 회색으로 회백식 유약이 시유되었고 표면에 대나무 잎이 시문 되었다. 외면 군데군데 기공이 나타나 있고 내면에 약 15mm간격의 뚜렷한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 8cm, 추정폭 : 22cm, 두께 : 0.5~0.9cm

(사진 147)은 가마의 벽편과 요도구이다. 벽편은 마사토와 점질토의 내화재료로 만들어 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 백토가 일부 남아 있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록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요도구는 작은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된 개떡인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도면 43]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자기류 (①~⑥)

(28) 상덕저수지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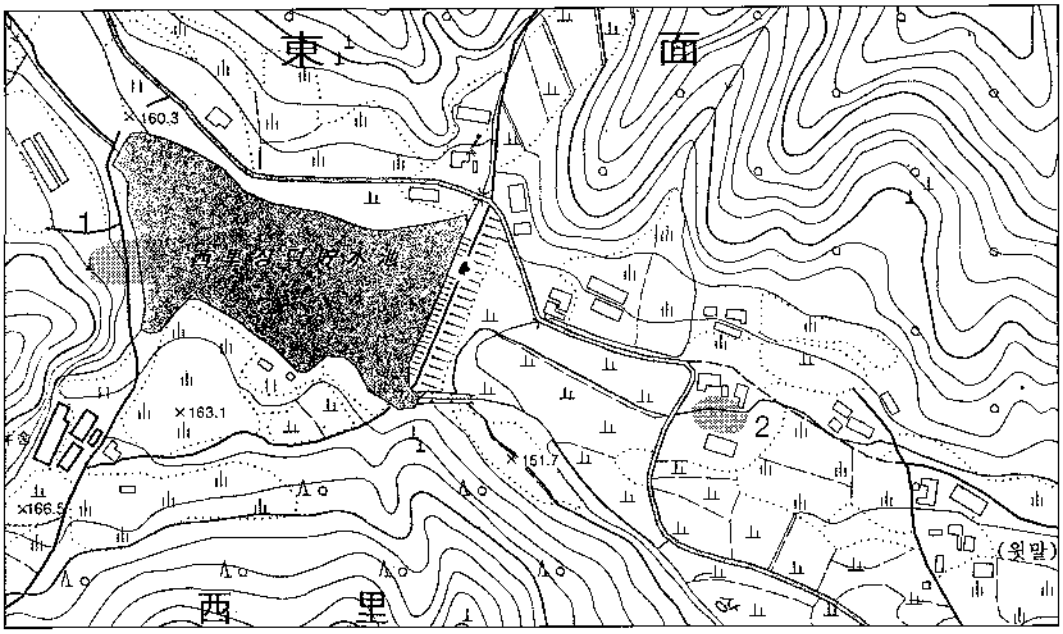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48 · 149, 지도 19)

· 위치 : 이동면 서 3리 상덕저수지 서쪽 구릉의 동사면과 저수지 내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덕저수지 제방의 맞은편 서쪽 구릉의 동사면에 유적이 위치한다. 현재 유적 서편 구릉이 牛舍 등으로 개발되어 일부 소로를 확장하고, 저수지를 정비하면서 유적이 더욱 파괴되었다. 현재 노출된 유적의 중심지에 묘소(정일영씨 선친묘)가 자리하는데, 약 30년 전 묘를 조영하면서 많은 자기 파편과 요도구 등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현재 노출된 유적의 범위는 20 × 20m 이다.

기존 조사에서는 19세기 백자요지[5]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시 정일영씨와 현지 주민들에게 확인 한 결과 보다 이른 시기의 요지가 현재 저수지 조성으로 인하여 수몰된 것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노출된 요지와 연결되며, 계속 아래로 이어지는 요지가 존재하였는데, 이곳에는 중덕 부락 고려 백자요지의 대형 퇴적의 약 1/3 규모를 지닌 갑발 등의 퇴적 무더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주운 갑발을 개의 먹이 그릇과 낫을 가는 숫돌용 물그릇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였다고 일치하게 증언하였다. 또 실제로 이번 조사시 현 유적에서 50m 떨어진 서편 더덕 밭에서 기존조사에서는 전

5) 서울大學校博物館 · 龍仁市, 『龍仁市의 文化遺蹟-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6, 51쪽.
용인시 · 외, 『용인시의 도요지-지표조사 보고서』, 1999, 105쪽.



[지도 19] 1. 상덕 저수지, 2. 상덕 부락 요지

혀 발견되지 않았던 갑발 편과 분청사기 편을 채집되었다는 정보[6]에 따라 유물을 실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갈수기에 재조사하여 수몰된 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나, 실견한 갑발과 분청사기로 미루어 조선시대 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요지가 추가로 존재함은 사실로 보아진다.

(29) 상덕 부락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50 · 151, 지도 19)

· 위치 : 이동면 서리 상덕 부락 구릉 南西斜面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덕저수지의 제방 동남 편 상덕 부락의 주택과 경작지에 위치한다. 상덕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물랑골' 계곡의 동북 편 구릉 南西斜面에 해당하여 중덕 부락 고려 백자 요지(사적 329호)를 비롯한 서리 일대 요지의 입지조건과 유사하다.

현재 민가주변과 밭에 갑발을 비롯한 요지 유물이 산포 하는데 그 범위는 30 ×40m 이고, 주로 경작을 하면서 경작에 방해되는 잡석과 함께 둔덕에 던져 모아 놓은 형태로 남아 있다. 일부 가마벽편

6) 이 유물을 채집한 사람은 전직 대학박물관 조교이다.

(사진 155-③)과 갑발편(사진 155-①②④) 등 요지의 생산 도구성 유물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요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경작과 주택의 건설로 요지는 파괴된 것 같으며, 현재 잔존하는 가마의 중심 유구 흔적은 찾지 못하였다.

요지의 중심시기는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의 채집으로 미루어 조선전기로 보아지나, 타날문 토기편과 흑갈유 자기편의 채집으로 그 연대 폭은 보다 넓게 볼 필요성을 느낀다.

2) 채집유물 (사진 152~155, 도면 44)

(사진 152-①~③)은 모두 작은 파편 상으로 채집된 분청사기편이다. 정확한 기형과 문양기법을 가름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귀양기법이 나타나 있다. 태토는 정선된 것을 사용하였고, 탁한 회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었으나, 그 상태는 고르지 못하다. 기벽의 두께는 0.5cm 내외이다.

(도면 44-①, 사진 153-①)은 白磁鉢片으로 기형은 굽에서 사선형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는데, 굽과의 경계면에서 얇은 축약이 관찰된다. 굽은 넓고 높은 편이며, 그 단면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로 접지면과 굽 안쪽에는 모래받침 번조 흔적이 완연하다. 굽안 바닥은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나, 그 중앙은 약간 볼록하게 처리되었다. 내저면에는 깊이 0.2cm의 내저원각을 예리하게 깎아 내었고, 원각 외연에 모래받침 번조 자국이 남아있다. 대체로 정선된 양질의 태토를 사용하였고, 그릇 전면에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굽의 직경은 6.7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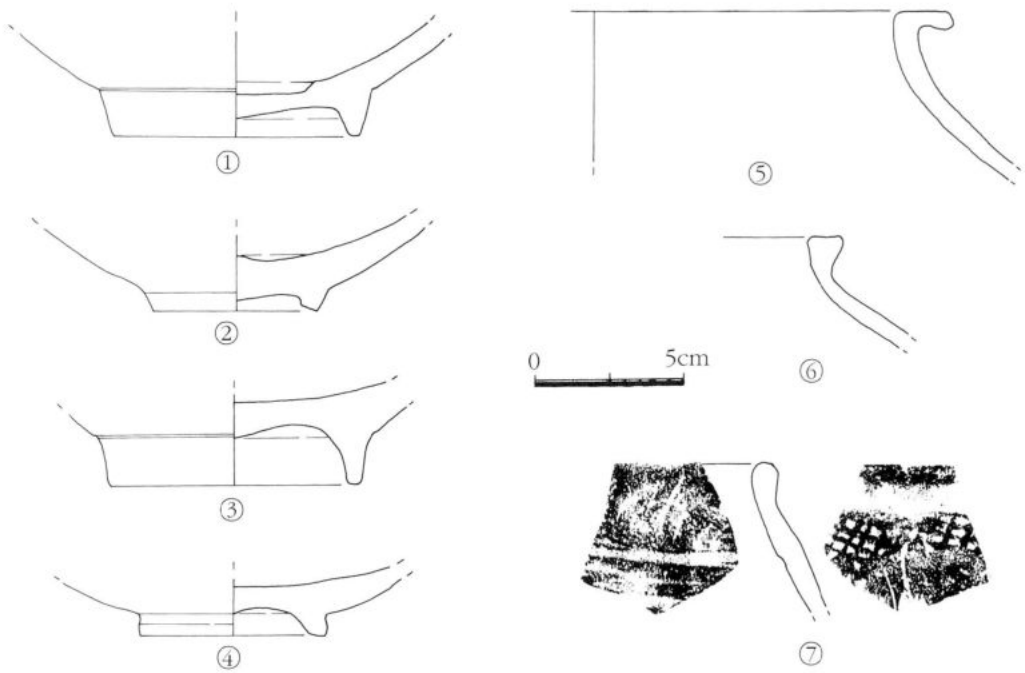
(도면 44-②, 사진 153-②)은 청자 접시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바닥 안쪽을 깎아 만들어 낮고, 그 단면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이나 깎음새가 단아하지 못하고, 접지면은 내경하게 처리되었다. 접시 내면은 밋밋한 형태로 기울어지다가 내저면 중앙이 볼록 솟아올랐다. 탁한 청녹색의 청자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한 조질청자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다. 저경은 4.2cm 이다.

(도면 44-③, 사진 153-③)은 白磁片으로 굽만 남아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고, 굽과 동체 경계를 깎아낸 골이 선명하다. 굽은 넓고 매우 높은 편이며, 그 단면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로 접지면에 모래받침 번조 흔적이 뚜렷하다. 굽안 바닥은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나, 중앙은 약간 볼록한 원추형으로 처리되었다. 내면에도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자국이 보인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발색은 탁한 회백색이다. 저경은 6.6cm 이다.

(도면 44-④, 사진 153-④)은 낮은 굽에서 넓게 외반하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접시편이다. 굽은 낮은 편이며, 그 단면은 굴절되며 좁아지는 대마디굽 형태이고, 접지면은 내경한 모양이다. 굽의 접지면과 내저면에 4개의 포개구이용 내화토 자국이 보인다. 굽안바닥에는 회전 정면 자국이 남아 있고, 중앙에 돌기가 솟아 있다. 굽 안 바닥을 제외한 전면을 탁한 회백색의 유약으로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고, 일부 균열도 보인다. 저경은 5cm 이다.

(사진 152-④)은 유일하게 채집된 흑갈유 자기 동체편이다. 기종과 기형은 불분명하고, 내외면에 흑갈색 유약이 시유되어 발색은 어두운 녹갈색이다. 기벽의 두께는 0.6cm 이다.

(도면 44-⑤, 사진 154-①)은 복원 구경이 21cm가 되는 토기항아리의 구연부 편이다. 기형은 경부로 사선을 이루며 서서히 좁아지다가 구연부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외면에 타날 격자문이 선명하고, 내면에는 회전 정면흔이 보인다. 회백색을 띠는 경질토기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고, 타날 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전기로 추정한다. 기벽의 두께는 0.7cm 내외이다.



[도면 44]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⑦)

(도면 44-⑥, 사진 154-②)은 토기항아리의 구연부편으로 기형은 동체에서 구연으로 서서히 좁아지다가 구연부에서 짧게 외반하는 형태로 구연단은 거의 수평을 이룬다. 외면에 회청색의 자연유 자국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多齒의 목리구로 정면한 자국이 보인다. 고운 입자의 정선된 점토질 태토를 사용하였다. 내면이 흑청색을 띠는 경질토기로 기벽의 두께는 0.7cm 내외이다.

(도면 44-⑦, 사진 154-③)은 연질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을 밖으로 말아 접어 약간 외반 하는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에는 타날 격자문이 선명하고, 내면에는 골을 이루는 회전 제작흔과 사선상의 정면흔이 보인다. 정선된 점토질 태토를 사용하였고, 회백색을 띠는 연질토기로 타날 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기벽의 두께는 0.7cm 내외이다.

(사진 155-①·②·④)은 모두 원통형의 갑발편이다. 뒤집어 사용한 형태로 소위 'M' 字形 갑발이다. 갑발 위 면에 그릇을 받쳤던 내화토 자국이 남아 있고, 그 이면에는 물레의 회전자국이 보인다. 발색은 적갈색이며, 외면 대부분은 유리질화 되었다. 복원 직경은 25cm 내외이다.

(사진 155-③)은 요지 가마의 벽체 편으로 재질은 굵은 모래가 섞인 마사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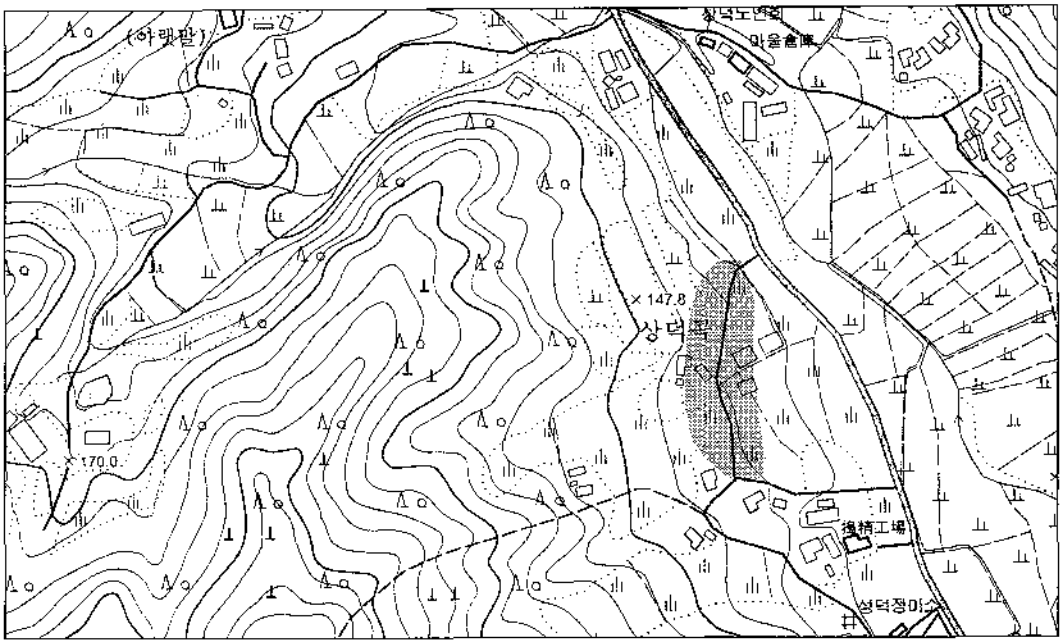
(30) 서 3리 자기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0)

· 위치 : 이동면 서 3리 상덕곡 남서쪽 산 구릉과 밭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덕저수지에서 중덕 부락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남서편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근처이다. 이미 고려시대의 유물이 산포 된 것으로 보고[7]되었다. 재답사 결과 그간 많은 지형 변경으로 유물 산포량은 매우 적고, 기존 조사내용을 변경할 만한 유물은 보이지 않았다. 요지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나, 집중적인 유물 퇴적상과 요도구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7) 서울大學校博物館 · 龍仁市, 앞의 책, 1996, 51~52쪽.



[지도 20] 서3리 자기산포지 (도엽번호 NJ52-9-26-017)

(31) 서리 중덕 고려백자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1)

· 위치 : 이동면 서리 23-1 구릉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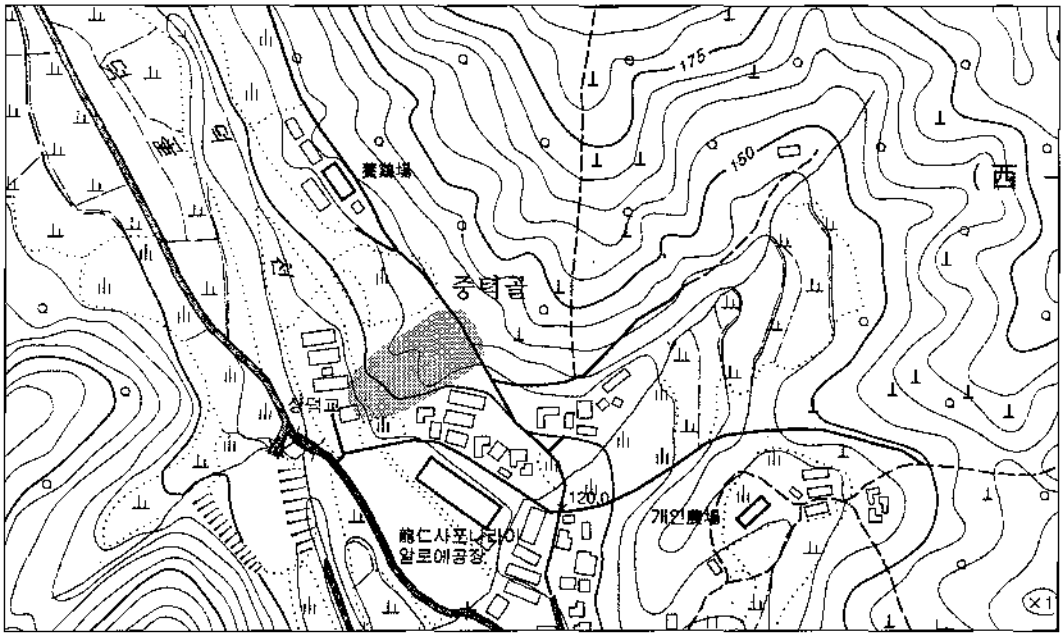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중덕 부락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의 폭은 50m 이고, 남북 길이는 80m 에 이른다. 대규모의 갑발 등 요지 폐기물이 2개의 대형 퇴적을 이루어 구릉처럼 보인다. 이미 호암미술관의 발굴조사로 9~11세기의 요지로 보고[8]되었다. 요지의 하단은 민가의 축조로 파괴되었고, 상단도 농로 개설로 훼손되었다. 현재 사적 329호로 보호되고 있는 서리 일대 많은 요지의 標識的인 유적이다.

(32)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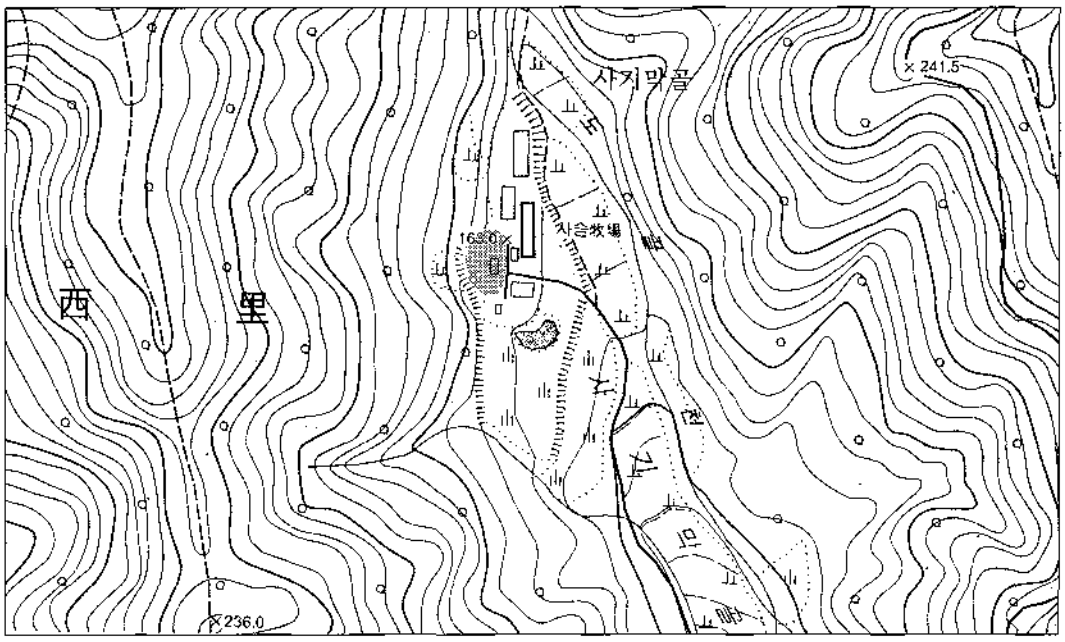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2)

· 위치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사슴농장 뒤편 임야 일대

8) 三星美術文化財團 ·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I』, 1987.



[지도 21] 서리 중덕 고려백자요지(도엽번호 NJ52-9-26-018)



[지도 22]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요지(도엽번호 NJ52-9-26-018)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안자락 끝에 현대사슴농장이 있는데 농장 건물 뒤편 임야에 유적이 자리한다. 이미 「西里 4호 요지」로 자세히 보고[9]되었고, 유적의 노출 범위는 40 ×45m 이

다. 15세기경의 분청사기와 청자, 그리고 갑발을 비롯한 요도구들이 다량 채집되고,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33) 서리 사기막골 백자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3)

· 위치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310 김영일씨 댁 牛舍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안자락의 현대 사슴농장에서 약 500m를 내려오면 '미광산업' 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북편의 민가(김영일씨 댁)의 牛舍에 위치한다. 요지는 사기막천(도골천)과 근접하게 그 서편에 조성되었으며, 이미 19세기경의 민요로 2기의 가마중 1기는 민가사의 신축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고[10]되었으나, 그 이후 우사의 증축 등으로 훼손상태가 심화된 듯 하다. 주로 조선후기의 조질 모래받침 백자편과 제기형 도침 등이 노출되어 있다.

(34) 서리 사기막골 백자 · 흑자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3)

· 위치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311 도로 옆 밭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의 '미광산업' 에서 도로를 따라 약 150m 내려와 도로와 접한 동편 밭에 유적이 위치한다. 현재 밭의 둔덕에는 경작 시 수거된 가마벽편과 요도구 등이 널려 있다. 유적의 규모는 20 × 30m 이고, 주로 19세기경 모래받침 번조의 백자와 흑자가 발견된다. 요도구로는 원통형 도침이 보인다. 기존에 「西里 5호 요지」로 보고[11]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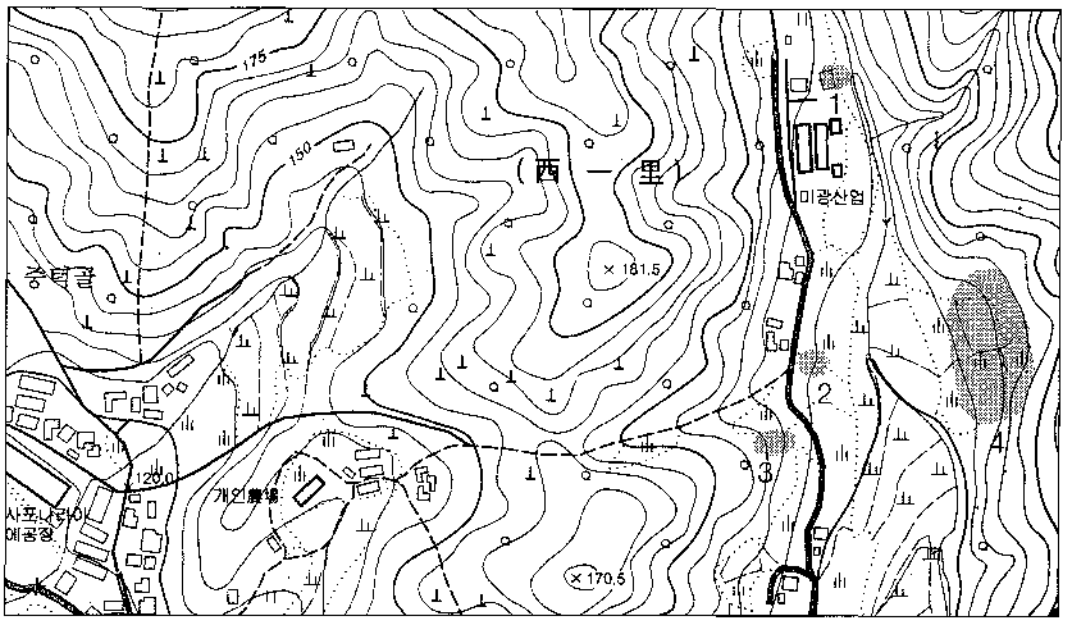
(35) 서리 사기막골 철화백자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3)

· 위치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도로 옆 구릉 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의 '미광산업' 에서 도로를 따라 약 190m를 내려와 小路 남서

9) 용인시 · 외, 앞의책, 1999, 109~118쪽.
10) 서울大學校博物館 · 龍仁市, 앞의 책, 1996, 52~53쪽.
11) 용인시 · 외, 앞의책, 1999, 118~124쪽.



[지도 23] 1. 서리사리막골 백자요지, 2. 백자, 흑자요지, 3. 철화 백자요지, 4. 사기막천동편요지(NJ52-9-26-018)

편의 구릉 사면에 위치하는데 전술한 백자 · 흑자요지와는 약 40m 거리에 있다. 가건물 민가(이효순씨 댁)가 들어서면서 요지의 하단부가 파괴되었다. 유적의 규모는 20 ×10m 이고, 주로 조선 중기 이후의 철화백자와 요도구(개떡) 등이 보인다. 기존에 「西里 6호 요지」로 보고[12]되면서, 17세기의 요지로 편년 되었다.

(36) 사기막천 동편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56 · 157, 지도 23)

· 위치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사기막천 동편 구릉 서사면과 밭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입구에서 사슴농장 쪽으로 들어가다 '미광산업' 공장 약 100m 앞에서 동편으로 사기막천(일명 도골천)을 넘어 진입하는 구릉의 西쪽 斜面 끝자락에 위치한다. 사기막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서편에는 백자 · 흑자요지(西里 5호 요지)와 철화백자요지(西里 6호 요지)가 자리한다.

현재 구릉사면의 하단부터 개간된 밭까지 자기편들이 분포하는데 중앙 폐기물 무더기를 중심으로 남북의 두 개 밭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물 노출 상태는 남쪽 밭에서 가마의 벽체편과 갑발 등 요

12) 용인시 · 외, 앞의책, 1999, 124~132쪽.

도구가, 북쪽 밭에서 다량의 기와편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 가마의 벽체편 등 요지 폐기물 퇴적층은 밭과 미개간지 경계에 집중적으로 노출(사진 157)되는 것으로 보아 가마의 중심 유구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며, 북쪽 기와편 출토지역에는 요지의 작업장 등의 건물지가 존재한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표면에 나타난 유적의 면적은 남북폭 50m, 동서 길이 30m 내외이다. 고려시대의 기와부터 조선시대 철화백자까지 함께 채집되고 있다.

2)채집유물 (사진 158~164, 도면 45 · 47)

(사진 158-①~③)은 갑발로 기형은 모두 원통형이며, 뒤집어 사용한 형태로 위면 중앙이 아래로 휘었다. 갑발 위면 외연에 포개 쌓았던 자국이 남아 있고, 외면은 유리질화 되었다. 발색은 암적갈색이며, 복원 직경은 22cm 내외이다.

(사진 158-④ · ⑤)은 개떡으로 형태는 원반형이며, 직경은 14~18cm 이다. 비교적 두께가 두꺼운 개떡(④)은 위면 중앙이 다소 오목하고, ⑤는 한쪽 두께를 얇게 처리하여 경사진 등요에서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재질은 굵은 모래가 섞인 마사토질이다.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편평하게 처리된 위 면에는 모래 발침 자국과 달라붙은 자기편이 보이다.

(사진 159)은 가마 벽체 편으로 마사토에 작은 돌 조각을 섞어 축조한 흔적이 보인다. 안쪽 면은 유리질화(두께 2cm 내외)되어 적갈색을 띠고, 가마벽 외벽 쪽은 주황색을 띤다.

(도면 45-①, 사진 160-①)은 경질의 암키와 편으로 표면에는 魚骨文과 斜格子文이 얇게 타날 시문 되었고, 裏面에는 荒布痕이 시문 되었으나, 빗질정면으로 일부 지워져 있다. 고운 사립이 섞인 태토를 사용한 회백색의 기와로 잔존 폭과 길이는 각각 11cm 이고, 두께는 2cm 이다. 우측단면에 두께의 1/2 깊이로 안에서 밖으로 瓦刀를 넣어 자른 分割刀痕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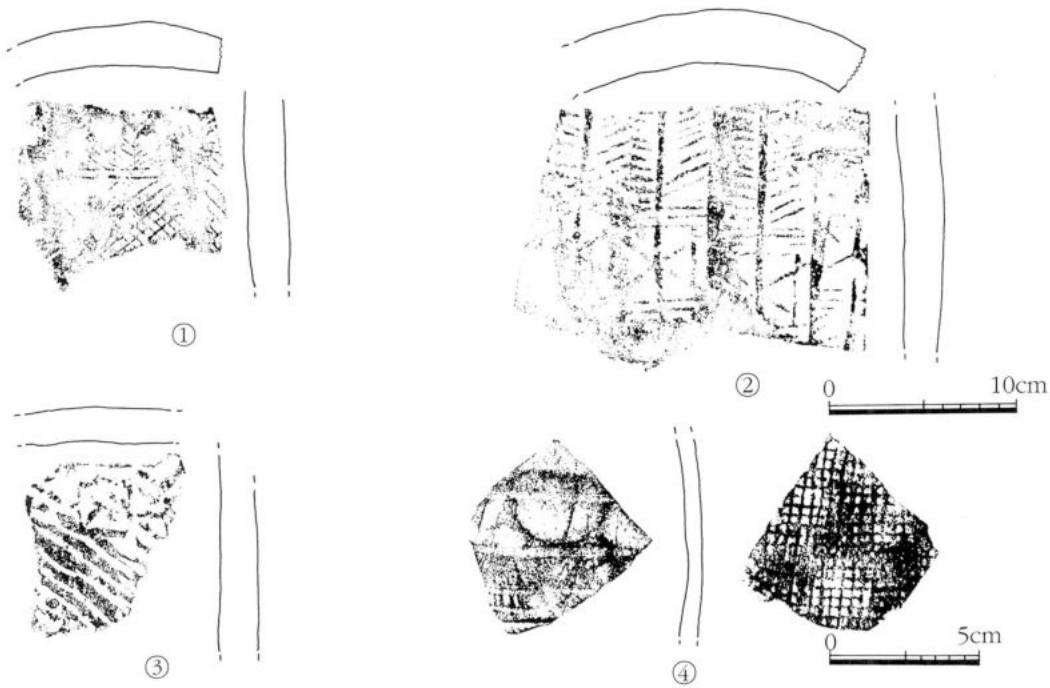
(도면 45-②, 사진 160-②)은 암키와 편으로 표면에는 太線의 어골문과 형의 문양이 시문 되었고, 裏面에는 荒布痕이 빗질 정면으로 희미하게 남아 있다. 굵은 사립이 섞인 거친 태토를 사용한 경질의 회청색 기와로 잔존 길이와 폭은 각각 15cm와 20cm 이고, 두께는 3cm 이다. 우측단면에 두께의 1/3 깊이로 안에서 밖으로 瓦刀를 넣어 자른 分割刀痕이 남아 있다.

(도면 45-③, 사진 160-③)은 암키와 편으로 표면에는 태선으로 된 斜線文 등 복합 문양이 시문되었고, 裏面에는 물손질로 일부 지워진 細布痕이 보인다. 고운 태토를 사용한 경질의 회청색 기와로 두께는 2cm 이다.

(사진 161-① · ②)은 철화백자 편이다. 파편상이어서 기형은 불분명하나 곡만도로 보아 鉢로 추정한다. 태토는 정선된 양질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회청색 유약을 시유하였고, 빙열은 보이지 않는다. 외면에 철화기법으로 시문한 문양이 보인다.

(사진 161-③)은 흑유자기 편이다. 내외면에 흑갈색의 흑유가 얇게 시유되었고, 양질의 태토에 기벽의 두께는 0.7cm 이고, 곡만도로 보아 동체편이나 기형은 불분명하다.

(도면 45-④, 사진 161-④)은 고운 입자의 태토에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편이다. 외면에 타날된 격자문이 촘촘하고, 내면에는 회전 제작흔과 내박자 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 두께는 0.5cm 이다.



[도면 45]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기와 · 토기류 (①~④)

(도면 46-①, 사진 162-①)은 기형은 넓고 높은 굽에서 위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대접으로 굽의 저경은 10cm 이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로 접지면은 面지게 처리되었으며, 내화토 받침 자국이 보인다. 내외면에 탁한 담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여 일부 잡물이 보인다.

(도면 46-②, 사진 162-②)은 낮은 굽에서 위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대접으로 내면 중앙부에서 큰 원 각을 돌리듯이 깎아내었다. 모래받침 번조 자국이 굽의 접지면과 내면 중앙에 보이고,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여 내면에 녹색 반점이 보인다. 저경은 5.8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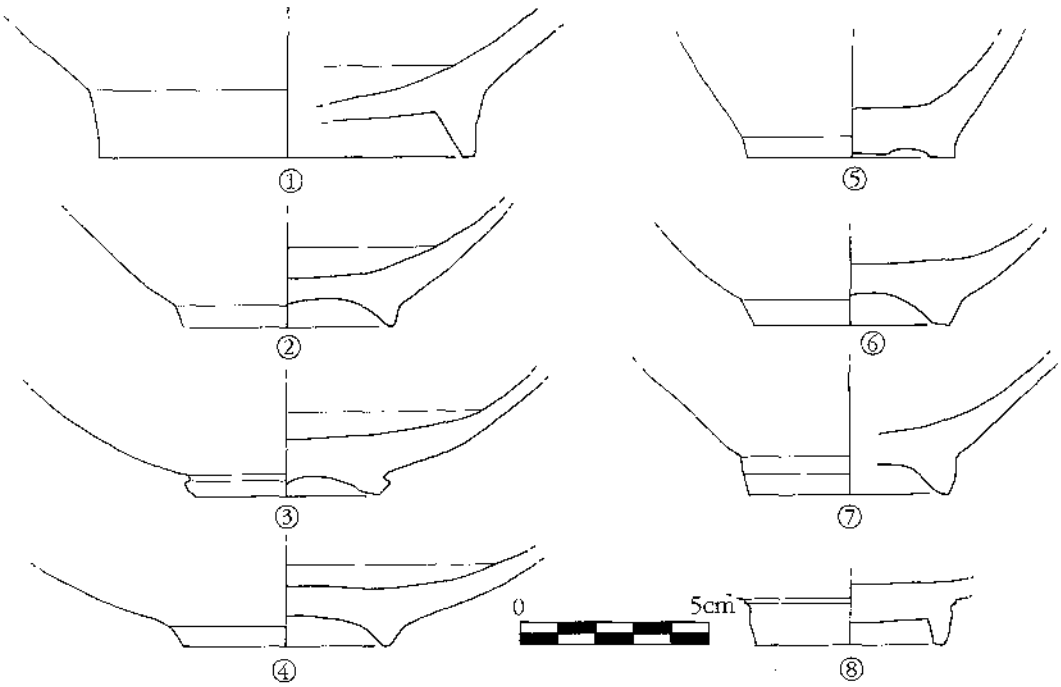
(도면 46-③, 사진 162-③)은 낮은 굽에서 위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접시로 굽은 꺾어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은 내경하게 처리되었다. 접지면과 내면 중앙에 내화토 받침자국이 보이고,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며 일부 기포현상도 보인다. 저경은 5.6cm 이다.

(도면 46-④, 사진 162-④)은 기종은 위가 넓게 벌어지는 백자접시로 굽은 안 바닥을 깎아낸 형태이다. 내면 중앙은 넓은 원 각을 돌리듯 깎아 정면 하였고, 접지면과 내면 중앙에 모래받침 번조 자국이 보인다. 내외면에 회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저경은 5.6cm 이다.

(도면 46-⑤, 사진 163-①)은 낮은 굽에서 斜線狀으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잔이다. 굽의 접지면은 수평의 넓은 面狀으로 처리되었으며, 굽 안쪽 바닥의 외연을 골지게 깎아내고 중앙은 다시 편평하게 마감하였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내화토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내외면에 탁한 녹갈색의 백자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고, 일부 氷裂과 剝離현상이 보이다. 저경은 5.6cm 이다.

(도면 46-⑥ · ⑦, 사진 163-② · ③)은 백자접시로 추정되고, 굽은 안쪽이 들린 형태로 모래받침 번조 자국이 보인다.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발색은 고르지 못하다. 저경은 모두 5.2cm 이다.

(도면 46-⑧, 사진 163-④)은 백자접시로 추정한다. 좁은 굽은 비교적 정치하게 깎아내어 굽의 두께가 매우 얇고, 깎음새도 정연하다. 좁고 편평한 접지면에는 내화토 자국이 보이고 굽 안쪽 바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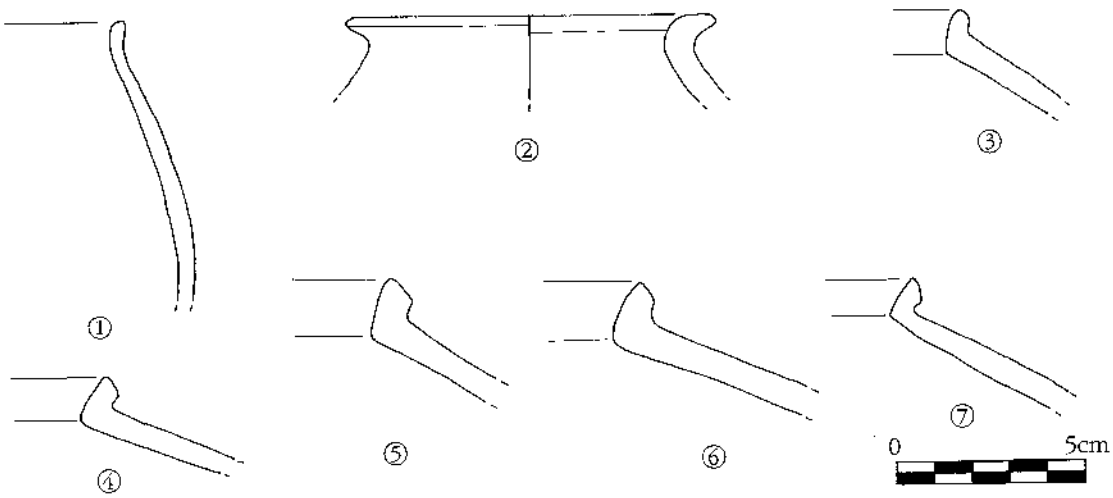
[도면 46]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⑧)

은 편평하게 처리하다가 중앙에 작은 돌기를 두었다. 반투명의 백회색 유약이 시유되었고, 발색도 고른 편이나 일부 빙렬과 균열이 보인다.

(도면 47-①, 사진 164-①)은 백자 구연부편으로 기형은 구연이 완만하게 외반하고, 몸체가 弧狀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양질의 태토에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였으나 일부 녹색 반점과 氷裂이 보인다. 기종은 鉢이고, 기벽의 두께는 0.4cm 내외이다.

(도면 47-②, 사진 164-②)은 백자편으로 구연이 크게 외반하고, 짧은 목에서 축약되었다가 다시 弧狀을 이루며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작은 항아리로 추정된다. 태토는 양질이며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표면에 잡물이 보이고, 내면의 시유 상태는 고르지 못하다. 복원 구경은 10cm 이고, 기벽의 두께는 0.6cm 이다.

(도면 47-③~⑦, 사진 164-③~⑦)은 모두 백자항아리 구연부이다. 구연은 외반 하고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하거나, 외곽을 한번 더 깎아 마감하였다. 몸체는 풍만하게 팽창하는 형태로 추정되



[도면 47]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⑦)

나 하단이 결실되어 불확실하다. 태토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일부 잡물과 빙렬이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5cm 내외이다.

(37) 상반 하게골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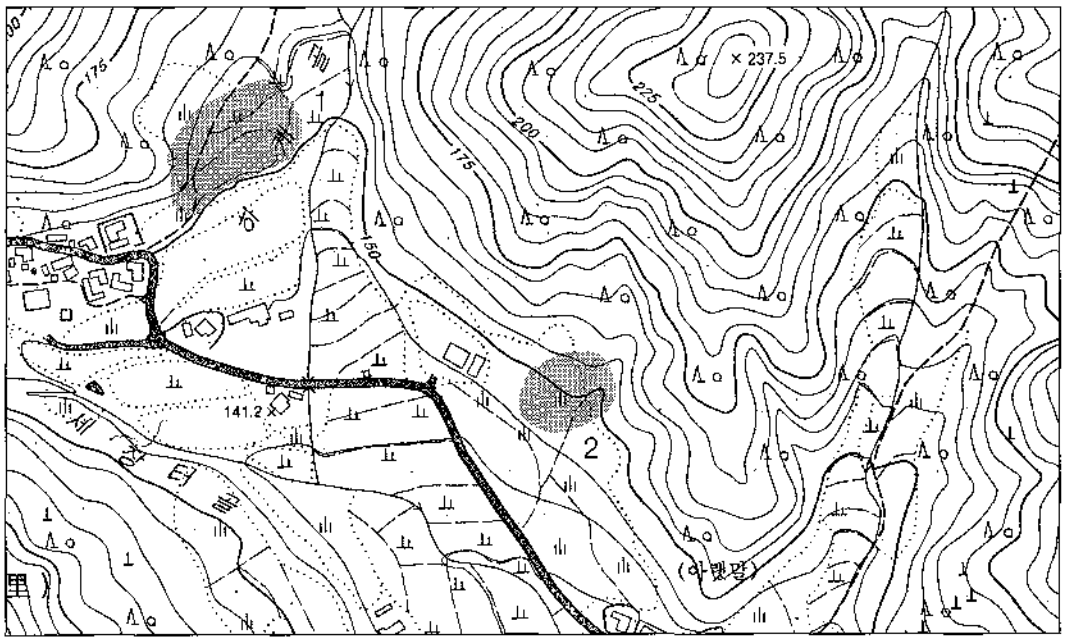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65~167, 지도 24)

· 위치 : 이동면 서 4리 하게골 구릉 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반곡 사리치 마을을 지나 다발연수원 서편 하게골에 자리한다. 하게골 끝자락에는 별장형 고급주택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 북편 구릉의 동쪽 경사면과 구릉과 접하는 논밭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사진 166 · 167) 최근에 건축된 별장의 후면에서 가마벽 편이 발견되었으나, 심한 파괴로 요지의 중심지를 가름하기 어렵고, 가마 폐기물의 집중적인 퇴적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의 노출 범위는 약 40 ×20m 이다. 고려시기의 기와와 타날문 토기편 등이 채집으로 미루어 유적의 중심 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한다.

2)채집유물 (사진 168~171, 도면 48)

(도면 48-①, 사진 168-①)은 기형은 좁고 낮은 굽에서 斜線狀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발이다. 굽은 하단이 급하게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은 넓고 편평하게 처리되었으며, 내화토 번



[지도 24] 1. 상반 하게골 요지, 2.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요지(도엽번호 NJ52-9-26-027)

조 자국이 보인다. 정선된 태토에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유약의 剝離가 심하다. 내저면을 넓고 편평하게 처리하는 등 서리 일대에서 주로 보이는 고려 전기의 백자와 유사하고, 태토 및 유약 그리고 기형도 비슷하다. 저경은 4.6cm 이다.

(도면 48-②, 사진 168-②)은 기형은 좁고 굽에서 斜線狀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 사발로 추정한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고 얇은 백토비짐 받침 자국이 보인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마감하였고, 정선된 태토에 반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잡물이 일부 보인다. 저경은 4.2cm 이다.

(도면 48-③, 사진 168-③)은 기형은 굽에서 크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닌 백자 접시이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은 편평하게 처리 됐으며 모래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정선된 태토에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잡물이 많다. 저경은 5.4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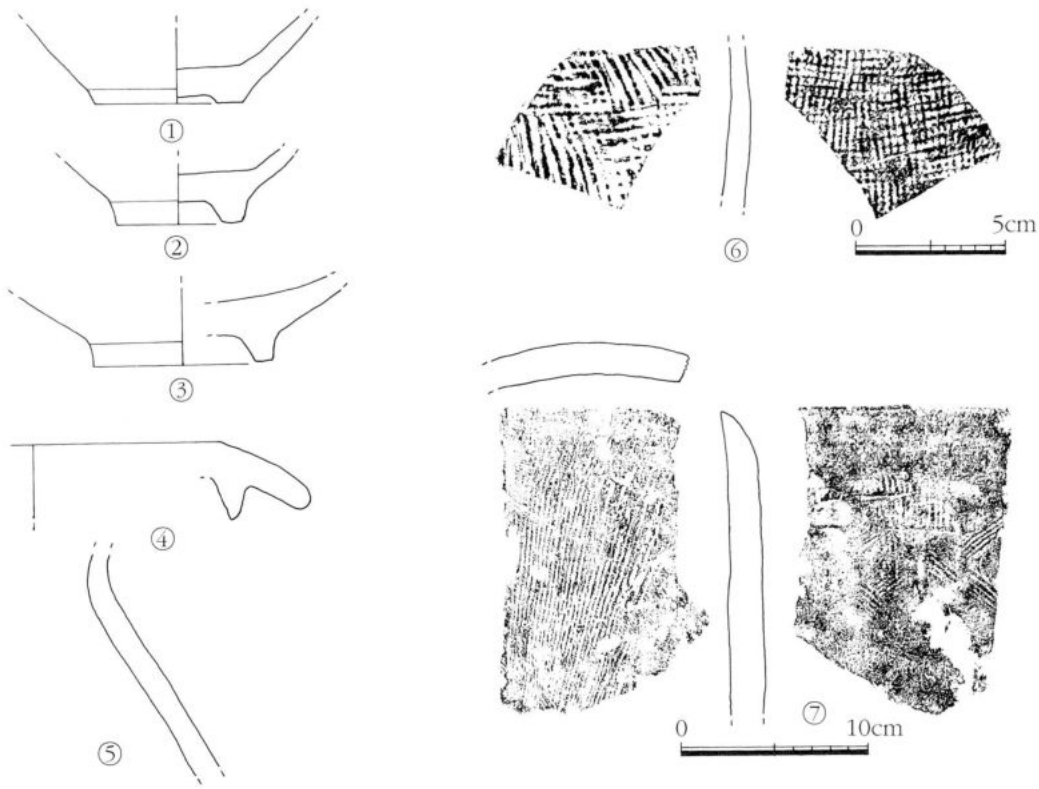
(도면 48-④, 사진 169-①)은 백자 蓋이다. 외곽 드림이 아래로 휘어지며 그 끝을 둥글게 마감하고 있다. 위면 중앙은 상실되어 정확한 모양은 불분명하나, 항아리의 뚜껑이었다고 추정한다. 정선된

태토에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빙렬이 심하다. 드림 직경은 19cm 이다.

(사진 169-②)은 철화백자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고 그 끝은 둥글게 마감되었다. 내외면에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외면에 철화기법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0.3cm 이다.

(도면 48-⑥, 사진 169-③)은 토기 동체부로 내외면에 타날문이 시문 되었고, 외면에 회전 골이 일부 보인다. 고운 점토질 태토를 사용한 회청색 경질토기로 기벽의 두께는 0.7cm 이다.

(도면 48-⑤, 사진 169-④)은 토기항아리의 頸部下段과 동체부에 해당한다. 축약된 경부에서 다시 벌어지는 기형을 지닌 경질토기로 외면에 회백색의 잿물 자국이 보이다. 내면은 회전 제작흔이 선명하다. 기벽의 두께는 0.8cm 이다.



[도면 48]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유물 (①~⑦)

(사진 170-① · ③ · ④)은 모두 원통형의 갑발 편이다. 뒤집어 포개 사용한 형태로 위 면에 그릇을 받쳤던 자국이 남아 있다. 거친 모래가 혼입된 태토로 제작하였고, 적갈색을 띠는 외면은 유리질화 되었다. 복원 직경은 18~25cm 이다.

(사진 170-②)은 마사토에 돌 조각을 섞어 축조한 가마벽 편으로 가마 외부 쪽은 주황색, 유리질화 된 안 쪽 면은 흑청색이다.

(도면 48-⑦, 사진 171)은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 편으로 표면에 단사선이 밀집된 집선문이 타날 시문 되었으나 빗질 정면으로 일부 지워져 있다. 표면의 내림면은 瓦刀로 面지게 비스듬히 깎아 얇게 하였다. 裏面에는 荒布痕이 상하 빗질 정면으로 거의 지워지고, 골을 이룬다. 태토는 매운 큰 자갈이 섞인 점토질이며, 잔존 길이는 18cm, 폭은 12cm 이고, 두께는 1.8cm 내외이다. 우측단면에 두께 1/3 깊이로 瓦刀를 안에서 밖으로 넣어 자른 分割刀痕이 남아 있다.

(38)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4)

· 위치 : 이동면 서 4리 상반곡 사리치 마을 구릉 남사면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반곡 사리치 마을 포장도로에서 북편의 낮은 구릉에 입지 한다. 요지 내는 민묘 1기가 존재하고, 하단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적의 규모는 45 ×70m 내외로 매우 넓으며 갑발 등 요도구 퇴적이 작은 구릉을 이룬다. 주로 11세기의 고려백자[13]와 갑발 등 요도구가 채집된다. 용인시 향토유적 45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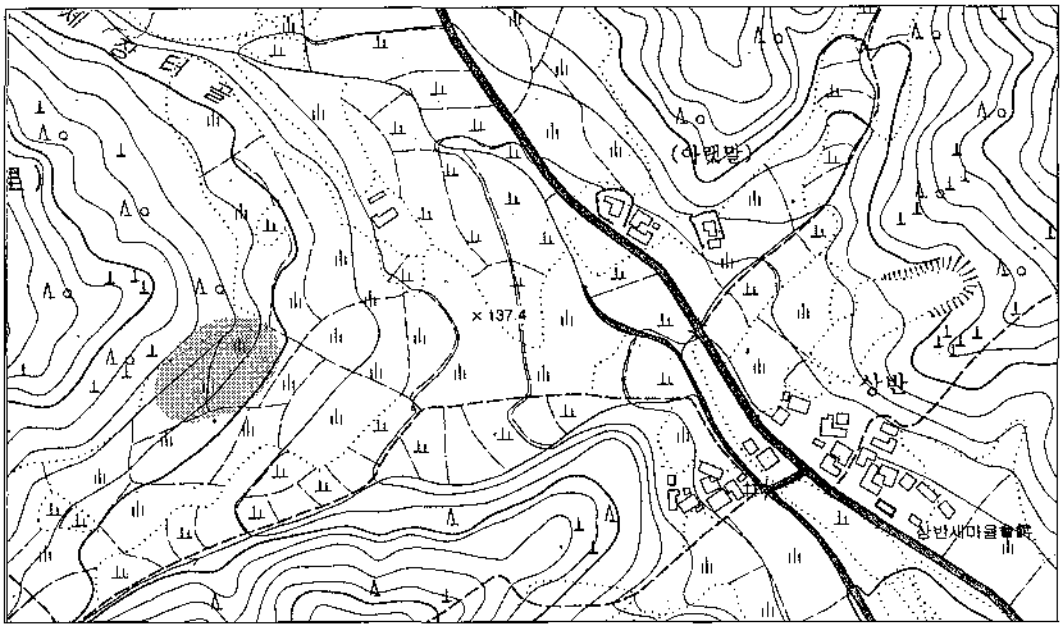
(39) 상반 세장터골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72 · 173, 지도 25)

· 위치 : 이동면 서 4리 세장터골 구릉 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상반곡 사리치 마을에서 남쪽으로 작은 개울을 건너면 세장터골의 구릉 경작지와 묘지가 나타나는데, 이 구릉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구릉 상단은 묘지가 조성되었

13) 용인시 · 외, 앞의책, 1999, 96~104쪽.



[지도 25] 상반 세장터골요지(도엽번호 NJ52-9-26-027)

고, 하단은 밭으로 경작되는데, 유적은 묘지와 밭의 경계지점에 자리한다. 주로 묘지 근처 밭에 백자편과 갑발편들이 분포하는데, 집중 분포 범위는 20 × 30m 정도이다. 집중적인 요지 폐기물의 대규모 퇴적층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요지로 판단되고, 가마벽체 편들이 작은 파편상으로 소량만 노출되는 것으로 미루어 중심 유구는 이미 경작 등으로 완전 파괴되었거나, 아직 지상에는 소량의 유구만 노출된 탓이라고 추정한다. 유적의 성격은 갑발과 가마벽 편이 발견되어 요지가 분명하고, 채집 유물 중 일부 백자와 파상문 토기는 고려시기, 분청사기 · 철화백자는 조선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2) 채집유물 (사진 174~176, 도면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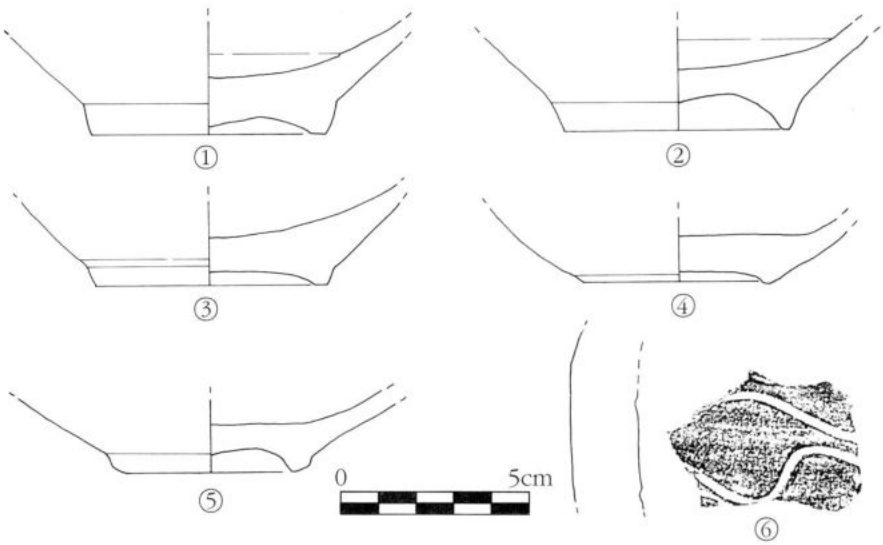
(도면 49-①, 사진 174-①)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斜線狀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은 좁고 편평하게 처리되었으며, 내화토 번조자국이 보인다. 굽 안쪽은 비스듬히 다듬었고, 그 중앙에 작은 돌기를 두었다. 내면 중간부에 단을 두어 큰 원을 형성하고, 중앙부에 백토 받침자국이 남아 있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굽 안쪽을 제외한 내외면에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일부 잡물이 보인다. 저경은 6.3㎝ 이다.

(도면 49-②, 사진 174-②)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과 유약의 발색 등은 도면 6-①과 유사하다. 보다 굽의 접지면이 좁고, 번조 방식은 모래받침 번조이다. 저경은 6.1㎝ 이다.

(도면 49-③, 사진 174-③)은 백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크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이고, 굽 안 바닥은 편평하게 마감하였다. 내면은 비스듬히 처리하였으며, 굽과 내저면에 모래받침 번조 자국이 보인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 되었으나 일부 잡물과 빙렬이 보인다. 저경은 6.2㎝ 이다.

(도면 49-④, 사진 174-④)은 청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매우 낮은 굽에서 크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안쪽 바닥 면을 깎아낸 형태이고, 굽 안 바닥은 편평하게 마감하였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굽과 내저면에 내화토 받침 번조 자국이 붙어 있다. 사립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였고, 탁한 회청색의 청자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대부분 박리 되었고, 나머지도 심한 氷裂을 보인다. 저경은 5㎝ 이다.

(도면 49-⑤, 사진 174-⑤)은 백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고,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각지며 외경하듯 좁아지는 형태이고, 접지면과 내저 중앙부에 모래받침 자국이 보인다. 굽 안쪽 바닥 면은 비스듬히 파내다가 다시 그 중앙부를 솟아나게 하였다. 고운 모래가 섞인 태



[도면 49]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유물 (①~⑥)

토를 사용하였으며, 내외 면에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일부 반점과 氷裂이 보인다. 저경은 5㎝ 이다.

(사진 175-①)은 분청사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약간 외반하고 그 끝은 둥글게 처리한 기형을 지녔다. 내외 면에 얕은 회전골을 형성한 후 회백색의 분청유약을 얇게 시유하고 다시 닦아내어, 골 부분에서 보다 두텁고 질은 분청 시유 효과를 나타낸다. 기벽의 두께는 0.5㎝ 이다.

(사진 175-②)은 회청색의 발색을 내는 철화백자편으로 외면에 철화 기법으로 草文(?)을 시문하고 있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고, 유약의 시유 상태도 고르나 전면에 氷裂이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5㎝로 얇고 균일하다.

(도면 49-⑥, 사진 175-③)은 토기대호의 頸部片으로 상부가 외반하는 기형을 지녔다. 경질토기로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고, 발색은 표리면이 암청색, 벽심은 회백색을 보인다. 외면에 2조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는데, 이와 문양이 유사한 경질토기 편들은 인근의 묵리 적동과 처인성[14]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어, 그 시기를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고자 한다. 기벽의 두께는 1.8㎝ 이다.

(사진 176-① · ③)은 匣鉢로 형태는 원통형이다. 모래가 섞인 태토로 만들었고, 회갈색을 띠는 외면은 일부 유리질화 되었다. 백토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사진 176-② · ④)은 마사토에 돌 조각을 섞어 축조한 가마벽이다. 색조는 회청색이고, 일부 유리질화 된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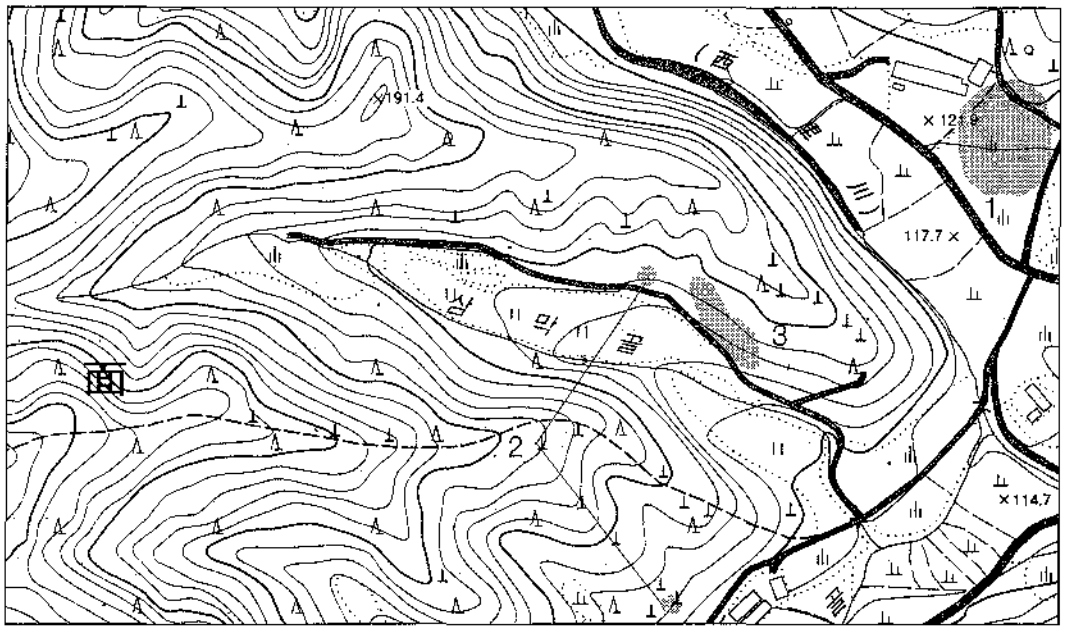
(40) 하반 느티나무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77 · 178, 지도 26)

· 위치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 느티나무 옆 밭 일대.

---

14) 서울大學校博物館 · 龍仁市, 앞의책, 1996, 63~64쪽.
용인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외, 『용인의 옛성터』, 1999, 47쪽.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용인 처인성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1999, 7쪽.
처인성 출토 단사파상문토기(도기)의 편년은 9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지도 26] 1. 하얀 느티나무 요지, 2. 석실분, 3. 삼막골 유물 산포지(도엽번호 NJ52-9-26-027)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에서 상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다. 이 보호수 서편 밭과 밭 상단 구릉의 남사면에 유적이 자리한다. 서편으로는 西里川이 북서에서 동남향으로 흐르고, 서리천 서편에는 삼막골, 부터골로 이어지는 계곡지대가 형성된다. 이미 경작으로 중요 유구는 파괴되었다고 보며, 북서편의 구릉 쪽도 별장과 공장의 신축으로 많은 훼손을 가져왔다. 주로 밭에서 다수의 갑발과 자기편들이 발견되는데 현재 유물의 분포범위는 30 ×30m 이다. 집중적인 요지 폐기물의 퇴적층은 찾을 수 없었으나, 요지의 분명한 증거인 갑발 및 가마벽편이 발견되었다. 유적의 편년 폭은 고려시기의 토기와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철화백자가 함께 채집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다 넓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채집유물 (사진 179~181, 도면 50)

(사진 179-①~③)은 모두 원통형의 갑발편이다. 뒤집어 포개 사용한 구조로 위 면의 중앙이 아래로 휘는 모양이다. 위 면에 그릇을 받쳐 번조하였던 자국이 남아 있다. 거친 모래가 혼입된 태토로 제작하였고, 적갈색을 띠는 외면은 일부 유리질화 되었다. 복원 직경은 22cm 내외이다.

(사진 179-④)은 가마벽편으로 마사토에 모래를 섞어 축조하였다. 가마 안쪽 면에 해당하는 부분

은 유리질화되어 적황색을 띠고, 그 외부면은 보다 얕은 갈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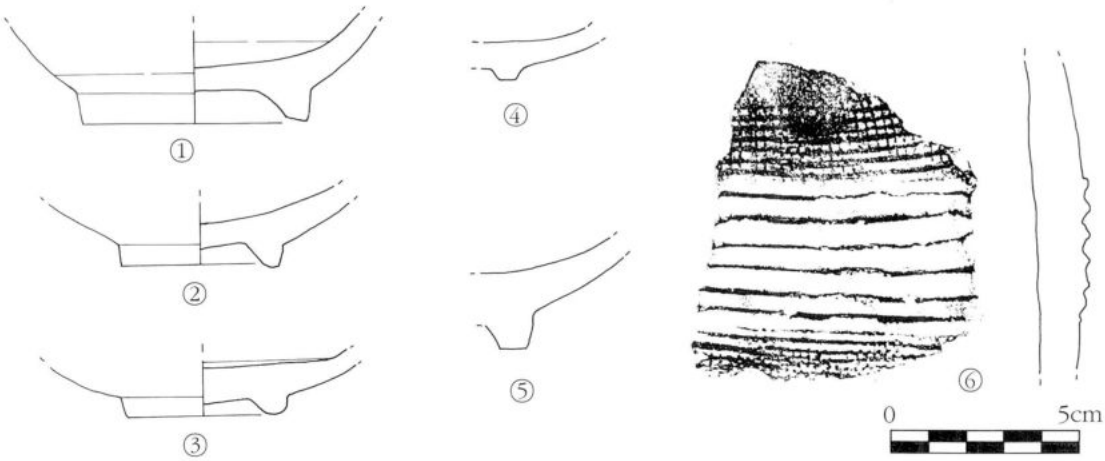
(도면 50-①, 사진 180-①)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斜線狀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며 접지면이 내경하는 형태이다. 굽 안쪽 바닥 면은 편평하게 다듬었고, 그릇 내면은 약간 단을 지게 중앙부를 깎아내고 있다. 굽의 접지 면과 내저면 중앙에 내화토 받침 자국이 보인다.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이 곱게 시유되었으나 심한 氷裂이 나타나고, 대접 하단부터 굽 전체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저경은 6㎝ 이다.

(도면 50-②, 사진 180-②)은 청자 저부편으로 낮은 굽에서 넓게 벌어지는 기형으로 보아 접시로 추정한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며 접지면을 편평하게 처리한 평굽이다. 내외면에 탁한 회청색의 청자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고르지 못하고 氷裂도 보이는 조질의 청자이다. 굽의 접지면 외연과 내저면에 태토비짐 받침 자국이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6cm 이다.

(도면 50-③, 사진 180-③)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높은 굽에서 斜線狀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며 접지면이 편평한 형태이고, 내저면 중앙에 내화토 받침 자국이 보인다. 담백한 회갈색 서리 일대 요지 특유의 고려기 백자유가 곱게 시유 되었으나 고르지 못하여 일부 기포현상과 빈자리가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8cm 내외이다.

(도면 50-④, 사진 180-④)은 청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각지며 좁아지는 대마디굽이고, 접지면은 매우 좁고 내경하게 처리되었다. 내저면에는 퇴화된 상감기법으로 花文을 시문하고 있다. 탁한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 되었으나 고르지 못하고, 그나마 굽은 시유되지 않았다. 모래 또는 태토비짐의 받침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저경은 4cm 이다.

(도면 50-⑤, 사진 180-⑤)은 청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하단이 좁아지는 형태로 접지면의 폭은 고르지 못하고, 그 깎음새도 매우 거칠다. 굽 안 바닥을 제외하고 탁한 회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발색은 매우 흐리다. 접지면에 내화토 받침 자국이 보이고, 저경은 4cm 이다.



[도면 50]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유물 (①~⑥)

(도면 50-⑥, 사진 181-①)은 암청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외면에 6조의 돌대를 돌리었고, 그 상하에 밀집 격자문이 타날 되었으며, 내면에 제작 시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며, 기벽의 두께는 1cm 내외이고, 벽심의 색조는 회백색이다.

(사진 181-②⑤)은 청자편으로 ②는 내면에 상감기법의 시문이 관찰된다. 탁한 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⑤의 경우 심한 氷裂이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각각 0.5cm와 0.7cm 이다.

(사진 181-③)은 분청사기로 내면에는 雨點文이 외면에는 橫線文이 시문되었다. 발색은 탁한 회청색으로 일부 氷裂이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4cm 이다.

(사진 181-④)은 백자편으로 외면에 철화 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다. 탁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그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유약의 박리가 심하다. 기벽의 두께는 0.7cm 이다.

(41) 하반 석실분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6)

· 위치 :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農路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 중앙의 느티나무 보호수에서 서남편 부터골 방향으로 약

200m 진입하면, 삼막골 입구가 나온다. 계곡 입구에서 북서편으로 삼막골을 따라 개설된 農路를 약 200m 올라가면 약간 넓어진 공터에 나타나는데, 이곳이 유적자리이다. 석실의 내부 규모는 140 × 75 ×65cm로 보고[15]된 바 있으나, 현재 農路 개설 시 완전 파괴되어 고분의 석재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고려장터로 인식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로를 확장하던 중 완전히 들어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1기도 이미 파괴되었으며, 그 위치는 삼막골 입구에서 약 100m 더 들어간 부터골 구릉의 동남사면이다. 현재 주변에 묘지가 조성되어 주위 현상이 변하였다.

(42) 하반 삼막골 유물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도 26)

· 위치 :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農路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 중앙의 느티나무 보호수에서 서남편 부터골 방향으로 약 200m 진입하여 삼막골을 따라 개설된 農路에 유적이 위치한다. 농로를 개설하면서 드러난 구릉의 단면과 길에 일부 조선시대 토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으나 그 양은 매우 적다.

(43)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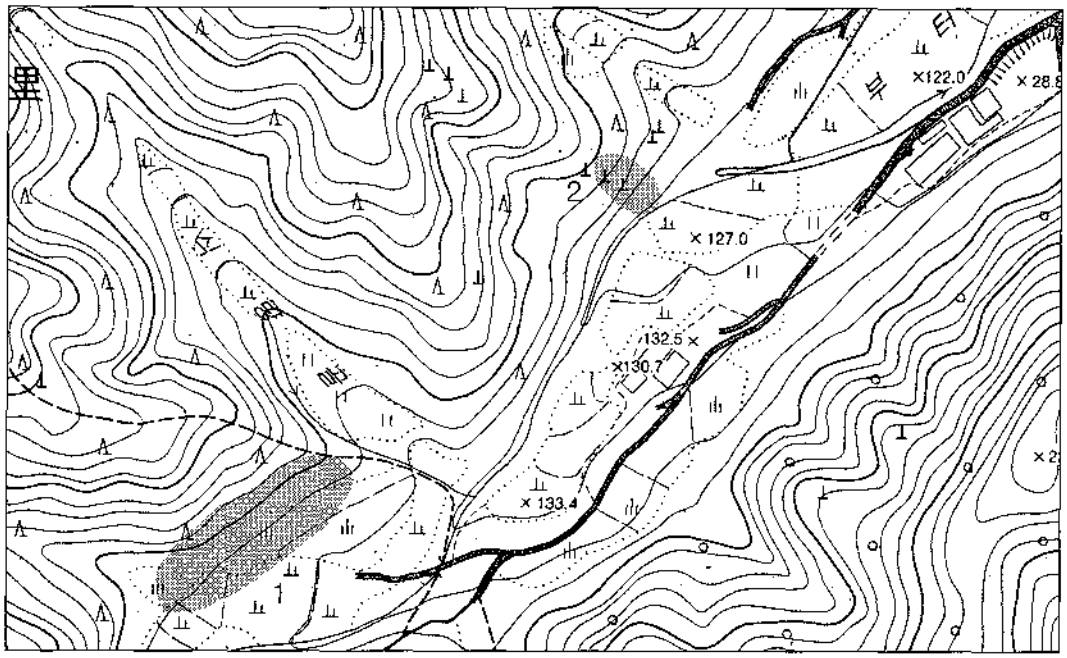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82~184, 지도 27)

· 위치 : 이동면 서리 부터골 구릉 남동사면 일대(식량골 입구 남서편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 중앙의 느티나무 보호수에서 서남편 부터골 방향으로 약 1,000m 들어가면 '정진암' 이 나오고, 정진암에서 마주보는 반대 계곡 구릉의 남동사면에 유적이 자리한다. 즉 부터골이 식량골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의 바로 남쪽 지역이다. 현재 유적 하단은 넓은 밭으로 개간되어 노출된 유물들은 주로 밭 외곽에 잡석들과 함께 모여져 있는 상태이다. 노출된 유적의 범위는 50 × 20m 이며, 다량의 유물 중에 가마벽편이 소량만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중심 유구는 보존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덕 고려 백자요지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의 퇴적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주로 서리 일대 요지 특유의 갑발과 고려시대의 기와 및 토기(파상문 · 타날문) 등이 조선시대 분

15) 漢陽大學校 · 京畿道,「京畿道百濟文化遺蹟」, 1986, 126~128쪽.



[지도 27] 1. 하반 부터골 1호, 2. 3호 요지(도엽번호 NJ52-9-26-027)

청사기와 함께 채집되어 유적의 시기 폭을 가름케 한다.

2) 채집유물 (사진 185~189, 도면 51 · 52)

(도면 51-①, 사진 185-①)은 청자접시 저부편으로 기형은 굽 하단부터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안쪽 바닥 면을 깎아낸 평 굽 형태로 접지면은 편평하고, 그 폭은 고르게 처리되었다. 내면을 비스듬히 처리하면서 중간에 작은 골을 돌리었고, 내저면 중앙에 태토비짐 받침 자국이 보인다. 조질 청자로 태토는 정선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탁한 회청색 유약의 시유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외면 하단과 굽은 유약이 씌워지지 않았다.

(도면 51-②, 사진 185-②)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사선형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안쪽 바닥 면을 편평하게 깎아내었고, 접지 면의 폭도 균일하게 처리되었다. 내저면에 얕은 원각을 돌리었고, 그 외연에 4개의 태토비짐 받침을 배치하였다. 녹갈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고, 氷裂과 유약의 박리가 심하다. 저경은 5.4cm 이다.

(도면 51-③, 사진 186-①)은 흑갈유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외반하고 짧은 경부는 축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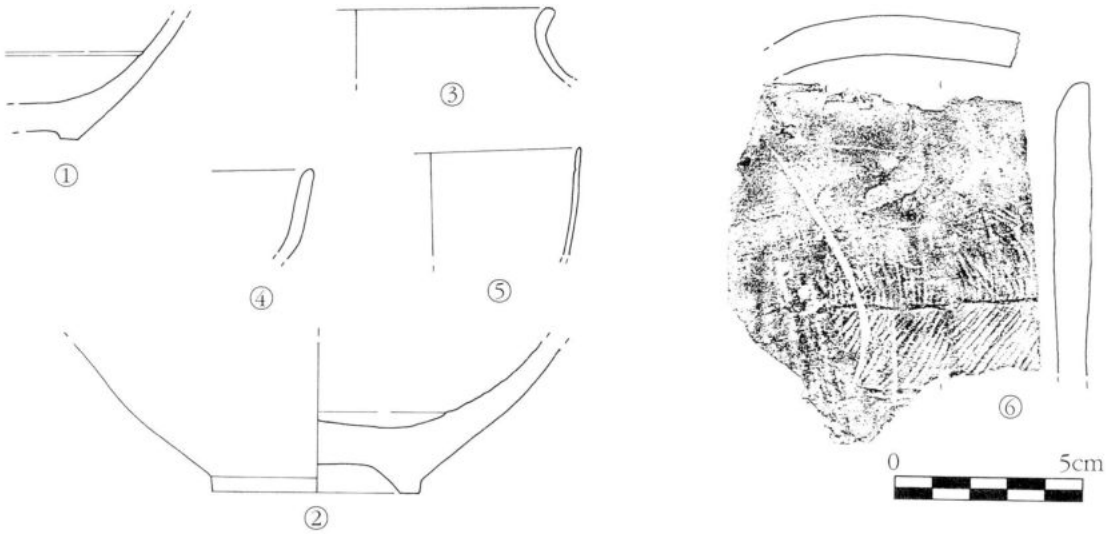
가 동체부 쪽이 다시 풍만해지는 기형을 지녔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이며, 구연단 하단부터 외면에만 흑갈유가 시유되었으나 일부 잡물이 보인다. 내면에는 회전 정면자국이 관찰되며, 복원 구경은 20cm 이다.

(도면 51-④, 사진 186-②)은 분청사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횡선문이 시문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그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0.35cm 이다.

(사진 186-③)은 조질 청자편으로 포개서 구운 것이 서로 붙은 모습니다. 탁한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氷裂과 부착된 잡물이 관찰된다.

(도면 51-⑤, 사진 186-④)은 백자발로 구연은 외반하고 그 끝은 얇고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단 바로 밑 내면에는 1조의 陰刻線을 돌리고 있어, 고려전기 서리요 제작품의 특징을 보인다. 전면에 백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일부 잡물과 빙열이 보이고, 외면에 회전 제작골이 관찰된다. 기벽의 두께는 0.3cm로 얇고 균일한 편이다.

(도면 52-①, 사진 187-①)은 경질토기 동체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타날 된 밀집 격자문이 선명하고, 내면에는 격자문 형태로 타날 된 내박자 자국과 횡으로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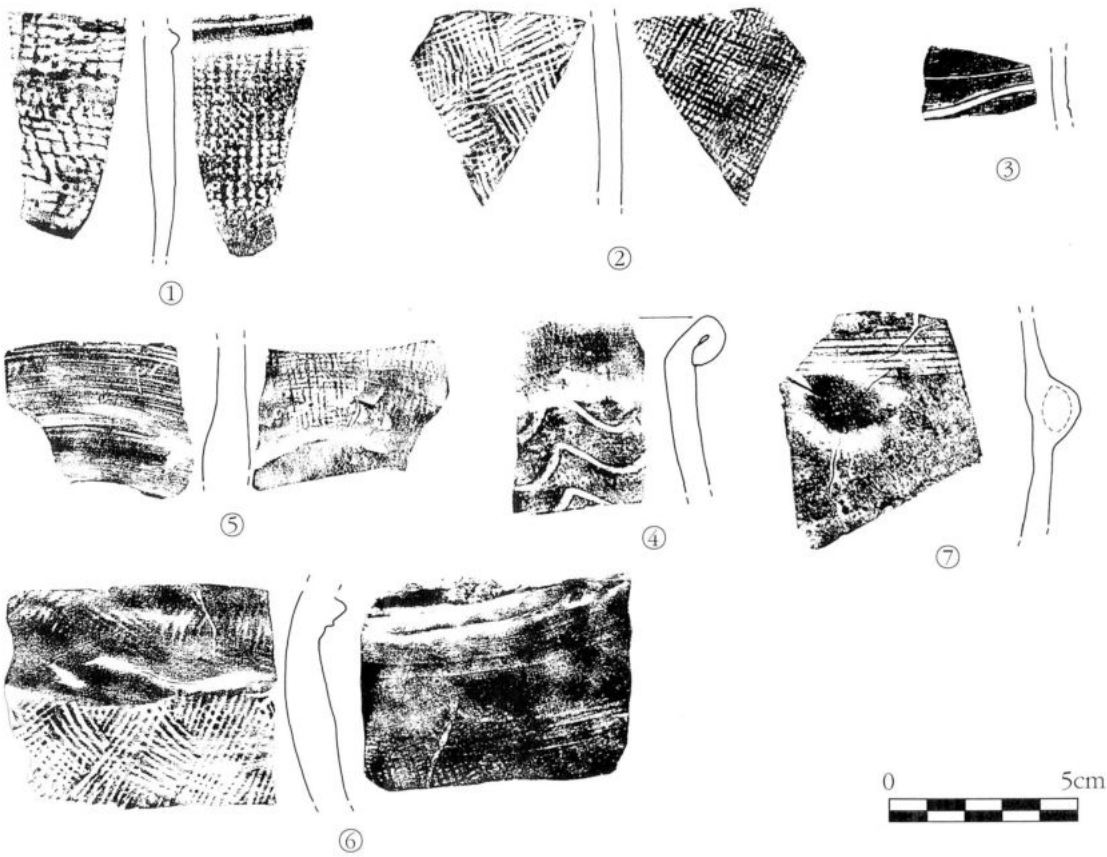


[도면 51]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 · 기와류 (①~⑥)

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 1조의 돌대가 남아 있고, 회백색의 자연유가 보이는 외면에 비하여 이면은 암청색, 벽 심은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벽의 두께는 0.4~1cm 내외이다.

(도면 52-②, 사진 187-②)은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타날된 밀집 격자문이, 내면에는 집선문 형태로 타날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내외 면이 회청색, 벽 심은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벽의 두께는 0.8cm 내외이다.

(도면 52-③, 사진 187-③)은 경질토기 경부편으로 태토는 고운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에 1조의 얕은 음각선이 돌리어져 있고, 그 아래에 다시 1조의 파상문을 시문하고 있다. 토기의 발색은 외면이 흑청색, 내면이 회갈색, 벽 심은 적갈색을 띤다. 기벽의 두께는 0.5cm 이다.



[도면 52]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⑦)

(도면 52-④, 사진 187-④)은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크게 외반 하고, 구연단은 밖으로 말아 접은 이중구연 형태이다. 구연 안 쪽 면은 사선상으로 면을 이루며 꺾어지게 처리되었다. 구연 아래 경부 외면에는 3條의 파상문을 시문하고 있고, 내면에는 회전 정면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모래가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며, 구연단 일부에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토기의 발색은 내외면이 흑청색, 벽심은 회갈색을 딴다. 경부 기벽의 두께는 0.9cm 내외이다.

(도면 52-⑤, 사진 187-⑤)은 경질토기 동체하단편으로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타날된 밀집 격자문이, 내면에는 회전 물레 자국이 관찰된다. 하단이 갑자기 두터워져 바닥과 결합되는 부분으로 추정한다. 토기의 발색은 내외면이 회청색을 딴다.

(도면 52-⑥, 사진 187-⑥)은 경질토기 동체 상부편으로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타날 된 밀집 격자문이 정면으로 지워진 형태로 나타나고, 내면에는 상단 정면흔과 하단 집선문 형태로 타날 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상단이 외반하는 것으로 미루어 경부와의 경계부분으로 판단되며, 외면의 상단 돌대는 이를 뒤받침 한다. 기벽의 두께가 1.7cm 내외이고, 횡 곡만도가 매우 완만한 것으로 미루어 대형 독의 파편으로 추정한다. 토기의 발색은 내외면이 회청색, 벽 심은 회색을 딴다.

(도면 52-⑦, 사진 187-⑦)은 경질토기 동체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횡으로 돌린 6조의 집선문이 보이고, 내면에는 제작 흔이 관찰된다. 전면에 심한 기포 현상을 보이고, 외면에 녹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0.7cm 내외이다.

(사진 188-①~③)은 모두 원통형의 갑발편으로 뒤집어 포개 사용한 구조이다. 위쪽 면에 그릇을 받쳐 번조 하였던 자국이 관찰되고, 거친 모래가 혼입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적갈색을 띠는 외면과 위면 일부는 유리질화 되었다. 복원 직경은 22cm 내외이다.

(도면 51-⑥, 사진 189)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 어골문이 횡으로 시문되었고 내림 면 주변을 정면 하여 문양이 지워졌다. 裏面에는 荒布痕은 빗질정면으로 일부 지워져 있고, 내리면은 瓦刀로 경사지게 깎아 두께를 얇게 하고 있다. 우측단면에 두께의 약 1/4 깊이로 瓦刀를 안에서 밖으로 넣어 자른 分割刀痕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는

20cm, 폭은 16cm 이고, 두께는 1.9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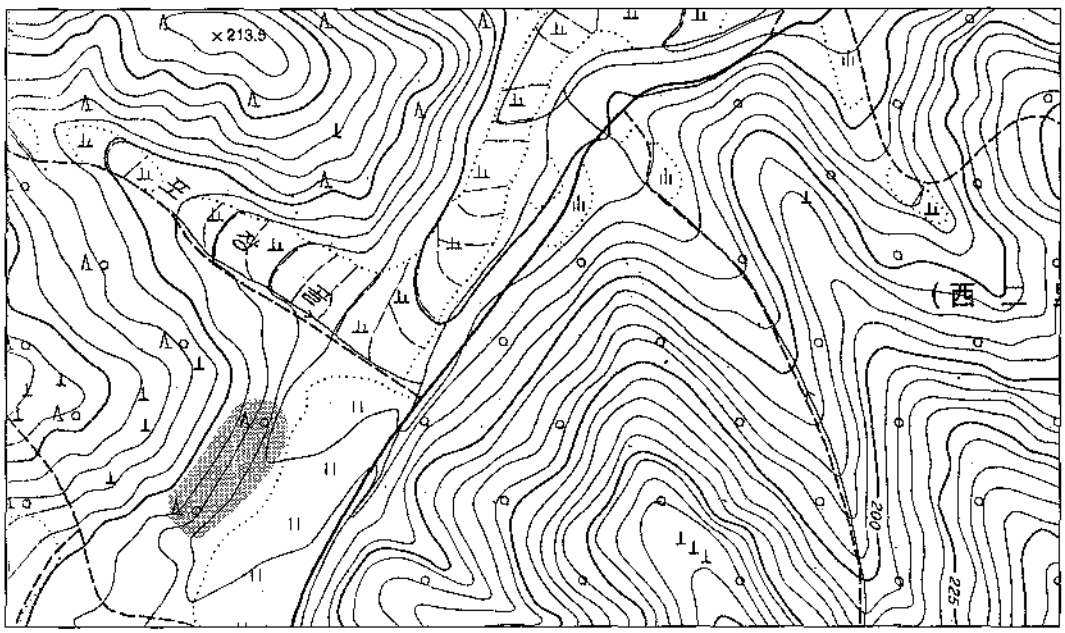
(44)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90~192, 지도 28)

· 위치 : 이동면 서리 부터골 구릉 남동사면 일대 (포장골 입구 남서편 일대)

· 유적현상 : 부터골 1호 요지로부터 약 400m 남서편의 구릉 남동사면에 유적이 자리한다. 즉 부터골과 포장골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의 바로 남서편 지역이다. 현재 유적 하단은 계단을 이루며 논과 연결되고, 유적 상단에 묘지 조성을 위한 소로가 개설되면서 이곳에 많은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요지 폐기물의 대규모 퇴적상은 발견되지 않으나, 구릉 단면에 불에 달구어진 燒土가 보이고, 갑발 등이 대량 노출된 것으로 미루어 요지가 분명하다. 현재 노출된 유적의 범위는 25 ×10m 이며, 다량의 유물 중에 가마벽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심 유구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고 본다.

주로 서리 일대 요지 특유의 갑발과 고려시대의 해무리굽 백자와 타날문 토기편들이 발견되어 고려시대 전기의 유적으로 추정한다.



[지도 28] 하반 부터골 2호요지(도엽번호 NJ52-9-26-027)

2) 채집유물 (사진 193~195, 도면 53~55)

(도면 53-①, 사진 193-①)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넓고 낮은 굽에서 사선상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의 접지면이 저경의 크기에 비해 매우 넓고 편평하여 전형적인 해무리굽임을 알 수 있다. 얕고 편평하게 깎아 만든 굽 안쪽 바닥 면에는 얇게 바른 태토비짐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고, 내화토 받침 자국은 없다. 정선된 고운 입자의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운 질감을 주는 담백한 백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 되었다. 외면에는 일부 잡물이 보이고, 전면에 氷裂이 관찰된다. 기벽의 두께는 0.6cm이고, 저경은 6.3cm 이다.

(도면 53-②, 사진 193-②)은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기형은 넓고 낮은 굽에서 사선상으로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굽은 접지면이 매우 넓은 해무리굽으로 얇게 바른 태토비짐 자국은 접지 면과 그 안쪽 바닥 면에서만 관찰된다. 굽 안쪽 바닥은 얕게 파내 다듬다가 중앙을 약간 솟아나게 하였다. 정선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담백한 회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 되었다. 전면에 氷裂이 관찰되고, 기벽의 두께는 0.5cm 이고, 저경은 5.4cm 이다.

(도면 53-③, 사진 193-③)은 청자접시 편으로 기형은 낮은 굽에서 넓게 벌어지는 외측선을 지녔다. 낮은 굽은 바닥 안쪽 면을 파내 다듬은 형태이고 접지면은 좁고 편평하다. 내면은 비스듬히 벌어지는 형태이고, 내저면과 굽에 태토비짐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정선된 태토에 회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발색은 탁하고, 전면에 氷裂이 관찰된다. 저경은 5cm 이다.

(도면 55-①, 사진 194-①)은 경질토기 동체 상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밀집 격자문이 타날 되었으나, 정면 시 지워져 희미하다. 내면에는 회전 線刻과 집선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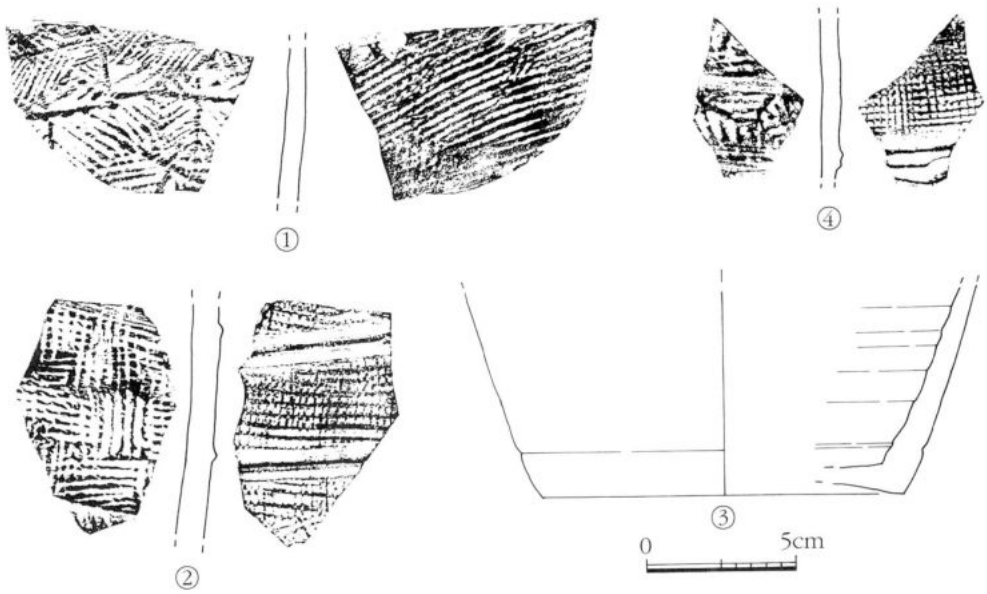
[도면 53]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로 타날 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상단이 크게 외반하는 것으로 보아 경부와의 경계임을 알 수 있고, 기종은 횡 곡만도가 매우 완만한 것으로 미루어 대형 토기항아리로 판단한다. 발색은 내외면이 회청색, 벽 심은 회갈색을 띤다. 기벽의 두께가 0.9cm 내외이다.

(도면 54-①, 사진 194-②)은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蓆文이 밀집 타날 되었고, 내면에는 삼각집선문 형태로 타날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기벽의 두께가 0.6cm 내외이고, 토기의 발색은 회청색을 띤다.

(도면 54-②, 사진 194-③)은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타날 된 밀집 격자문이, 내면에는 집선문 형태로 타날 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외면에 얕게 솟은 2조의 돌대를 간격을 두고 상하로 배치하였다. 내외면이 회청색, 벽 심은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벽의 두께는 0.9cm 내외이다.

(도면 54-③, 사진 194-④)은 경질토기 동체하단편으로 태토는 점토질이며, 기종은 甁으로 판단한다. 구연과 동체 상부는 결실되었고, 동체 저부는 원통형이다. 안쪽 면에는 물레 회전 제작골이 선명하고 외면 하단에도 회전 정면 흔적이 보인다. 굽이 없는 바닥은 안쪽을 경사기게 깎아 내어 다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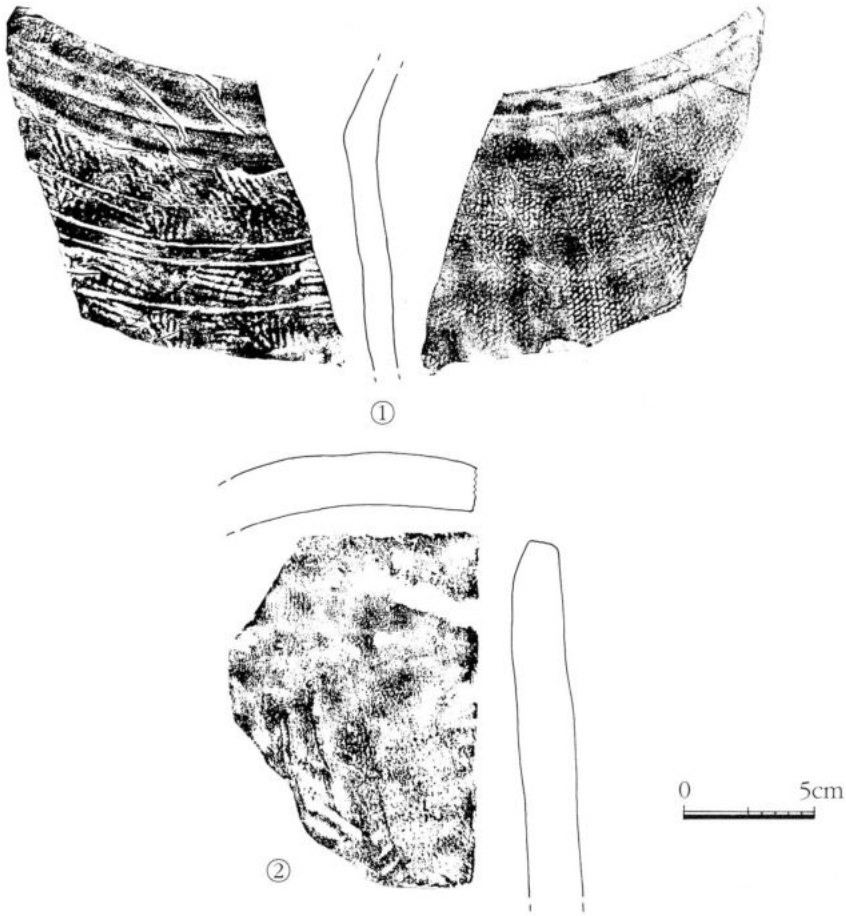


[도면 54]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고, 바닥 면 외연에 태토 비짐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외면이 흑청색, 내면은 회백색, 벽 심은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벽의 두께는 0.5 ~1.1cm 이다.

(도면 54-④, 사진 194-⑤)은 경질토기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며, 외면에는 타날된 밀집 격자문이, 내면에는 중복된 형태로 타날 된 내박자 자국이 관찰된다. 외면 하단에 턱진 1조의 돌대를 돌리고 있다. 토기 내외면은 회청색, 벽 심은 암갈색의 색조를 띤다. 기벽의 두께는 0.6cm 내외이다.

(사진 195-①~③)은 모두 원통형의 갑발편으로 뒤집어 포개 사용한 형태이다. 위 면에 그릇을 받쳤던 자국이 관찰되고, 거친 모래가 혼입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암갈색을 띠는 외면과 위면 일부는



[도면 55]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 · 기와 (①~②)

유리질화 되었다. 복원 직경은 22~28cm 내외이고, 높이는 7.8~13.5cm 이며, 기벽의 두께는 0.9cm 내외이다.

(도면 55-②, 사진 195-④)은 명갈색을 띠는 경질의 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거친 점토질이다. 외면에 어골문이 시문 되었으나 정면 시 일부 깎여졌다. 裏面에는 荒布痕이 선명하나 일부 정면 하면서 지워졌고, 내리면 주변은 비스듬히 면이 지게 깎아 정면 하였다. 우측단면에 두께의 약 1/3 깊이로 넣어진 分割刀痕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는 14cm, 폭은 0.6cm 이고, 두께는 2.3cm 내외이다.

(45)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사진 196~198, 지도 27)

· 위치 : 이동면 서리 부터골 구릉 남동사면 일대

· 유적현상 :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의 사거리 느티나무 보호수에서 서편 부터골 방향으로 삼막골 입구를 지나 약 400m 들어가 마지막 밭과 이어지는 구릉의 남동사면에 유적이 자리한다. 현재 계곡과 접하는 유적 하단에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너머에 논지대가 이어진다. 즉 계곡과 구릉의 경계 산자락에 자리하는 셈이다. 현재 노출된 요지의 흔적은 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능선 소로에서 찾아지는데, 약 35°경사진 구릉의 사면을 활용하여 가마를 조성하였던 것 같다. 현재 수목이 우거진 구릉 능선상의 소로 지표면에는 불 먹은 흙과 숫가루 및 가마벽편이 일부 보이고, 소량이나마 흑갈유편이 채집되는데 그 분포 범위는 15 × 10m 이다. 유적의 외형이 등요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채집된 유물로 보아 조선후기의 요지로 추정한다.

2) 채집유물 (사진 199 · 200)

(사진 199)은 가마벽편으로 마사토에 모래를 섞어 만들었다. 모두 작은 파편 상으로 채집되며, 일부 유리질화 된 부분은 흑갈색이나, 대부분 적황색을 띤다.

(사진 200-① · ②)은 작은 파편상의 흑갈유 자기편이다. 내외면에 암갈색의 흑갈유가 시유 되었으나 고르지 못하고, 일부 잡물도 관찰된다. 기벽의 두께는 0.4cm 이다.

(사진 200-③·④)은 그릇의 바닥 편으로 판단된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나,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회갈색을 색조를 띄며, 기벽의 두께는 0.5cm 이다. 흑갈유 자기의 파편으로 추정한다.

이상 처인성 주변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처인성 주변 (남사면, 이동면)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유적번호	행정구역명	내용	채집유물	시대	비고	참고문헌
1	이동면 어비리 동도사	석탑	3층석탑, 석조부재	고려시대	기조사	11
2	남사면 봉무3리 도장골A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자기편	조선시대	기조사	5
3	남사면 봉무3리 도장골B	추정사지	기와편,토기편,전돌	고려시대	기조사	5
4	남사면 봉무3리 도장골	석기출토지	뗀석기, 반 마제석부	구석기, 청동기시대	기조사	5
5	남사면 봉무3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조사	5
6	남사면 전궁리 A	토기요지	기와편, 토기편	통일신라시대	기조사	5
7	남사면 전궁리 B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8	남사면 창리 감바위골	선돌	선돌 1기	청동기시대	기조사	2
9	남사면 창리 감바위골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10	남사면 창2리 안다리골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11	남사면 창3리 화곡마을	유물산포지	기와편	조선시대	기조사	5
12	남사면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토기편, 자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13	남사면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고려~조선시대	기조사	10
14	남사면 봉명리 남뜸마을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숫돌	청동기시대	신발견	
15	남사면 봉무리 남산봉	산성	타날문토기편, 경질·연질토기편	삼국시대	신발견	
16	남사면 봉무리 남산봉 오목재 북쪽 봉우리	유물산포지	기와편, 석재류	고려시대	신발견	
17	남사면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도자기, 기와	고려~조선시대	신발견	
18	남사면 북리 당하동 B	건물지	기와편, 토기편,자기편	고려~조선시대	신발견	
19	남사면 아곡 2리	유물산포지	자기편, 요벽편	조선시대	신발견	
20	남사면 완장리 A(알미골)	유물산포지	자기편, 토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21	남사면 완장리 B(뒷골)	건물지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22	남사면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자기편, 토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23	남사면 완장리 D	유물산포지	기와편	고려시대	신발견	
24	남사면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도기편, 자기편, 요벽편	조선시대	신발견	
25	남사면 완장리 중동 A	분청사기요지	자기편, 요도구, 요벽편	조선시대	신발견	
26	남사면 완장리 중동 B	옹기요지	옹기편, 요벽편	조선시대	신발견	
27	남사면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자기편, 요도구, 요편	조선시대	신발견	

유적번호	행정구역명	내용	채집유물	시대	비고	참고문헌
28	이동면 서3리 상덕저수지	요지	자기편	조선시대	기조사(신발견)	7,12
29	이동면 서리 상덕부락	요지	자기편,토기편,갑발	조선시대	신발견	
30	이동면 서3리 상덕곡	유물산포지	자기편	고려시대	기조사	7
31	이동면 서리 23-1 중덕	요지	자기편,요도구	고려시대	기조사	4
32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농장	요지	분청사기	조선시대	기조사	12
33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310	요지	자기편,요도구	조선시대	기조사	7
34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밭	요지	자기편,요도구	조선시대	기조사	12
35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구릉	요지	철화백자편, 요도구	조선시대	기조사	12
36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동편 밭	요지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 요도구	고려~조선	신발견	
37	이동면 서4리 하계골	요지	자기편,토기편,기와편	고려시대	신발견	
38	이동면 서4리 상반곡	요지	자기편,요도구	고려시대	기조사	12
39	이동면 서4리 세장터골	요지	자기편,토기편,요도구	고려~조선	신발견	
40	이동면 서리 하반부락	요지	자기편,토기편,요도구	고려~조선	신발견	
41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고분		백제(?)	기조사	3
42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유물산포지	토기	조선시대	기조사	7
43	이동면 서리 하반 부터골	요지	자기편, 토기편, 요도구, 기와편	고려~조선	신발견	
44	이동면 서리 하반 부터골	요지	자기편, 토기편, 요도구, 기와편	고려시대	신발견	
45	이동면 서리 하반 부터골	요지	가마벽편, 자기편	조선시대	신발견	

5. 맺음말

이번 조사는 처인성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종합지표조사로서 주로 남사면과 이동면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이는 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들 지역의 유적이 특징적으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동면의 경우에는 어비리 일대와 서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화산리 등 많은 부분이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처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반경 이내의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지표조사나 개발관련지표조사와는 달리 처인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피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채집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지표조사로 밝혀진 조사결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뗀석기가 출토된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유적과 같이, 하천에 연해있고 언덕사면에 기반암이 침식풍화작용으로 층위가 형성된 사면붕적퇴적상이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물이 채집될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미 조사된 창리 선돌유적과 마제석부·마제석검 출토지 외에 봉명리 유적에서 무문토기·숫돌 산포지가 찾아져, 지석묘가 밀집되어 있는 용인 북부지역에 이어 남부지역에서도 청동기문화가 발달했을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을 찾을 수 있었다. 타날문토기편이 봉무리 남산봉 유적에서 채집되었다. 토루상의 보루처럼 된 산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은 진위천과 봉무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북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서쪽의 평야일대가 한눈에 조망된다. 이로 보아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찾아지지 않은 삼국시대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넷째, 처인성의 조사결과와 연관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점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전궁리 토기요지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도장골유적 B(추정 寺址), 창리 유물산포지 등이 있으며 어비리 3층석탑 역시 고려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적의 유사성은 기와의 문양에서 보여진다. 채집된 기와 중 암키와의 문양은 사선문·사격자문·어골문·복합문·파도문 등이 나타난다. 이중 사선문은 처인성 출토 기와와 같은 것[16]이다. 또한 사격자문은 도장골유적 B, 남산봉 유물산포지, 창리 유물산포지에서도 같이 채

집되어 유적간의 연관성이 보여진다.

이들 세 유적은 봉무천과 완장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비슷한 간격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기와집말 유물산포지에서 채집된 복합문 암키와는 큰 方廓 내에 여러 方廓이 있으며 방곽을 ×자로 나눈 모양이 평택 비파산성의 '乾德三年' (고려 광종 7, 965년)명 기와[17]와 유사한 것으로 제작 시기를 가늠하는데 참고되는 자료이다.

다섯째, 옛 처인현과 관련하여 통일신라에서 조선초기에 걸친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던 것도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처인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아곡리를 중심으로 북리 당하동, 완장리 등으로 연결되는 유적들을 통해 이들 유적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의 고려시대 기와편과 완장리 D 유물산포지에서는 '慈勒之寺' 란 銘文이 있는 고려시대 기와편이 2종이나 발견되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여섯째, 남사면 완장리 중동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발견된 점은 『世宗實錄地理志』에 거명된 '옛 處仁의 黛山洞里에 下品의 磁器所와, 甘岩里에 下品의 陶器所가 있다' 는 기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아곡리와 완장리 일대에서 다수 발견되는 조선 전기에 속하는 자기편들을 통해 용인의 중심지가 駒城이 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이 가지는 위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서리 일대는 통일신라 말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요지가 분포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전기로 편년될 수 있는 타날문 · 파상문 토기편이 동반 출토되는 요지가 찾아진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시대의 유적(고분, 주거지 등)도 추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백제의 고분으로 보고된 석실분 주변을 집중 조사하였으나, 석실분은 이미 파괴되었고, 새로운 고분 유적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상과 같이 처인성 주변지역의 고고학적 특성은 진위천으로 흘러드는 봉무천과 완장천 주변으로 선사에서 역사시대까지의 유적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처인성이 주로 사용되었던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의 유적이 서로 연관을 갖고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면 이시기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16)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용인의 옛성터』, 1999, 136쪽.

17)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649쪽.

참고문헌

〈보고서 및 단행본〉

1.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2. 이인녕,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1986.
3. 국립중앙박물관, 『新岩里 Ⅰ』, 1988.
4. 龍仁郡誌編纂委員會, 『龍仁郡誌』, 1990.
5. 서울대박물관 · 용인시, 『용인시의 문화유적-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6.
6. 이인녕,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용인문화원, 1997.
7. 용인시, 『용인시 문화재 총람』, 1999.
8.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Ⅰ, 1999.
9. 충북대박물관, 『용인의 옛성터』, 1999.
10.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종축장 건립공사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9.

〈논문〉

11. 이은창, 「3층석탑」, 『고고미술』67, 한국미술사학회,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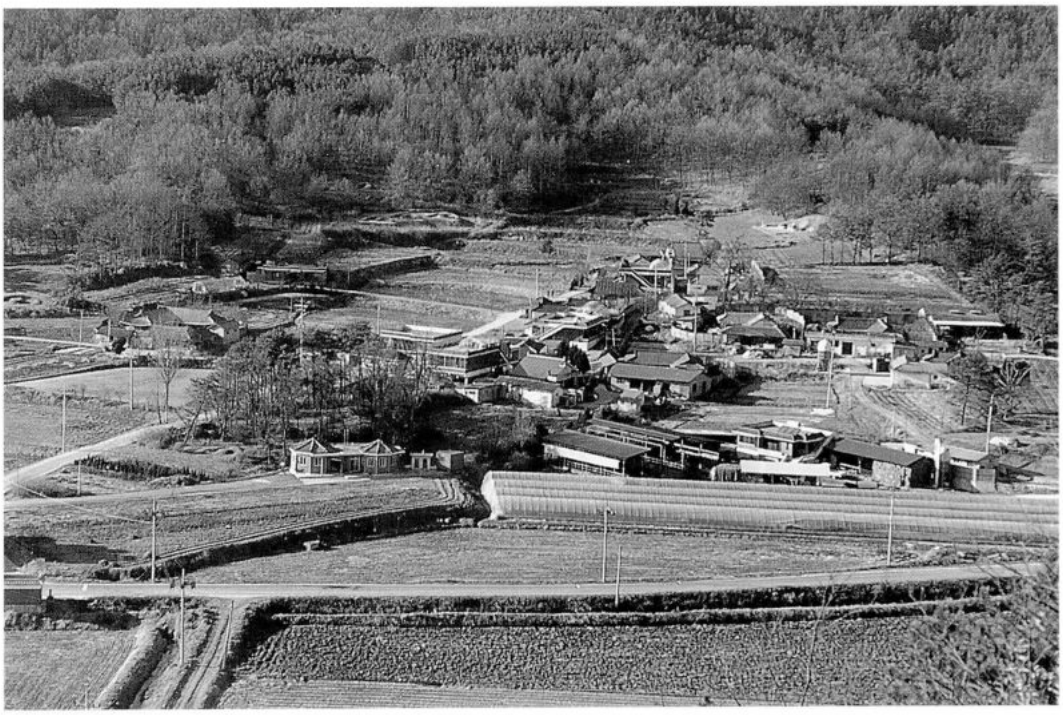
백 연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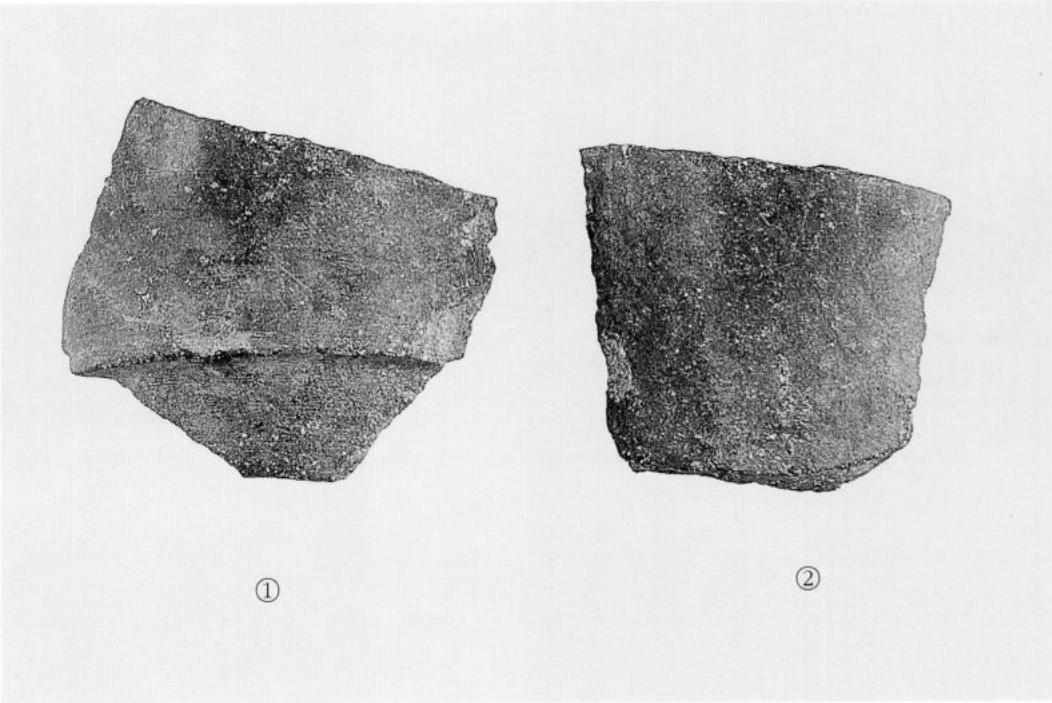
여 백

[사진 1] 동도사 경내 전경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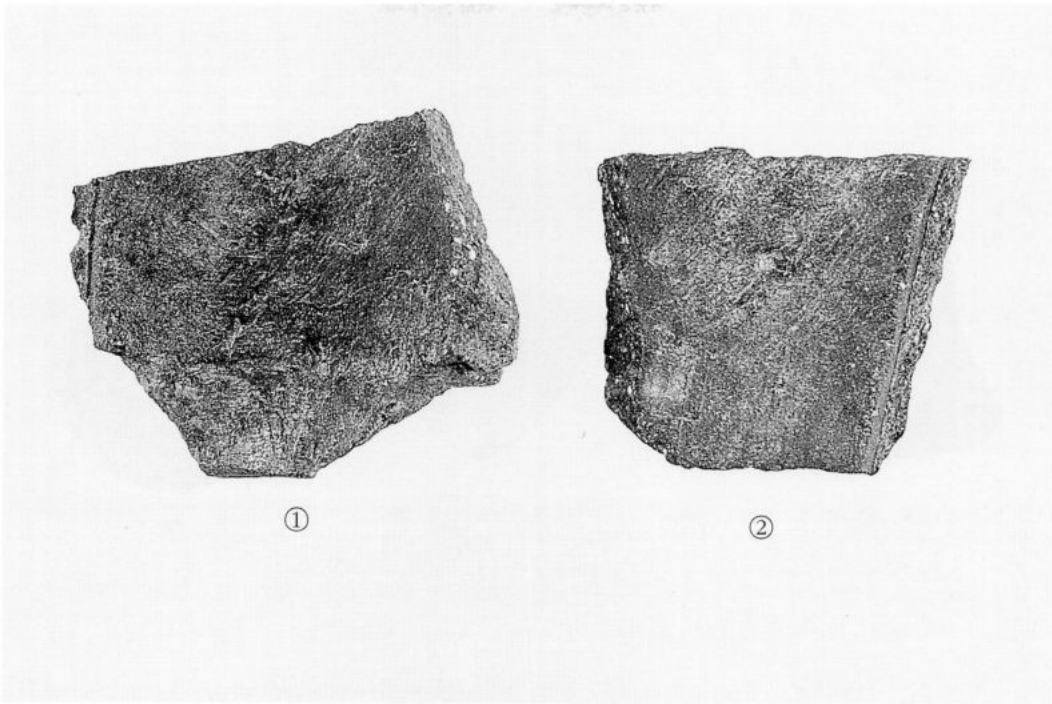
[사진 2] 어비리 3층석탑 전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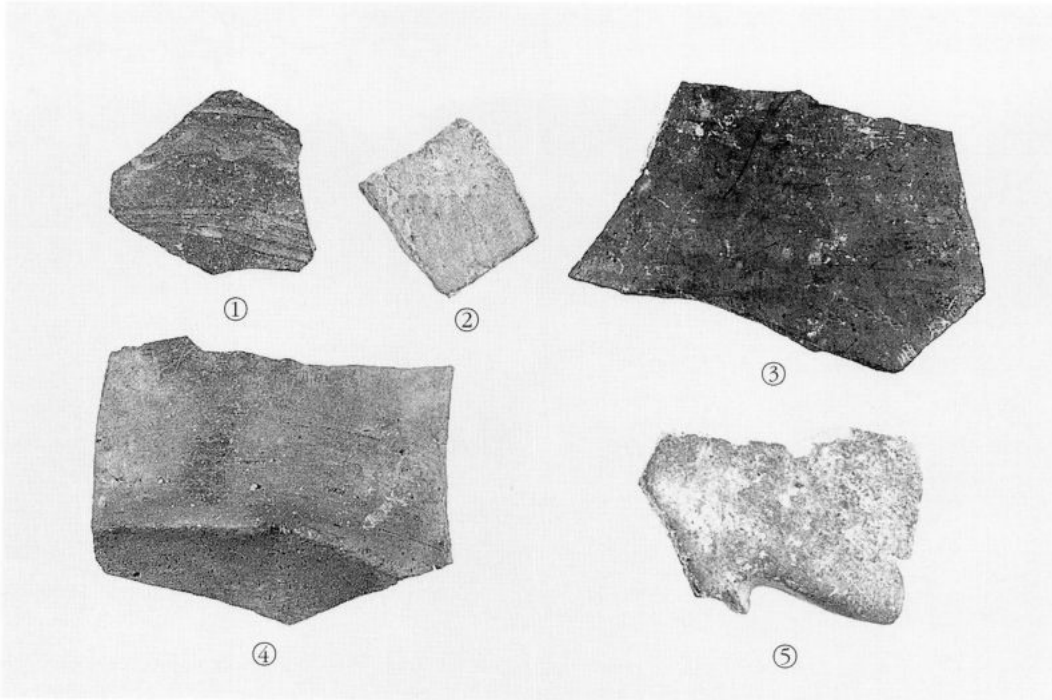
[사진 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전경 (봉무리 유물산포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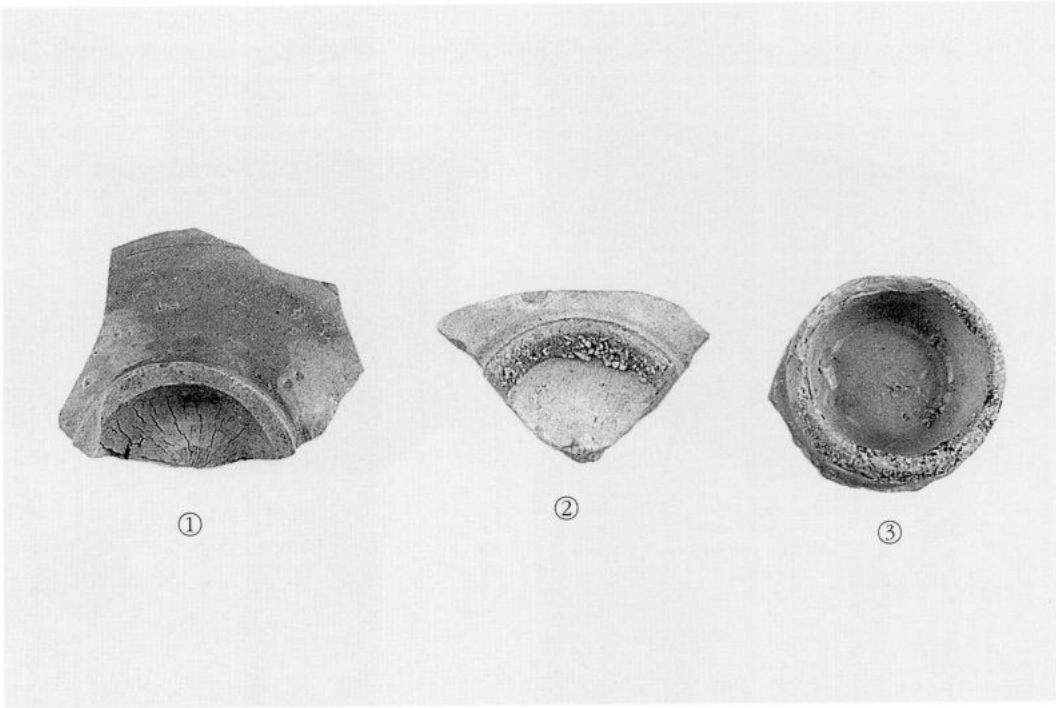
[사진 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 · ② : 등면)



[사진 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기와류 (① · ②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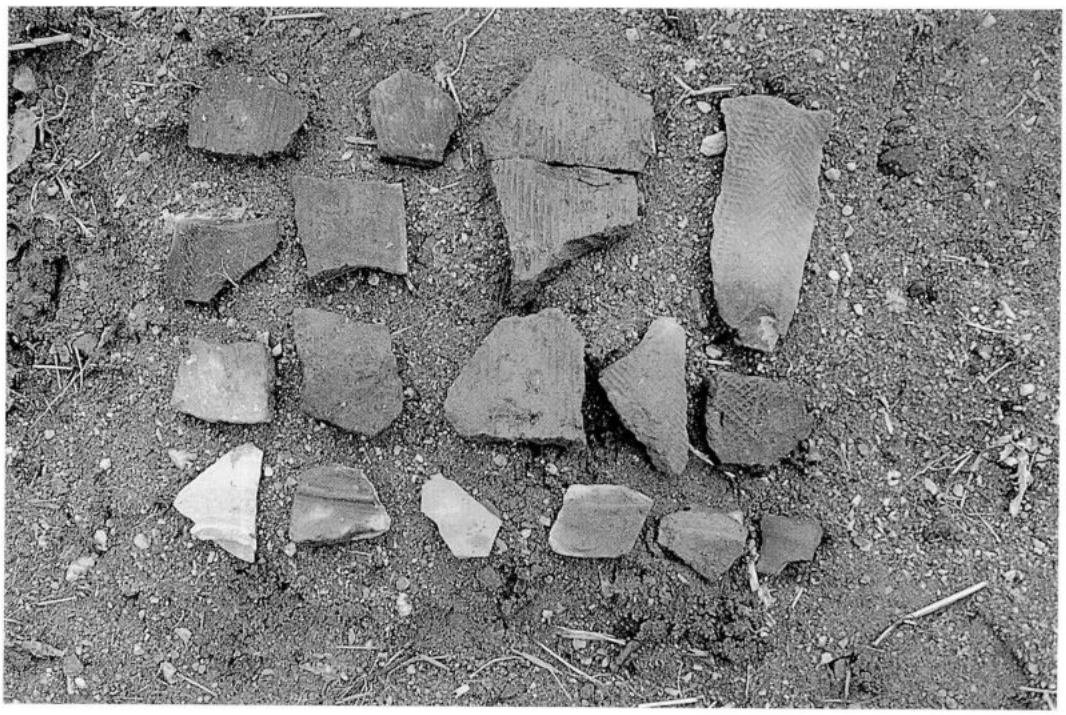
[사진 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토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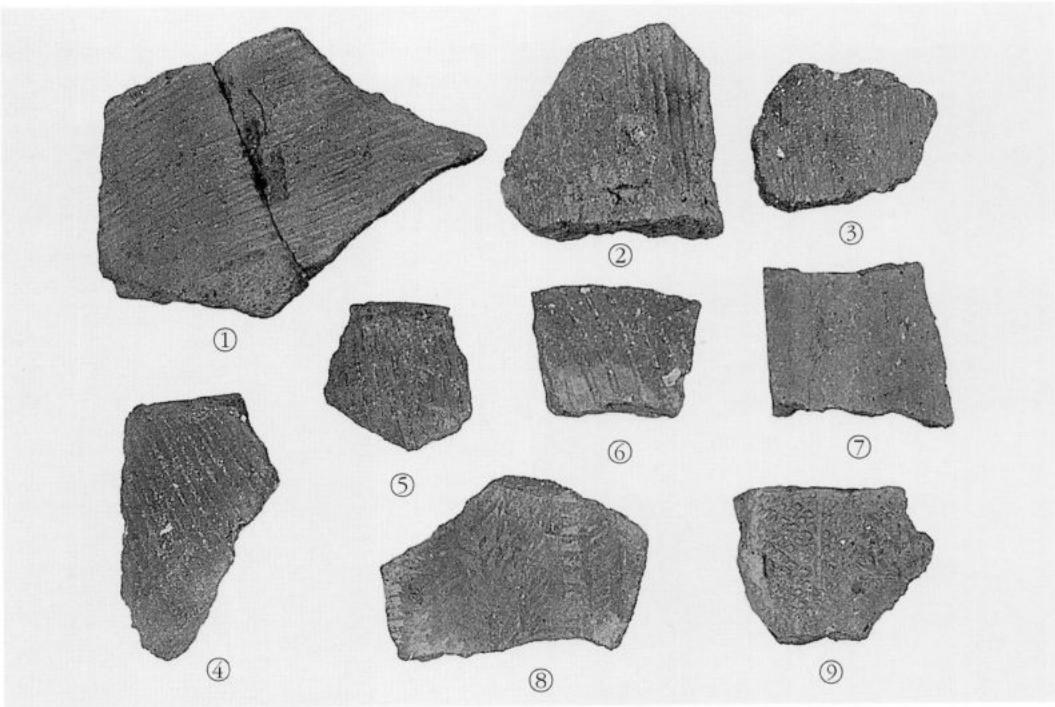
[사진 7]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A 채집 자기류 (①~③)

[사진 8]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전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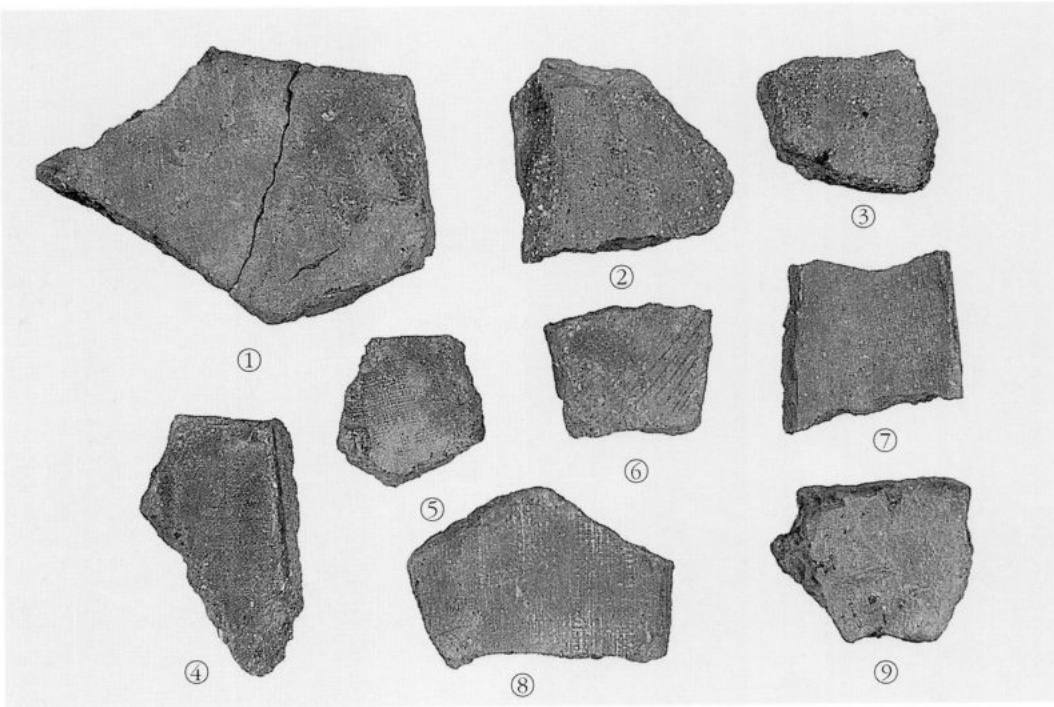
[사진 9]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전경 (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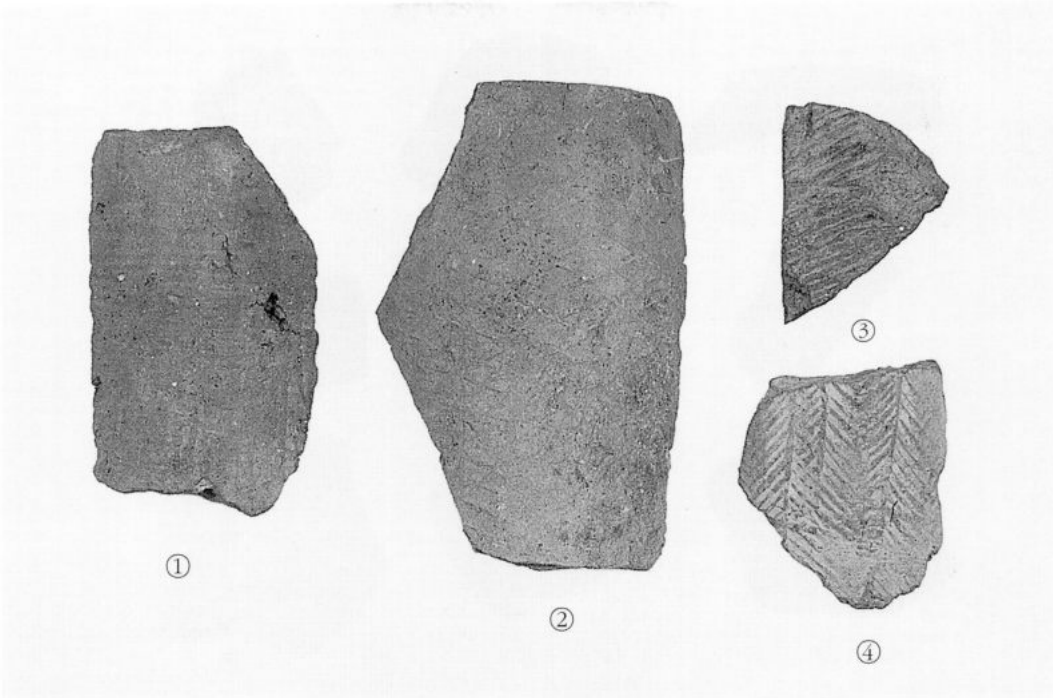
[사진 10]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유물 채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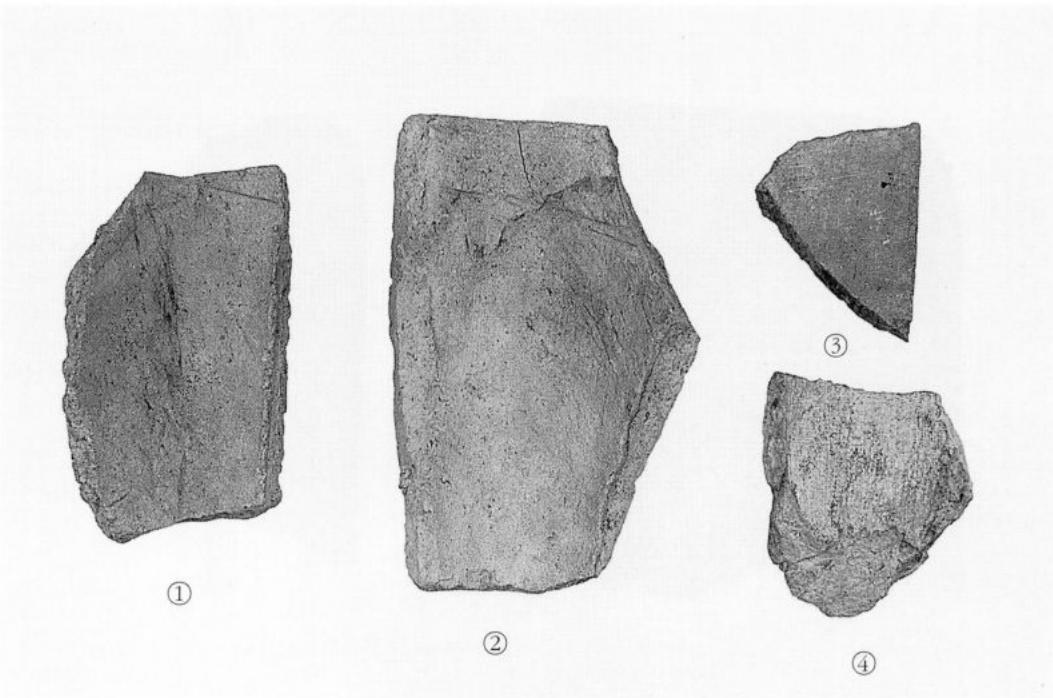
[사진 11]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⑨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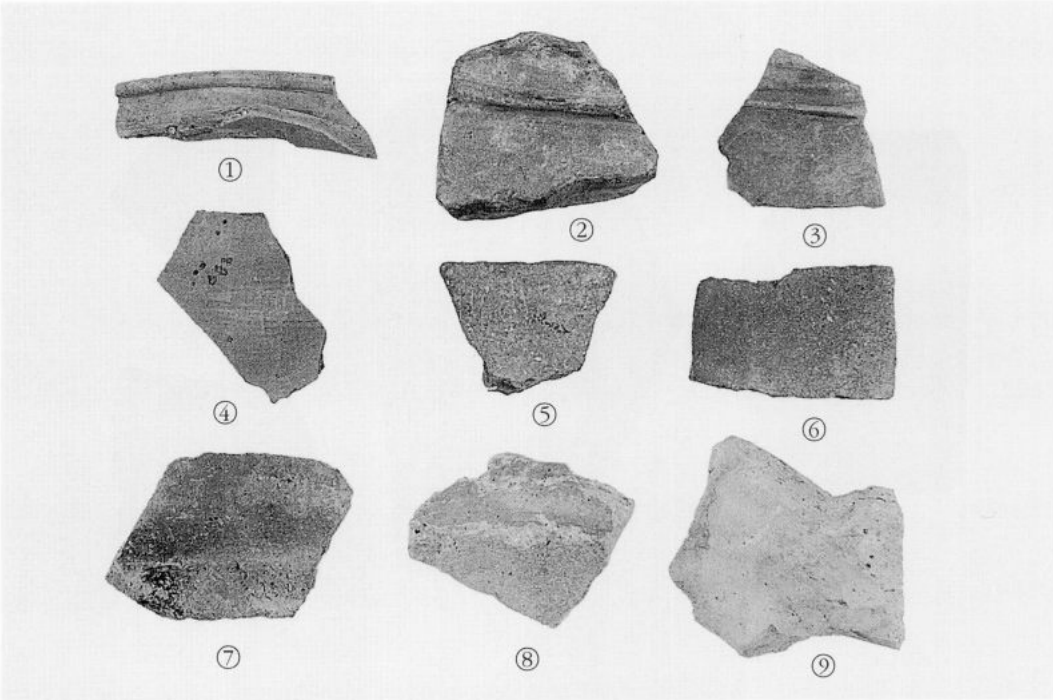
[사진 12]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1 (①~⑨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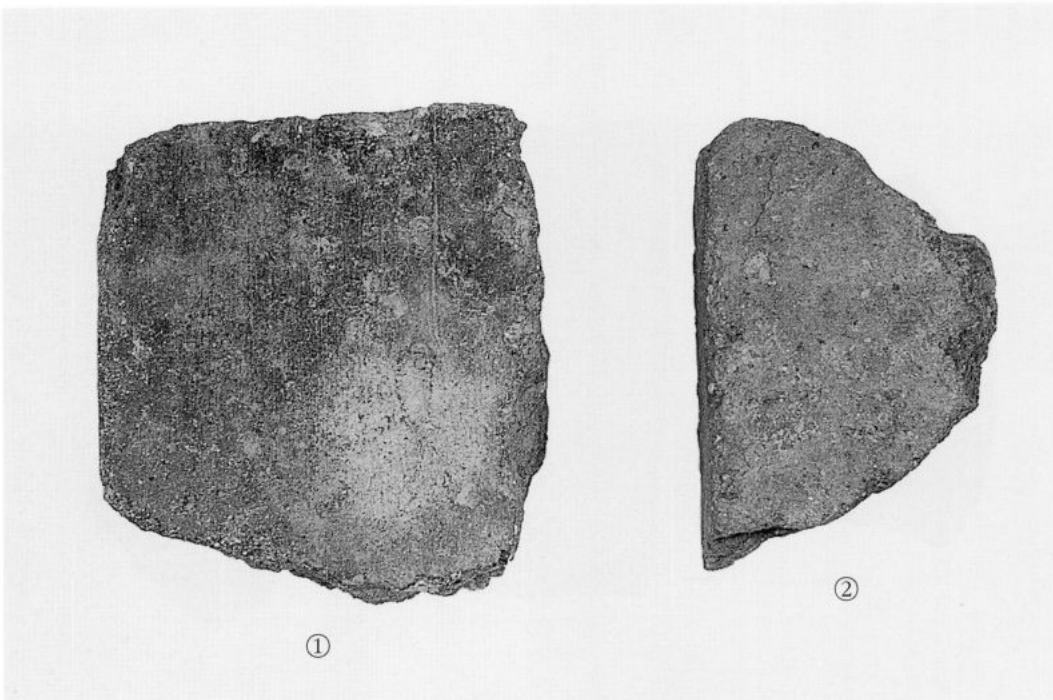
[사진 13]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④ : 등면)



[사진 14]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기와류2 (①~④ : 내면)



[사진 15]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토기류 (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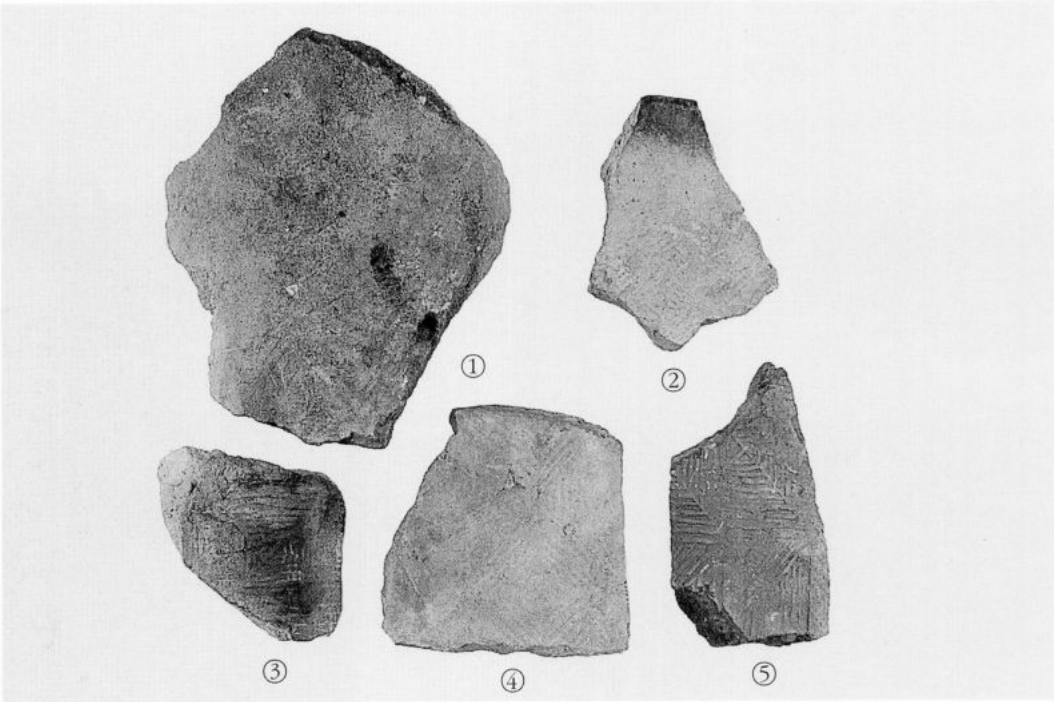


[사진 16] 봉무리 도장골 유물산포지 B 채집 전돌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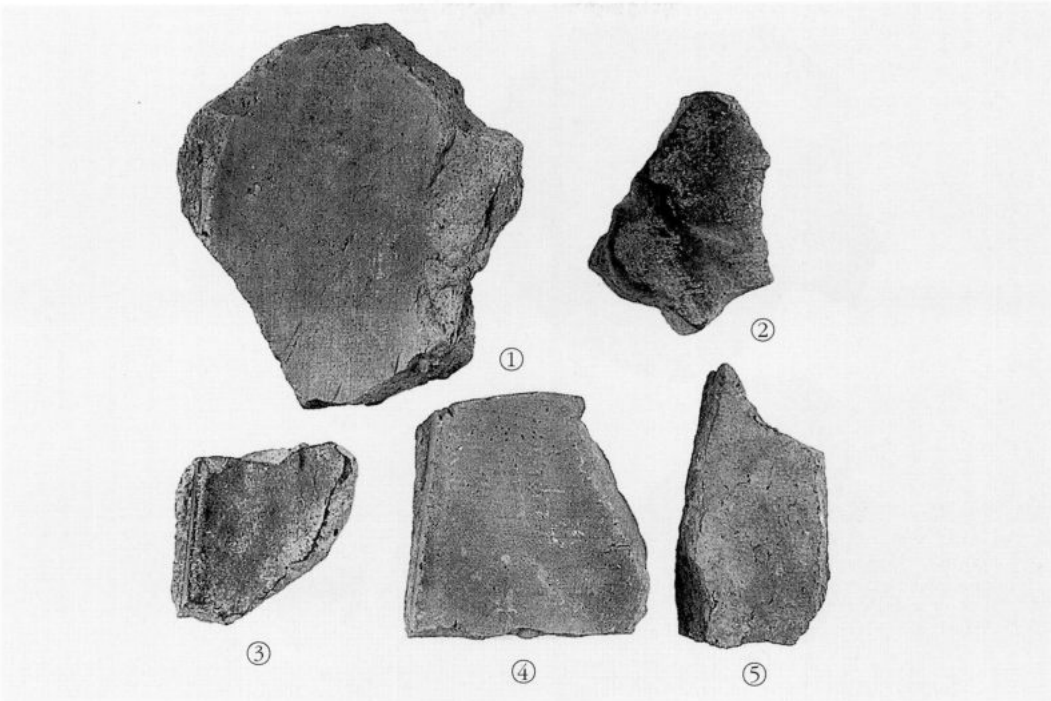
[사진 17] 봉무리 도장골 선사유물산포지 전경 (북동에서)

[사진 18]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전경 (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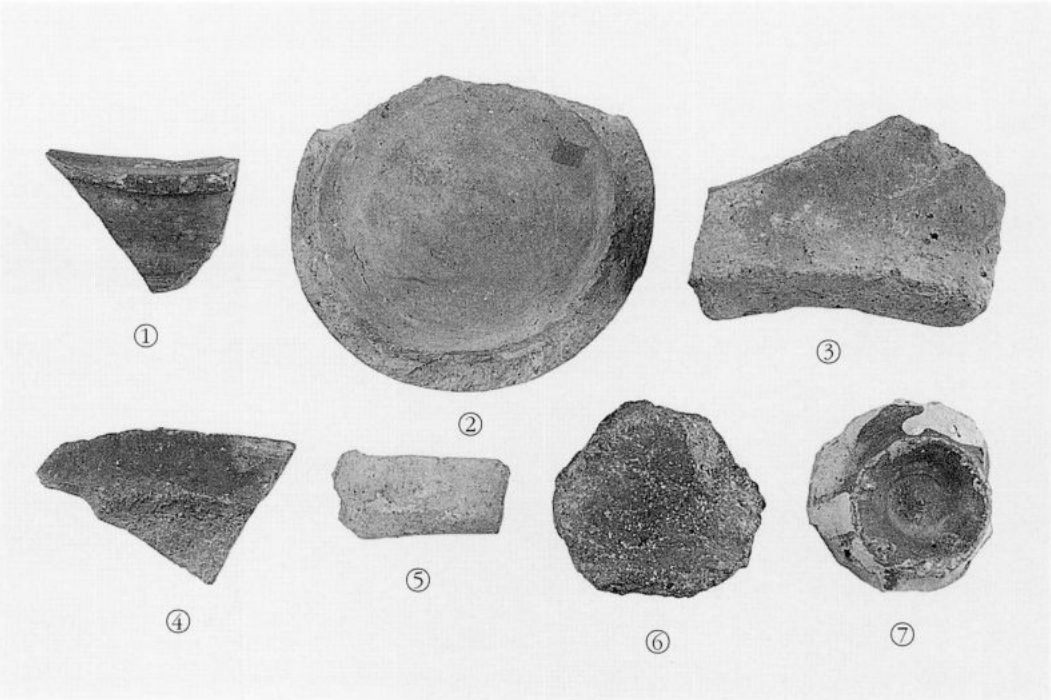
[사진 19]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유물 채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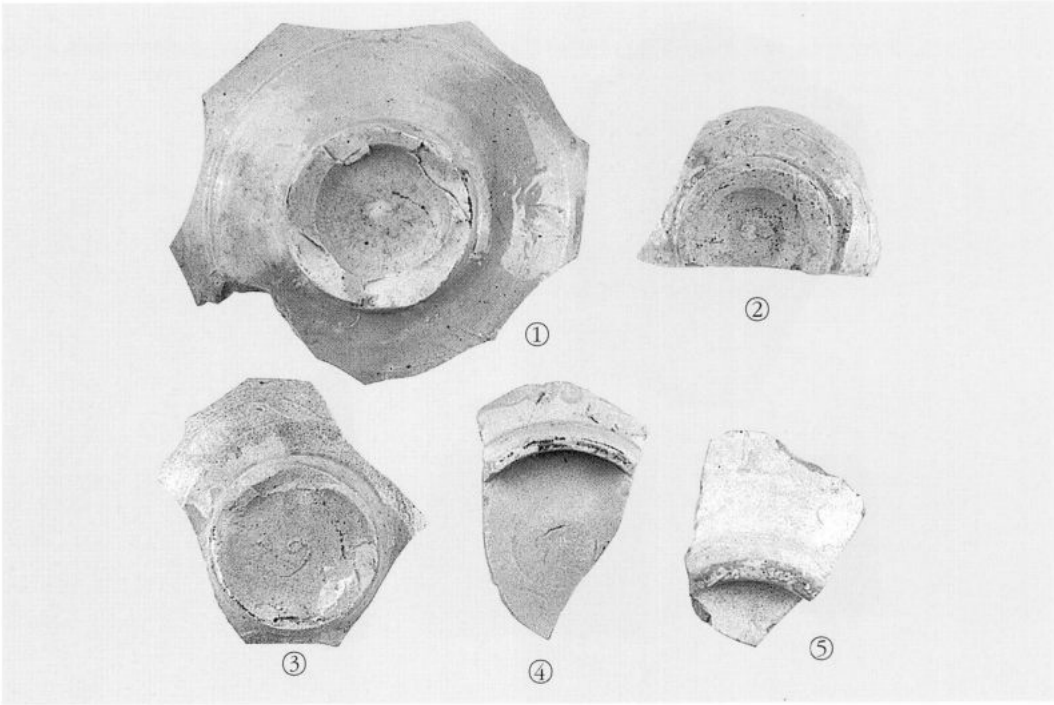
[사진 20]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등면)



[사진 21]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내면)



[사진 22]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 토제품(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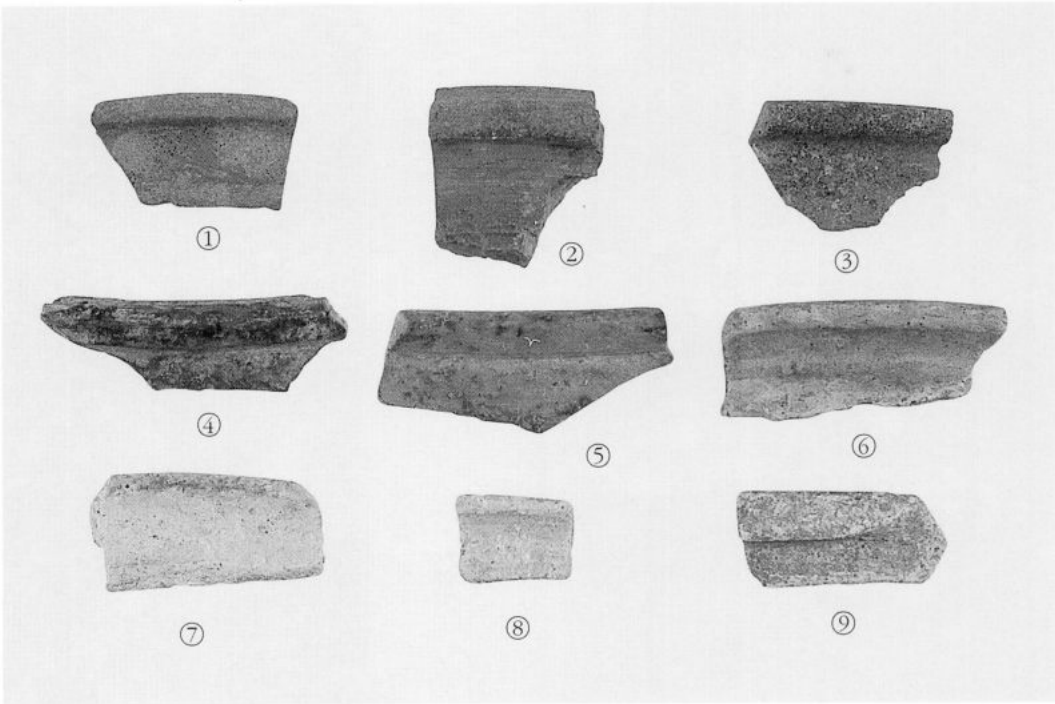
[사진 23] 봉무리 기와집말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⑤)

[사진 24] 전궁리 토기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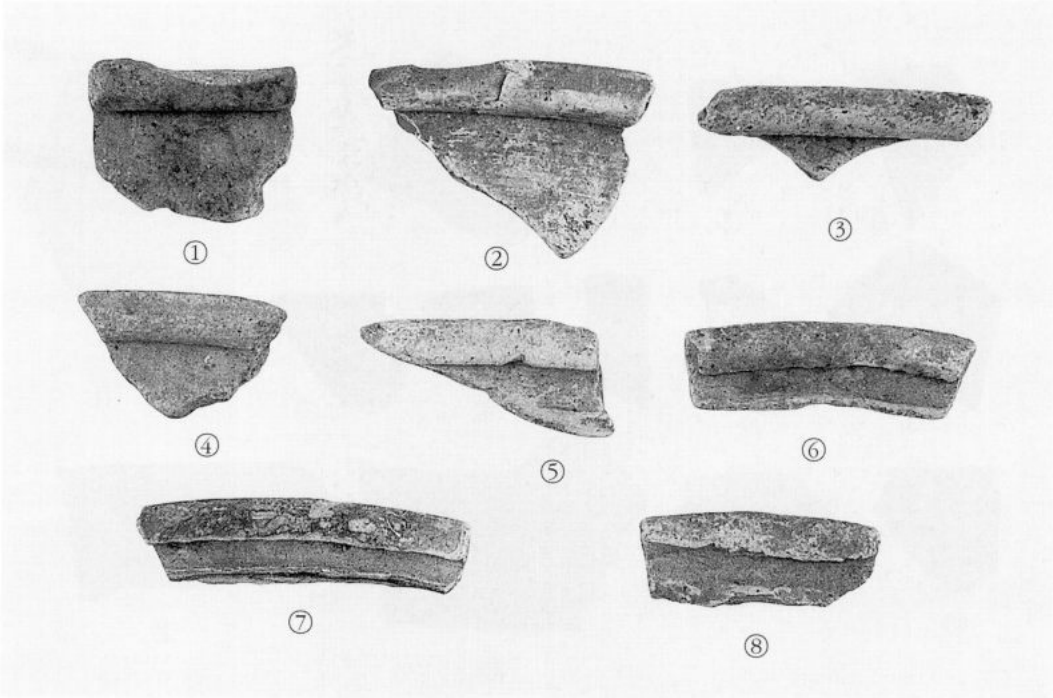
[사진 25] 전궁리 토기요지 근경

[사진 26] 전궁리 토기요지 유물 출토 상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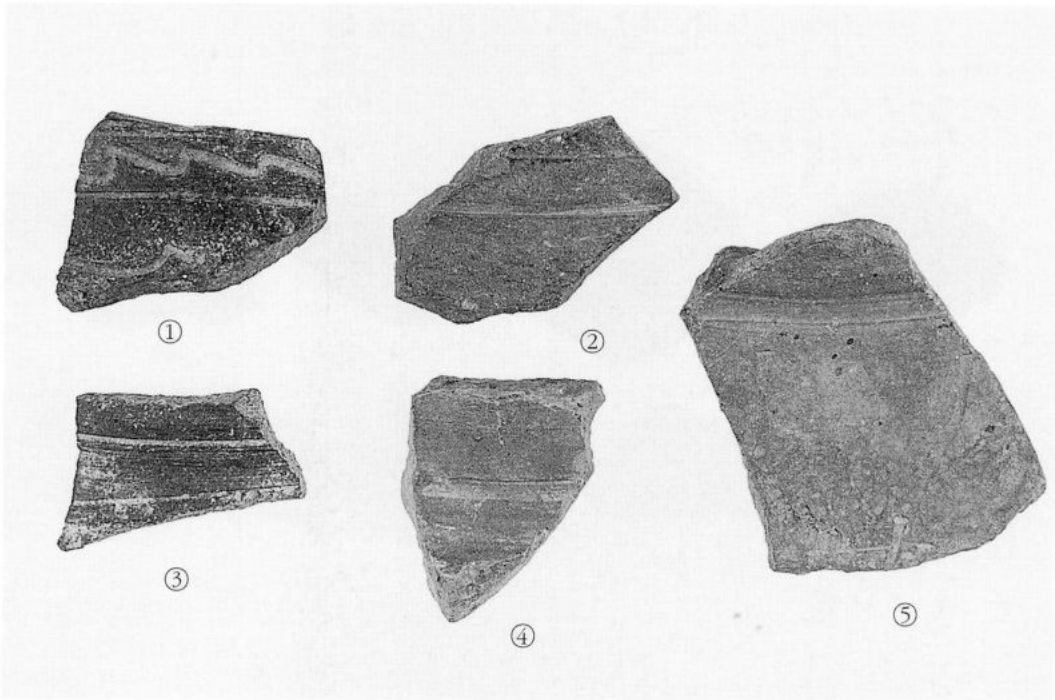
[사진 27] 전궁리 토기요지 유물 출토 상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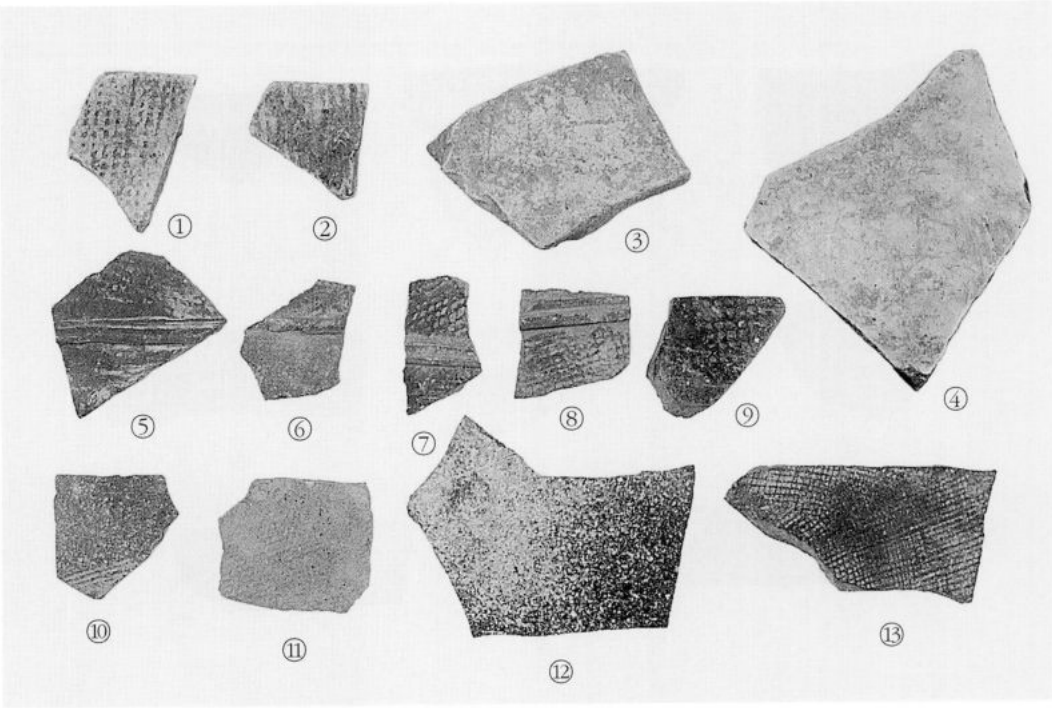
[사진 28]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1 (①~⑨ :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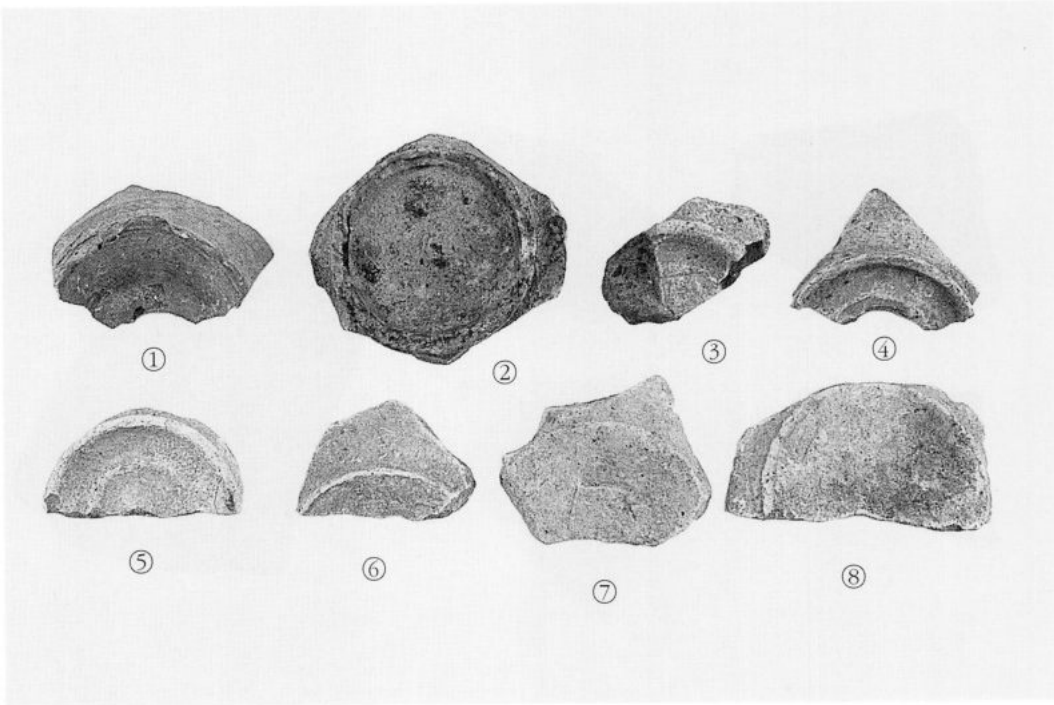
[사진 29]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2 (①~⑧ :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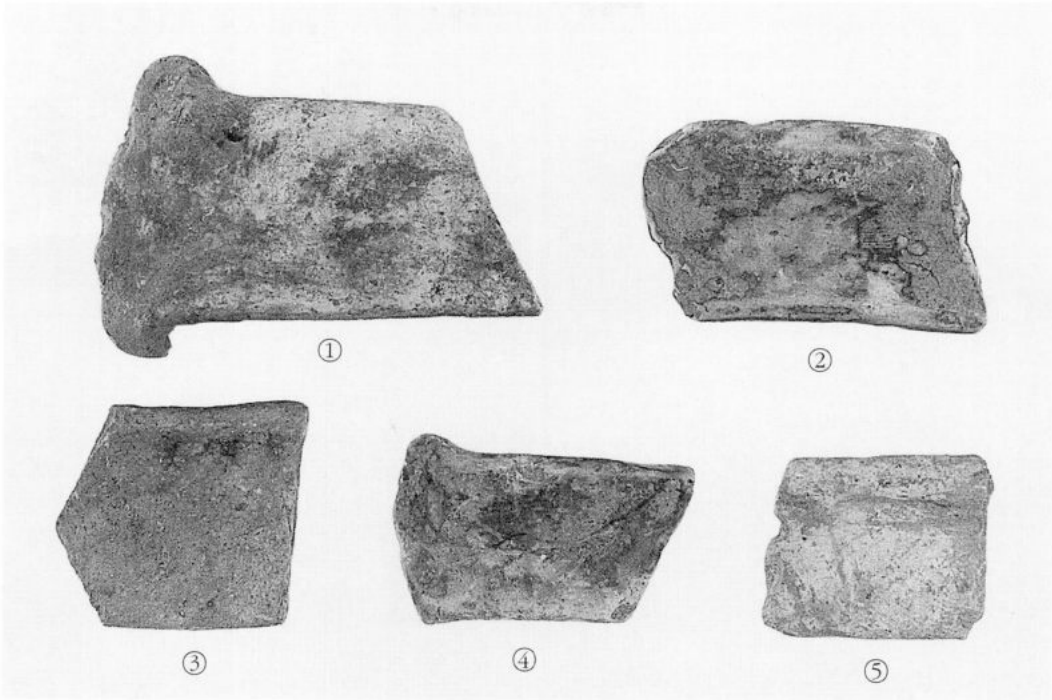
[사진 30]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3 (①~⑤ : 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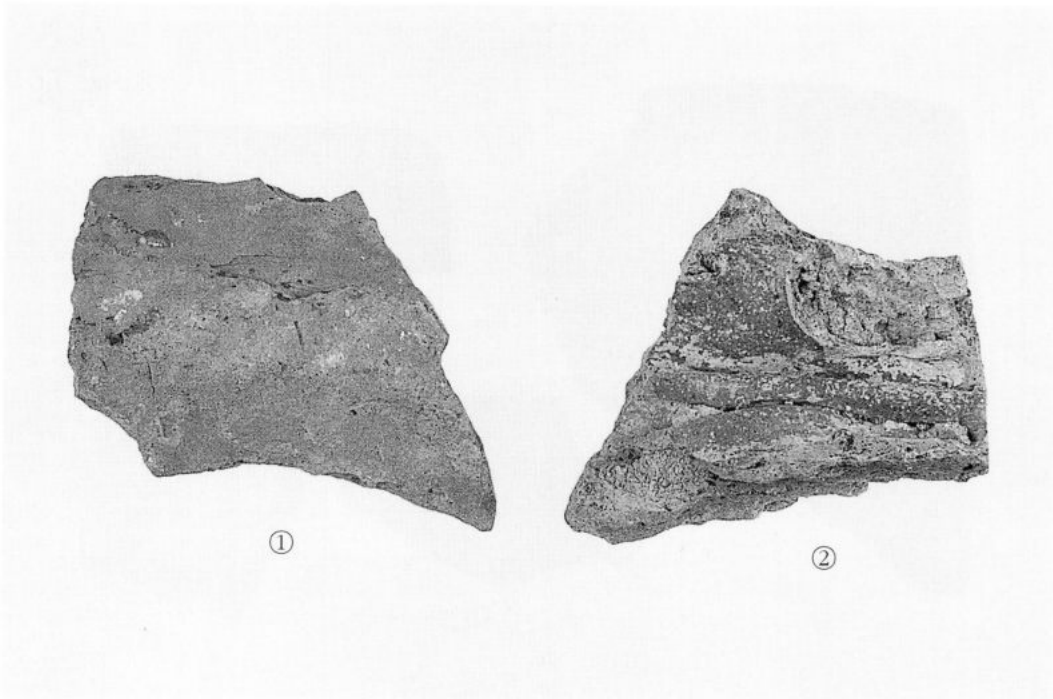
[사진 31]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4 (①~⑬ : 동체부)



[사진 32]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5 (①~⑧ :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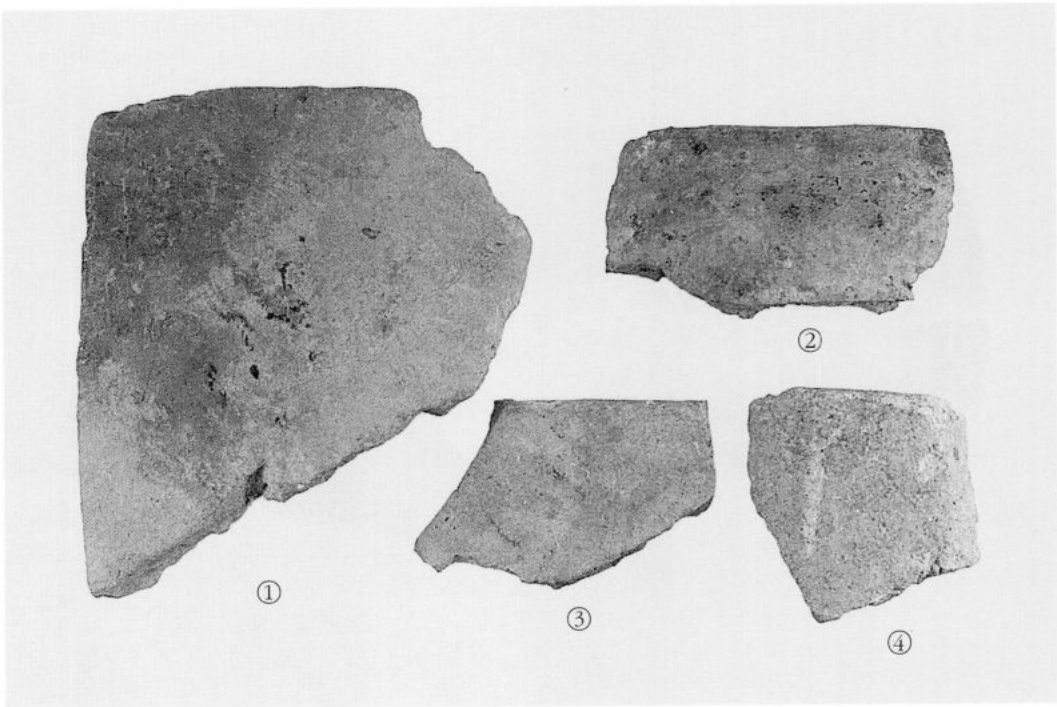


[사진 33]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6 (①~⑤ : 파수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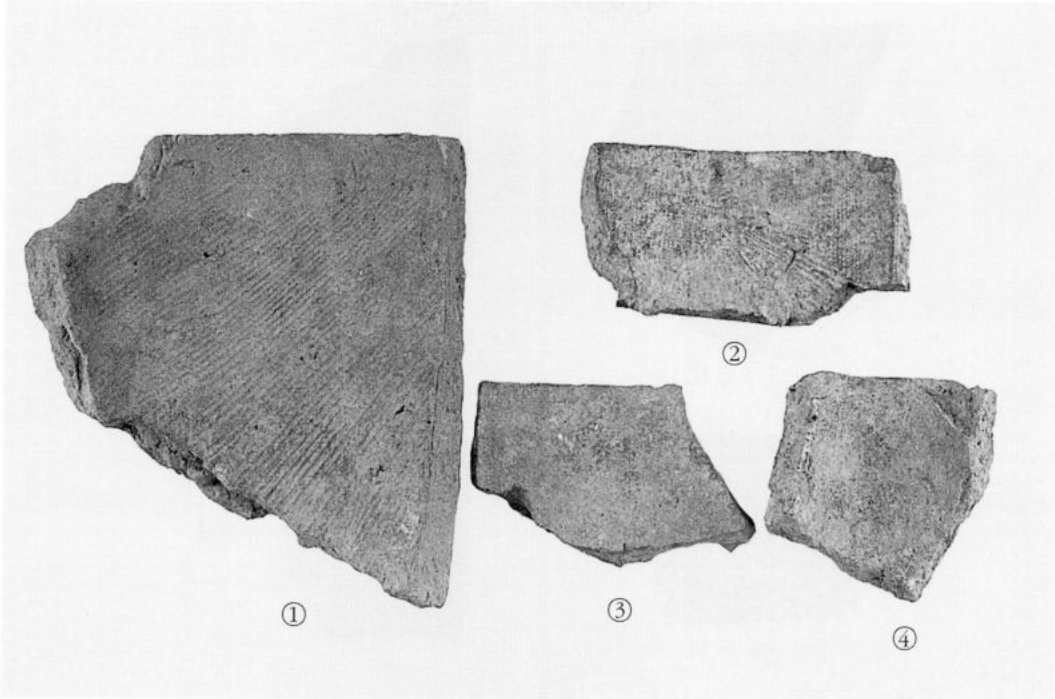


[사진 34] 전궁리 토기요지 채집 토기류 7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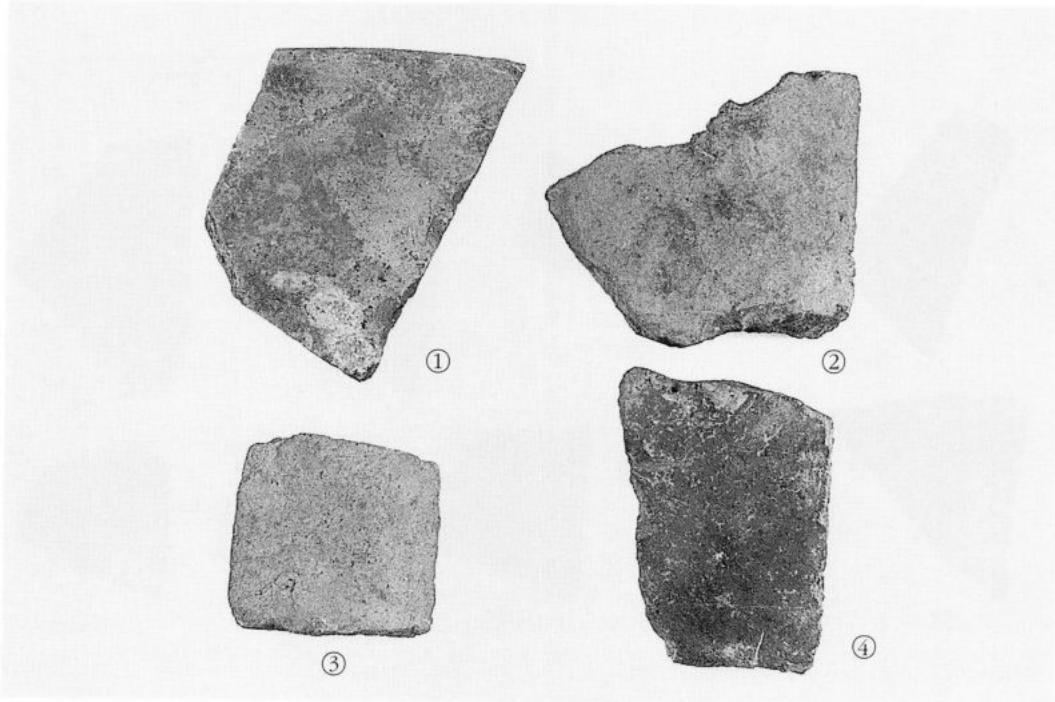
[사진 35] 전궁리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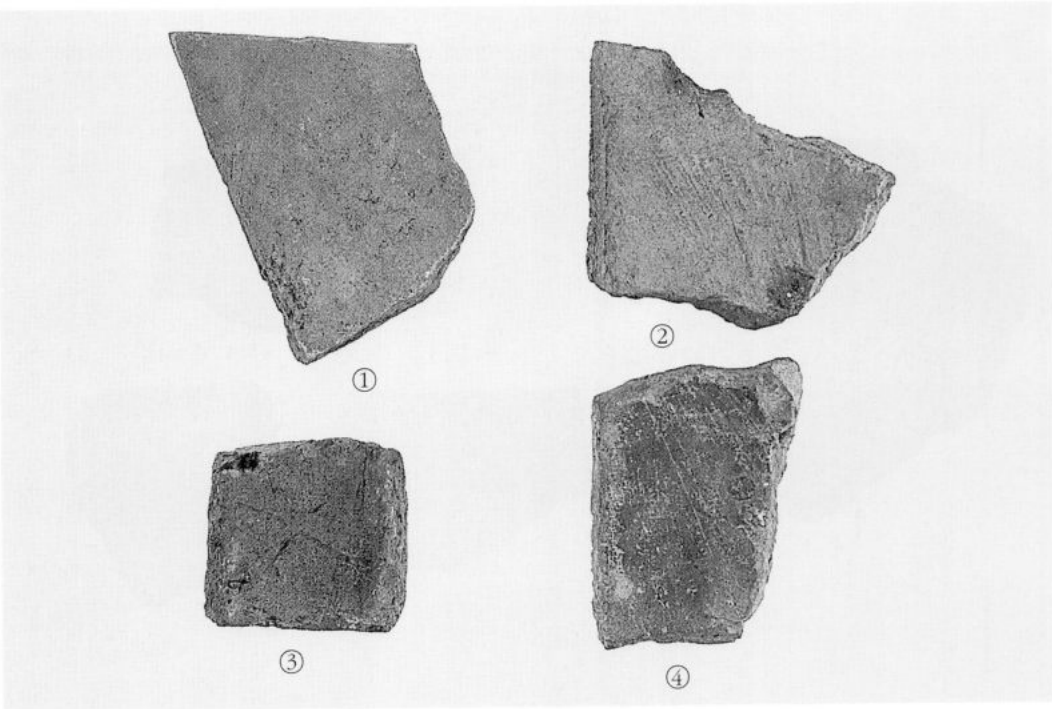
[사진 36]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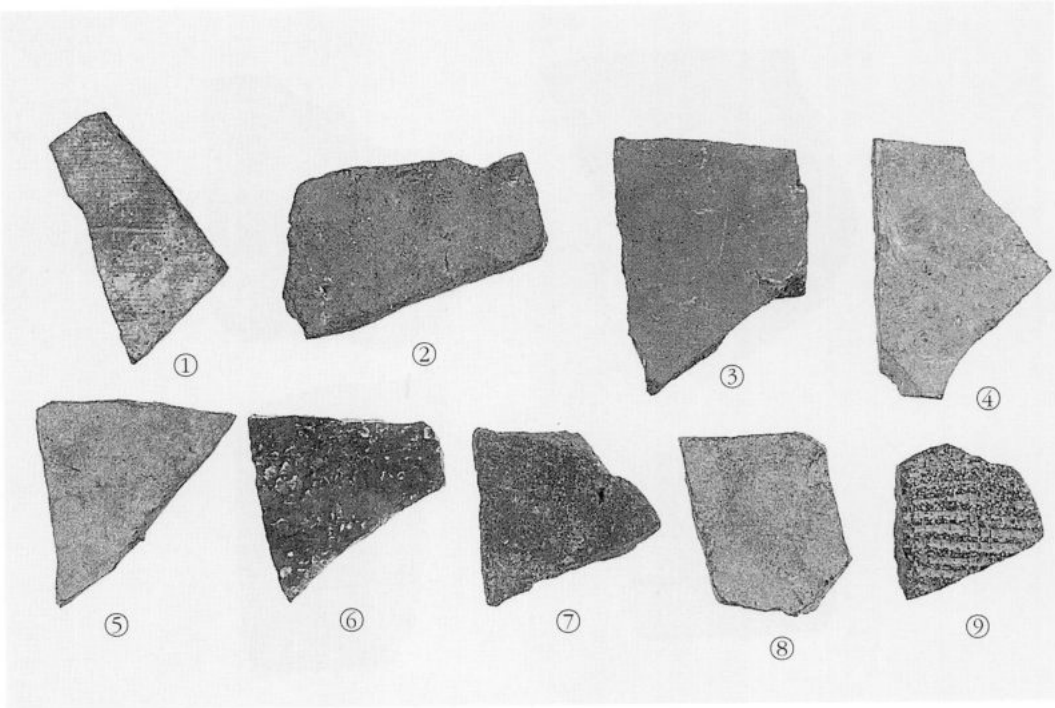
[사진 37]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1 (①~④ : 내면)



[사진 38]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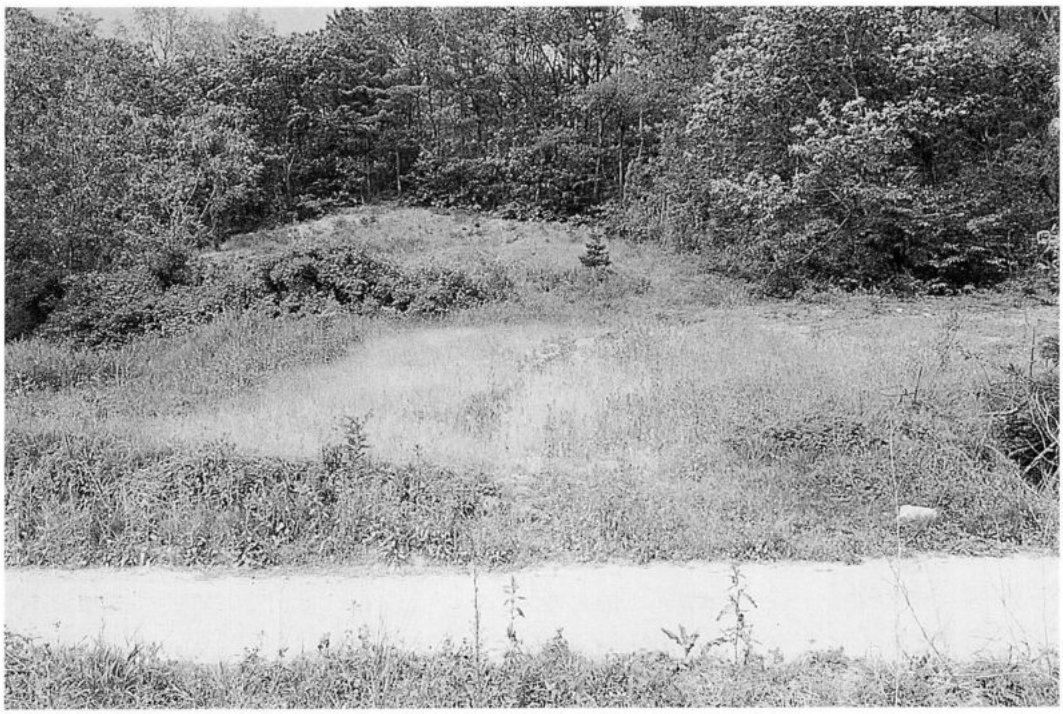
[사진 39]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2 (①~④ : 내면)



[사진 40] 전궁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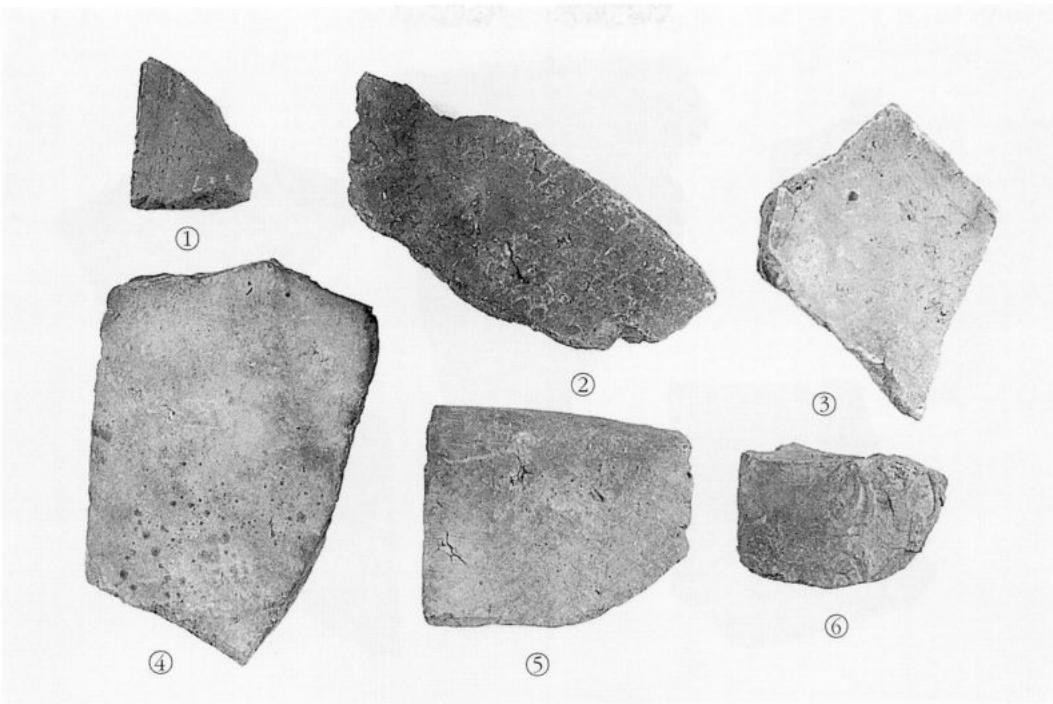
[사진 41] 창리 선돌 전경 (정면)

[사진 42] 창리 선돌 전경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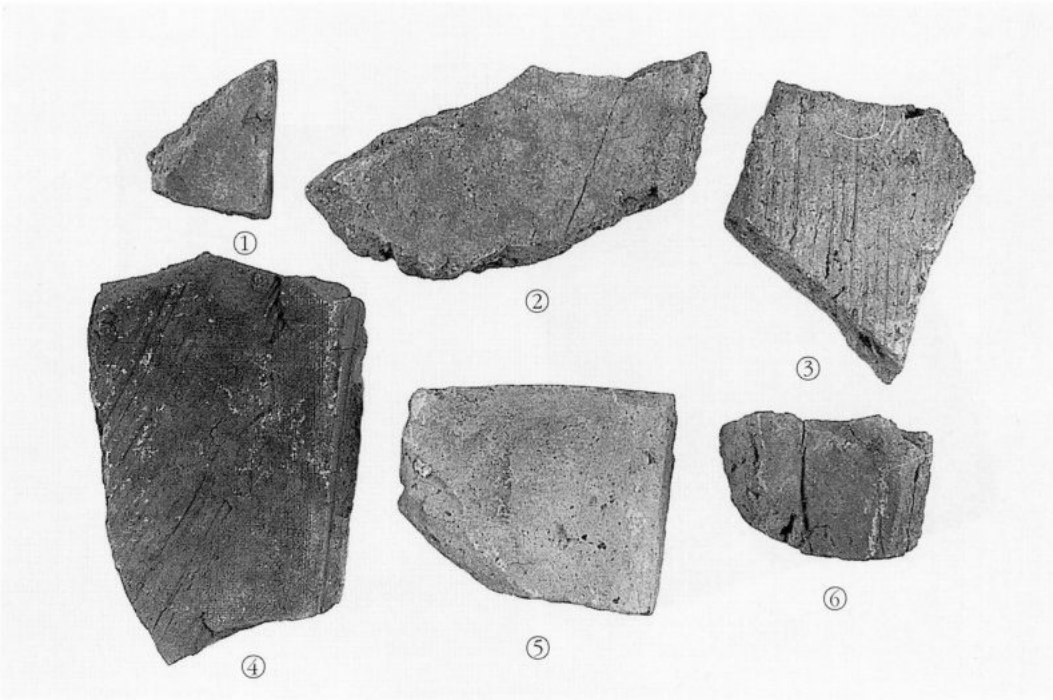


[사진 43] 창리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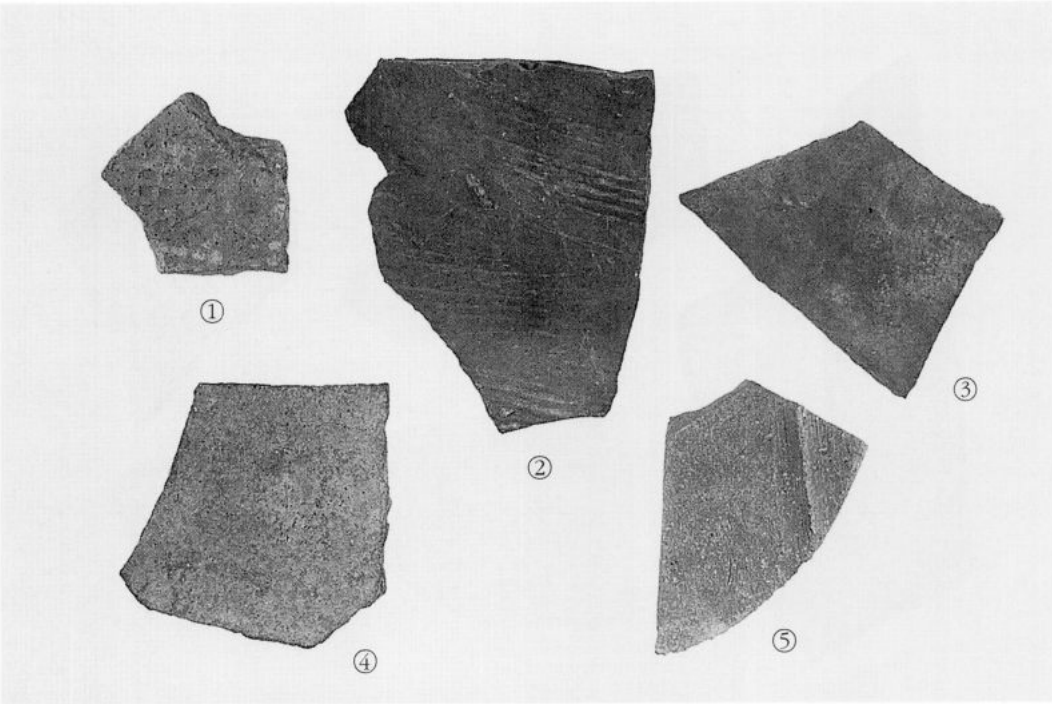
[사진 44] 창리 유물산포지 유물 수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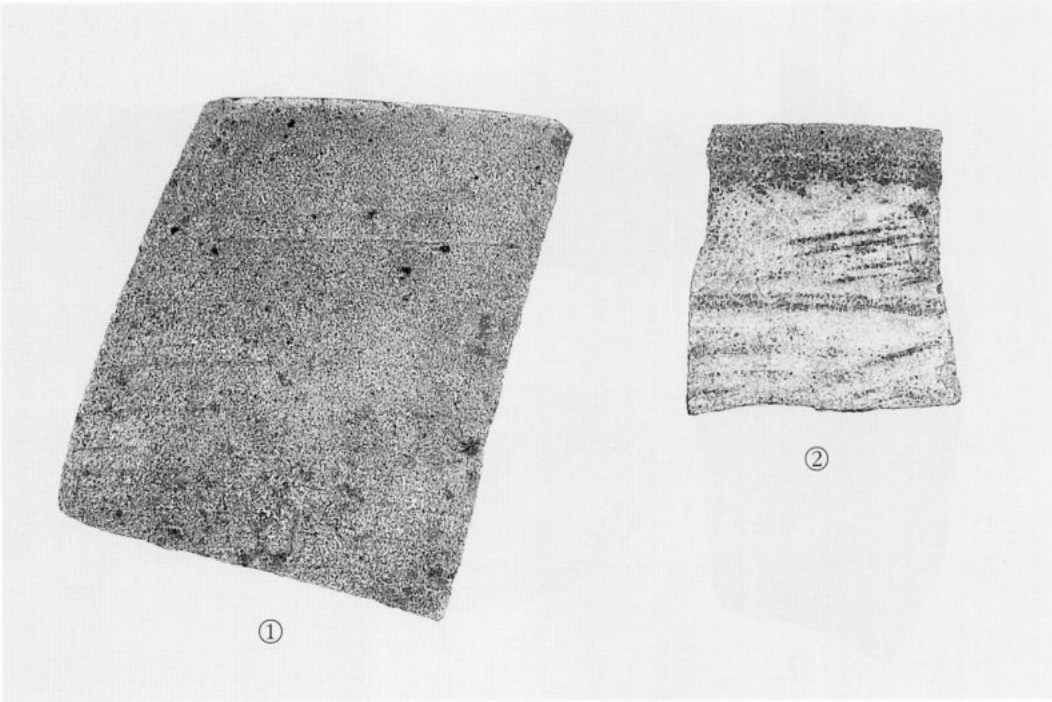
[사진 45]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 등면)



[사진 46]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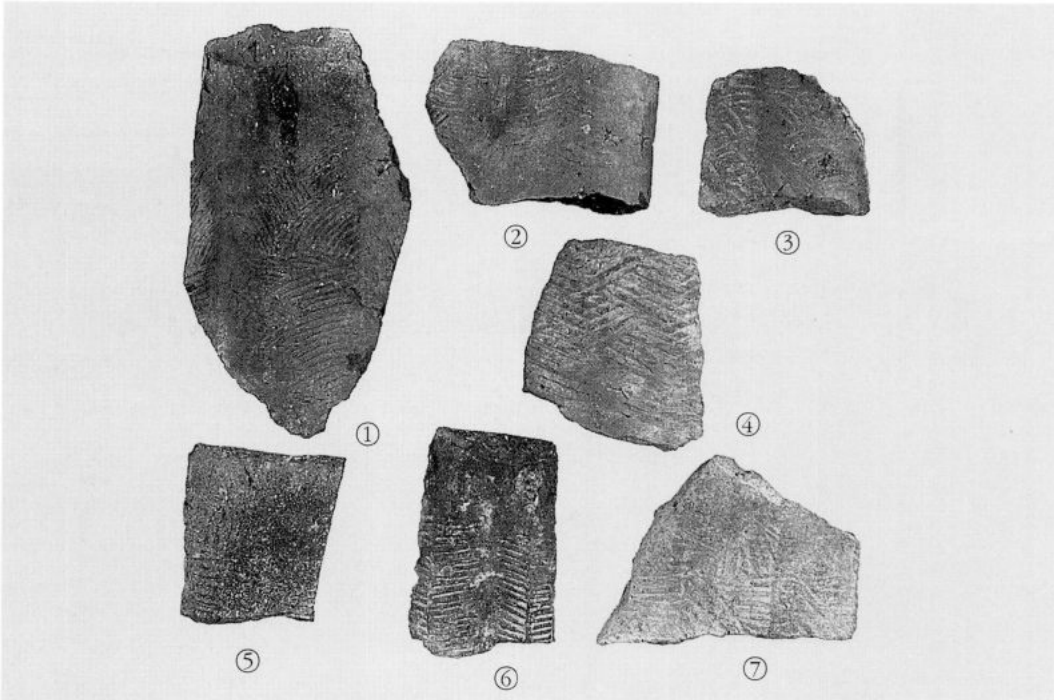
[사진 47]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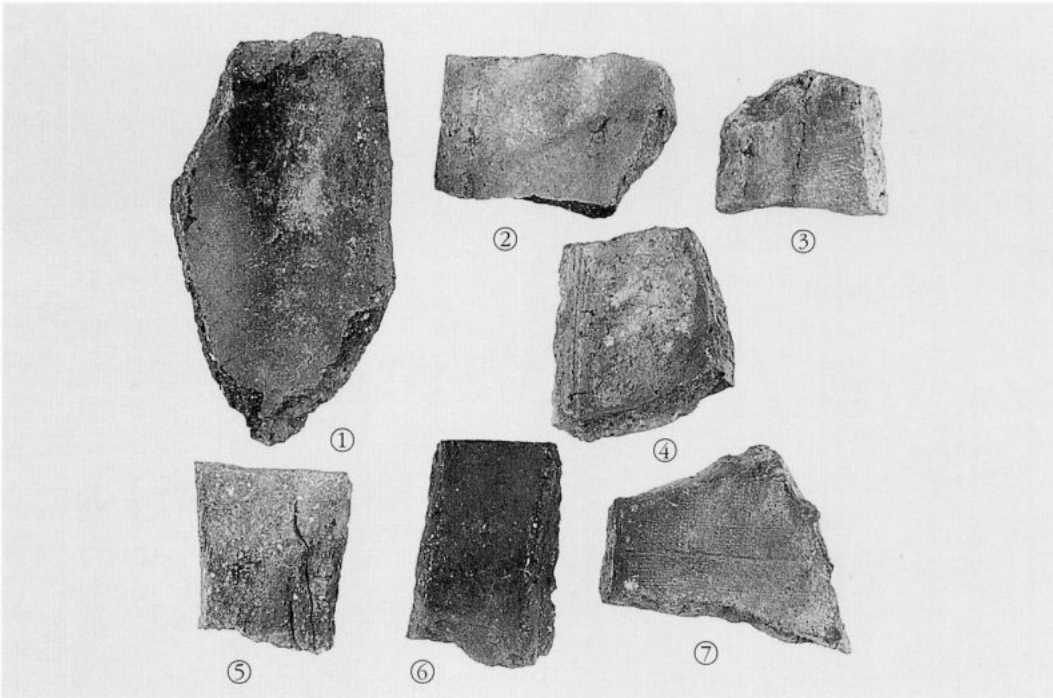
[사진 48] 창리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 · ②)

[사진 49] 창 2리 유물산포지 전경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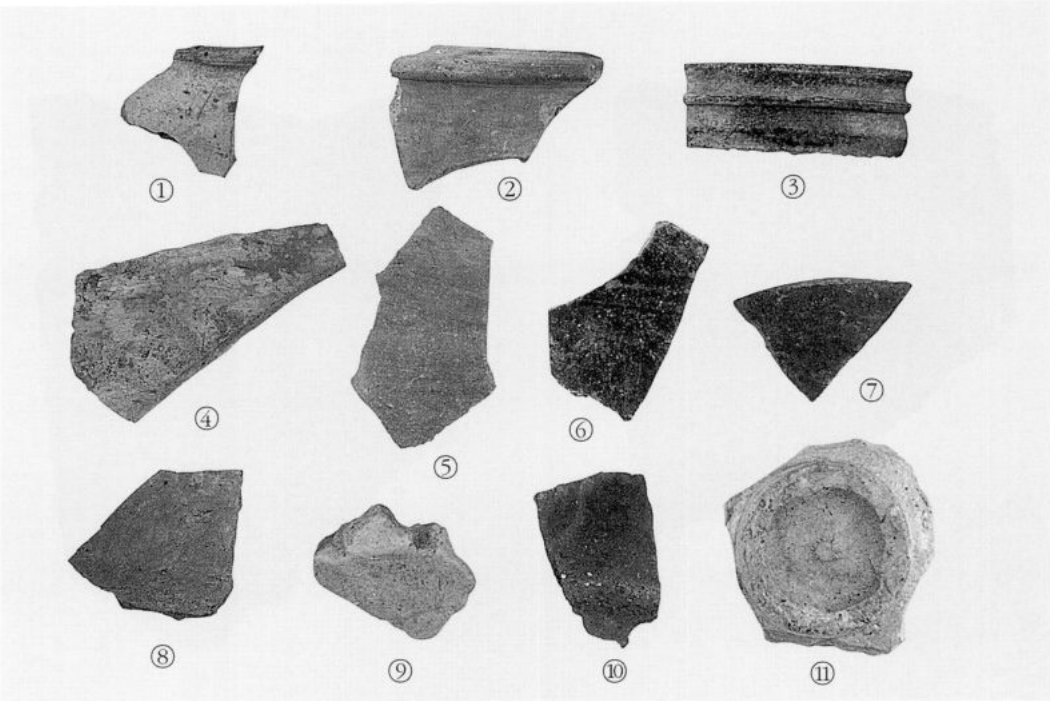
[사진 50] 창 2리 유물산포지 근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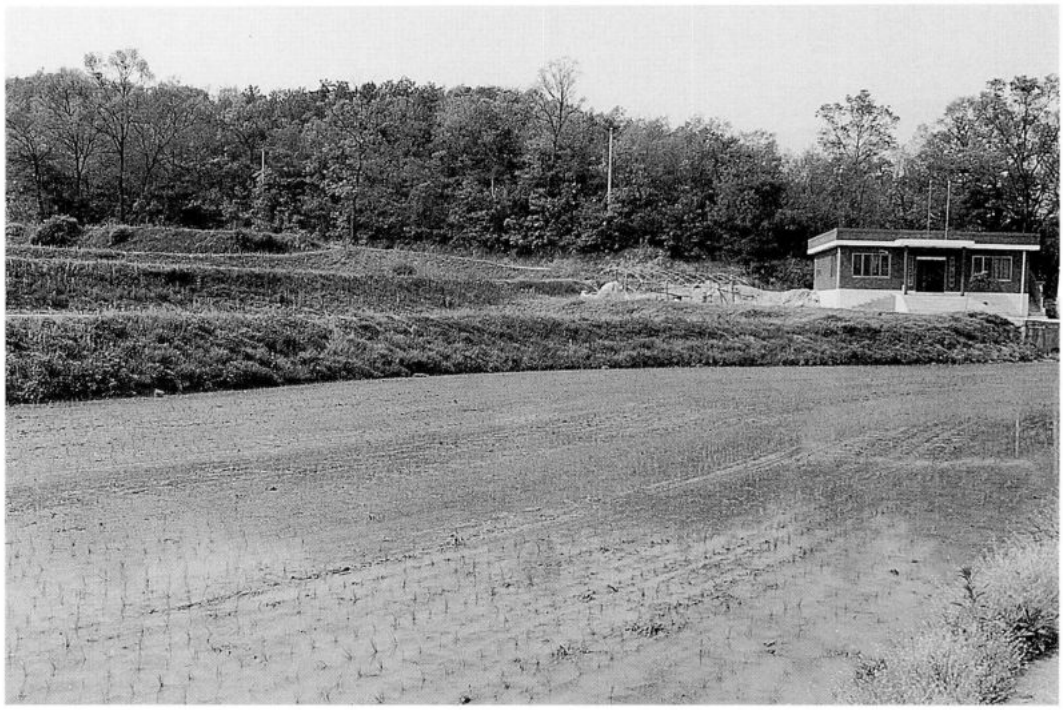
[사진 51]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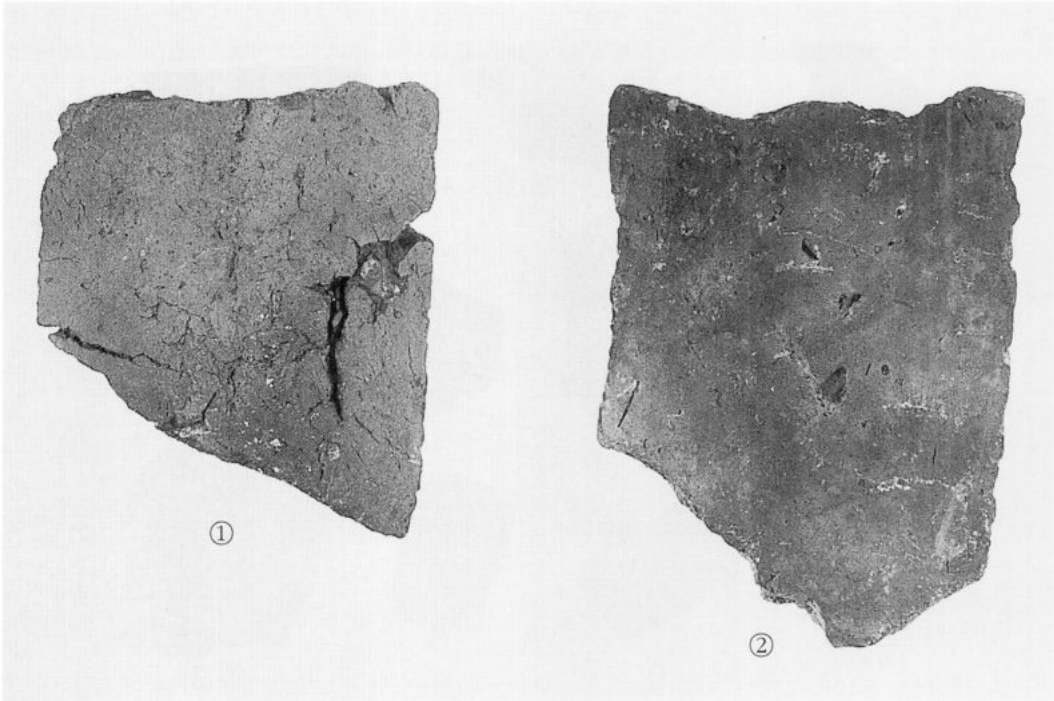
[사진 52]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⑦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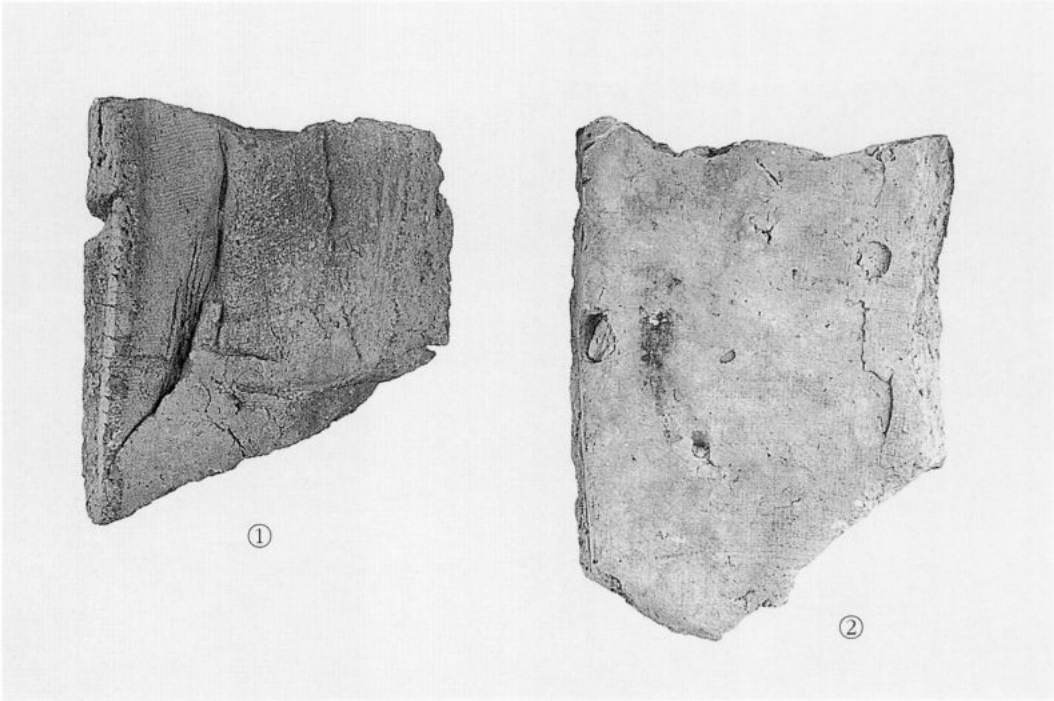
[사진 53] 창 2리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⑩ : 토기류, ⑪ : 자기류)



[사진 54] 창 3리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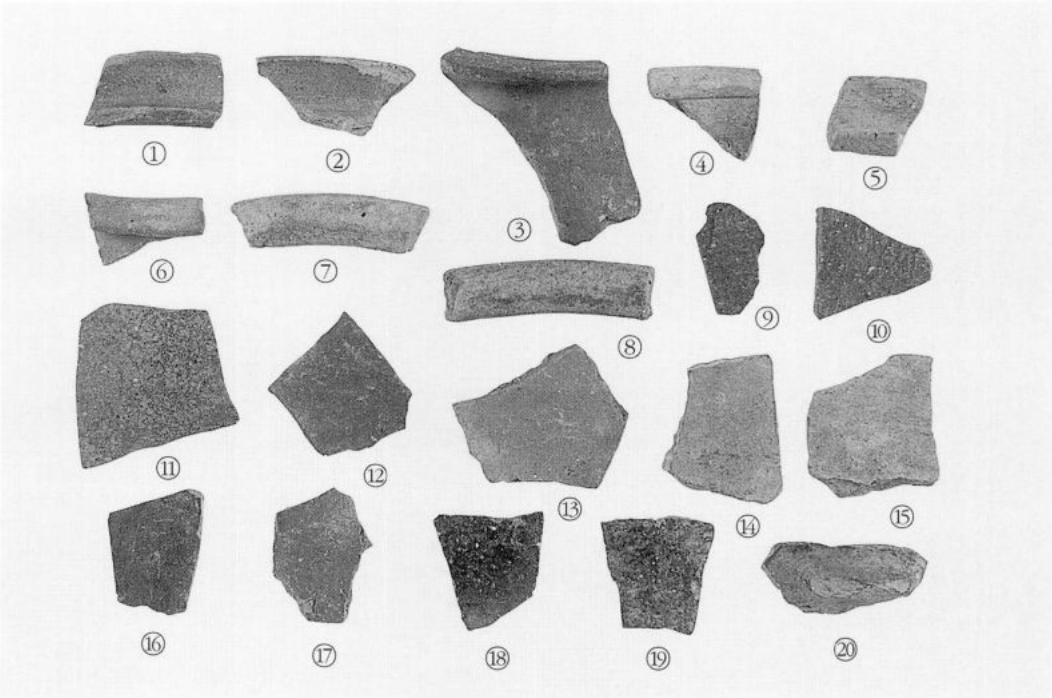


[사진 55] 창 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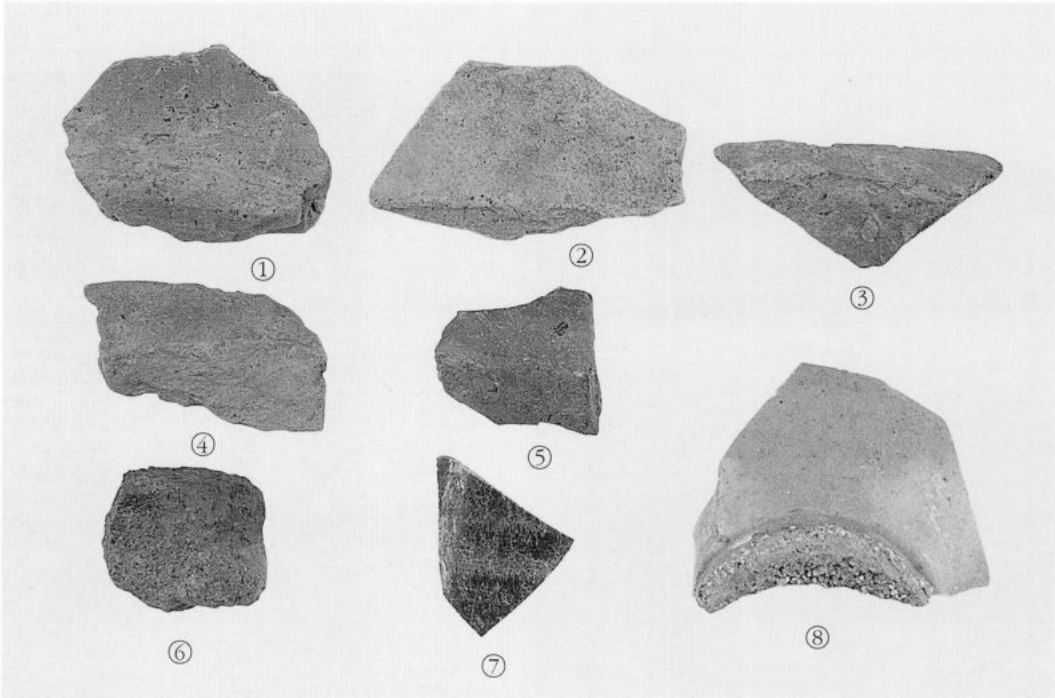


[사진 56] 창 3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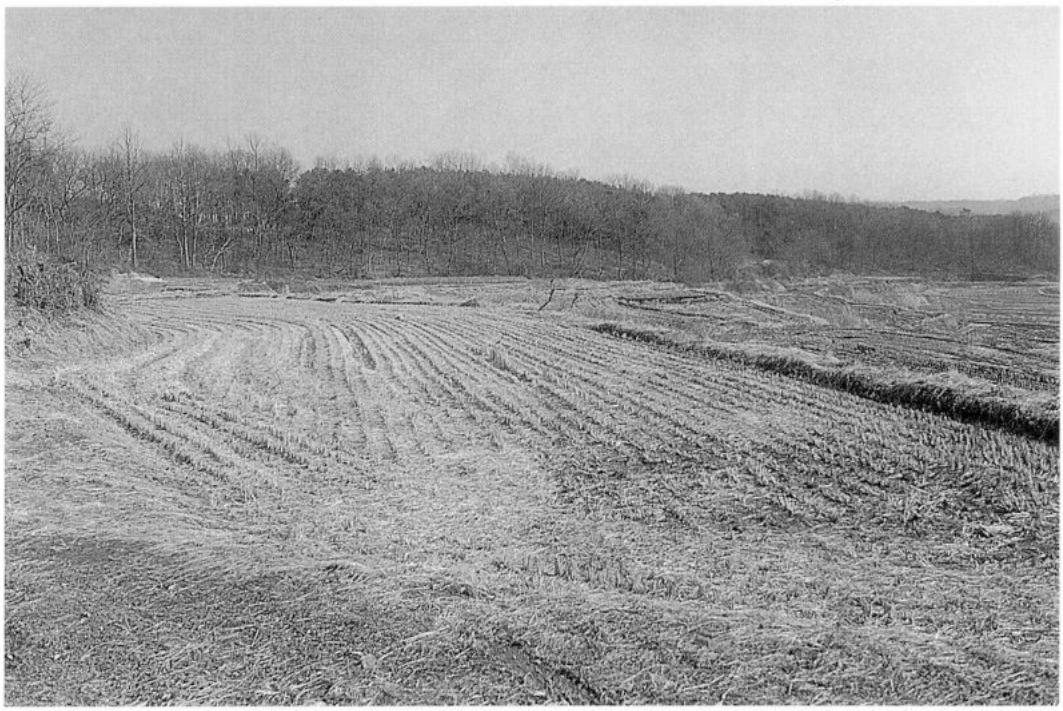
[사진 57]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전경 (동에서)



[사진 58]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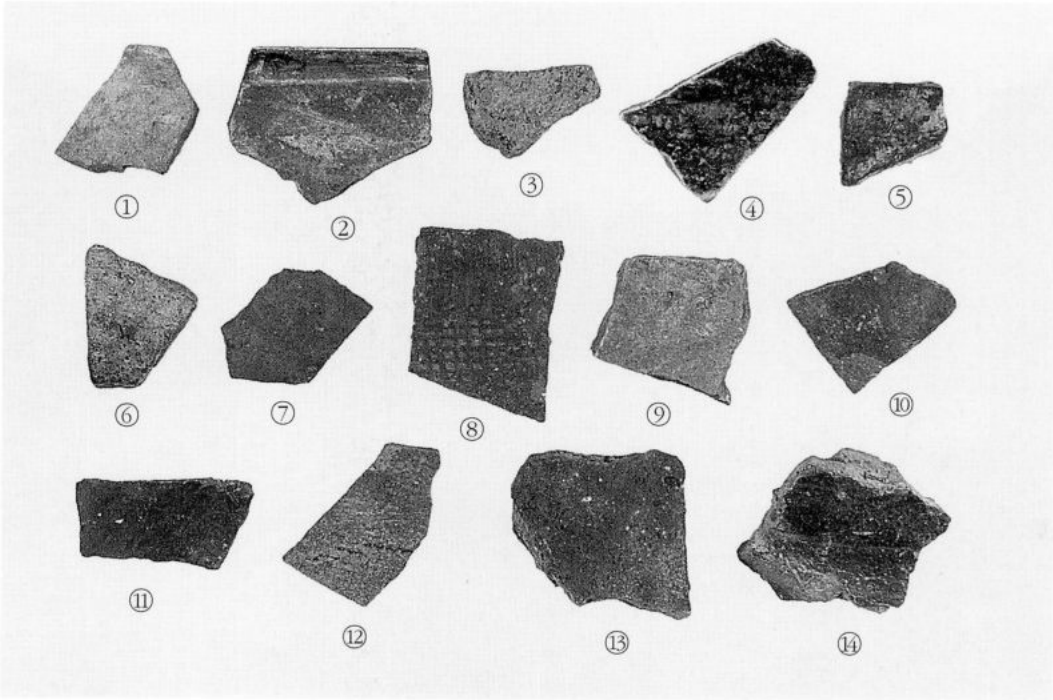


[사진 59] 통삼리 통골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①~⑤ : 토기류, ⑥ : 와제품, ⑦ · ⑧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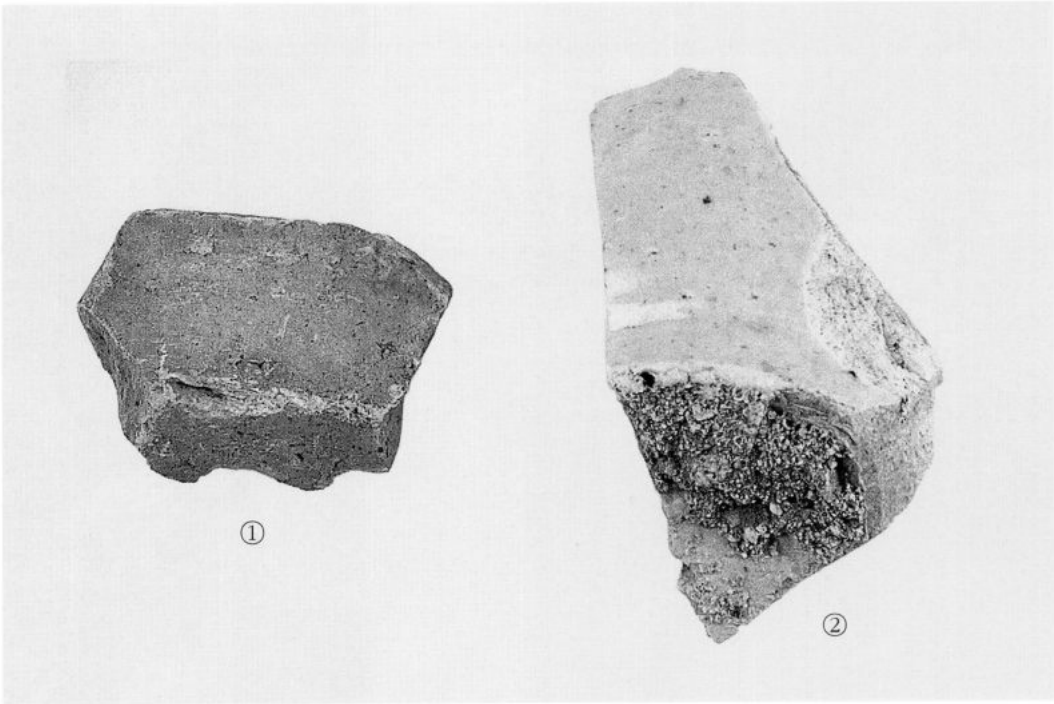


[사진 60]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전경 (서에서)

[사진 61]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근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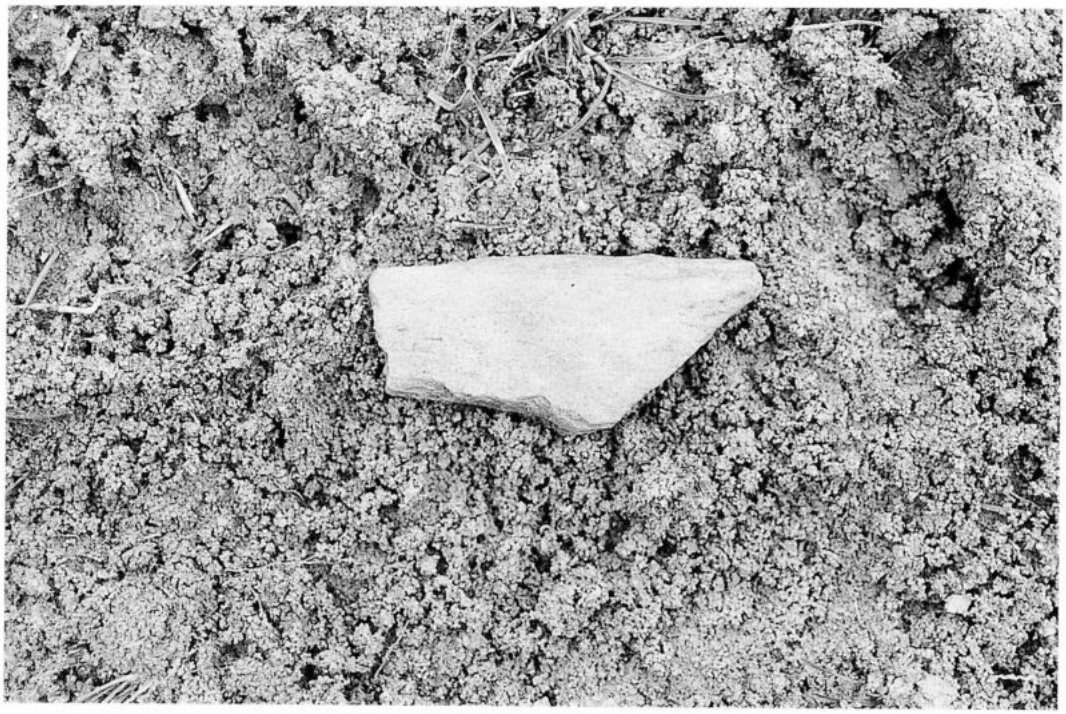
[사진 62]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⑭)



[사진 63] 통삼리 원포마을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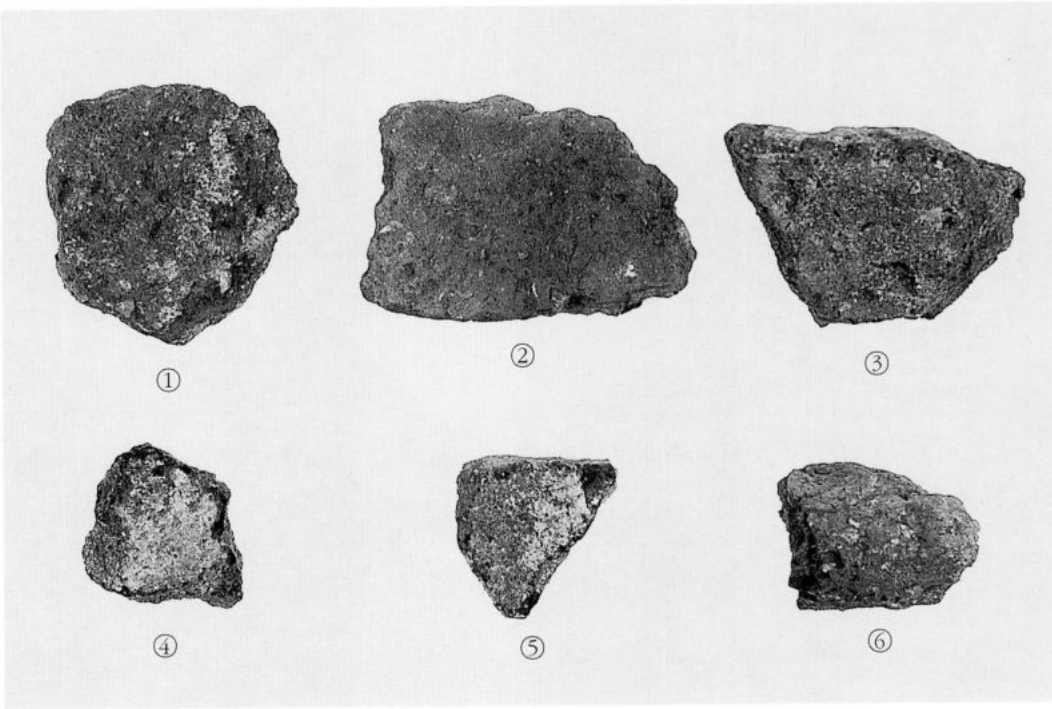
[사진 64] 봉명리 유적 전경 (동에서)

[사진 65] 봉명리 유적 근경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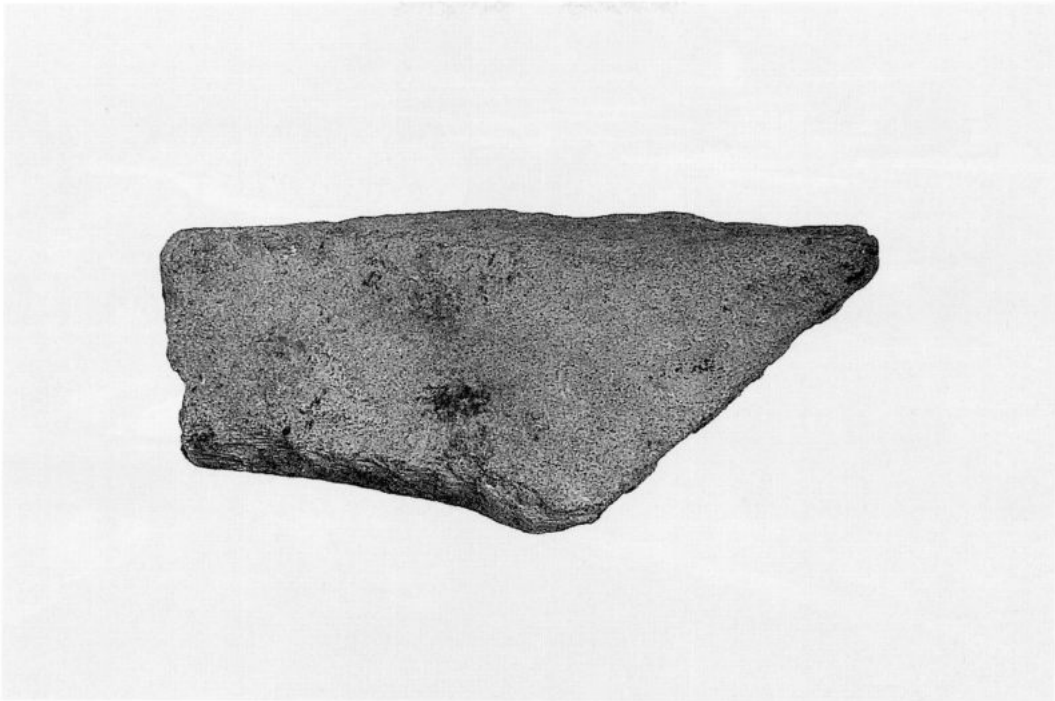


[사진 66] 봉명리 유적 숫돌 채집 상태

[사진 67] 봉명리 유적 내부 추정 토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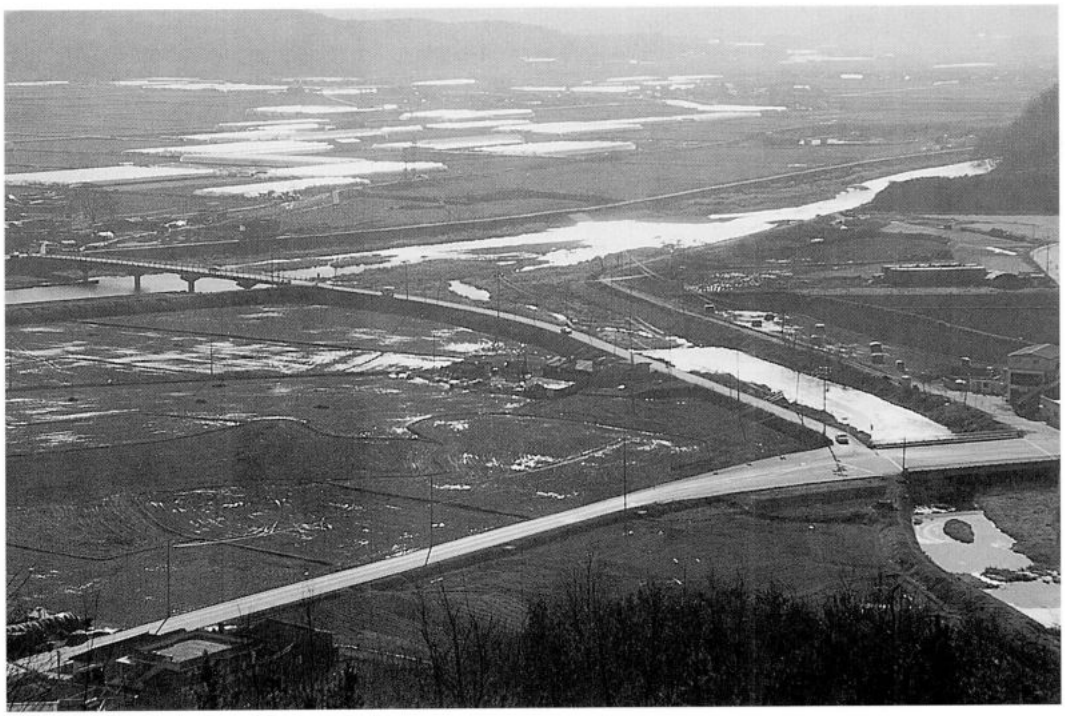


[사진 68] 봉명리 유적 채집 무문토기류 (①~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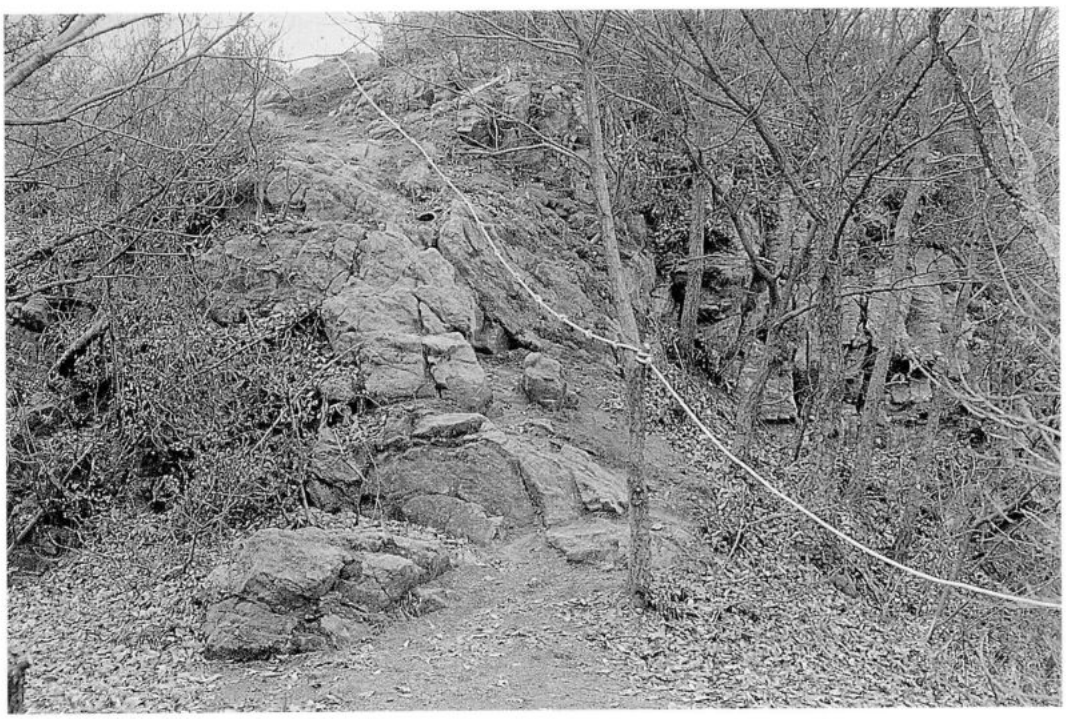


[사진 69] 봉명리 유적 채집 숫돌

[사진 70] 봉무리 남산봉 유적 전경 (서에서)



[사진 71] 봉무리 남산봉 유적에서 진위천을 바라본 모습(완장천이 진위천에 합류되는 지점)



[사진 72] 봉무리 남산봉 유적 북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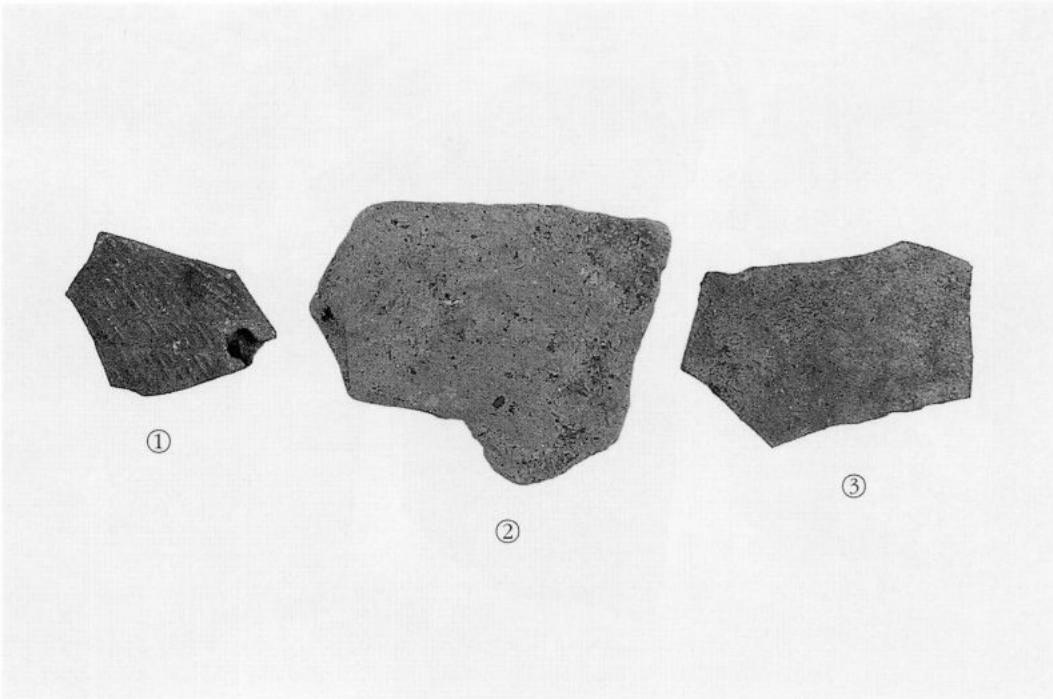
[사진 73] 봉무리 남산봉 유적 남동회절부 모습 (정상부에서)

[사진 74] 봉무리 남산봉 유적 추정 문지 모습 (남에서)

[사진 75] 봉무리 남산봉 유적 정상부 상태 (진입로에서)

[사진 76] 봉무리 남산봉 유적 타날문토기편 수습지역 (정상부에서)

[사진 77] 봉무리 남산봉 유적 타날문토기편 채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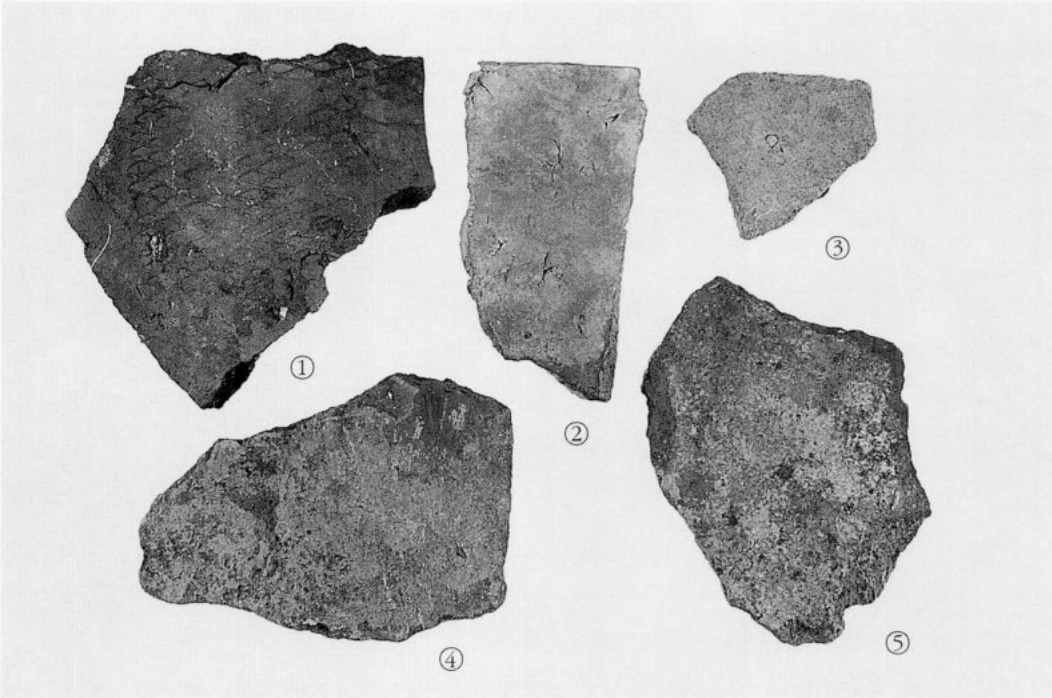
[사진 78] 봉무리 남산봉 유적 채집 토기류 (①~③)

[사진 79] 봉무리 유물산포지 전경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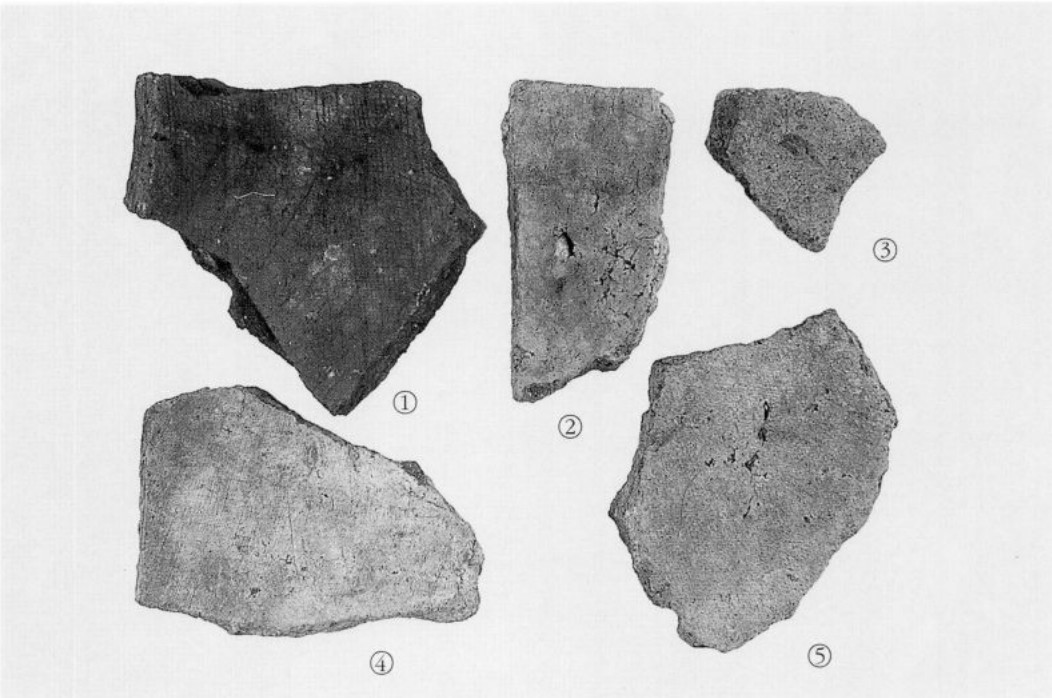
[사진 80] 봉무리 유물산포지 근경 (동에서)

[사진 81] 봉무리 유물산포지 주변 석재 모습

[사진 82] 봉무리 유물산포지 유물 채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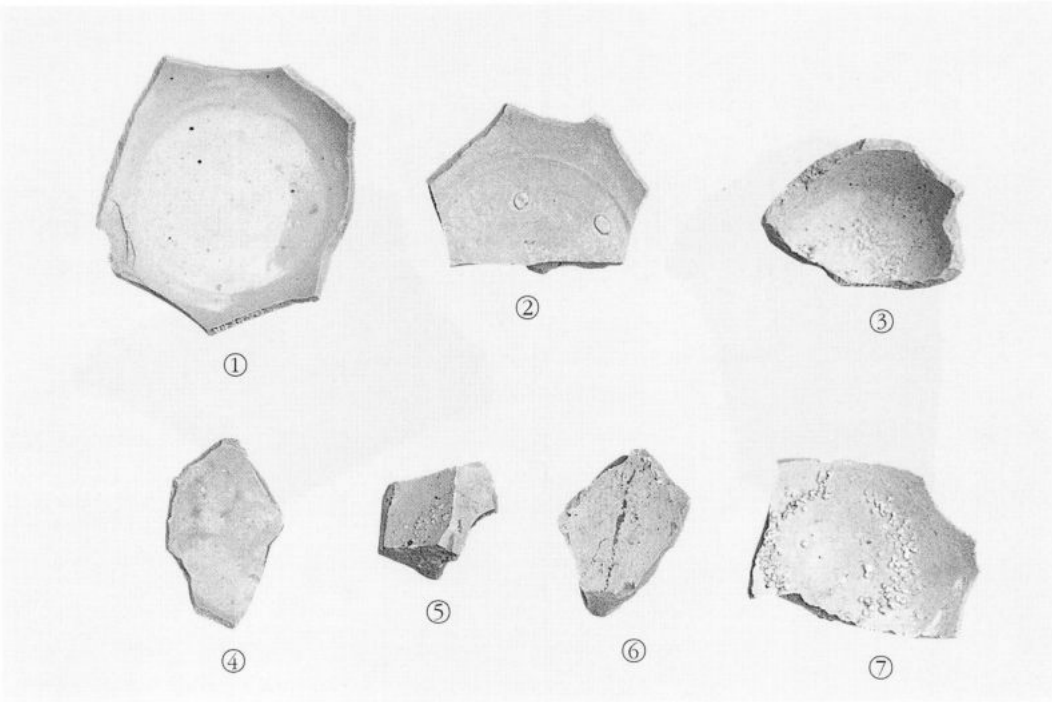


[사진 83]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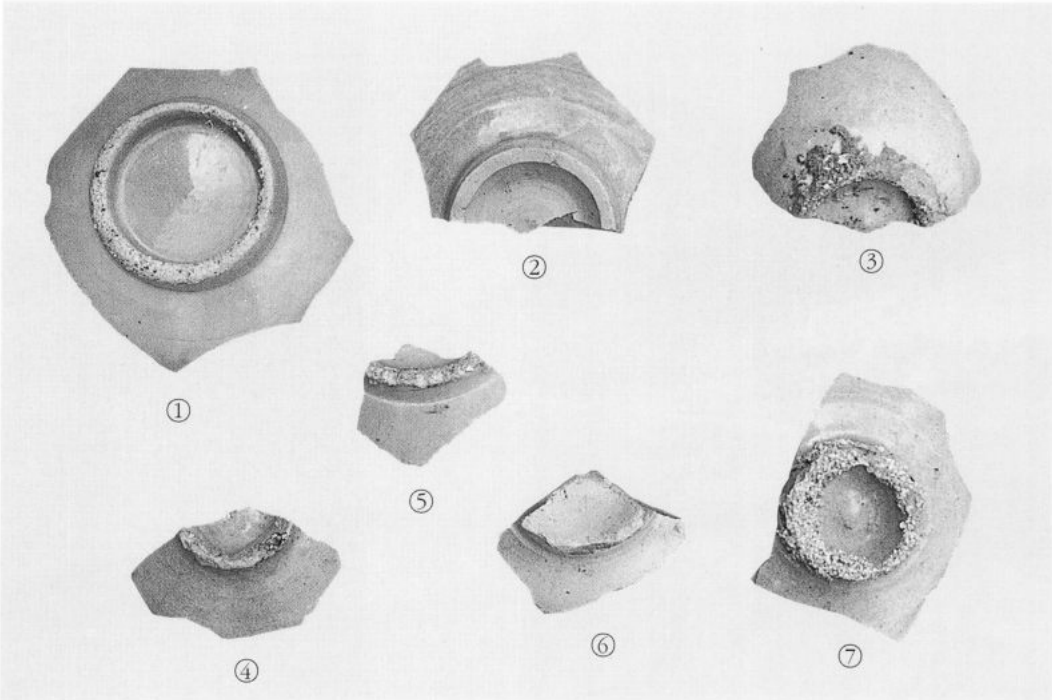


[사진 84] 봉무리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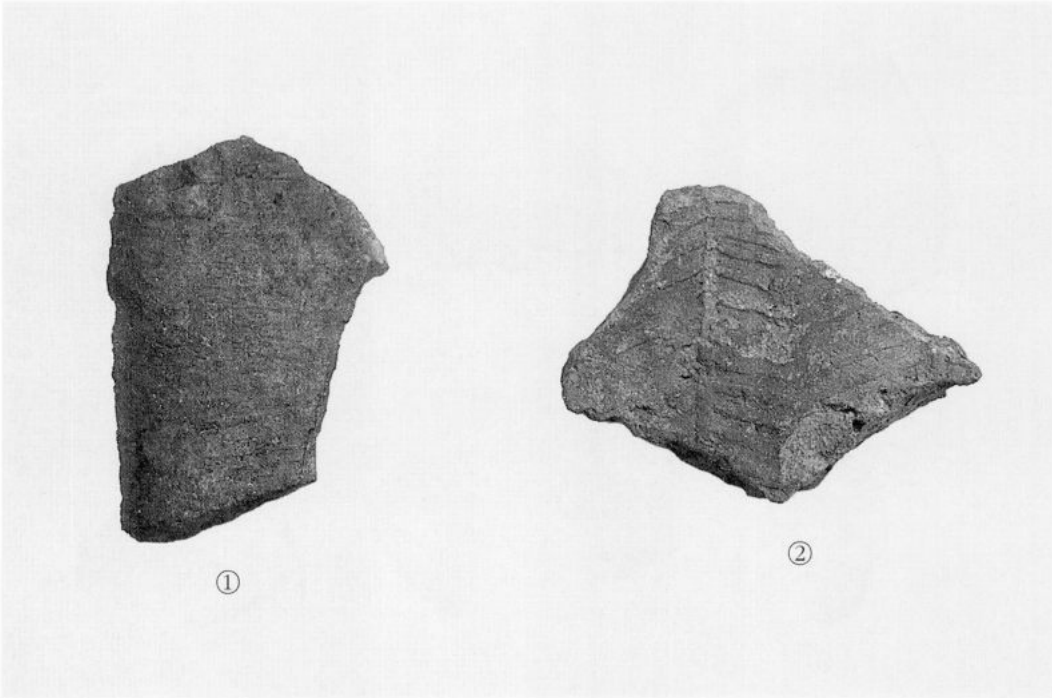
[사진 85]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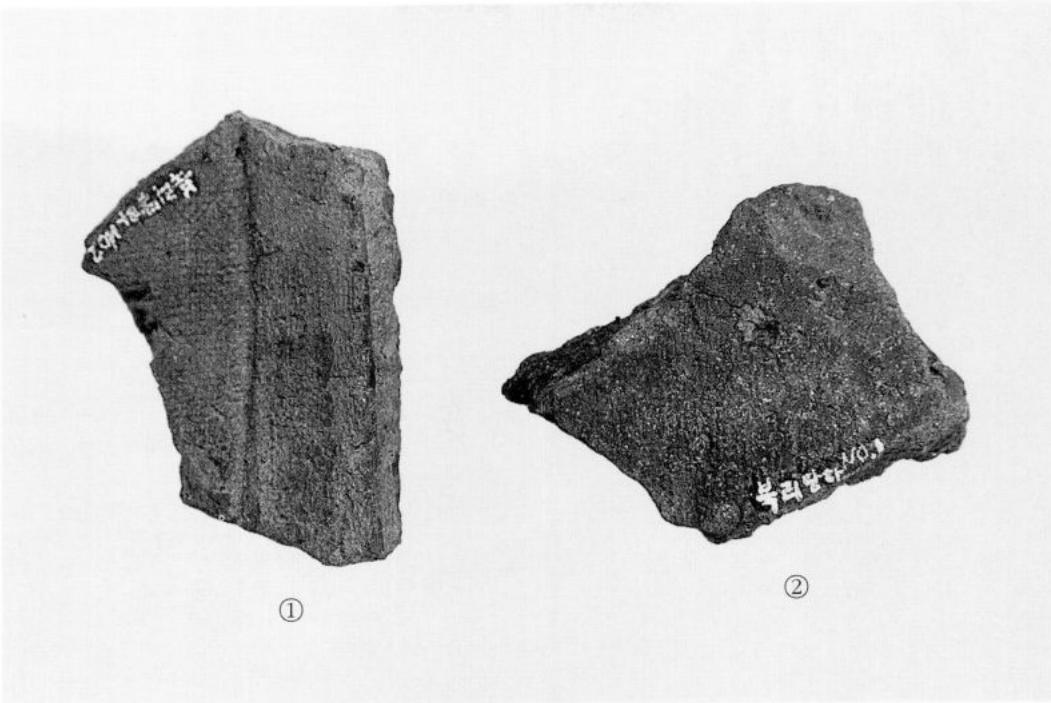
[사진 86]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⑦, 내면)



[사진 87]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①~⑦, 외면)



[사진 88]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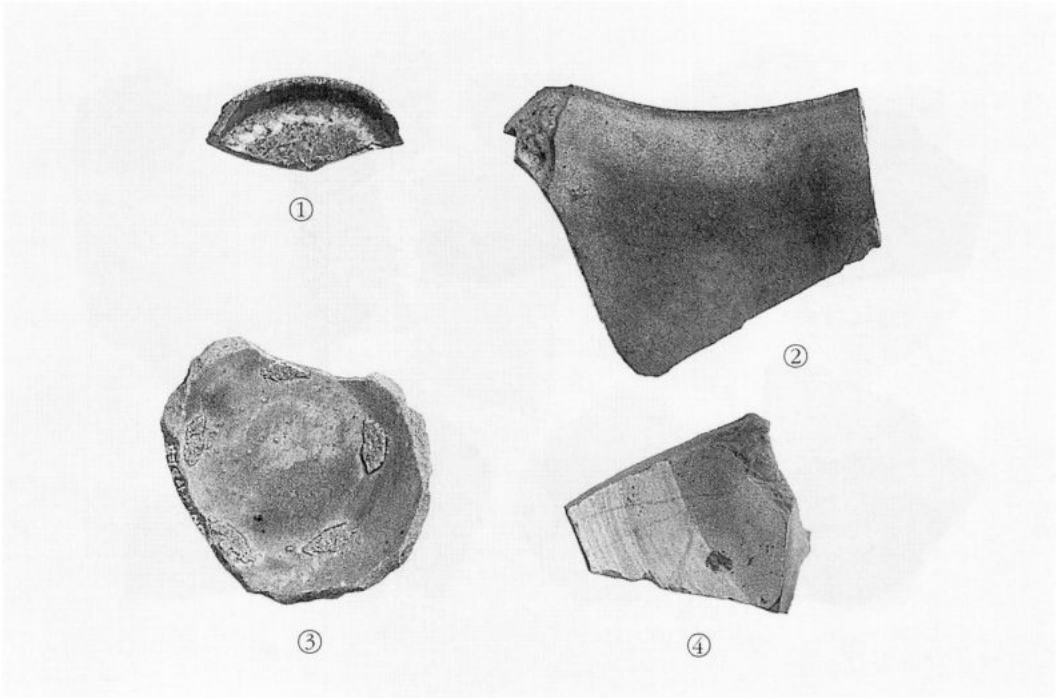
[사진 89] 북리 당하동 A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 · ②, 내면)

[사진 90]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전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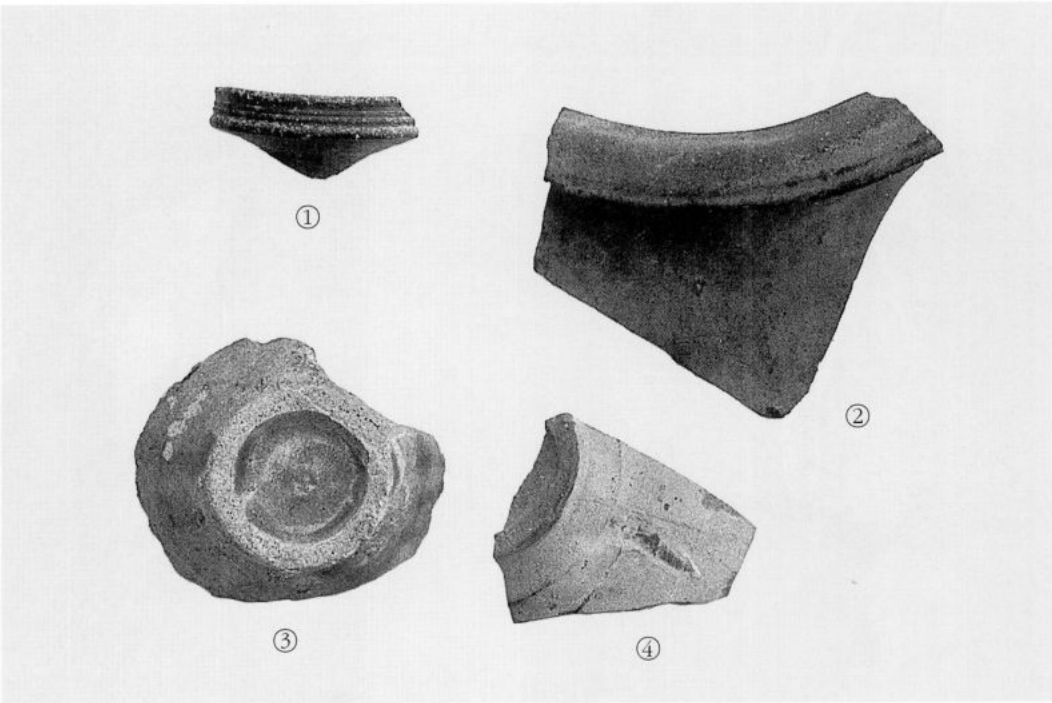
[사진 91]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전경 (북에서)

[사진 92]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근경 (논 옆 도랑 절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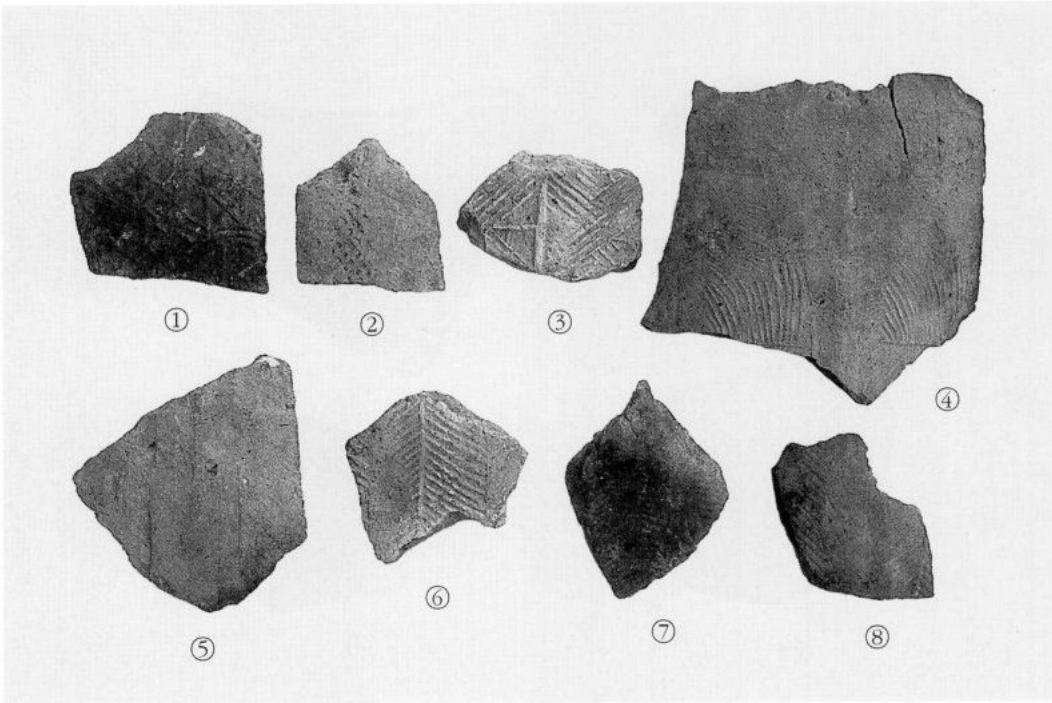
[사진 93]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절개면 기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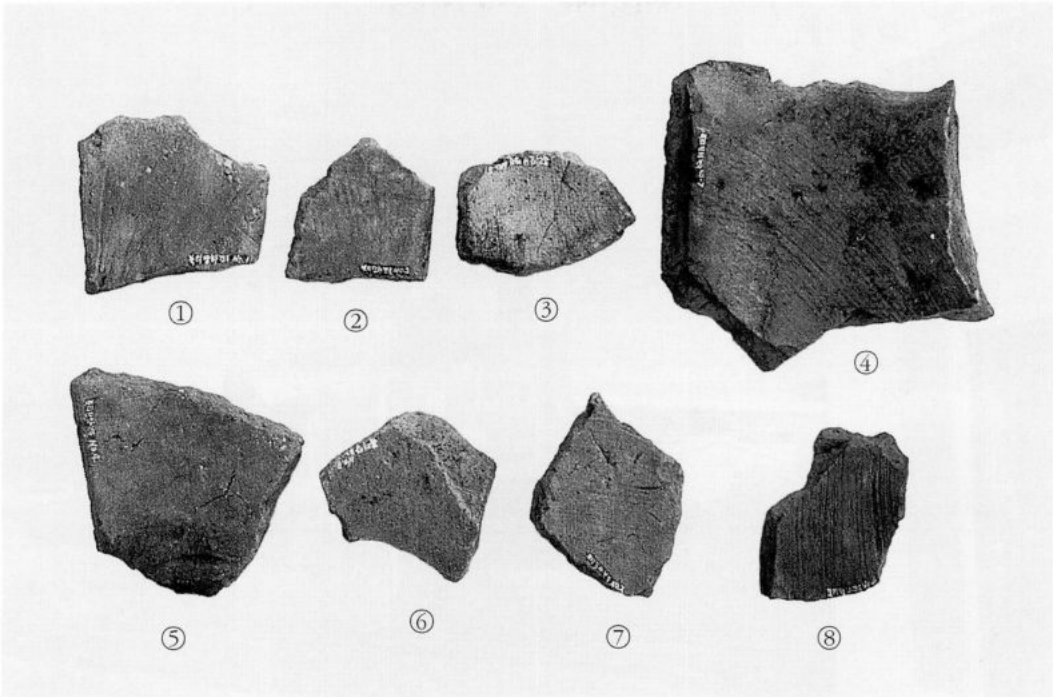
[사진 94]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내면)



[사진 95]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외면)



[사진 96]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⑧ 등면)



[사진 97] 북리 당하동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⑧,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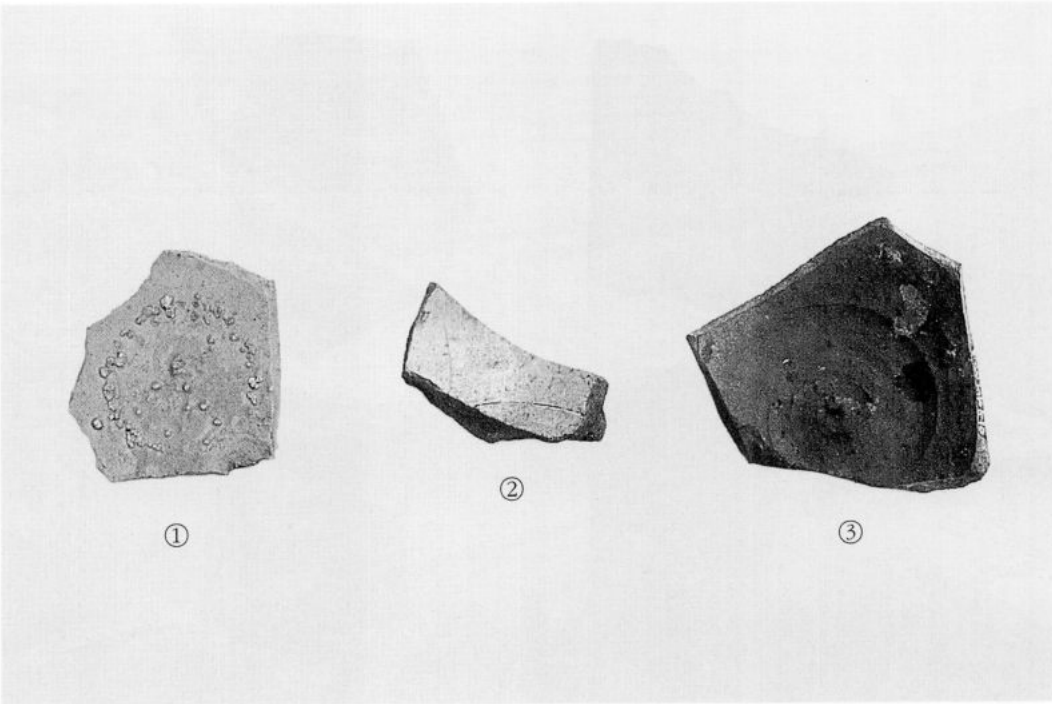
[사진 98] 아곡리 전경

[사진 99] 아곡리 전 처인현지 (초기 남사면 주재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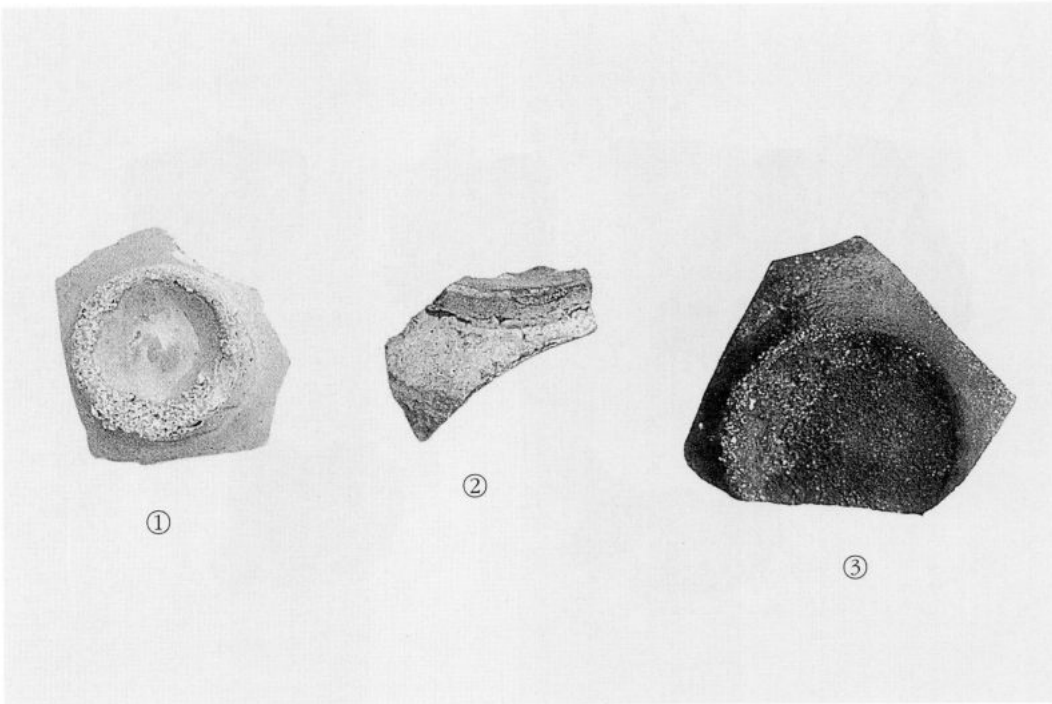
[사진 100] 아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이창섭씨 댁 뒷담 주변)

[사진 101] 아곡리 유물산포지 근경 (소토 발견지)

[사진 102]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소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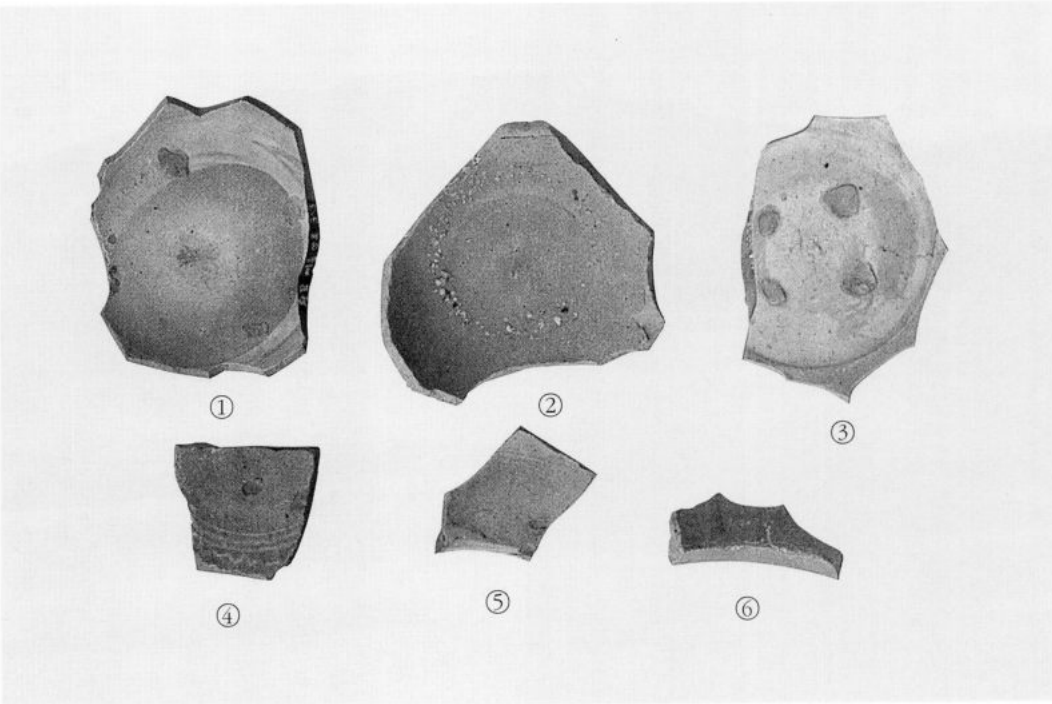
[사진 103]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③,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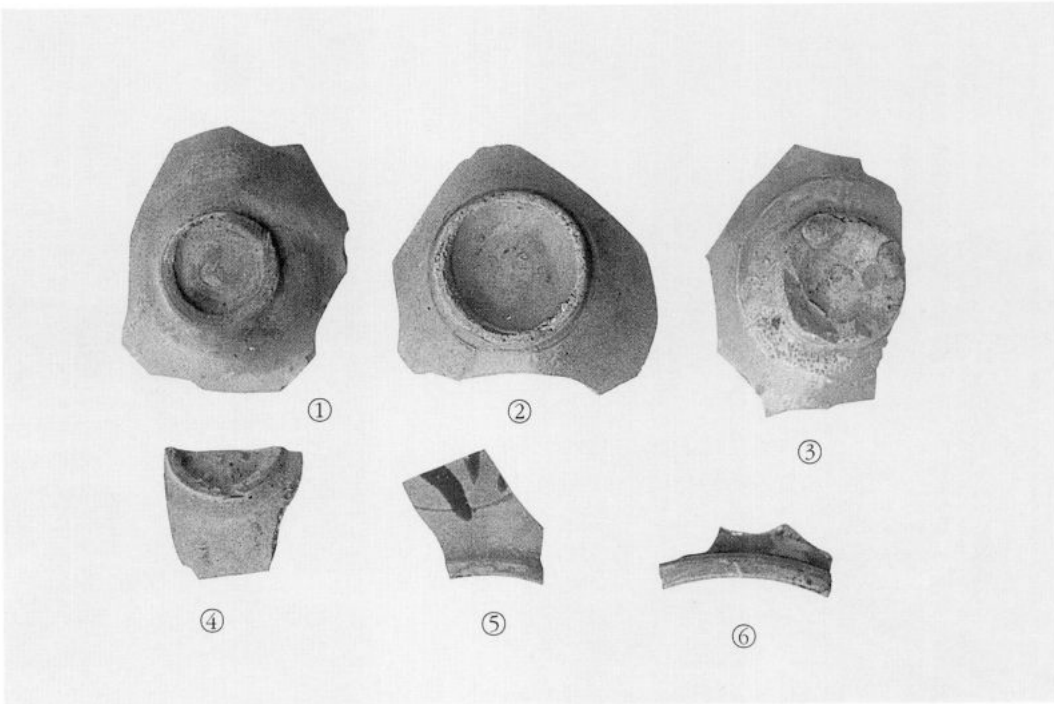
[사진 104] 아곡리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③, 외면)

[사진 105]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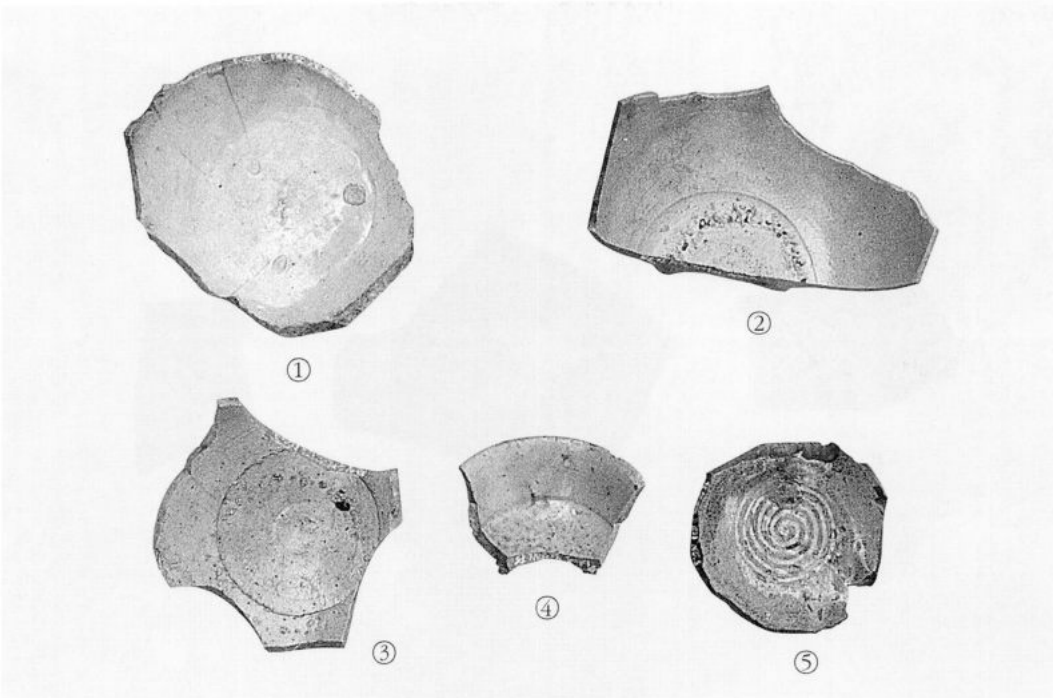
[사진 106]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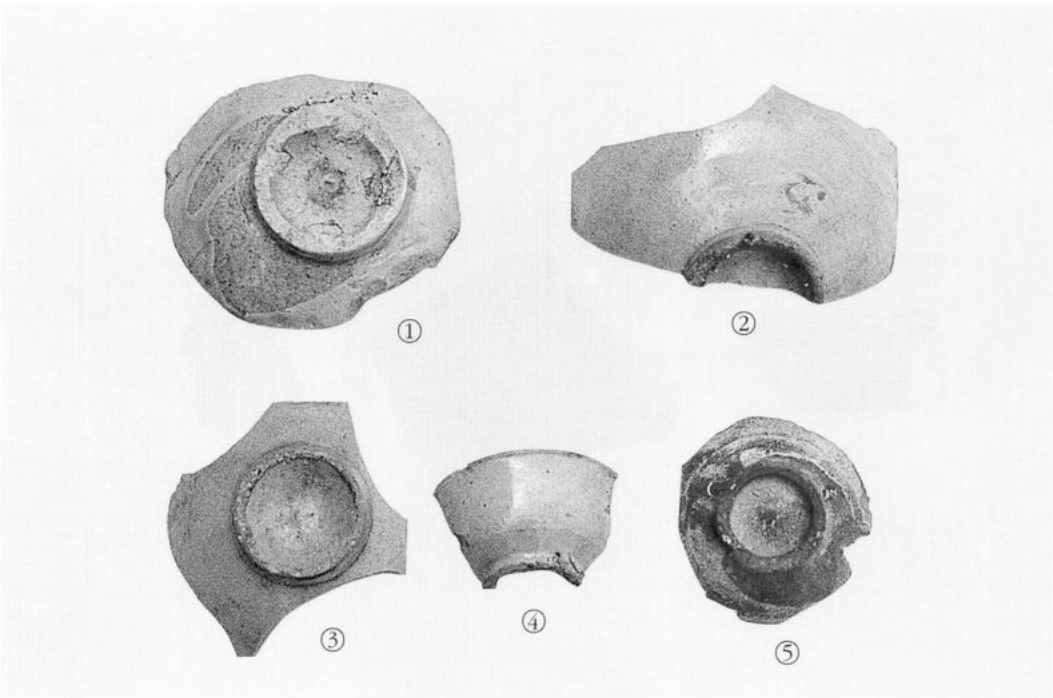
[사진 107]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1 (①~⑥,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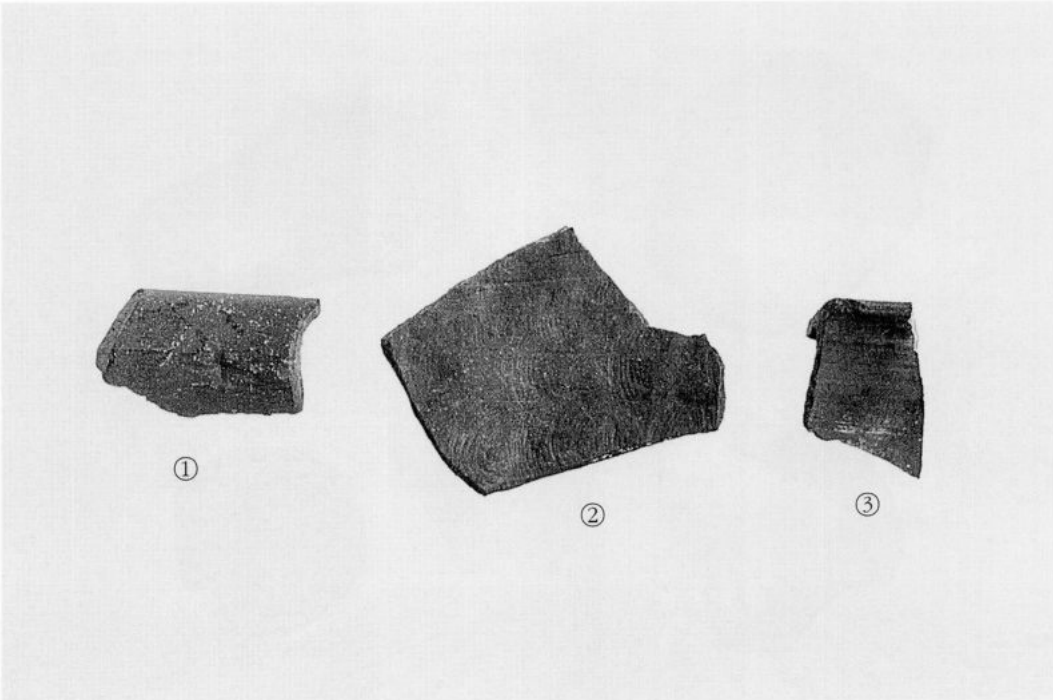
[사진 108]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1 (①~⑥,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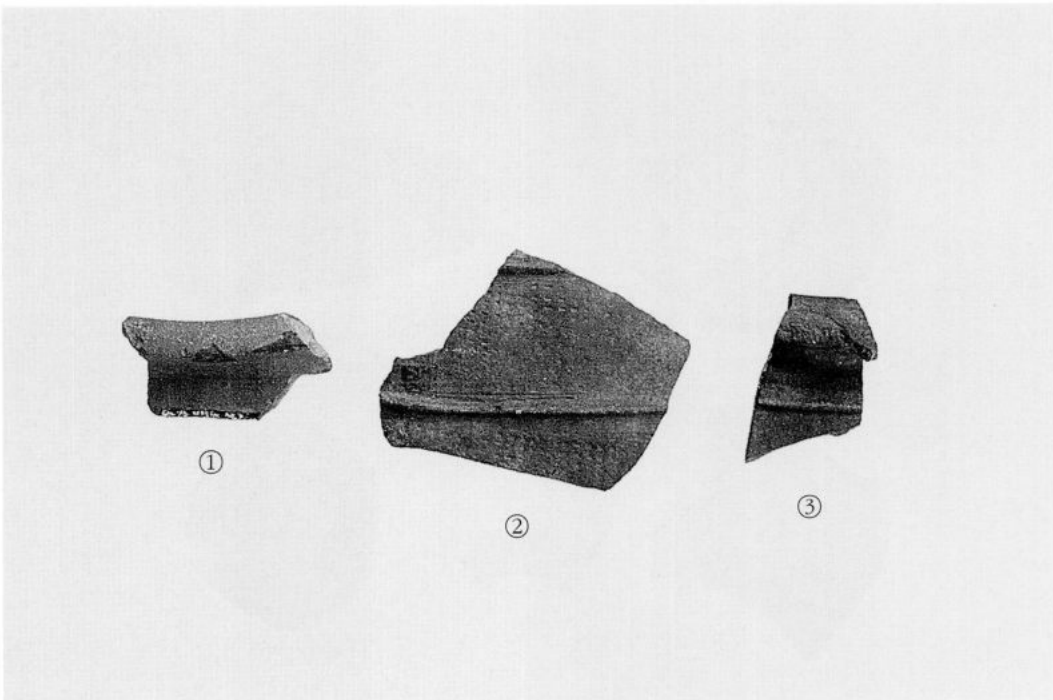
[사진 109]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내면)



[사진 110]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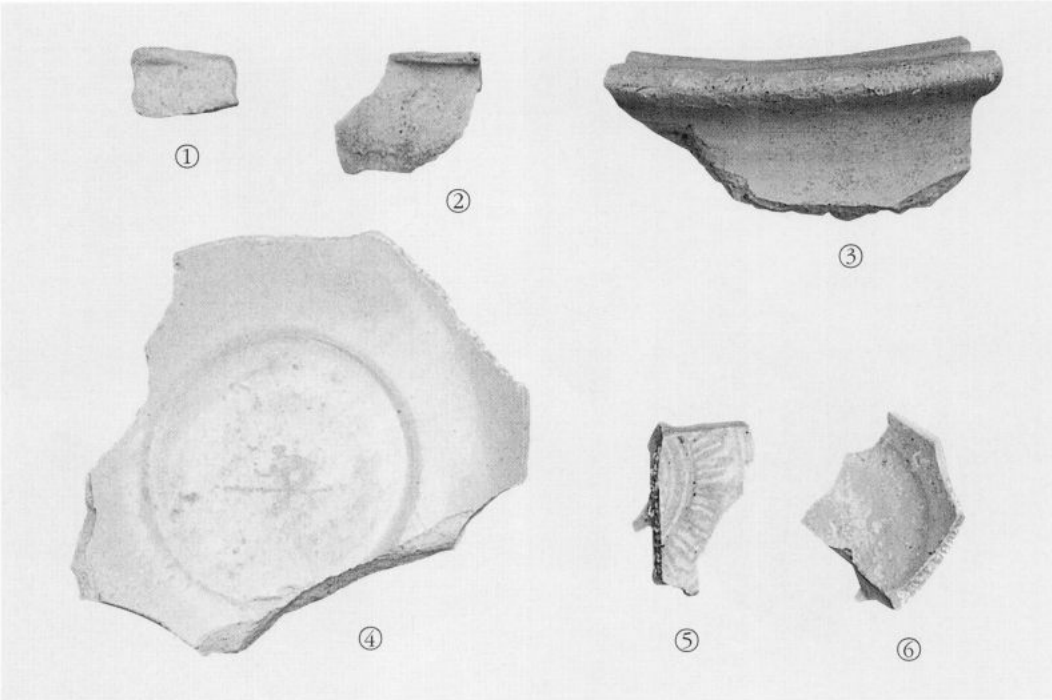
[사진 111]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③,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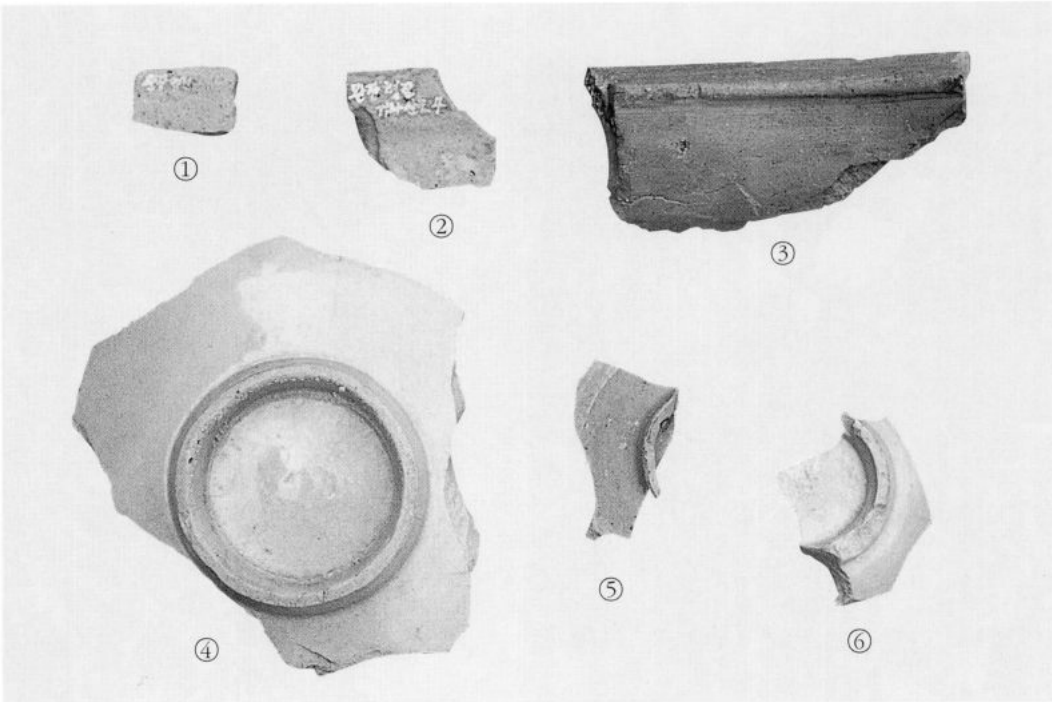
[사진 112] 완장리 A 유물산포지 채집 토기류 (①~③, 외면)

[사진 113]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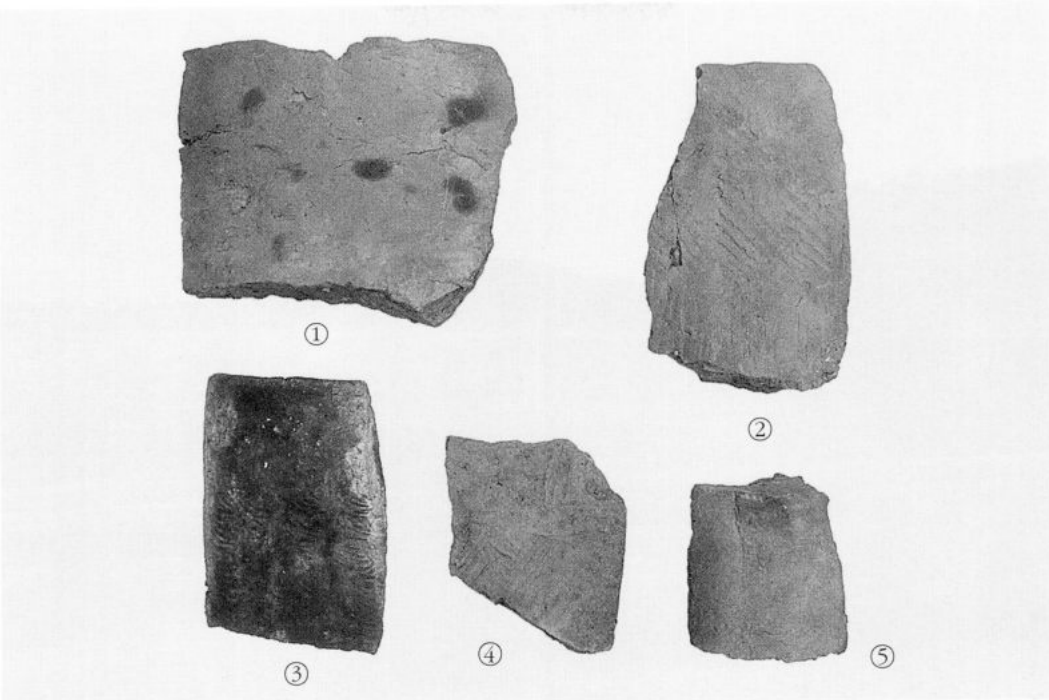
[사진 114]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유물 산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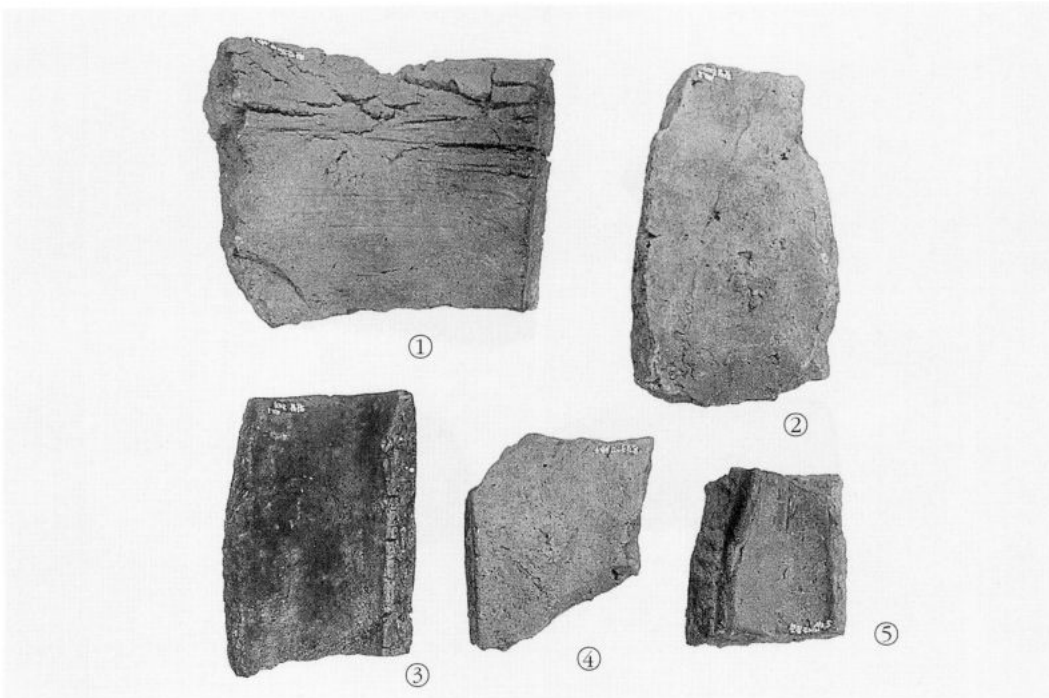
[사진 115]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⑥, 내면)



[사진 116]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⑥,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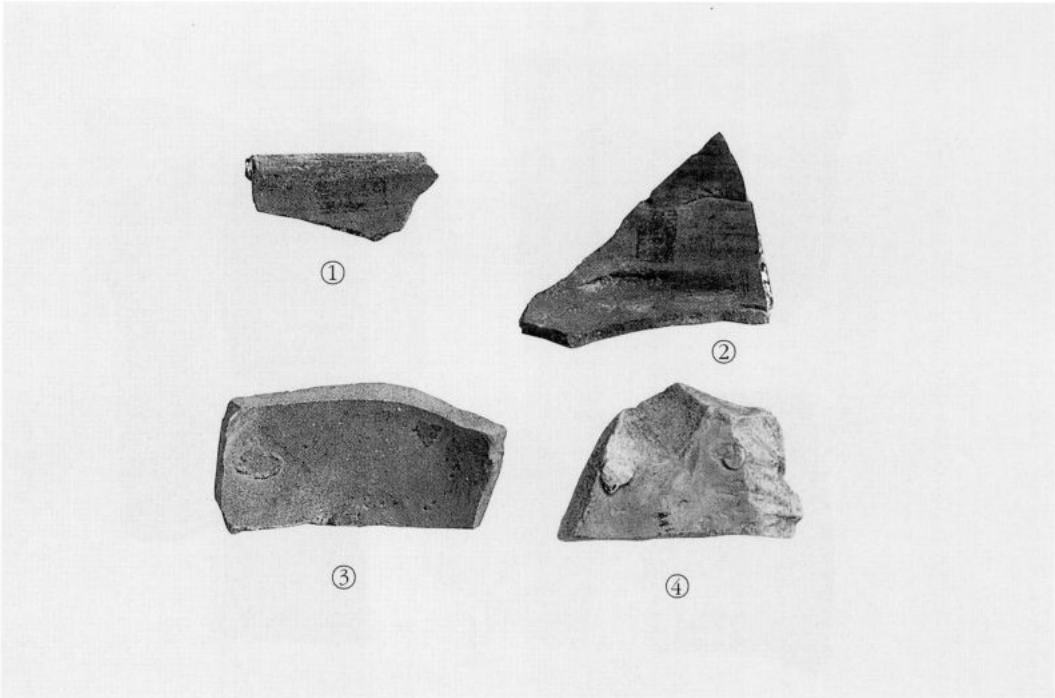


[사진 117]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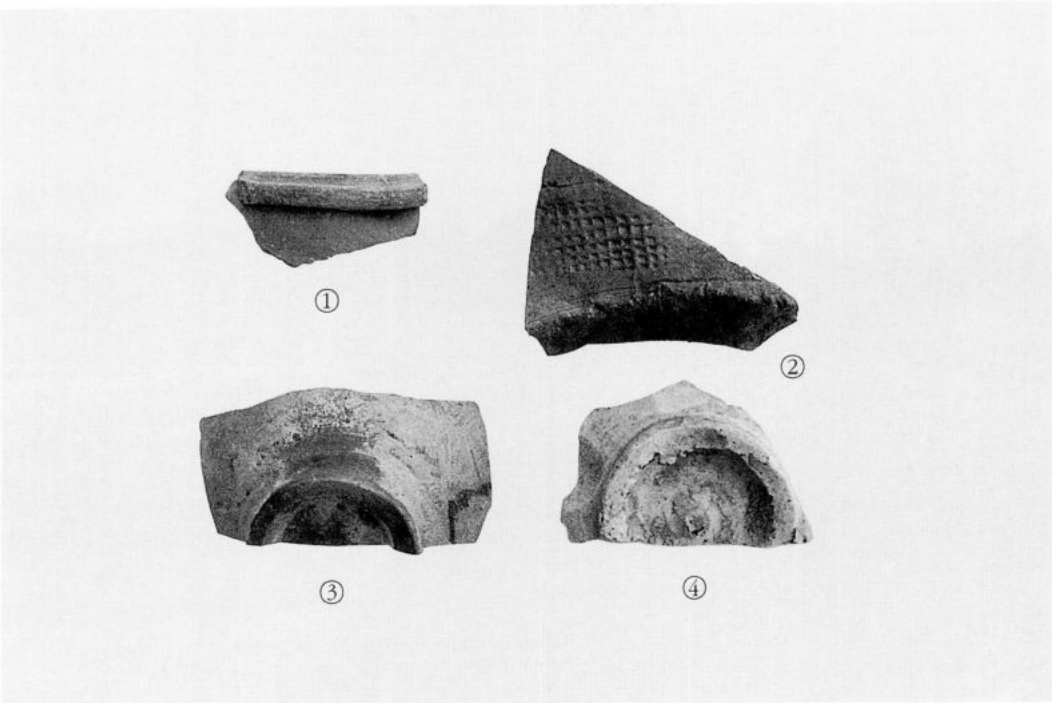


[사진 118] 완장리 B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⑤,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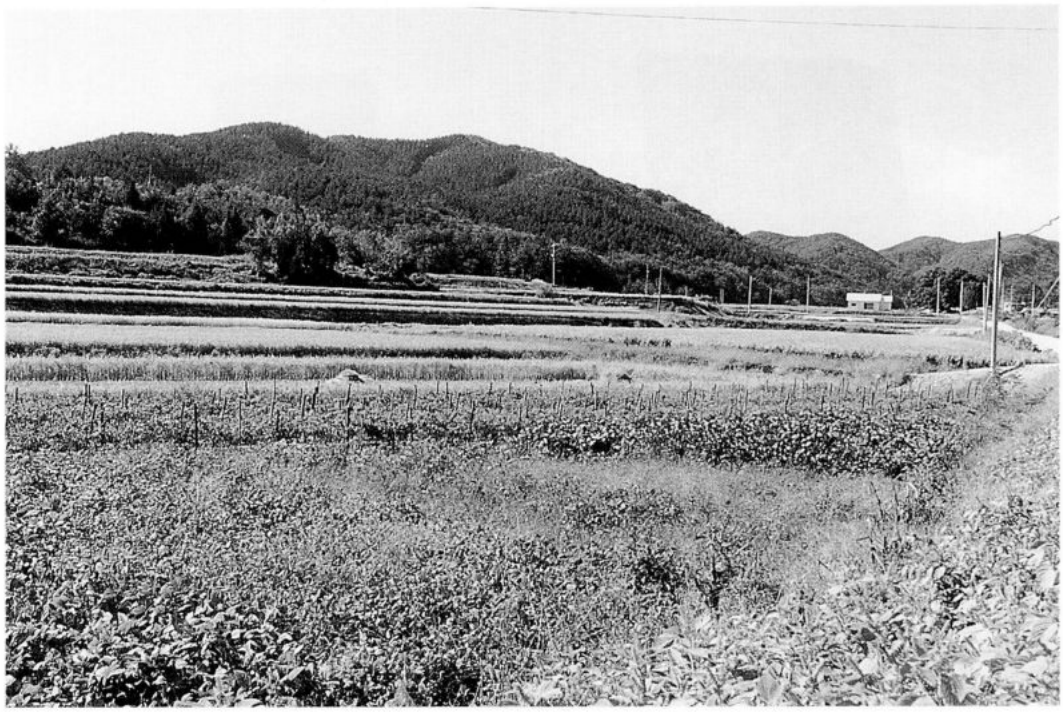
[사진 119]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20]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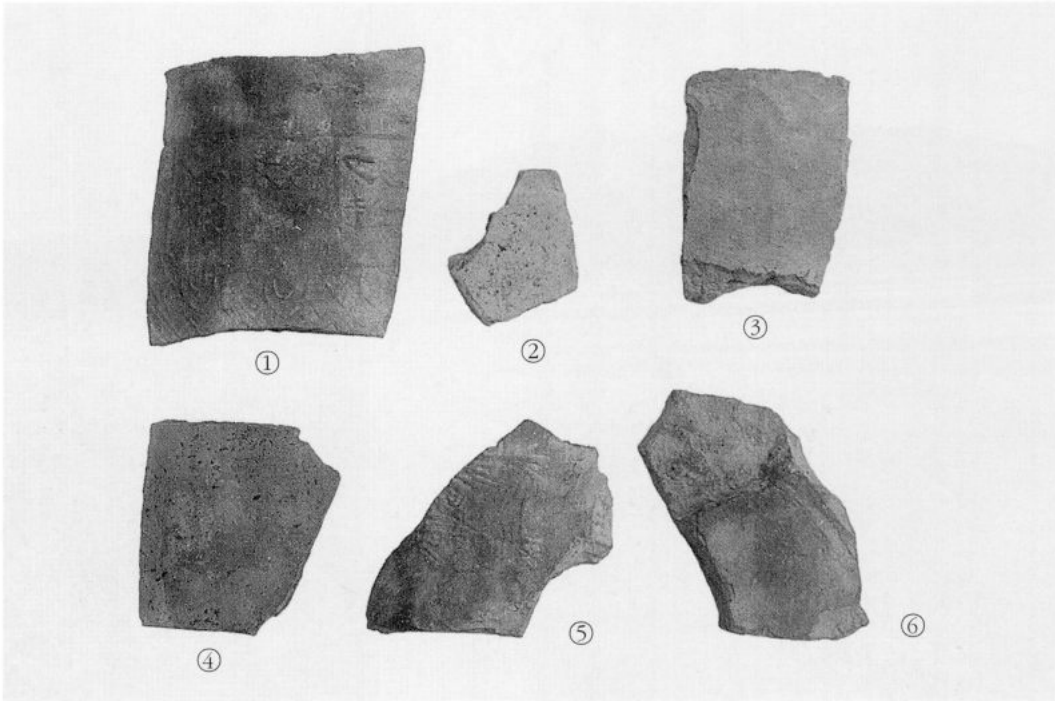


[사진 121] 완장리 C 유물산포지 채집 도자류 (①~④,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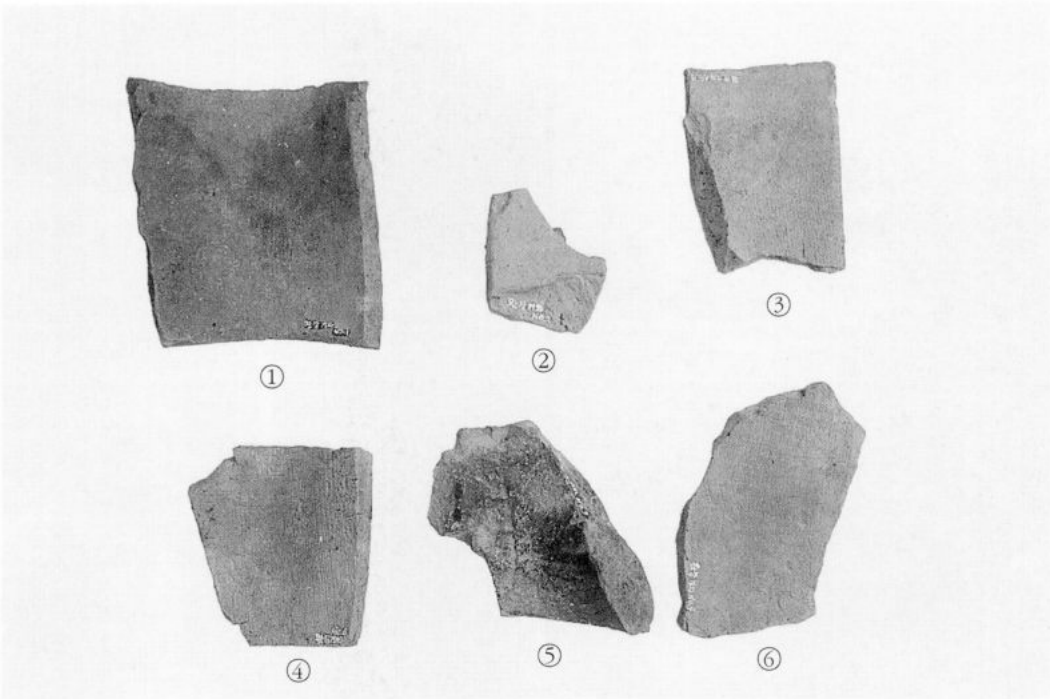


[사진 122]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전경 (기와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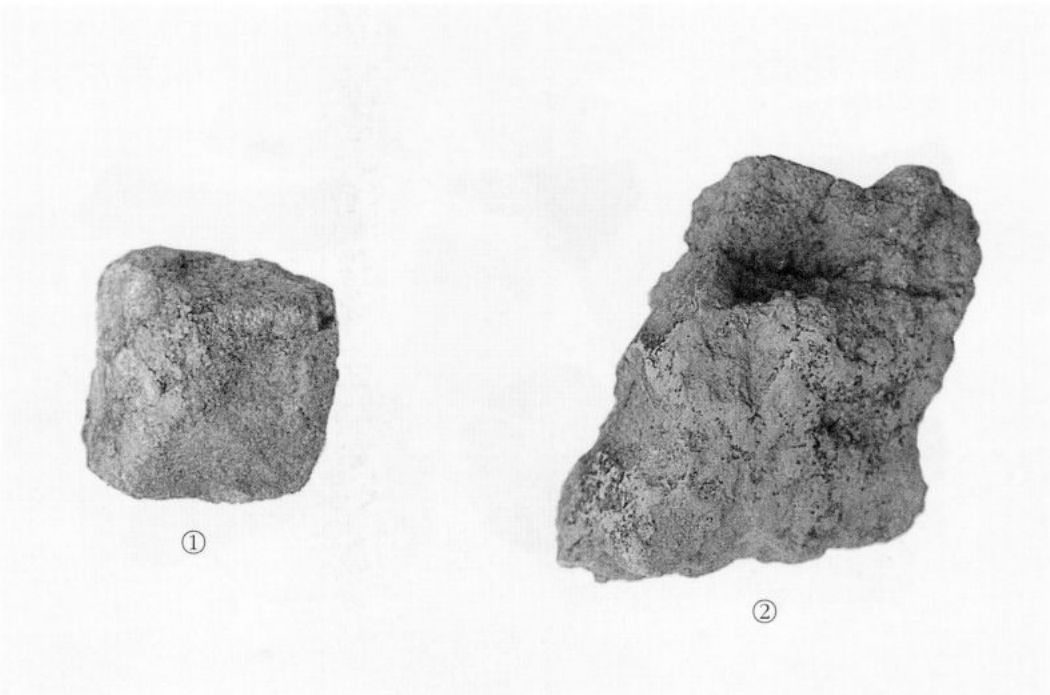
[사진 123] 완장리 D 유물산포지 근경



[사진 124]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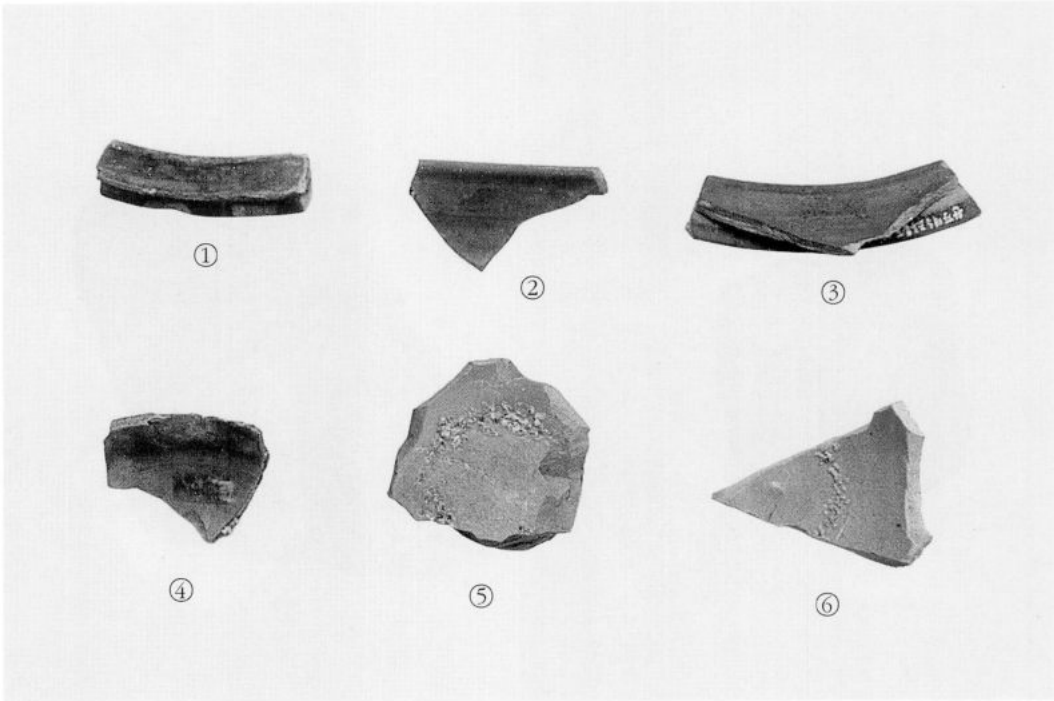


[사진 125]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기와류 (①~⑥,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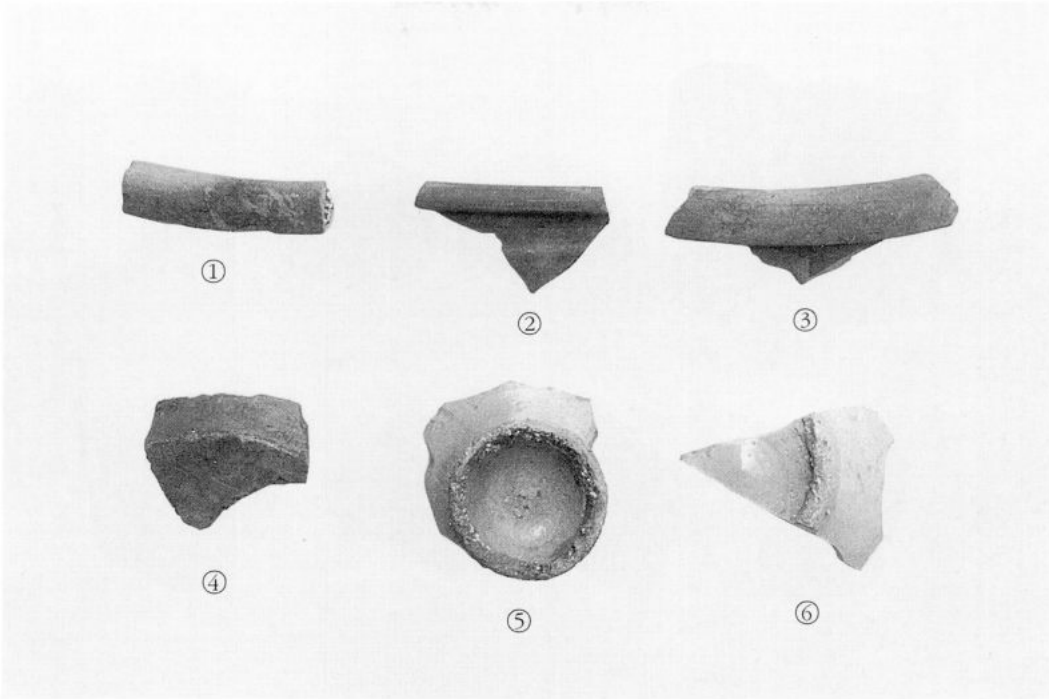


[사진 126] 완장리 D 유물산포지 채집 와제품 및 소석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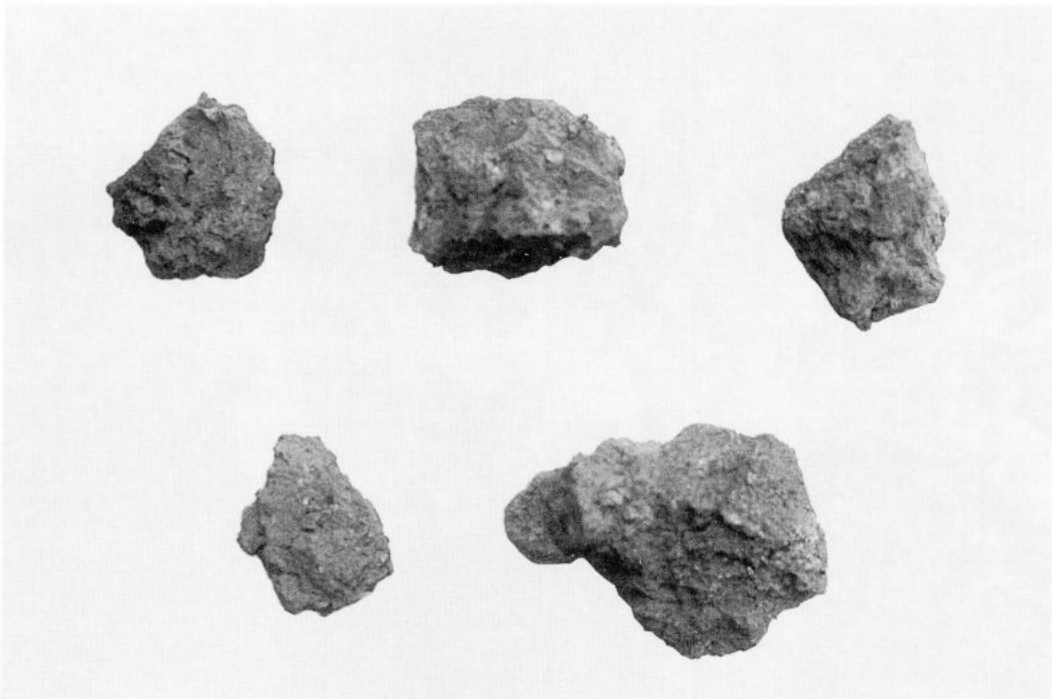
[사진 127]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전경



[사진 128]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도자류 (①~⑥,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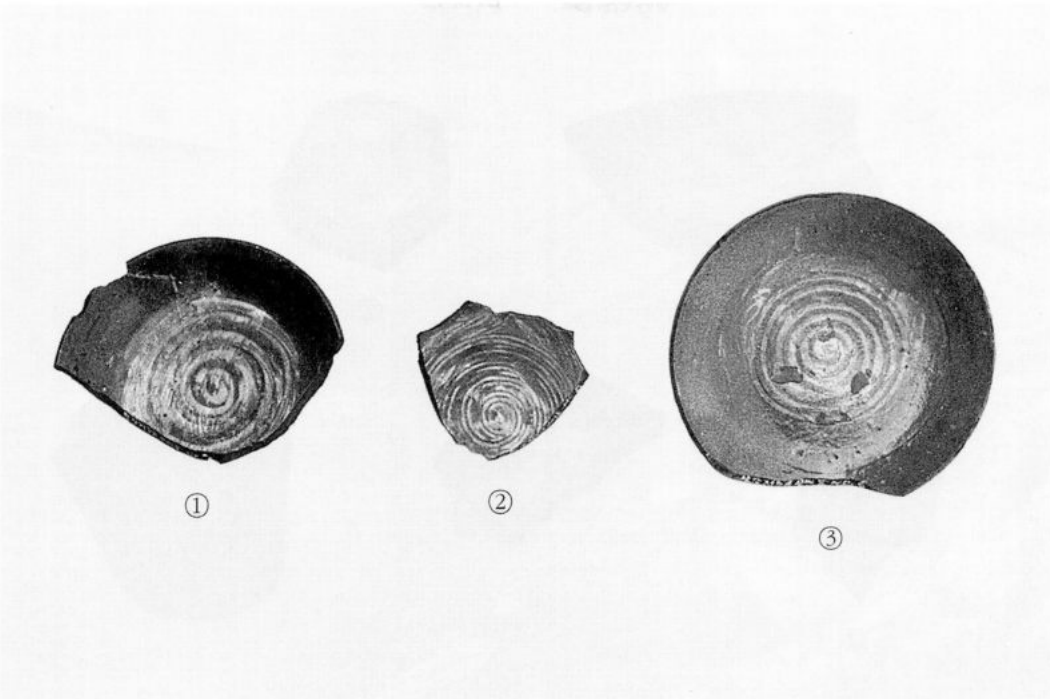
[사진 129]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도자류 (①~⑥,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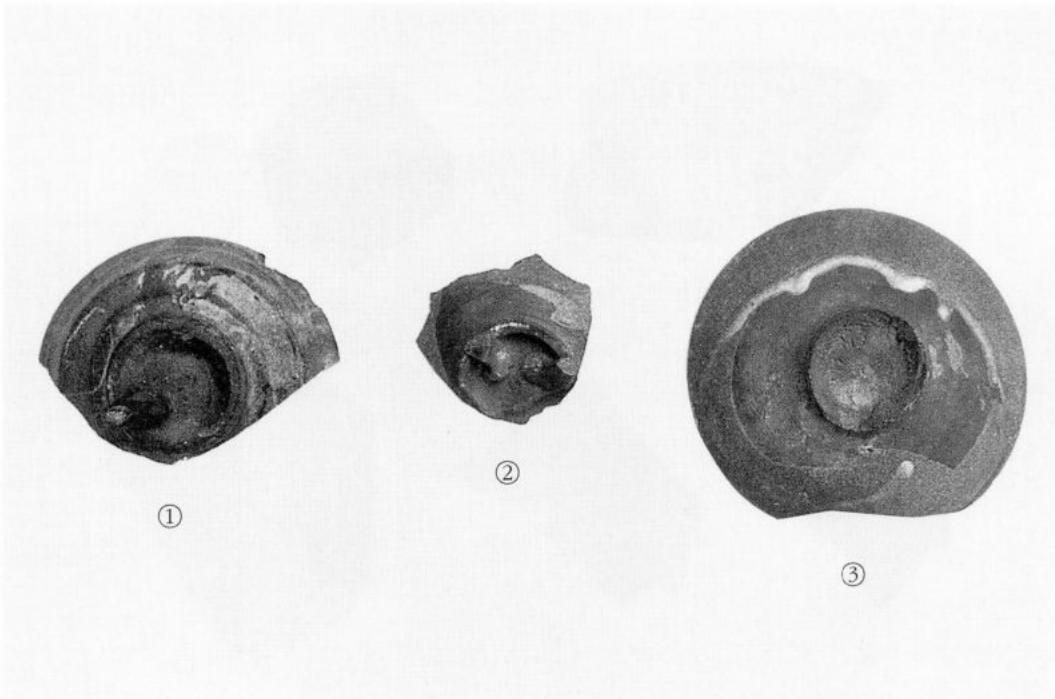
[사진 130] 완장리 매릉동 도기요지 채집 요벽류

[사진 131]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전경 (옹기요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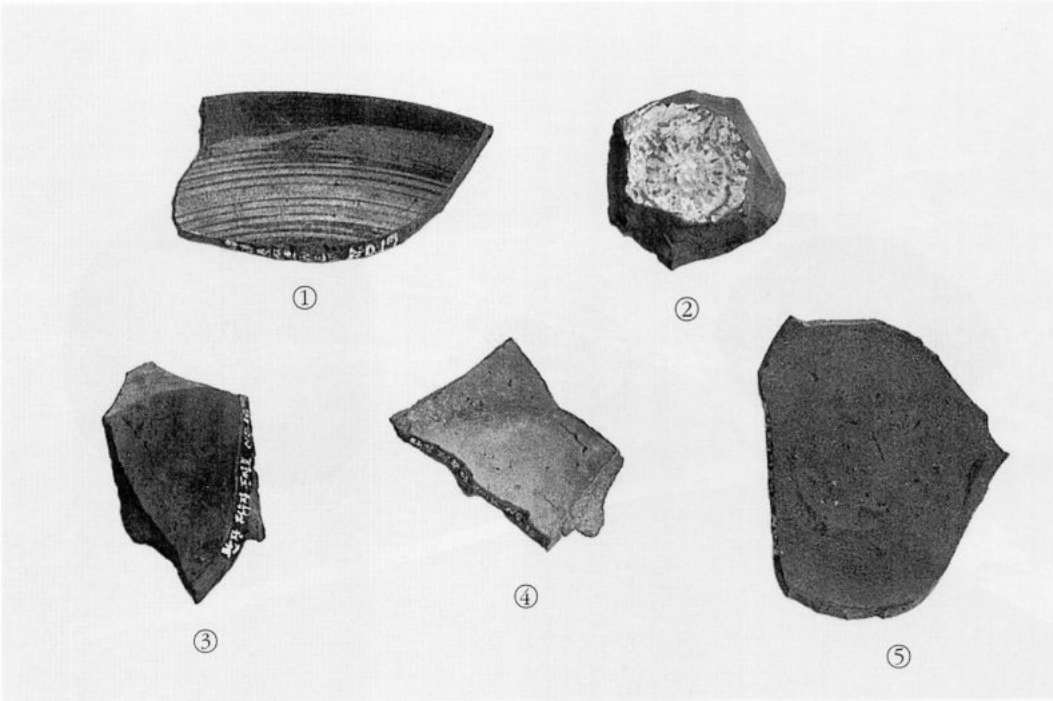
[사진 132]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유물 채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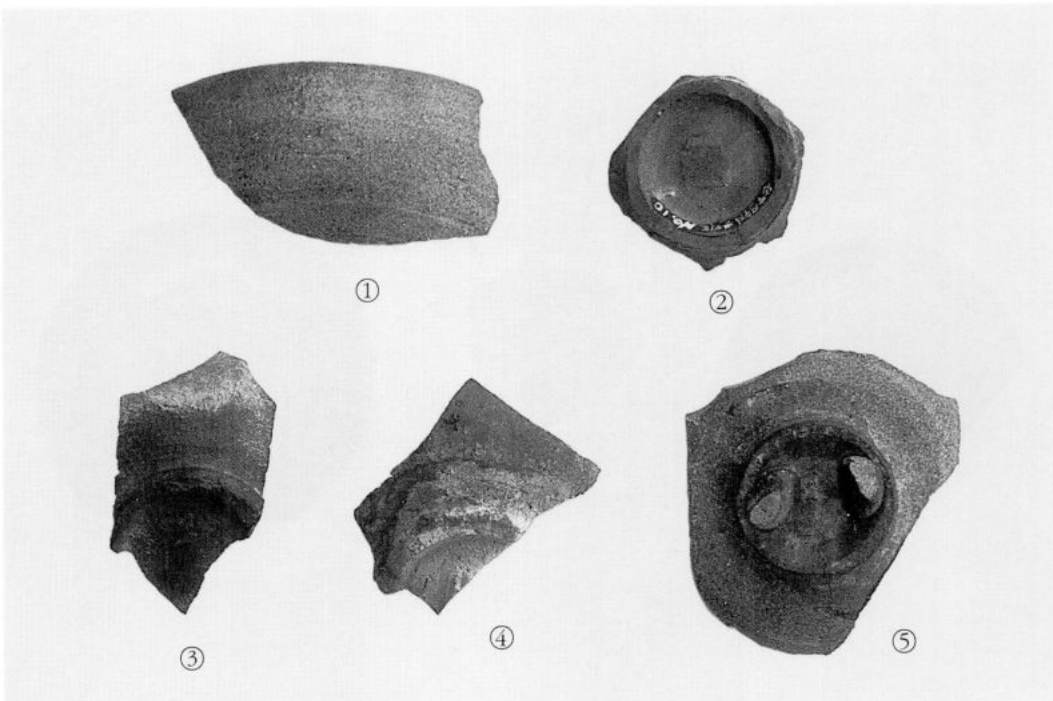
[사진 133]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③,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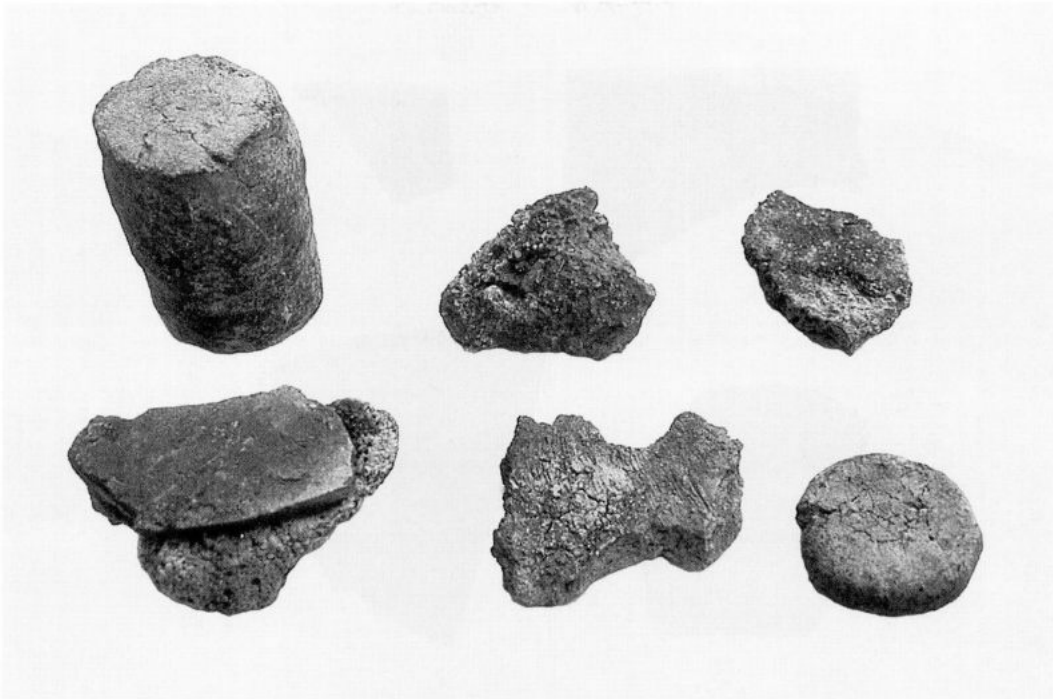
[사진 134]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③,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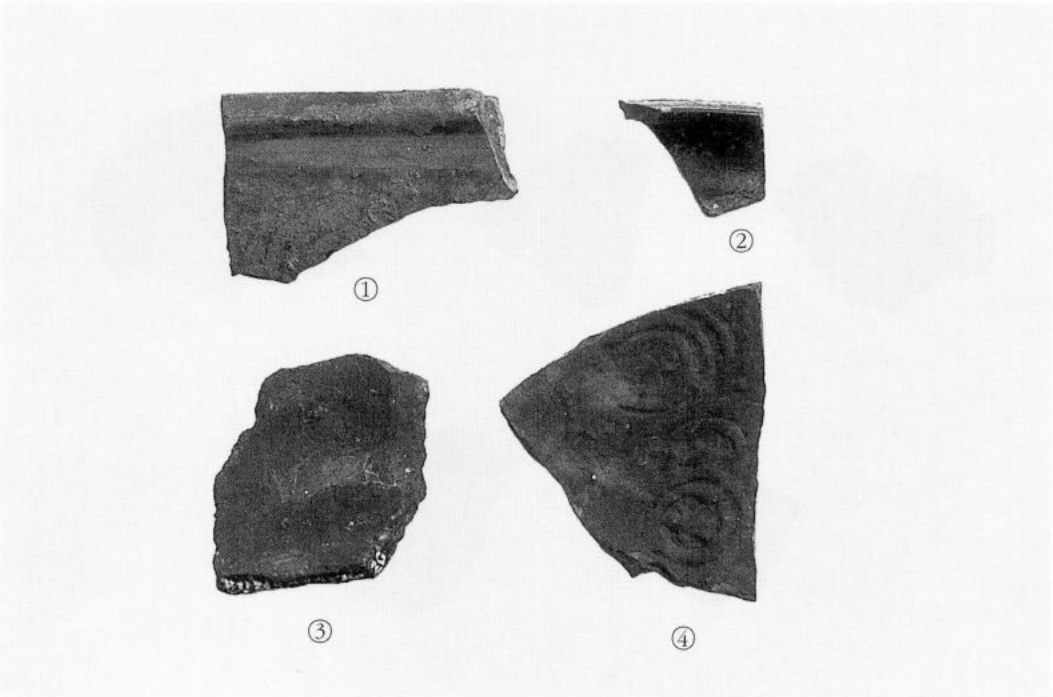
[사진 135]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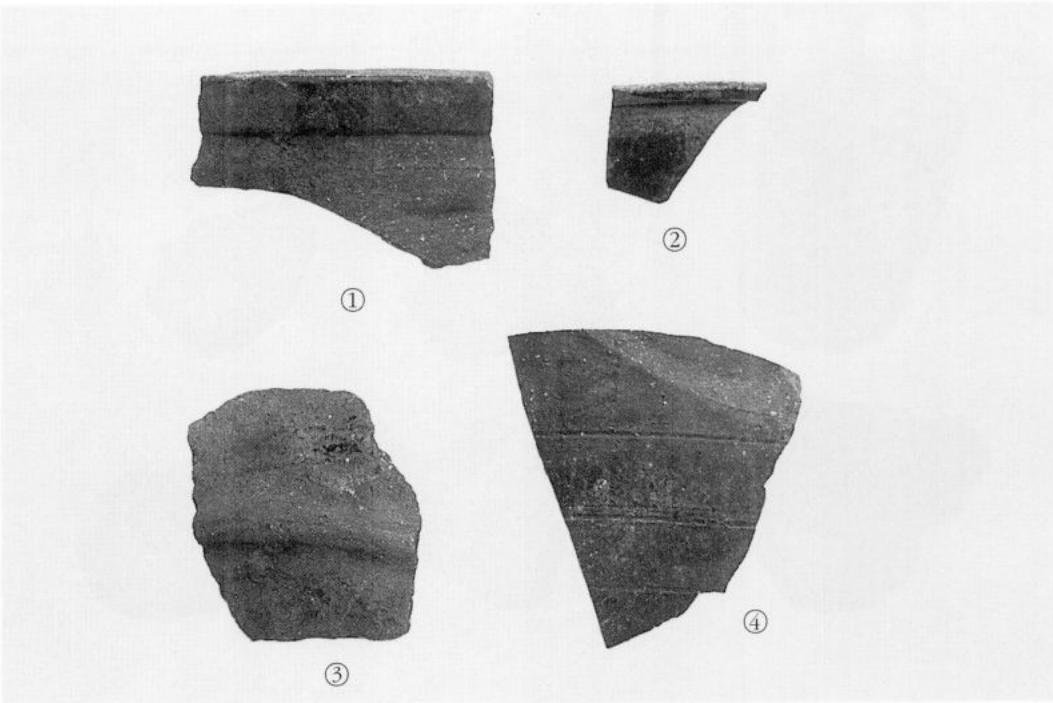
[사진 136]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⑤,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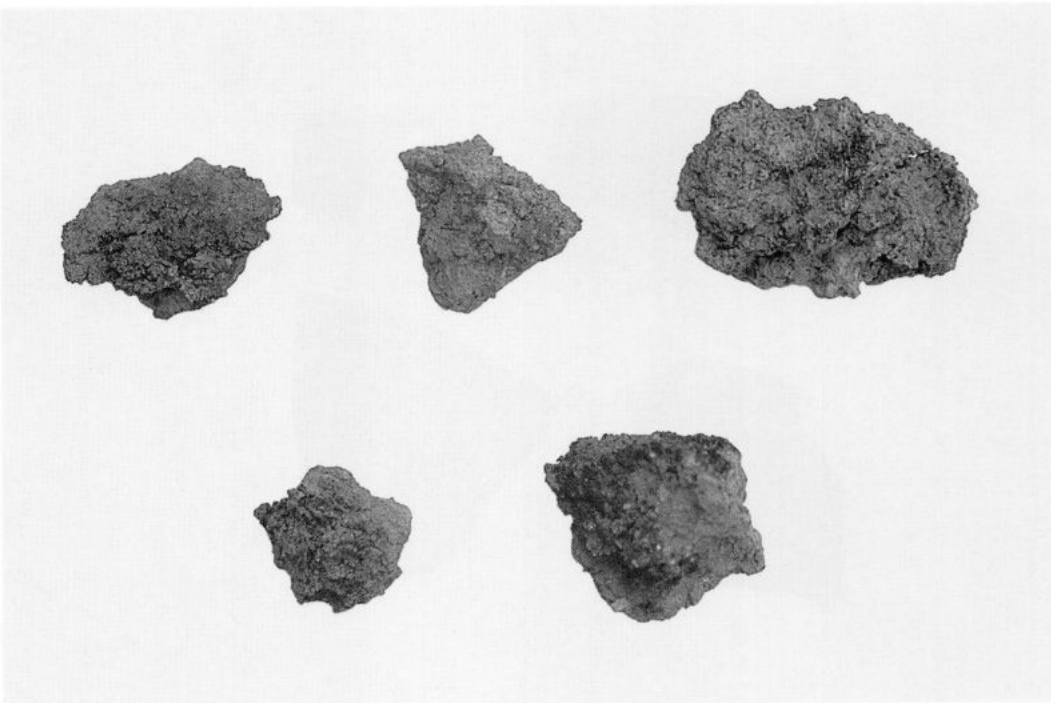
[사진 137] 완장리 중동 분청사기요지 채집 요벽 및 요 도구



[사진 138]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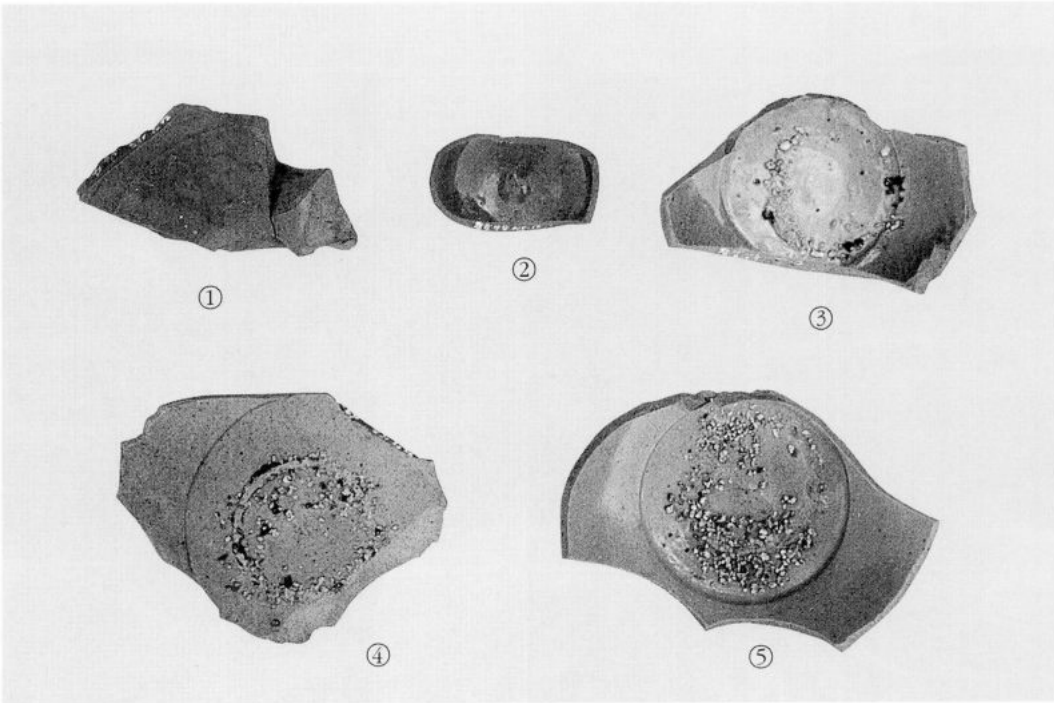
[사진 139]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토기류 (①~④,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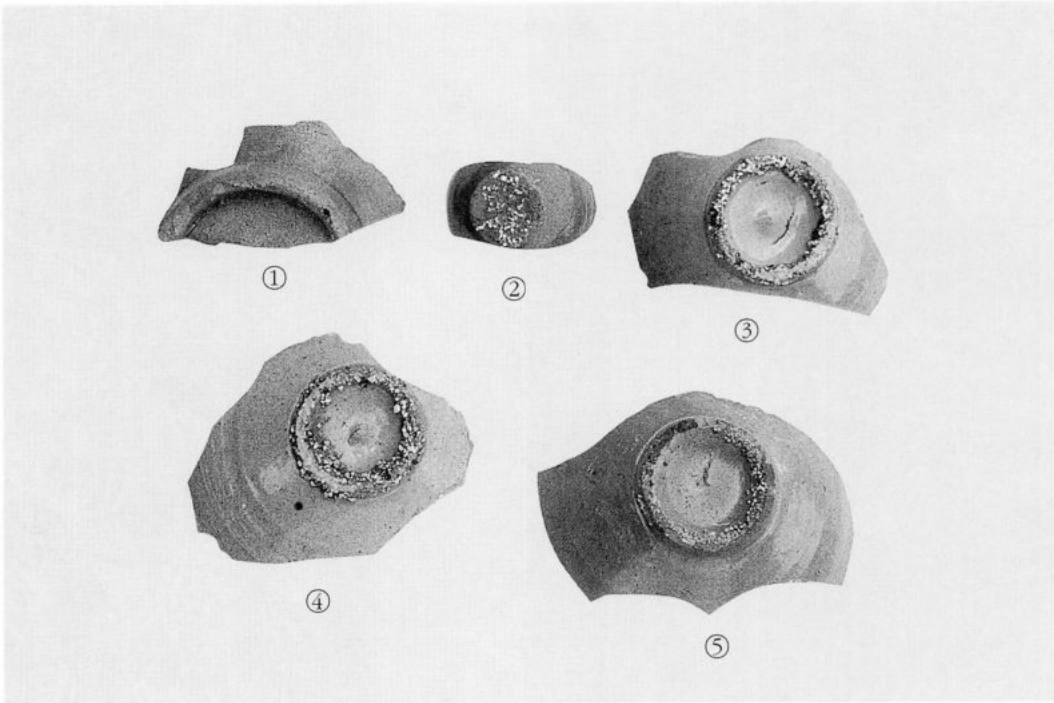
[사진 140] 완장리 중동 옹기요지 채집 요벽류

[사진 141]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전경

[사진 142]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유물 채집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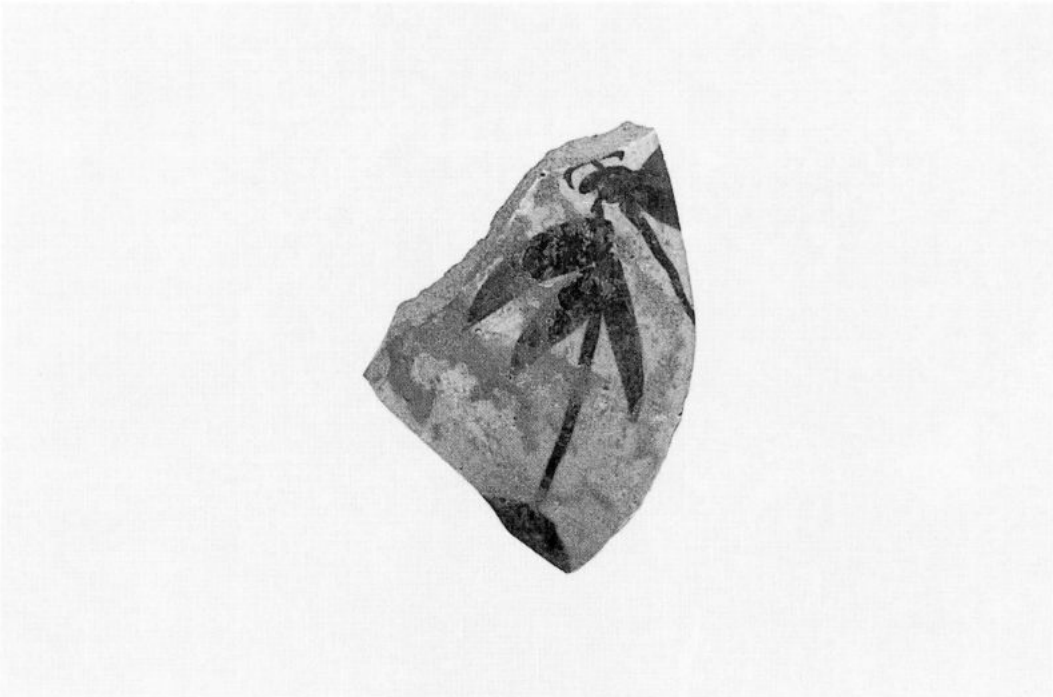


[사진 143]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⑤,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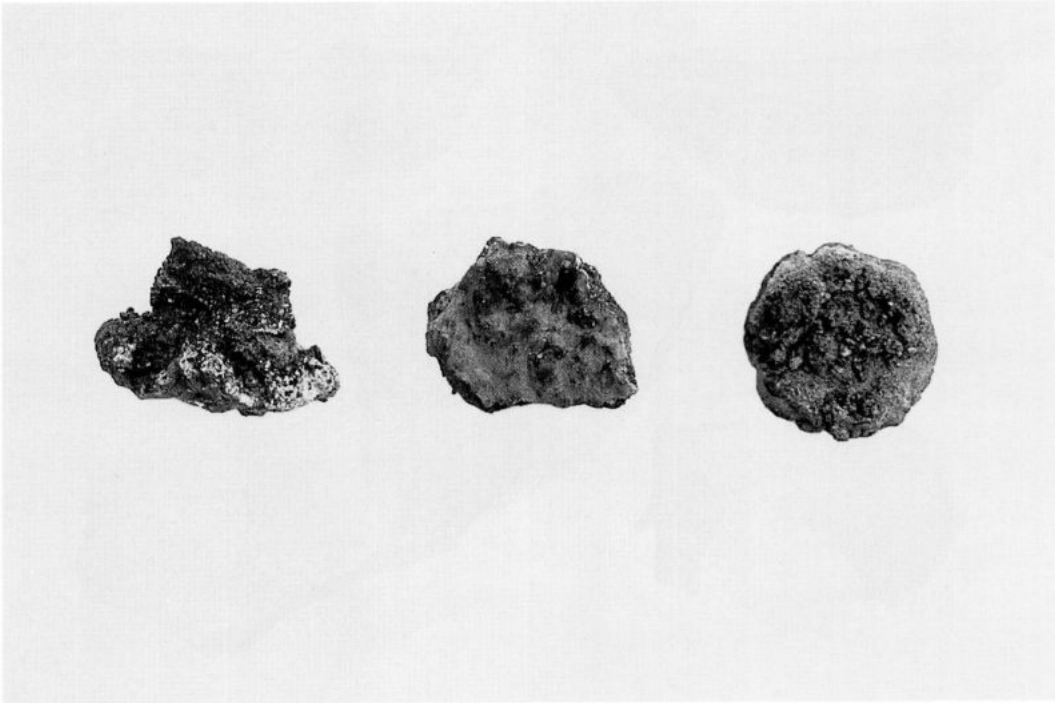


[사진 144]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⑤, 외면)

[사진 145]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철화백자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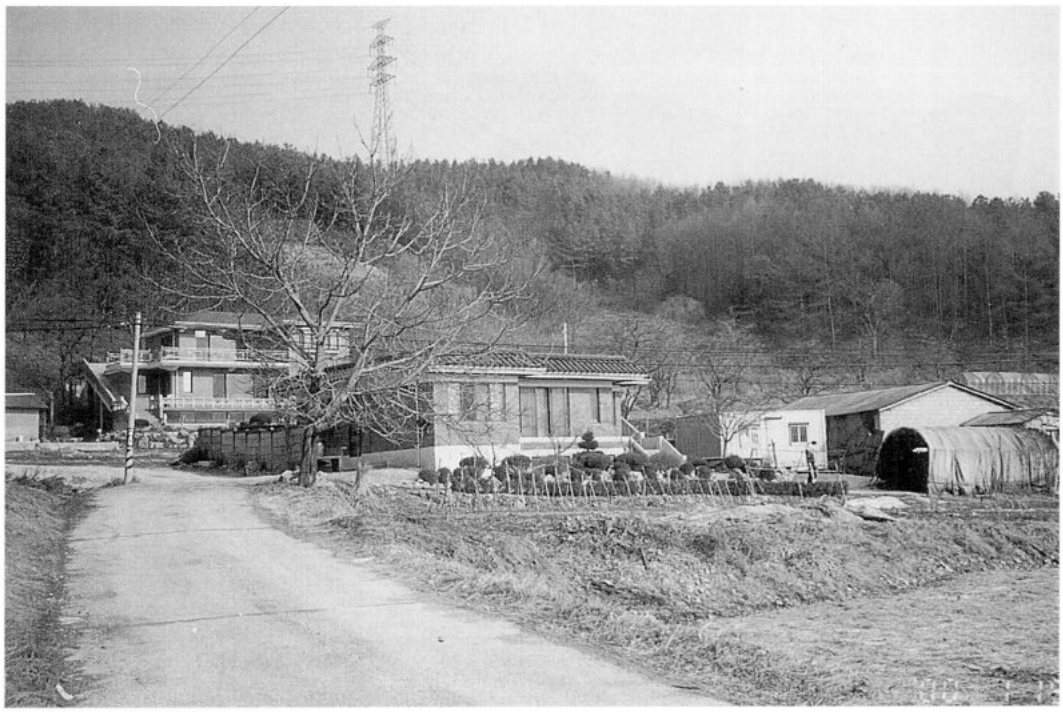
[사진 146]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철화백자 (외면)



[사진 147] 완장리 상동 백자요지 채집 요벽 및 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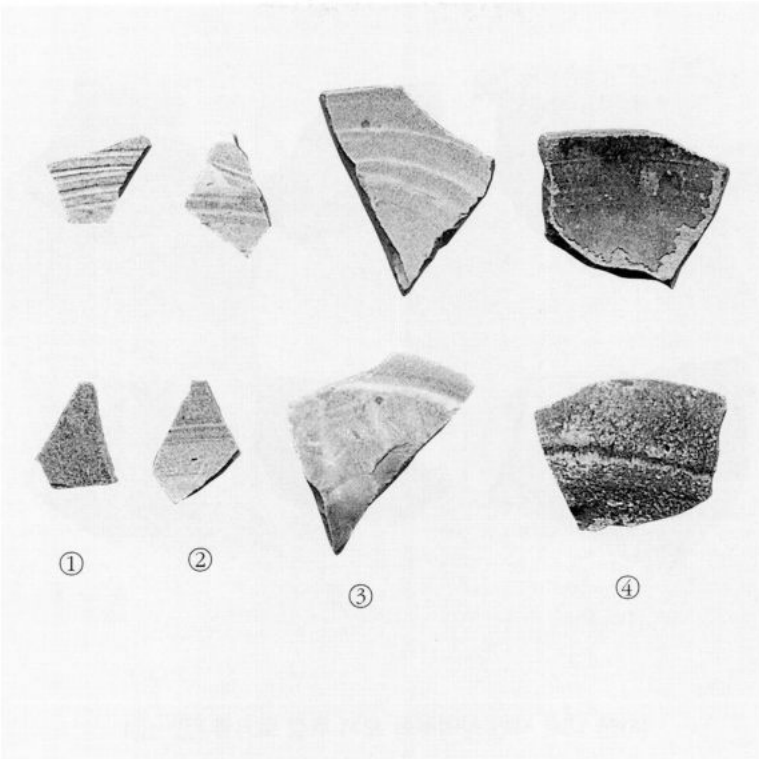
[사진 148] 서리 상덕저수지 요지 전경 (동에서)

[사진 149] 서리 상덕저수지 요지 자기편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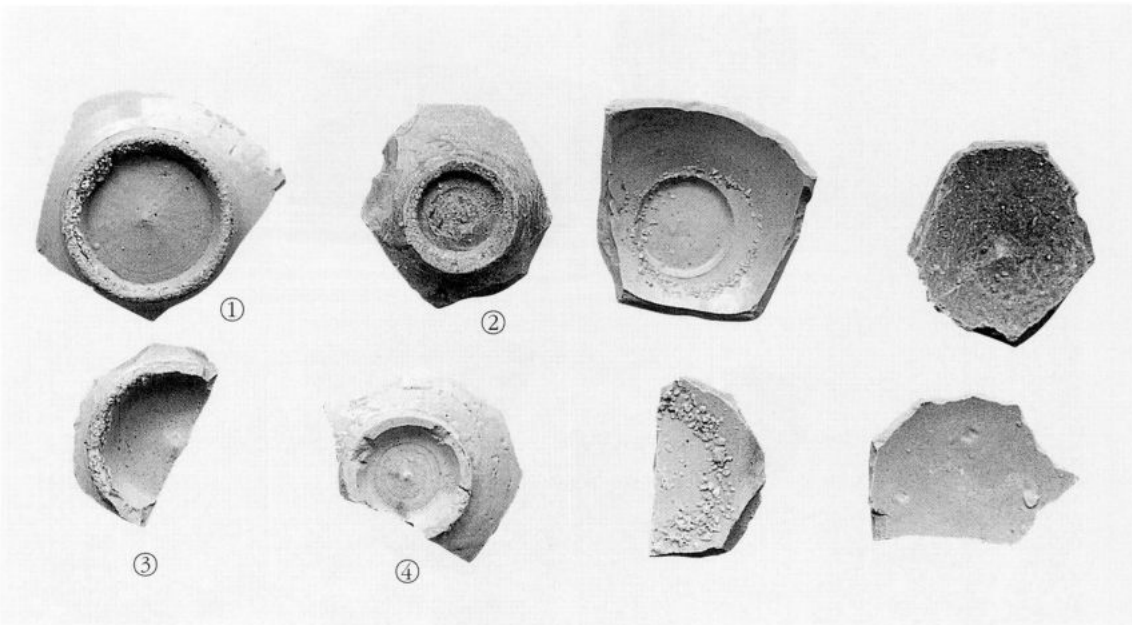


[사진 150] 서리 상덕부락 요지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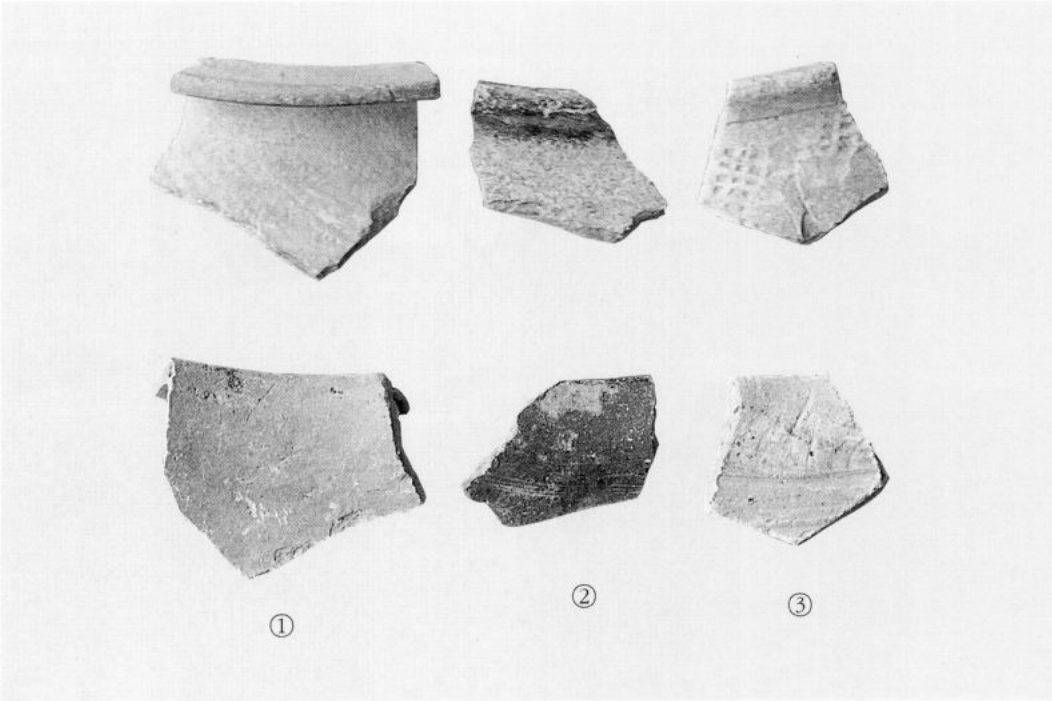
[사진 151] 서리 상덕부락 요지 자기편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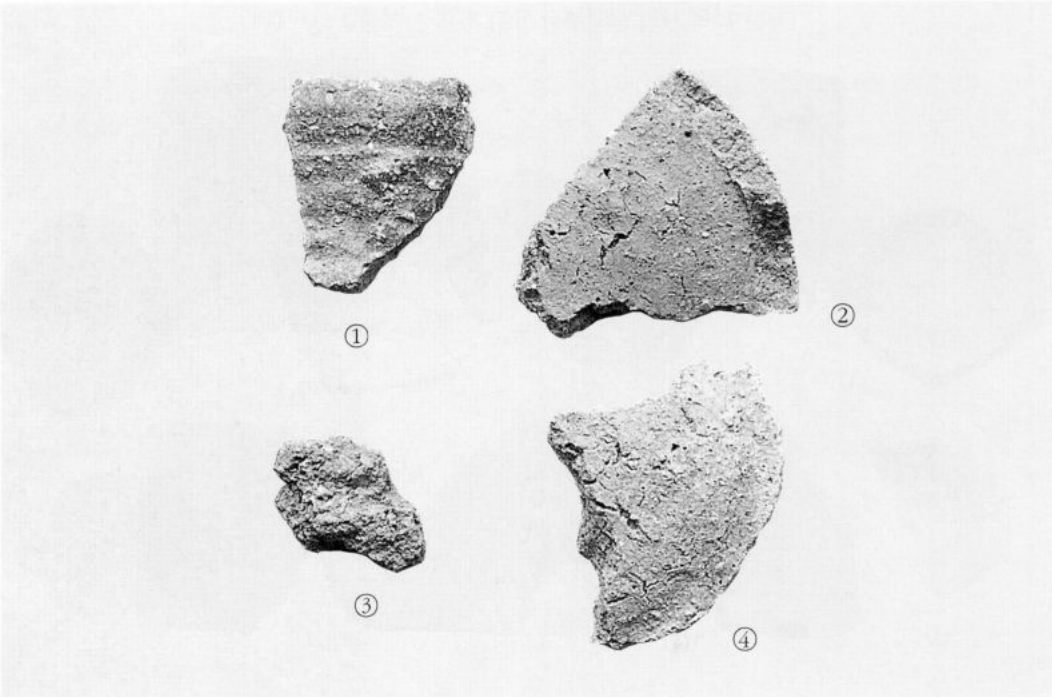
[사진 152]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④)



[사진 153]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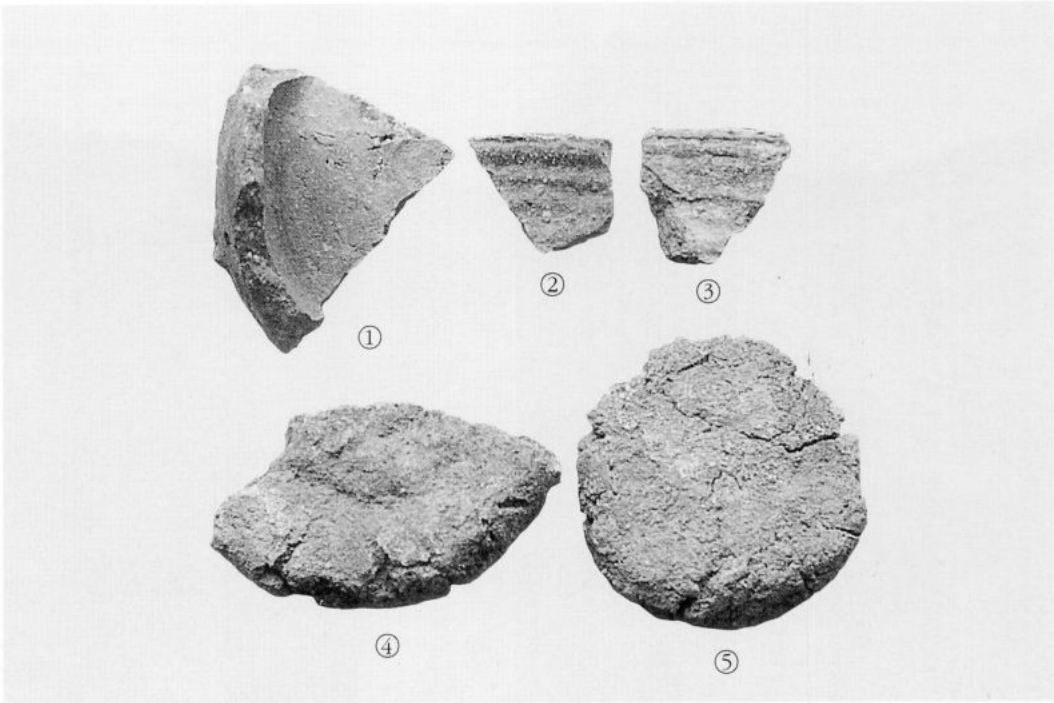
[사진 154]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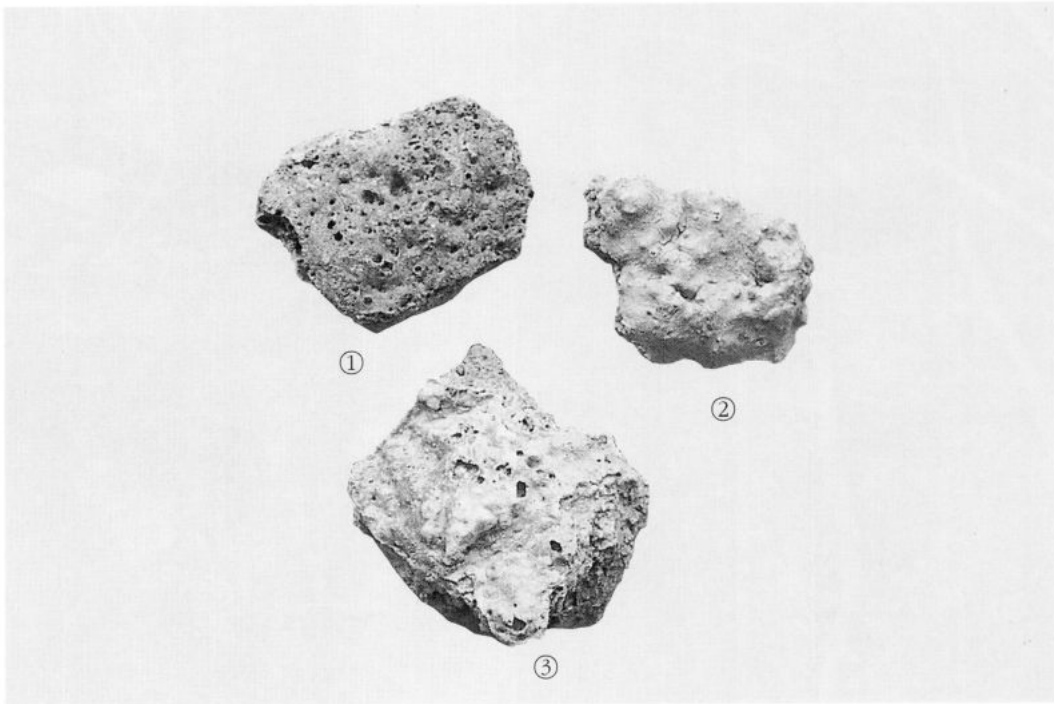
[사진 155] 서리 상덕부락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사진 156]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전경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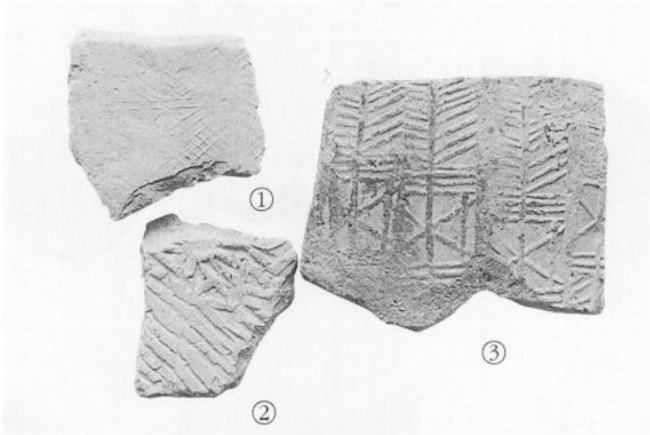
[사진 157]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폐기물 무더기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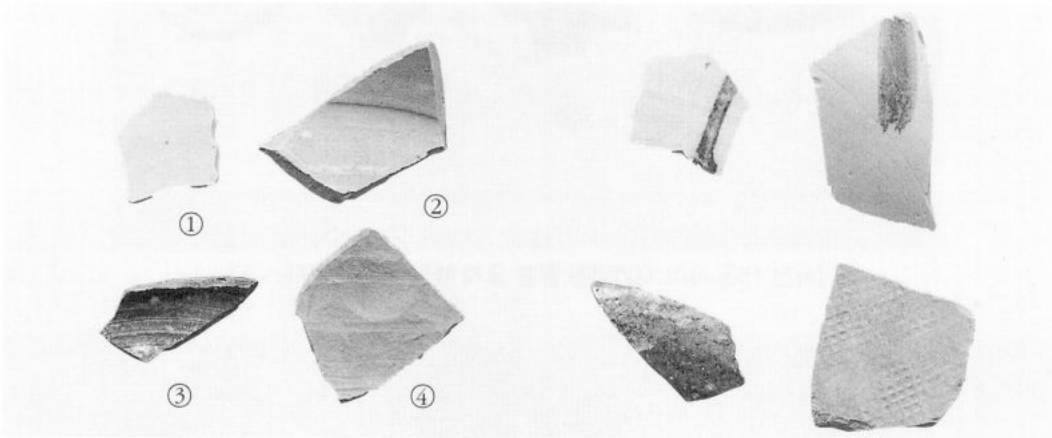
[사진 158]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갑발 · 개떡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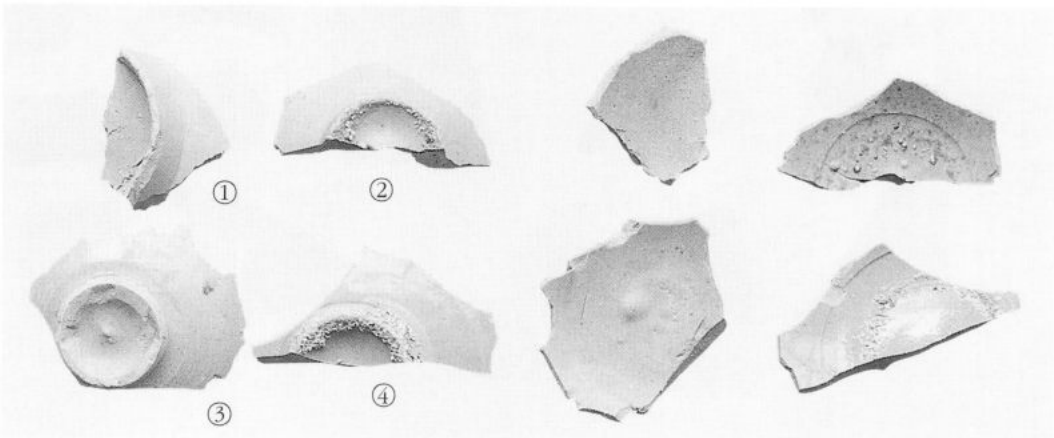
[사진 159]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가마벽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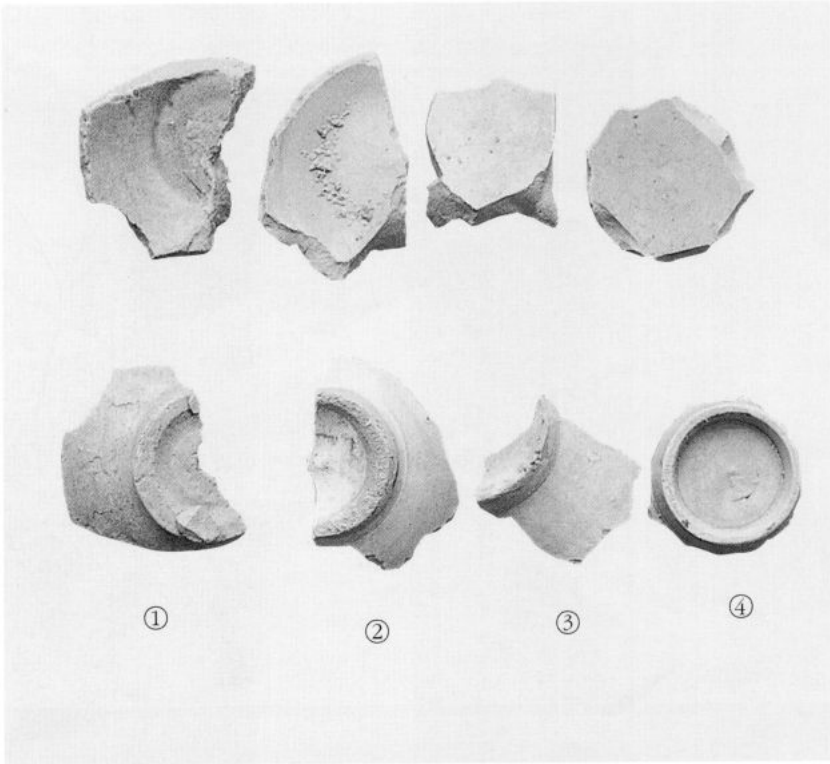
[사진 160]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기와류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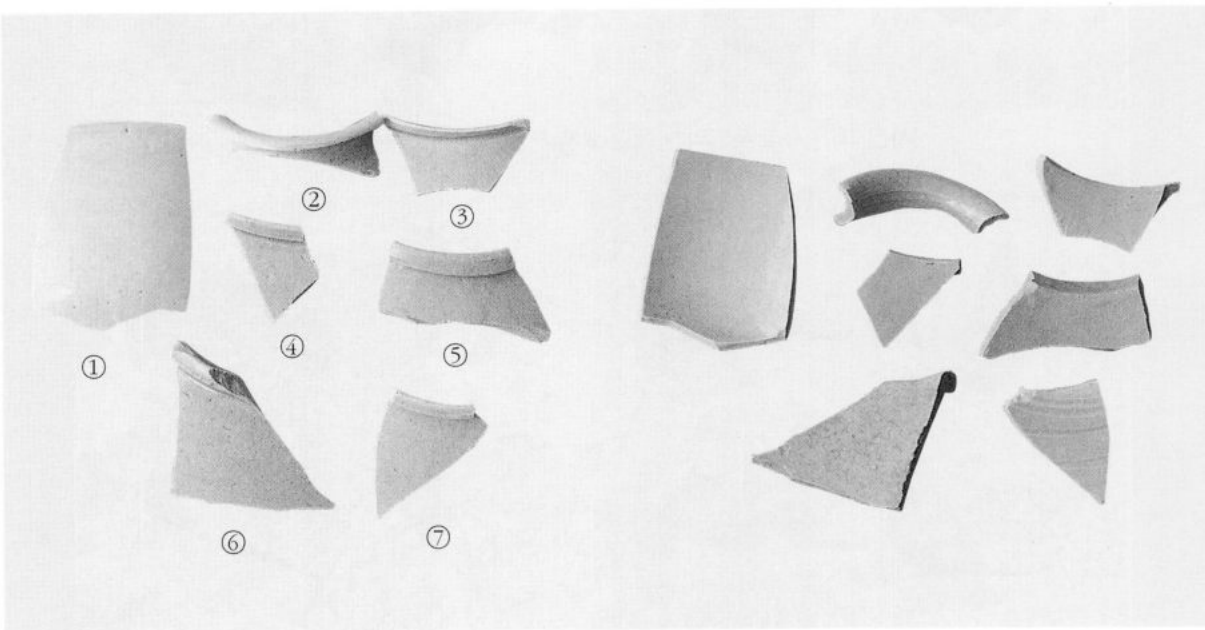
[사진 161]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④)



[사진 162]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④)



[사진 163]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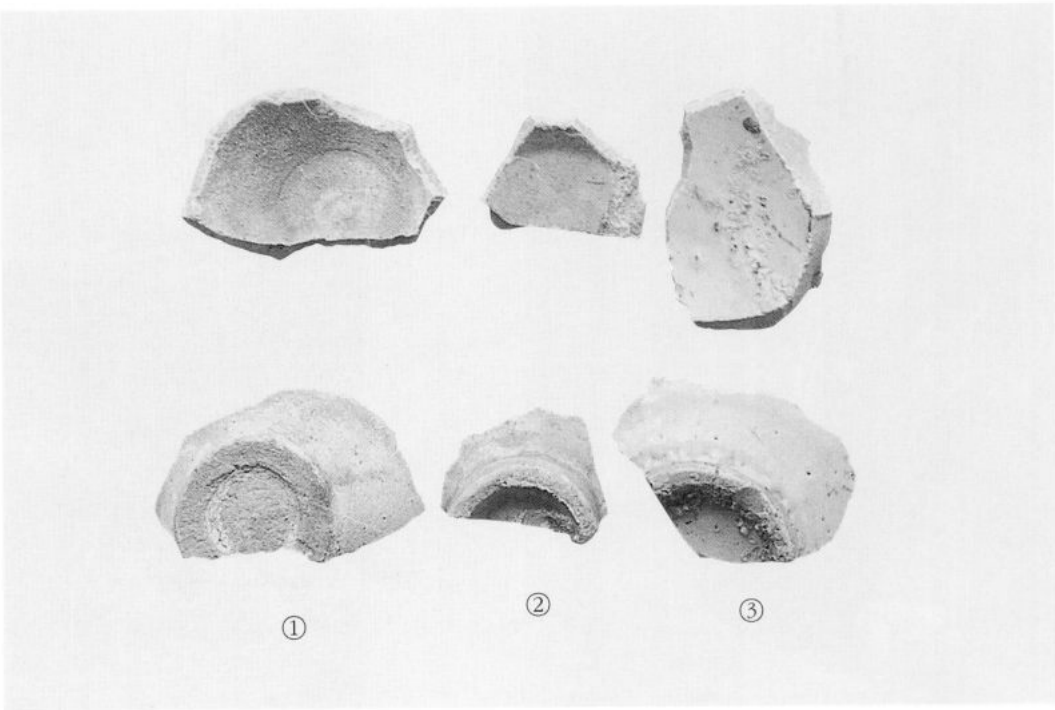


[사진 164] 서리 사기막천 동편 요지 채집 자기류 3 (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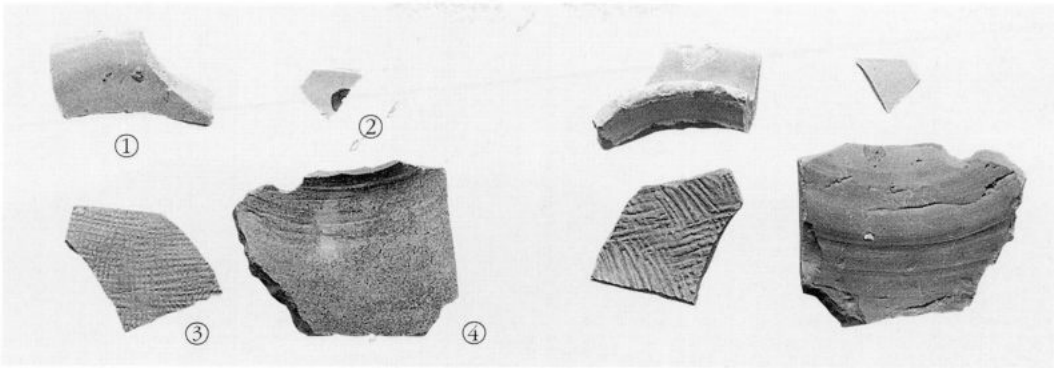
[사진 165]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전경 (남에서)

[사진 166]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근경 (동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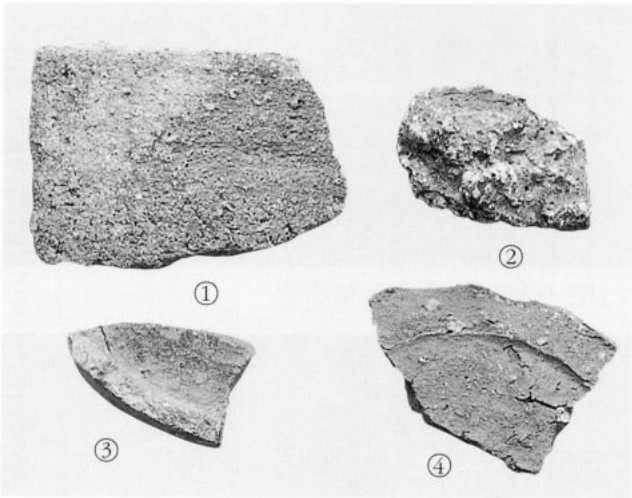
[사진 167]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유물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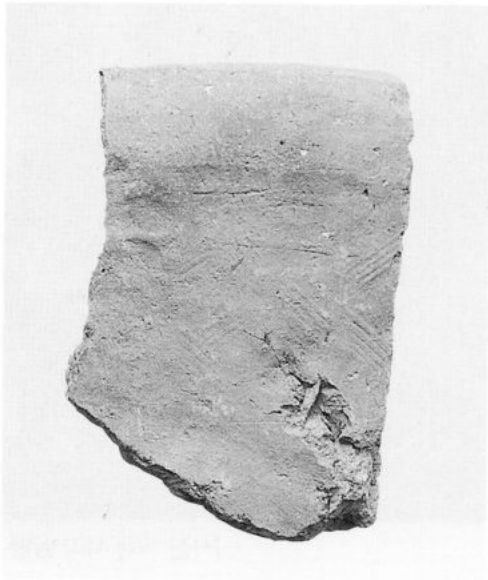
[사진 168]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사진 169]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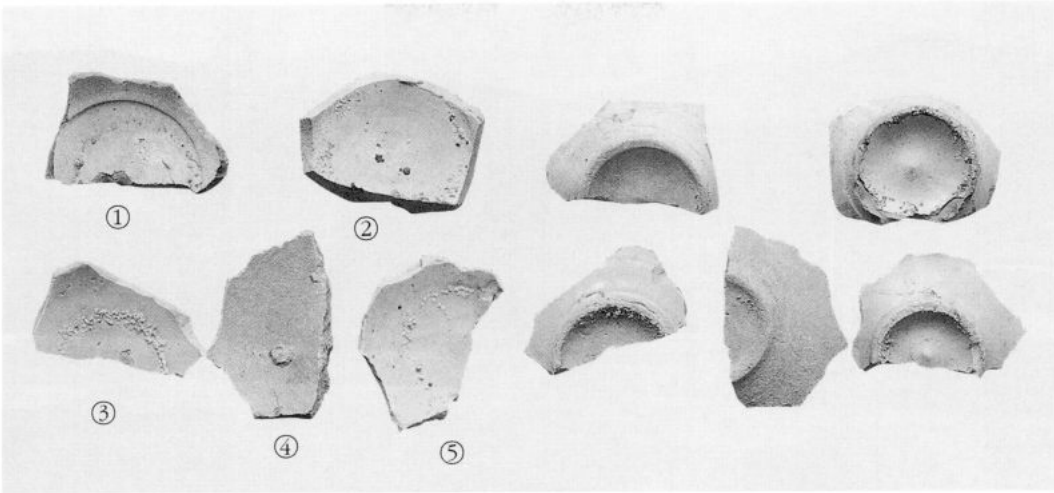
[사진 170]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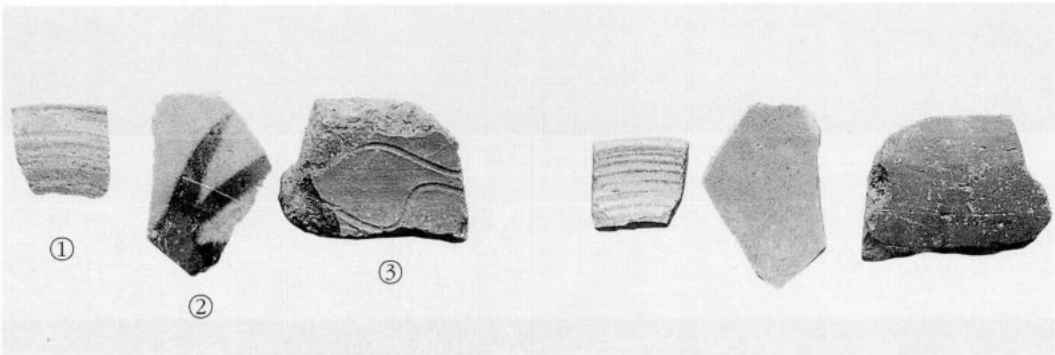
[사진 171] 서리 상반 하게골 요지 채집 기와

[사진 172]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전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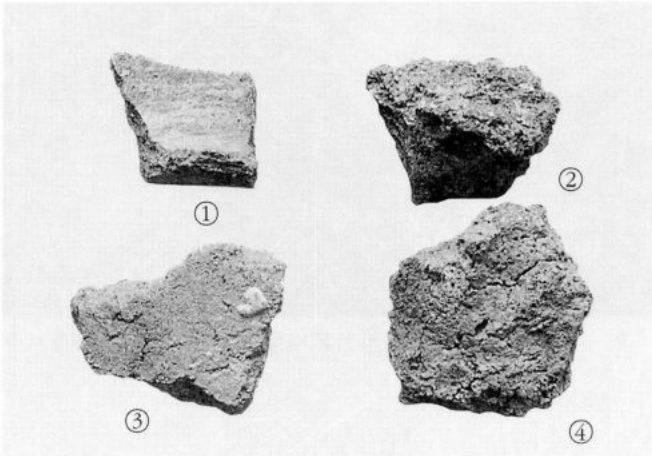
[사진 173]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유물 노출 상태



[사진 174]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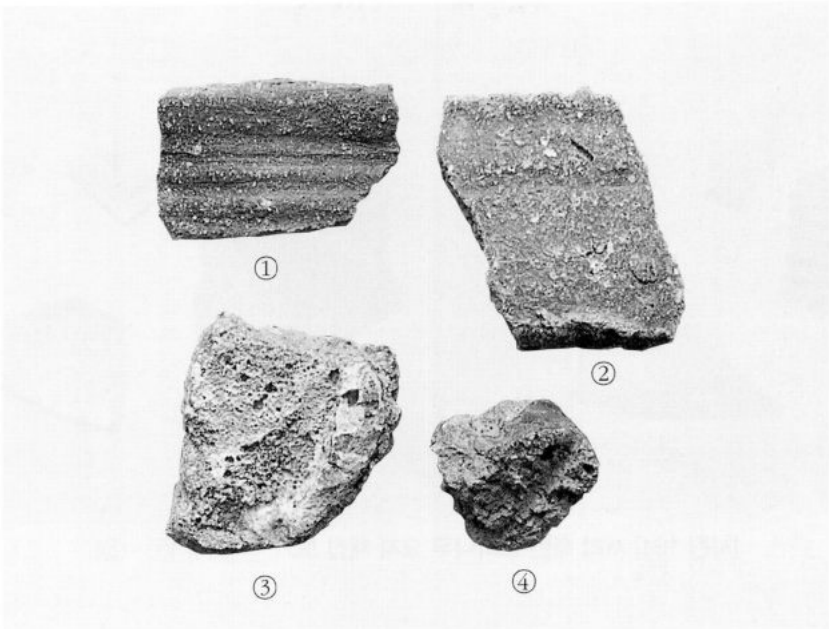
[사진 175]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자기 · 토기류 (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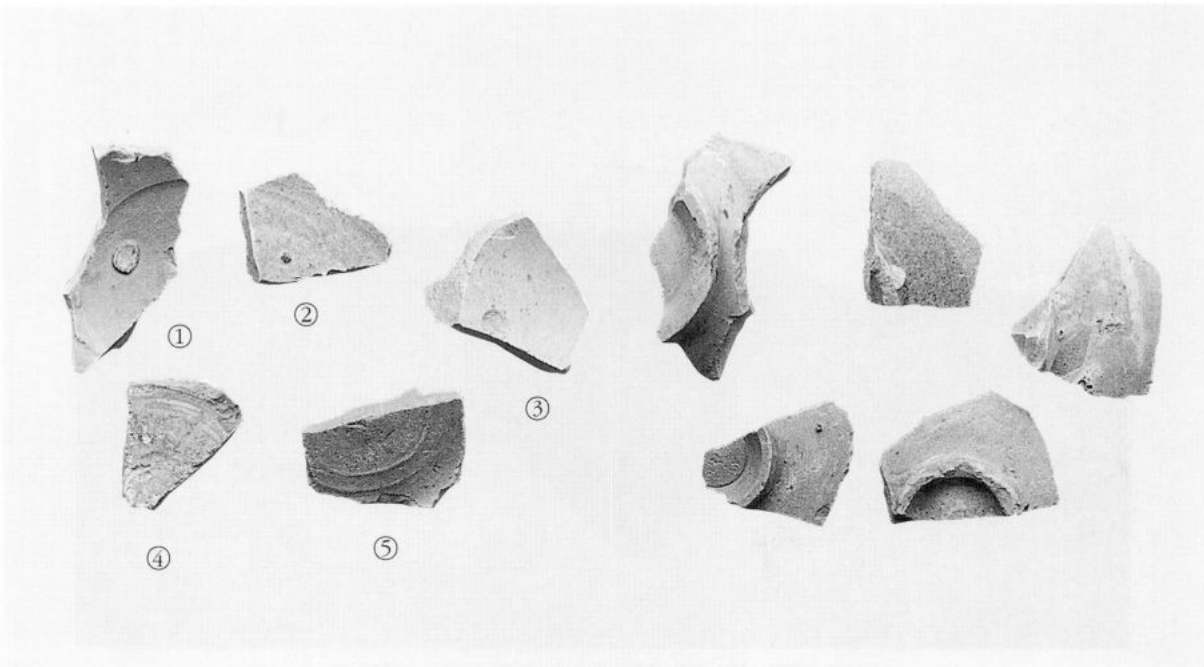
[사진 176] 서리 상반 세장터골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사진 177]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근경 (남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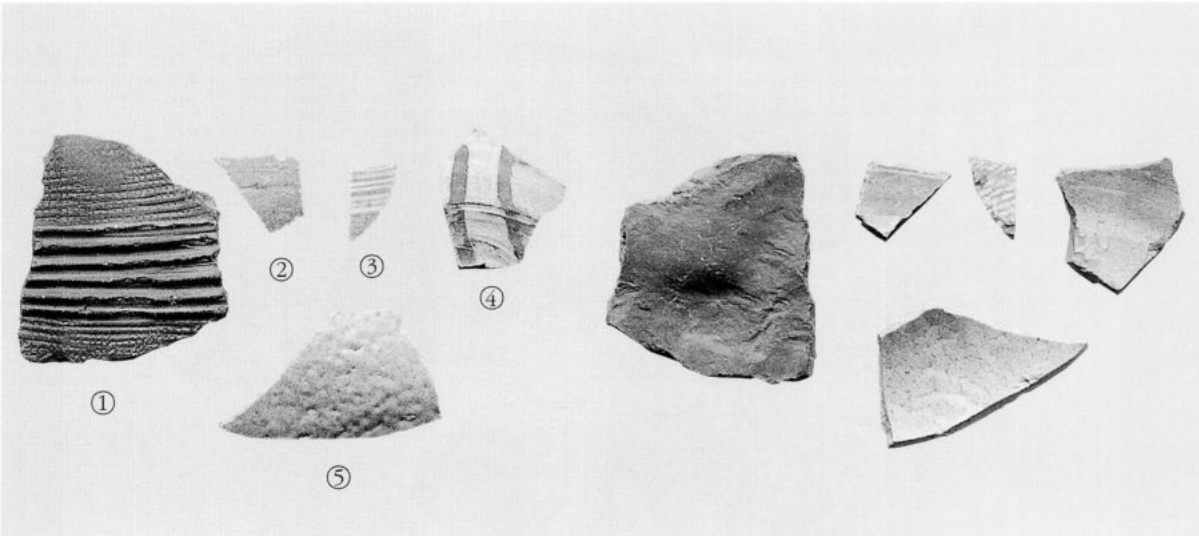
[사진 178]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유물 노출 상태



[사진 179]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갑발 · 가마벽 (①~④)



[사진 180]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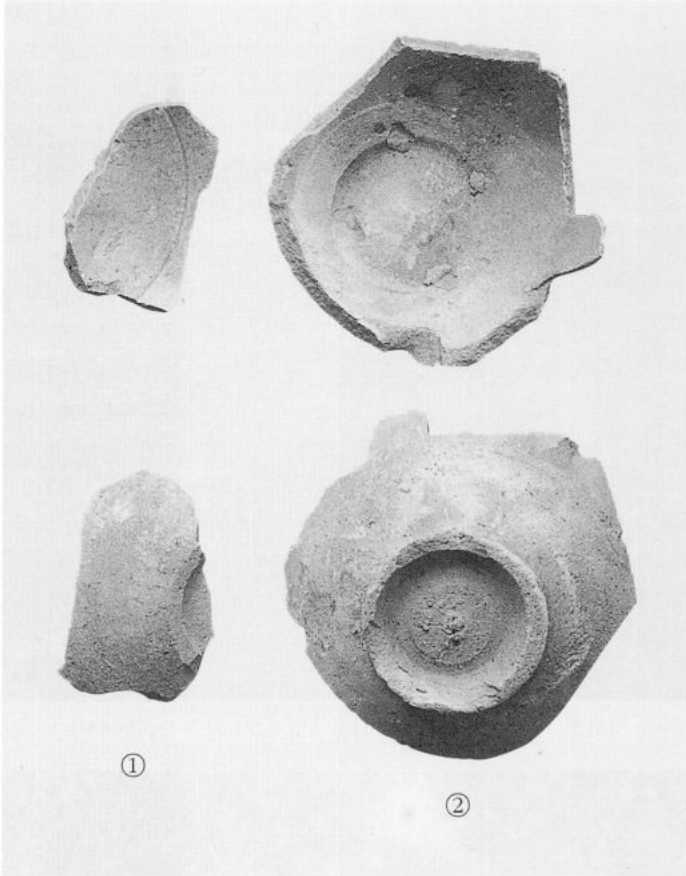


[사진 181] 서리 하반 느티나무 요지 채집 토기 · 자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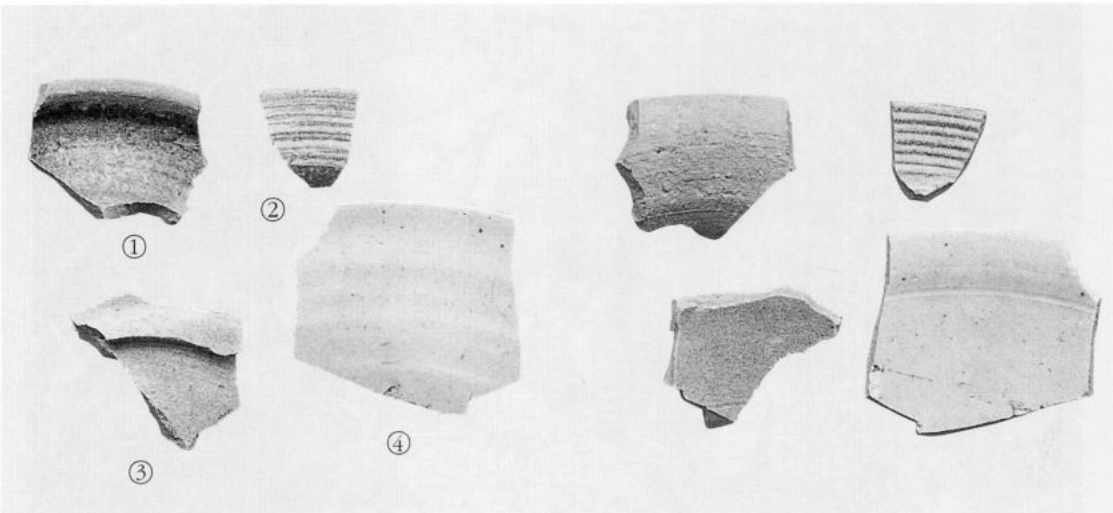
[사진 182]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전경 (남동에서)

[사진 183]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근경 (남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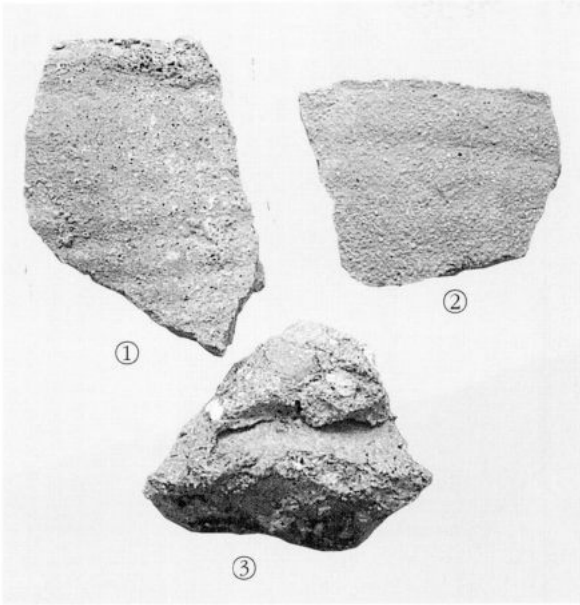
[사진 184]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유물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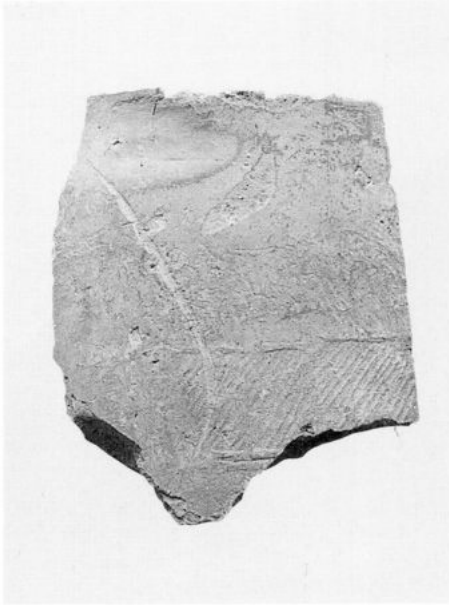
[사진 185]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류 1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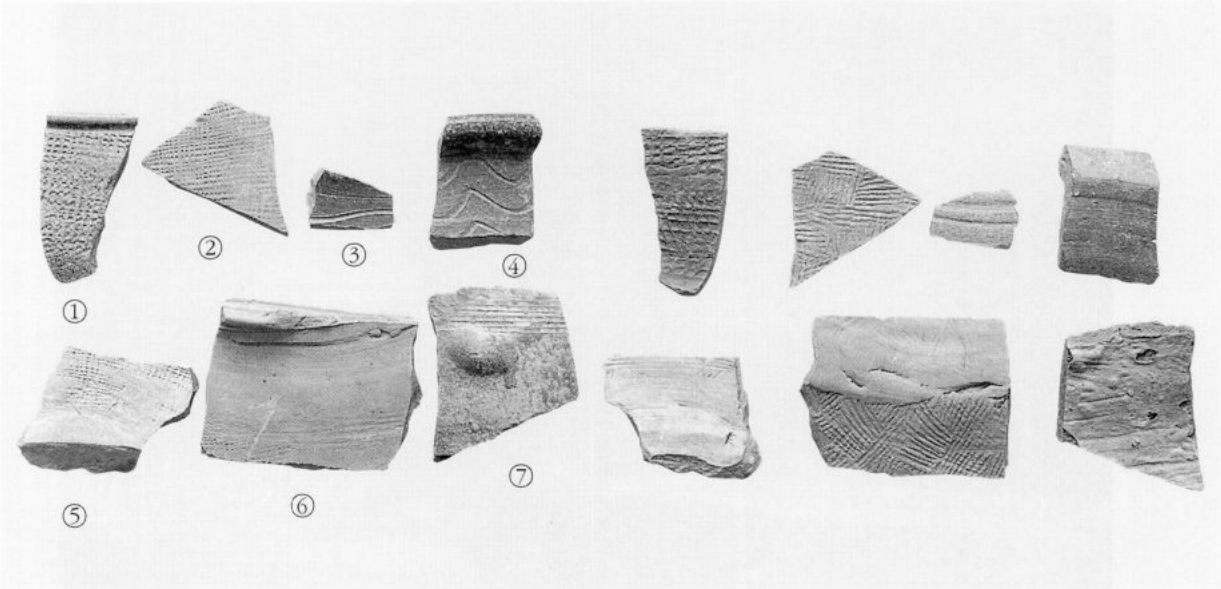
[사진 186]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자기류 2 (①~④)



[사진 188]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갑발류 (①~③)



[사진 189]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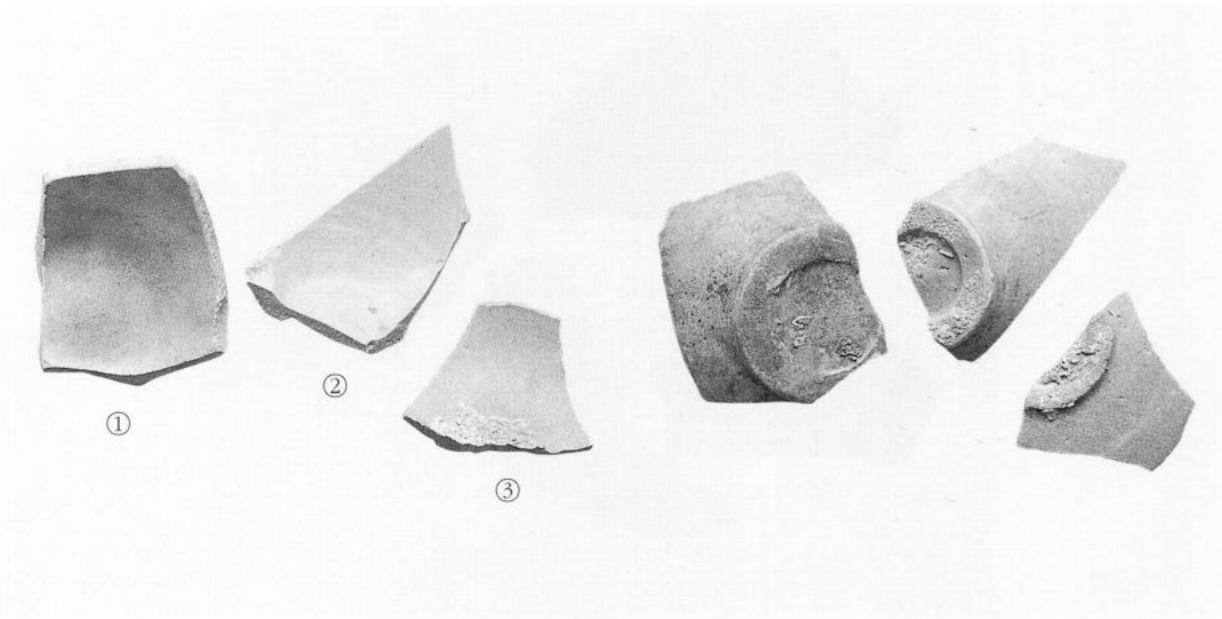


[사진 187] 서리 하반 부터골 1호 요지 채집 토기류(①~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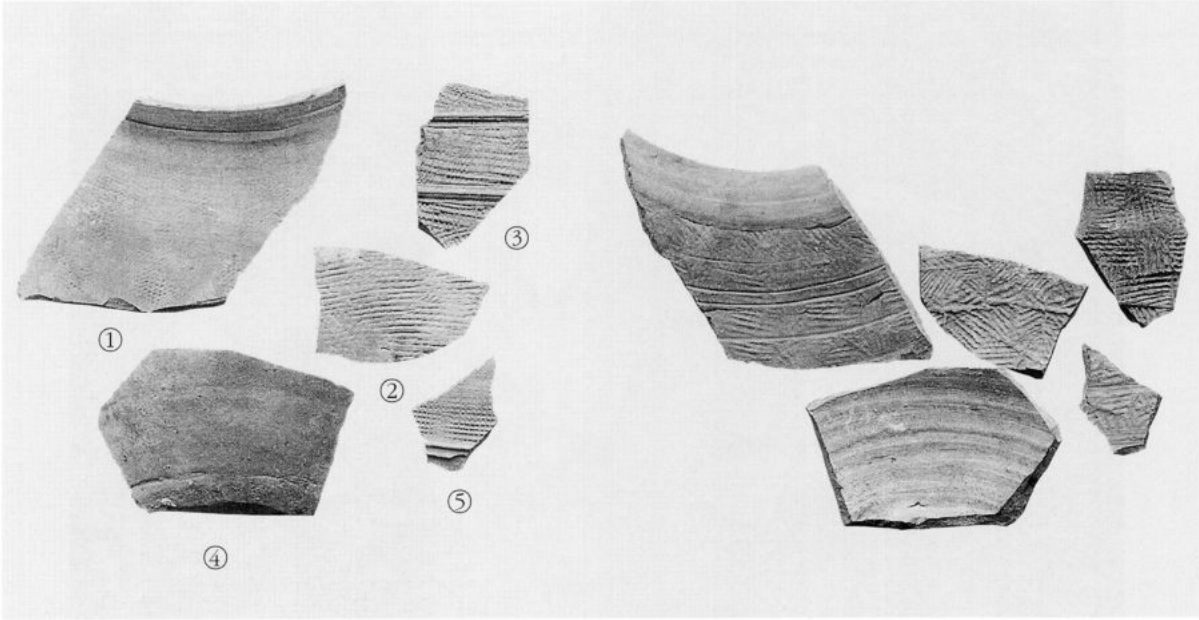
[사진 190]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전경 (서남에서)

[사진 191]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근경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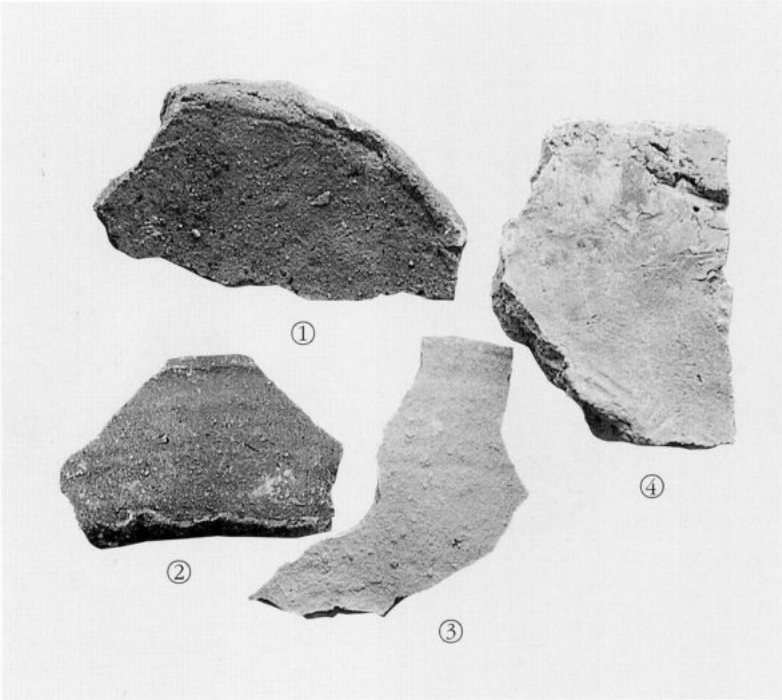
[사진 192]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유물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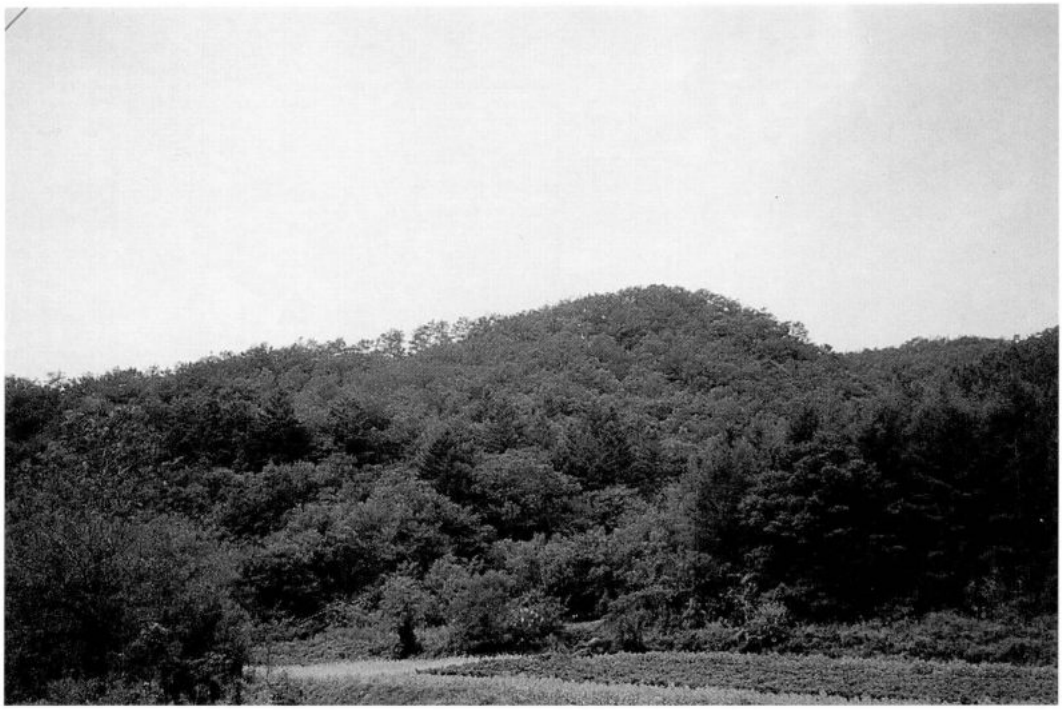
[사진 193]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③)



[사진 194]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토기류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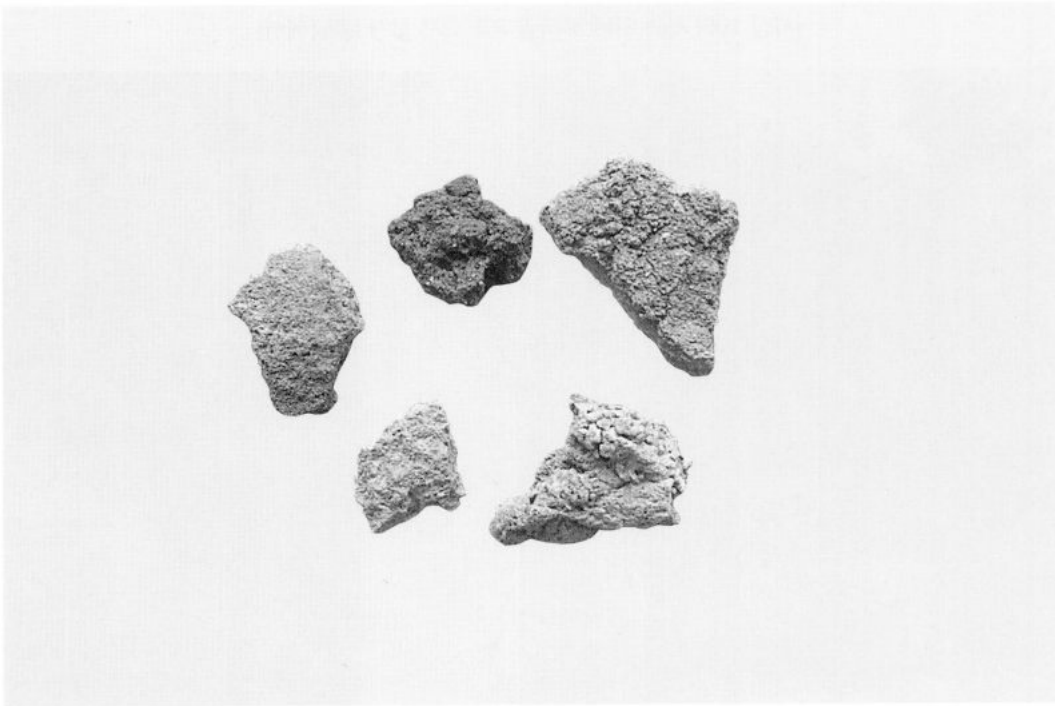
[사진 195] 서리 하반 부터골 2호 요지 채집 갑발 · 기와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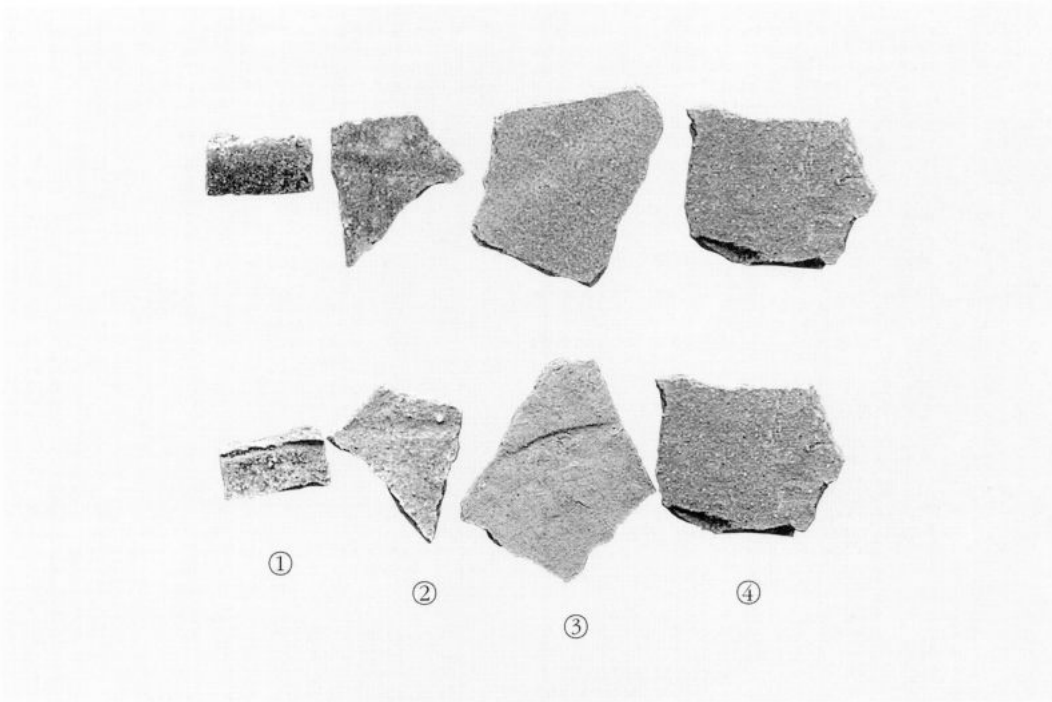
[사진 196]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전경 (동남에서)

[사진 197]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근경 (동에서)

[사진 198]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소토 노출 상태



[사진 199]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채집 가마벽



[사진 200] 서리 하반 부터골 3호 요지 채집 자기류 (①~④)

용인시사총서 11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남사면 및 이동면 일부-

인 쇄 일 : 2002년 9월 25일
발 행 일 : 2002년 9월 30일

편 집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인 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 865-5072 FAX 02) 853-3679

백

여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